

작은 실천 Little Praxis

동정근 / 인하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by Dong Jung-Geun

지옥의 97년은 지나갔으나, 지옥의 98년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오늘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많은 정책 전문가들은 어디로 가고 무책임하게 떠들어대는 정치가들이나, 지나간 후 큰 소리치는 언론매체의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이다. 우리가 배우는 것은 미래를 내다보기 위함이 아니었던가? 과거에서 얻은 지식으로 미래 시행착오를 없애는 것이 전문가의 임무인데 우리에게는 내일을 보는 전문가가 없었던가?

네탓인가? 내탓인가?

우리 건축계도 작금의 세태에 크게 공헌하였던 것을 우리는 아는가?

건축설계 시장 개방이라며, 외국의 건축가는 누가 끌어 들였는가? WTO가? 미국의 압력으로? 건축주의 요구, 아니면 건축디자인의 능력이나 기술의 부족을 메꾸기 위함인가? 그러면 구태의연한 아파트나 중규모 공공건물 그리고 기술능력이 특별히 필요하지 않은 업무시설 등의 현상설계는 왜 외국 건축가들을 끌어들여 현상설계에서 대리경쟁을 하여왔는가? 건축전문지마다 이런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면서 각성을 촉구하였으나, 어느 건축가 하나 관심을 기졌으며 어느 현상설계 심사위원 하나 문제 삼았던가? 우리의 건축설계 시장의 경쟁력이 이토록 떨어진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 급조된 대형설계사무실에서의 저효율 고임금이 대학에서는 인기있는 학과로 만들었으나 오령만 배운 짚은 건축가를 양산했으며, 쉽고 편한 사무실을 찾아다니는 떠돌이 예비건축가들을 만들어 왔다. 설계능력보다는 수주능력이 건축가의 능력으로 인식되는 풍토에서 건축속에 침잠하기보다는 편한 방법을 찾아 건축잡지를 뒤적여 모방과 비슷한 스타일들을 양산해 온데 앞장선 건축잡지는 종류도 많고 장사도 잘되어 왔었다.

부실 설계는 국내건축가의 신뢰를 떨어 뜨려 외국 건축가를 불러 들였고, 부실 공사는 외국 감리단을 불러 들였다.
사치풍조는 사치성 수입자재를 끌어 들였다. 우리 스스로가 불러들인 결과인 것이다. 그간 우리너라는 내실보다는 외형, 안정보다는 팽창, 효율성보다는 지표우위의 경제원리를 고수하여 왔다. 능률적인 경제성장을 위하여 국가는 대재벌의 보호자 역할을 하여 왔으
며 팽창위주의 정책을 펼쳐 왔다. 그 덕에 자동차, 조선사업 등 중공업의 육성으로 기간산업을 정착시킬 수 있었고 첨단 기술에도 전
하여 성공을 이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 와중에 경제는 대재벌에 편중되어 왔고 또한 권력도 집중되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가
중되었던 것은 누구나 인식하고 있는 사실이다. 이런 대규모 권력이 정치나 사회, 문화, 경제에 파급을 끼쳐왔던 사실도 우리는 알고
있다. 큰 목표 큰 목소리, 대규모 개발과 대규모 문화행사에 우리는 감탄하여 왔으며 국력의 상징으로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대규모 권력구조 속에서 구축된 땅에서, 우리가 머무를 곳과 시선을 끌어들 장소성과 지역성을 잃어가는 건축환경을 보게되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권력이나 대규모 자본의 종속성 속에 할몰되어버린 무의식적인 건축행위들, 즉 이러한 권력집중 현상은 대형문화를 만들면서 우리의 건축문화 가치기준을 흐리게 하여 왔다.

대규모 문화행사에서 볼 수 있는 비문화적 행위들..... 올림픽이다. 엑스포다 하는 세계 대 제전 등 대규모 축제를 통해 우리는 국력을 확인해 보려 하지만 어설픈 준비는 관람자들을 실망시켰으며 우리의 실생활과 동떨어진 양상만을 보여왔다.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른 우리에게 남은 것은 행사를 끝내고 벌판에 덩그러니 남아있는 흉물스런 거대한 구조물뿐이다. 요즘은 지방마다 세계제전을 유치하거나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대규모 행사를 치르고 있지만 남는 결과는 포장마차와 차량의 무질서, 그리고 소속을 알 수 없는 쓰레기만이 남는다. 대규모 문화행사는 대중 소비문화만을 부추길 뿐이다. 대중 소비문화의 특징은 귀한 것을 소비하려는 경향으로의 변화에 있다. 소비는 문화적, 사회적 신분의 척도로 인식하고 누구나 신분의 상승을 위하여 소비를 문화적으로 향유하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소비문화가 발달할수록 소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필요로 한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 많은 종류의 물건과 많은 기능이 모여있는 곳이 필요해진다. 대규모 문화공간은 귀족적인 향유의 개념에서 대중소비의 마당이 되어 우리 주변 곳곳에 건립될 것이다.

건축물도 소비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몇 가지의 가치를 변화시키고 있다. 가장 중요한 변화가 독자성의 포기이다. 독자성을 포기하고 모조된 전통, 자본과 권력 앞에 진실과 허위, 선과 악의 관념적 구분마저 혼란시키게 된다. 단기간에 거대문화를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오류, 그것은 신기루를 쫓아 해매는 광기에서 생겨진 결과인 것이다. 작지만 실속 있는 문화행사 그리고 꾸준한 실천이 모여 저력을 형성하게 된다.

대규모 개발계획이 낳는 비 장소적 행위들..... 대규모 자본투자가 가능해지면서 지역개발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시행되어 왔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은 주변 지역의 규모나 지역 성격에 무관하게 시행되면서 주변 지역과 끝없이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개발이 가능한 땅은 권력과 결탁되어 개발이 불가능한 지구가 도시기능과 무관하게 정책적으로 변경되거나 개발 우선 순위가 바뀐 비도덕적인 결과의 땅들도 있다. 대규모 개발은 재벌 권위주의로 발전하여 재벌끼리의 충수 경쟁에 몰입하고 있다. 63층에서 100층 이상의 높이경쟁은 토지이용의 효율성보다는 패권싸움인 것이다. 하늘에 도전하는 자본력과 기술력은 그 한계를 모르고 치솟는 바벨탑을 연상시킨다. 지방화 시대가 되면서 지방 자치단체에서도 지방수입을 목적으로 관광단지개발을 서두르고 있다. 이런 무계획한 대규모 단지개발은 또다시 장소성을 파괴하는 원인이 될 것이다. 관광상품이 전국 어느 지역이나 같은 상품이 진열되어 있듯이 급조된 관광지 역시 비 장소성을 만들어 내고있다. 초월에서 포월로, 나는 놈 위에 가는 놈이 있다고 한다. 작지만 중요로운 건축, 작지만 가고싶은 장소가 모여야 살고 싶은 국토가 형성될 것이다.

권력과 자본의 집중으로 인한 문화의 획일성..... 문화의 상업화는 자본가들에게 소유욕을 자극하였고 그들은 자산의 가치로 문화를 보았다. 이러한 현상은 대기업의 사옥을 어느 지역에서나 같은 형태로 짓고 있으며, 쉽게 돈으로 산 외국의 건축문화를 세계화의 기수인양 자랑스럽게 들여오고 있다. 또 관 주도의 건축들은 지역문화를 획일화시키고 있다. 문화란 한 사회 그리고 한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정신적 가치체계의 표현이며, 생활방식의 총체이다. 한 사회가 어떤 독특한 특성을 지니게 하는, 그래서 다른 사회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고, 각 구성원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작은문화인 것이다. 문화는 금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모랜 역사를 통하여 다듬어지고, 삐화되고, 내면화되면서 하나의 물리적, 정신적 총체로서 구현될 수 있는 것이다. 문화는 개인의 힘만으로 형성되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문화가치가 모여서 색솟는 지역문화가 생기고, 공동문화가 개인의 생활 속에 침투되어 녹아질 때 생활문화가 점착되어 진다. 가정에서부터 작은 과거유산을 아끼는 마음과 현실을 창조하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 미래를 향해 투영되어질 때 작은 문화는 발전하는 것이다.

작은 것에 대한 새로운 가치인식
그리고 작은 실천이 모여
우리의 저력이 형성되며,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바른 마음이 되는 것이다.

Pundang Residence

박연심 / 건축사사무소 장원
Designed by Park Yeon-Shim

건축개요

위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57-10(분당신도시 특별설계구역 #3 11-6-12)

대지면적 621.60m²

지역지구 일반주거지역

건축면적 245.91m²

연면적 324.06m²

건폐율 39.56%

용적률 49.74%

조경면적 39.89m²

규모 지하1층, 지상2층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외벽재료 노출 콘크리트워 실리콘 스프레이

Location 57-10, Pundang-dong,
Pundang-gu, Seongnam-Shi,
Kyeonggi-do

Site Area 621.60m²

District Residence

Building Area 245.91m²

Total Floor Area 324.06m²

Building Coverage Ratio 39.56%

Gross Floor Ratio 49.74%

Landscape Area 39.89m²

Total Floors 2 Stories, 1 Basement

Structure Reinforced Concrete

Exterior Finishings Silicon Spray Over
Exposed Concrete

본란사진 : 박영체 Photographer : Park Young-Chea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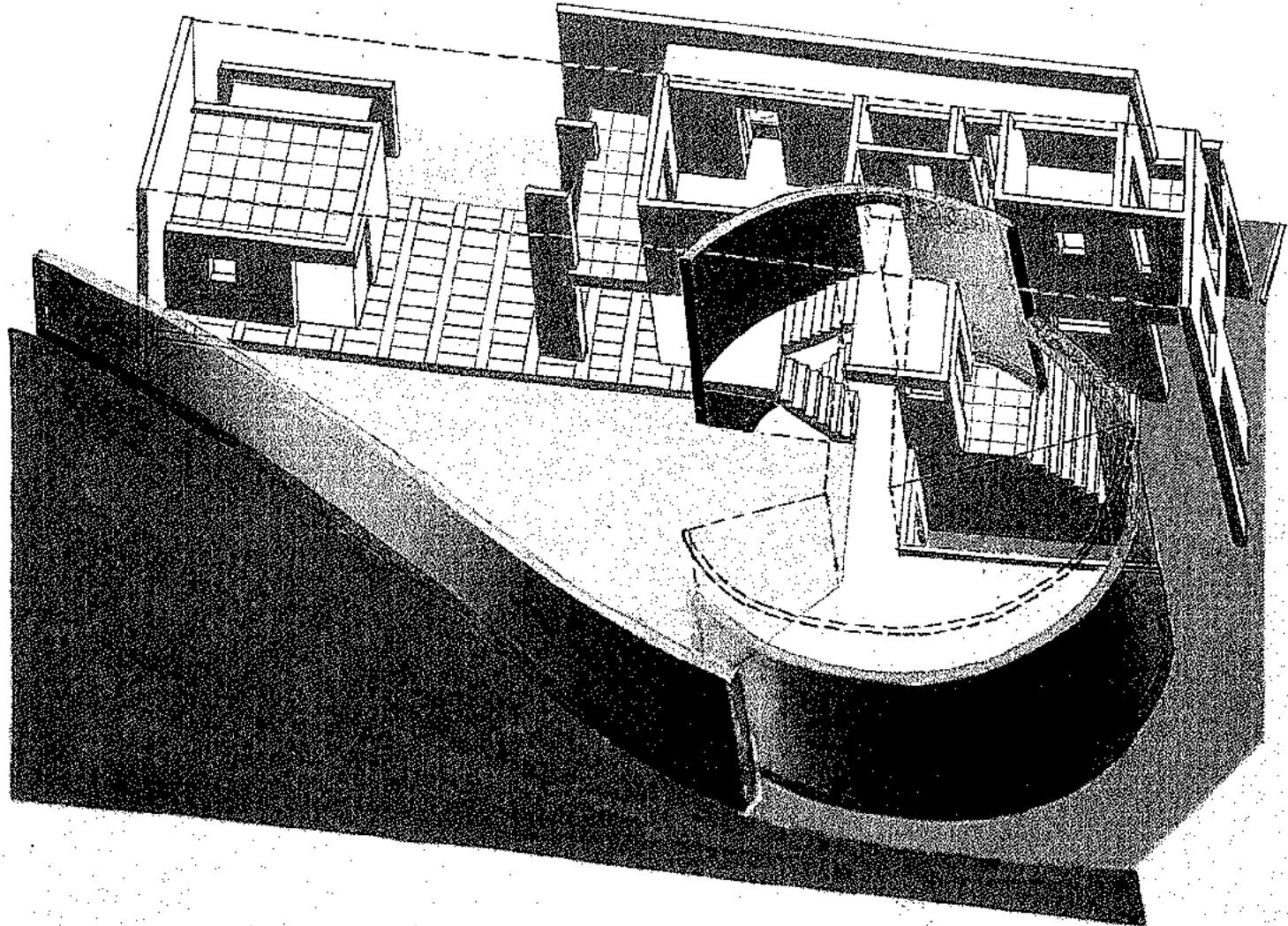
계획 부지는 남서쪽으로 무려 5m 이상의 마운팅이 있고 옆으로는 경사가 30도나 되는 도로가 지나가는 모퉁이의 대지이다. 새롭게 구획된 단지는 과감한 토목설계로 인해 절개되고 변형되어졌다. 그렇지만 아직도 동네 약수터로 통하는 오래된 도로의 흔적이 남아있다. 이렇게 남아있는 흔적들은 복합적인 컨텍스트가 되어 자연스럽게 계획을 유도한다. 이 약수터로 통하는 길은 통행량이 많지는 않으나 길건너의 연립주택 부지가 만드는 프라이버시의 침해라는 점에 주안하여 도로쪽으로는 건물과 연속성을 준 담이라는 경계가 필요했다. 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시각을 막기 위하여 긴스판의 넓은 슬래브를 보내 주어 그 밑에 사랑채와 종마당을 두고 내부 공간의 깊은 뷰를 유도하였다.

여기에서 깊다는 의미는 우리 전통건축에서 안마당과 바깥마당의 중첩, 안채와 사랑채, 바깥채의 구분, 안주인과 행랑채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계층별 구분을 주기 위한 레벨의 차이 등에 의해서 생긴 공간의 깊이를 해석해 본 것이다. 우리의 전통가옥은 어떤 구분을 위해 뚜렷한 경계를 창출하지 않고 그런 환경만을 조성한다. 그러므로써 생겨나는 것은 중첩적인 관점, 반복된 공간의 유동성, 그리고 시간성 - 반복된 공간의 흐름을 레벨이 다른 층계를 오르내리면서 느낀다 - 깊은 시각 등일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이 이 주택을 다루어보려고 했던 생각들이다. 설계기법으로써의 이러한 깊은 평면은 무한해 보이는 공간과 동일한 반복을 통해 가치를 획득한다. 이러한 반복은 기둥 - 벽의 추상적인 조건을 약화시키면서, 그 사이의 공간 즉, 리듬을 고조시킨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간격 - 공간적, 시간적 - 이다. 반복, 무한성, 그리고 유동성은 우리 전통건축의 언어이자, 현대의 언어들이기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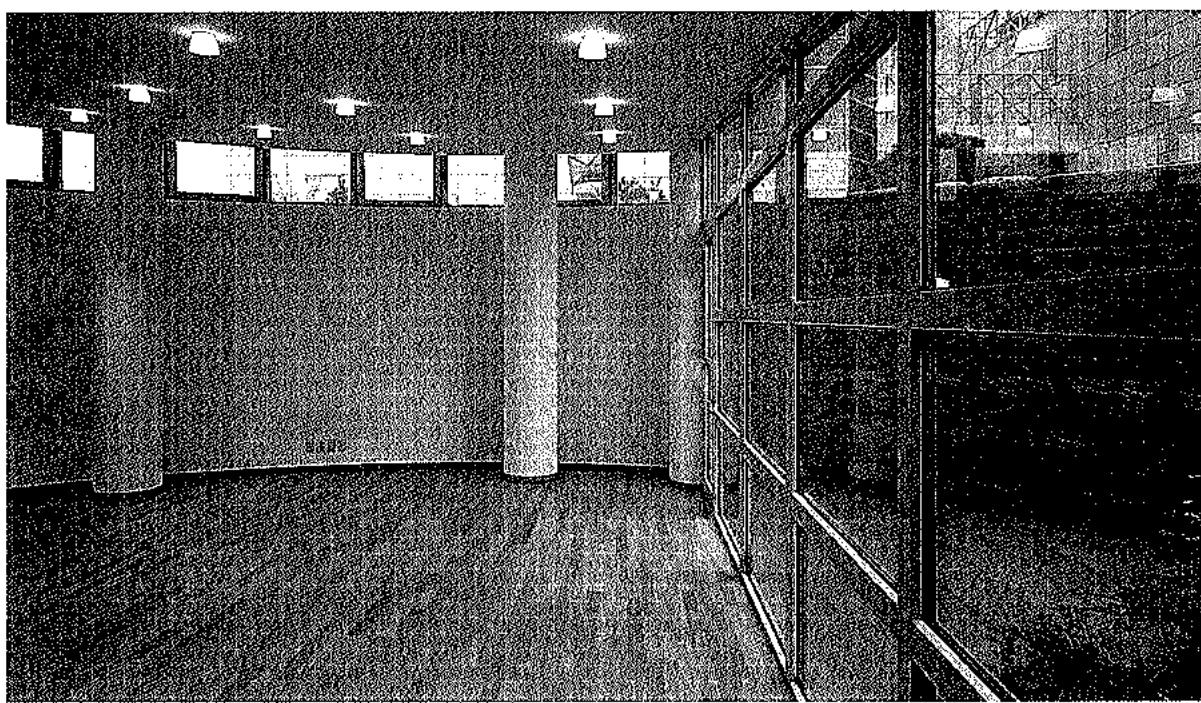
이런 깊은 뷰는 외부에서 내부, 내부에서 외부를 연결할 뿐만 아니라 외부-내부-외부-내부를 순환하는 장치를 갖고 있다. 이것은 크기를 다루는 것은 아니다. 불분명한 크기라는 면에서 광대함과 무한성은 다르다. 광대함은 초점이 없고 끝에 도달할 필요가 없으나, 무한성은 시각적인 눈의 이끌림과 단순한 집중점을 제공한다. 건축물과 배경의 전통적인 변증법적 관계는 어느 정도까지 이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독립적이다. 실내에서 실외를, 실내의 구획에서 견고한 요소를 분리하는 것은 쉬웠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구분이 더 이상 그다지 정확하지 않다. 이중성을 극복하면서 두 개념은 하나의 물체 속에서 어우러진다. 투명성이라는 이론에서는 건축물체의 배경이 강렬한 지점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중립적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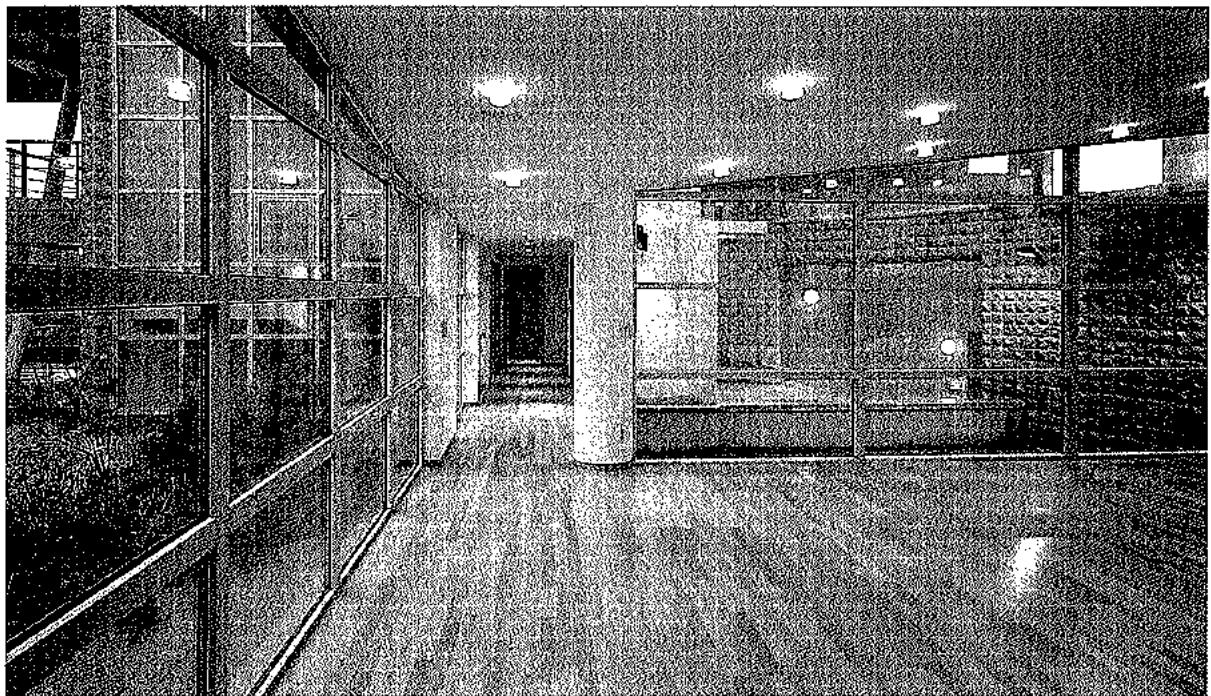
생생한 속에서 봄 즐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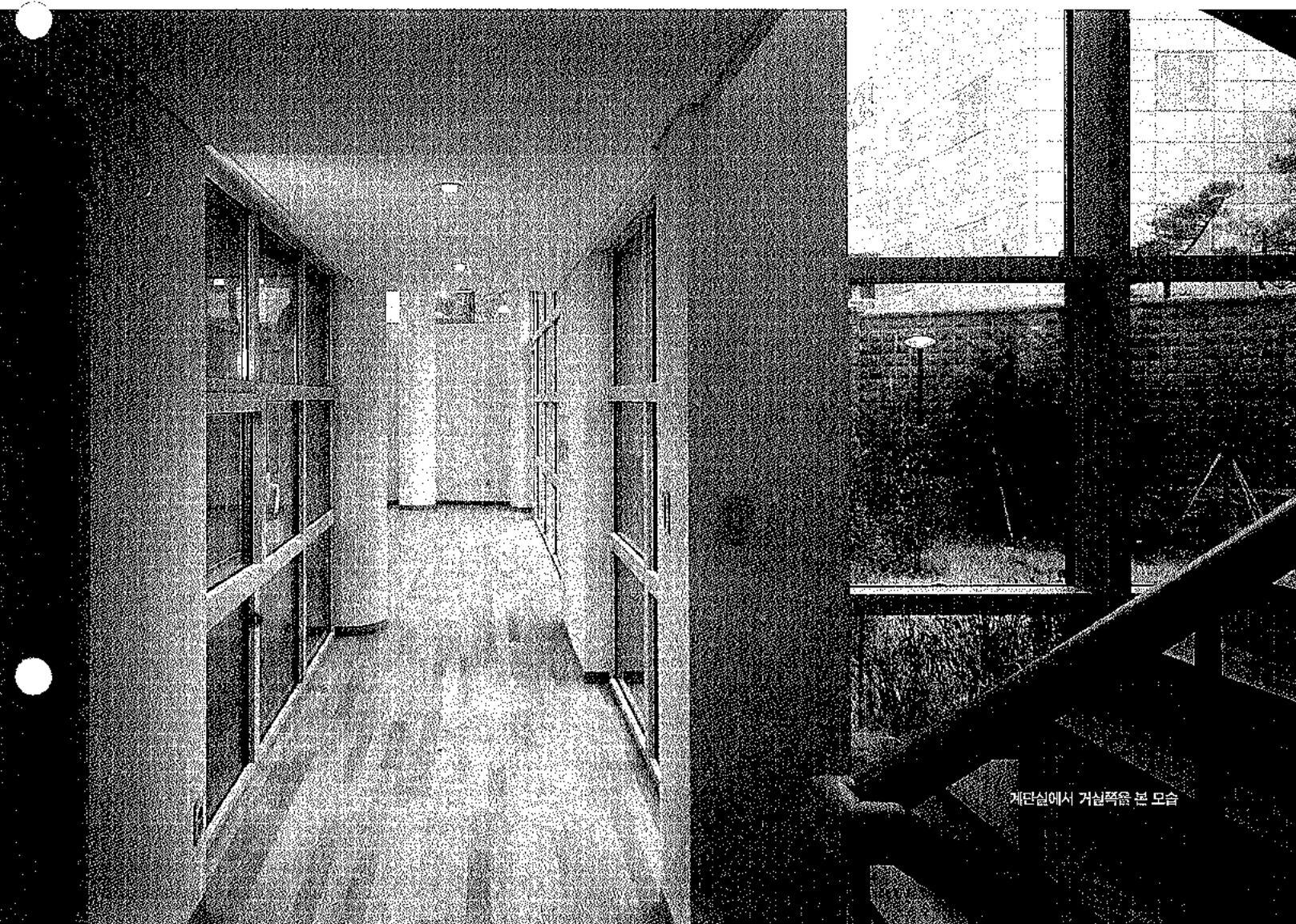
개념 디어그램



담장과 내부벽의 연속성



거실에서 입구부분을 본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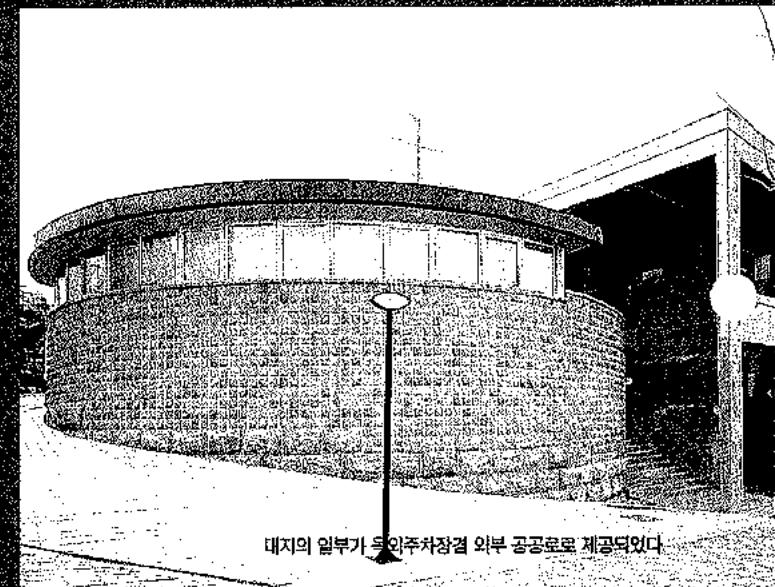
계단실에서 거실쪽을 본 모습

The site has to its south west a 5m-high mound, and is located at a corner of a slanted road. With initial rearrangement of the site, the area was heavily deformed, but a vestige of an old road leading up to the county well remained. These traces form a complex layers of contexts, which guide the process of planning. The old road was not often used, but across the road was the newly developed multi housing area, and for securing the reciprocal privacy, a fence in connection with the main house was needed. To prevent being seen from the upper level, a long-span slab was constructed, which covered the Sarang and middle garden and provided a deep view within the interior spaces.

The deep view I am mentioning is derived from the depth of space created in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the intersection of inner and outer gardens and the various division of interior spaces. In need of a division, our traditional housings did not build concrete boundaries but only suggest them. What results are interrelating points of view, arbitrary composition of repetitive spaces, time we experience the flow of repeating volumes moving through different levels and deep views. These are the aspects I wished to contain in my work.

The depth of plan as a method of design acquires its value through the vision of endless space and orderly repetition. This repetition diminishes the abstract condition of the wall and columns, and enhances the space between them – i.e. builds a rhythm. What is crucial here is the temporal and spatial intervals. Repetition, limitlessness, and arbitrariness are the characters found in our traditional, and also contemporary architectural languages.

The deep views not only connect the inside with the outside or vice versa, but circulate them in an alternating fashion. This is not about the size. Limitlessness is different from bigness in that, in respect to space, it is not a set volume. Bigness has no focal point and does not need to reach the end. Limitlessness induces the viewer's eyes and provides a simple focal point. The traditional dialectic relationship between the building and its surroundings is more or less independent from our cognition of them. Dividing the exterior from the interior, or firm elements within the interior were easy. Today these divisions are not so clearly defined. Two concepts overcoming duality are unified within one material. In the discussion of transparency, the surroundings or backgrounds of architectural objects are no longer an absolute strong point; they now occupy a mutually neutral fie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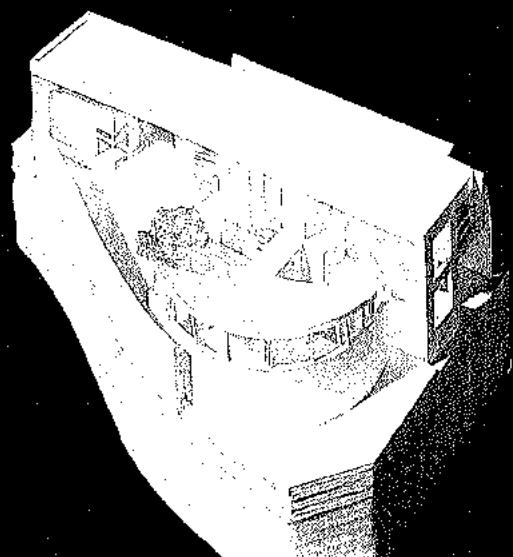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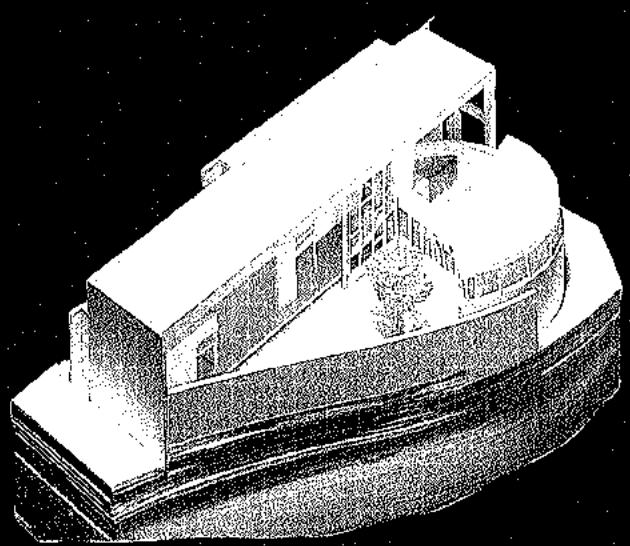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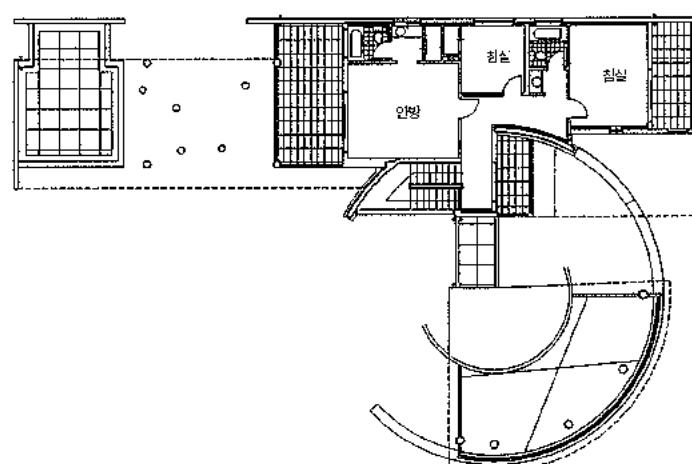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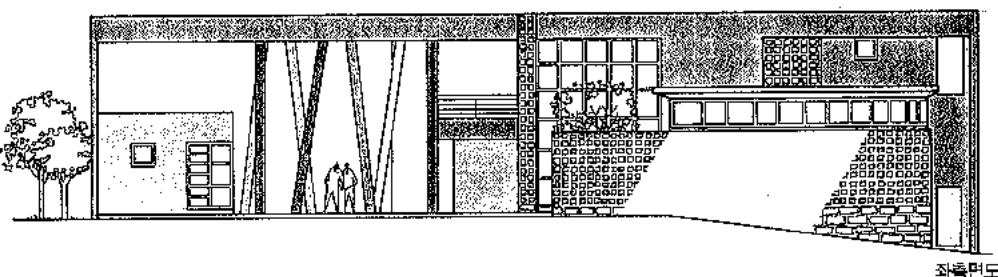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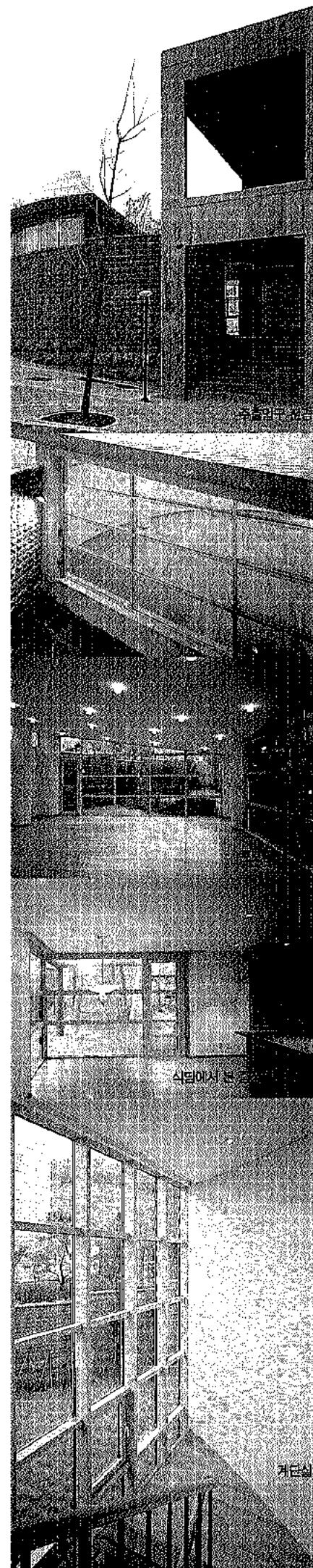
대지의 일부가 주민주차장겸 외부 공공로로 제공되었다

1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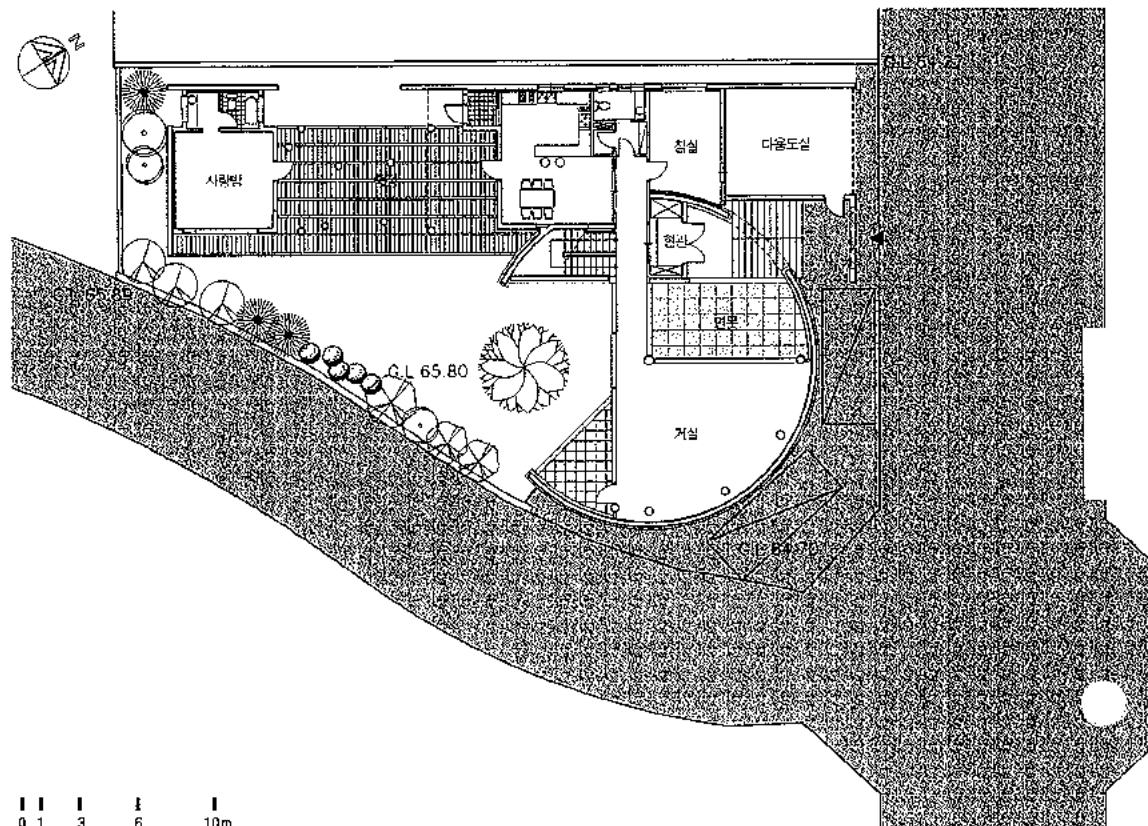


내부 마당에서 본 종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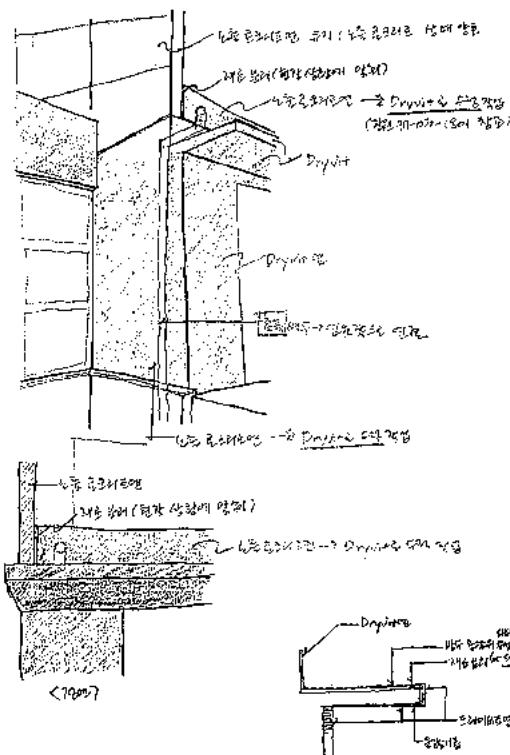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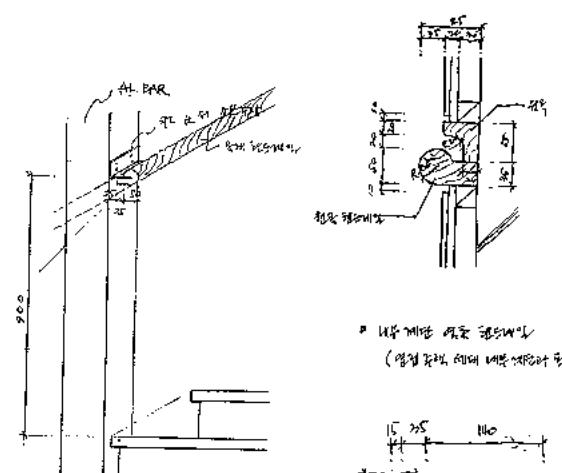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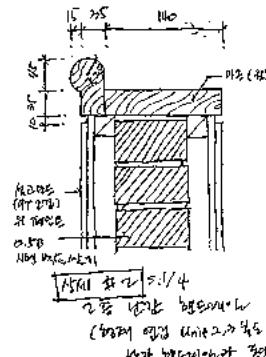
배치도 및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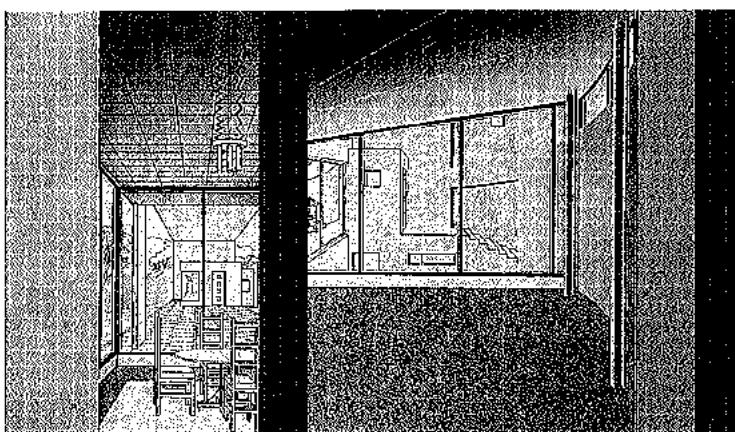
상세도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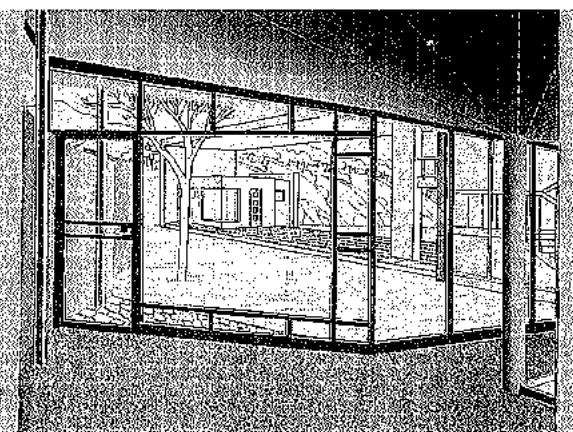
서기 1910년 9월 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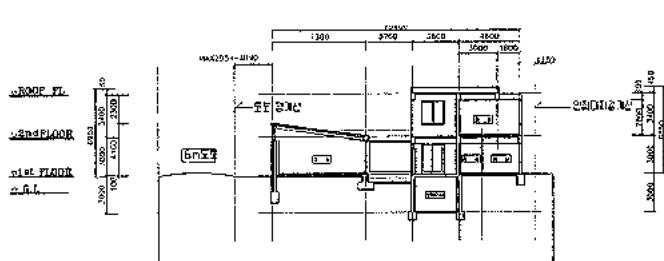
삼세도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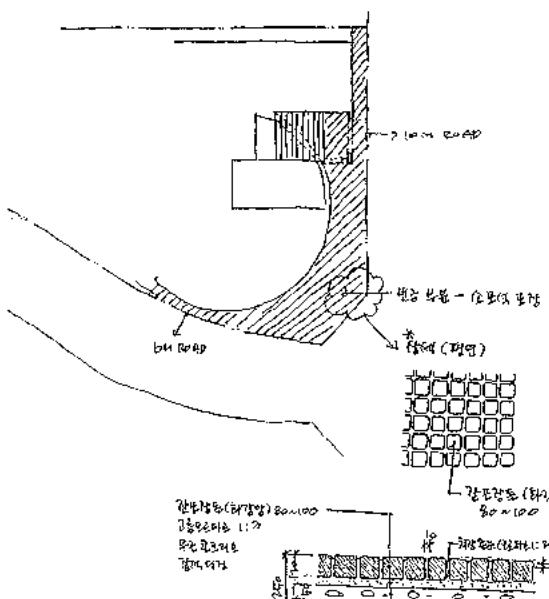
초기 스케치(식당에서 본 사랑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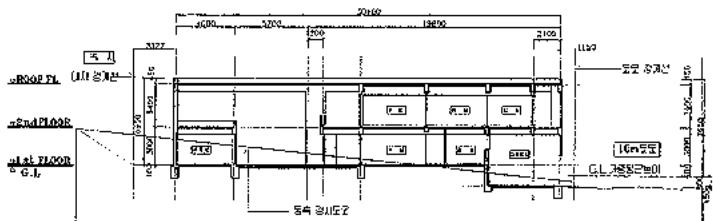
(거실에서 본 마당)



대지 횡단면도



대지 종단면도



삼세도3

깊은 씬과 시퀀스를 가진 집
House with Deep Scene and Sequence

대담자 / 류전희(숭실대학교 건축공학과 조교수)

설계자 / 박연심(장원건축)

Ryu Jeon-Hee & Park Yeon-Shim

일시 / 1997. 11. 11. 오전 11:00

장소 / 분당 단독주택



대담광경(왼쪽·박연심 오른쪽·류전희)

류전희 우선 분당에 사는 사람으로써 분당 주택 전람회 단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소장님의 설계한 주택에 와보니 생각보다 스케일이 크게 느껴집니다. 주택전람회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질문해 보죠. 우리 건축계의 큰 건축적 실험이 미완으로 돌려져 기대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이 아쉽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박연심 이번 인터뷰의 발단은 류교수님이 분당에서 살면서 체험한 것을 얘기하다가 분당에 새로 생긴 여러 타입의 주거형태와 짐장사들의 집을 담사하면서였죠? 분당같은 도시가 세계도시사에 없는 일이고 또 21명의 건축가가 – 저의 경우는 지순선생님의 양보로 영광스럽게 참가하게 된것이지만요 – 대거 참가한 주택전람회단지가 생긴 것도 정말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까운 일이죠. 지금까지 지어진 주택들도 주변환경이 조성되지 않으니까 입주를 못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다행하게도 분당이 기간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살기에 불편함이 없고 최근 주택가격이 오르는 바람에 분양은 일단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조차 상업성의 논리에 빠지게 된 점을 반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류전희 그렇게 본다면 소장님의 작품들은 실제로 지어졌으니 행운이이신 것 같습니다. 상황이 그러했던 만큼 이 정도의 큰 주택을 설계하면서 특정 건축주가 없이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것은 쉽지 않은 경우라 보여집니다. 그런 점이 어떻게 작용했을지 궁금합니다. 또한 어느 단계에서 건축주가 결정되었는지요?

박연심 일단 시공사가 결정된 이후에는 건축주는 건설회사인 셈이었는데요. 계획단계에서는 이 지역에서 200여평 땅에 100여평의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가족을 대상으로 기정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50대의 가장과 2,3명이 출가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자녀를 가진 가족구성입니다. 실제로 다른 주택을 설계할 때도 집을 지으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특별한 요구를 해오는 경우가 많지 않죠. 최근 8기구의 전원주택단지를 설계하는데 거의 가족구성이 비슷한 30대중반 가정의 주택설계가 나중에는 서로 서로 비슷해지더라고요. 거기에 내 의도를 반영하기는 쉬웠다고 생각합니다.

류전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마치 주택전람회의 난관 많았던 것을 반영하듯이 시공의 완성도가 작품을 너무 뒷받침해 주지 못해서 안타깝게 느껴지는데, 건축가로서 어떠셨는지요? 또 평소에 시공이 진행되는 현장상황까지 많이 관여하시는 편입니까?

박연심 이 우환의 미술론 중에 '만남의 미학'이란 것 있죠? 이런 경우도 그 정도수준의 시공회사이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 하지 않는 게 상책이죠. 이 현장을 맡게 된 소장은 인테리어공사를 주로 하던 분이라 건축물에서의 조금 관습적이지 않는 디테일에는 무척 약하셨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시공회사와 소장님 그리고 나와의 만남은 일종의 운명론 같은 건 아닐까요? 더 나아가 이 집에 살게 되는 건축주와의 만남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최근의 유전자 과학에서의 발견도 모두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알코올중독자는 그 유전자에 이미 그런 요소를 갖고 있다든지 똥뚱한 사람도

그 유전자에 계획되고 있다는 등등, 그렇다고 노력을 안하면 안 되겠죠? 일단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는 반성도 있겠습니다.

류전희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이 타 건축기의 작품들이 유사성을 보이는데 반해 소장님의 작품들은 작품의 분위기, 마감, 공간 등이 상당히 다른 듯 합니다.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박연심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처음부터 두 작품 사이에 유사성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크게 없었다고 할까요. 각각의 대지를 풀다 보니 그렇게 되었는데 미감은 두 프로젝트 모두 노출콘크리트였다가 주택부분의 노출콘크리트를 보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않아 연립주택의 재료를 변경하여 더욱 더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스케일의 경우도 연립주택은 40여평 내외의 규모이고 주택은 100평 가까이 되는 것이므로 서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죠. 아직도 그 유사성이라는 점은 꼭 필요한 것인가 어떤기가 솔직히 판단이 서지 않습니다.

류전희 두 작품들에서 사용된 스케일 등을 보면 공간분위기 등이 상반되는 듯 한데, 연립주택에서는 분위기가 여성적이예요. 굉장히 아기자기하면서 재미있게 형태나 외부공간이 전개되는 듯 한데 단독주택은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면서 시원시원한 느낌이거든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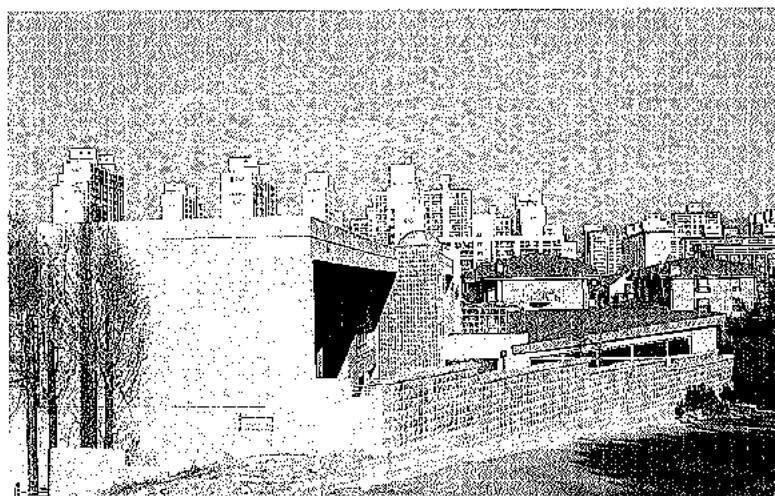
박연심 스케일 상에서 아까 얘기한 바와 같이 서로 다르다는 것이지요. 연립주택의 경우는 이 단지에서는 제일 면적이 작고 그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는 왜 이런 류의 주거형이 꼭 평수가 커야만 되는지가 공감이 잘 안 되요. 주택의 경우는 100평정도의 규모이므로 스케일 상에서 비교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원시원하다는 것은 큰 스판과 기둥의 높이 등에서 온 것 같습니다. 저 개인은 그 스케일 감이 활신 호감이 있는데요. 이런 것을 이 주택에서는 남성적이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류전희 아마 정원부분에 단독주택으로는 상당히 긴 14m 장스팬의 캐노피와 8개의 기둥이 연출하는 분위기가 독특하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또한 캐노피 중간중

간에 구멍이 나있는 것이 재미있는데 이 공간을 특별히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습니까?

박연심 주거공간에 중간영역이 있어서 내부도 외부도 아닌 공간이 좀더 자연과 친화할 수 있는 생활을 유도해 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전략이야말로 근본적인 건축기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또 그러한 중간영역은 우리가 흔히 건물을 기능으로 꽉 채우려 하는 기준관념을 깨고 건축물이 대기 속에서 보이드를 갖게 하는 것. 그래서 그 사이로 바람이 통하고 하늘을 볼 수 있는 등, 공간의 상호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건축물이 지어지는 동안 구조물이 무척 보기 좋다가 그것이 창이나 벽으로 다 채워진 후에는 그런 느낌이 없어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런 원인이 자연 속에서의 상호 유입을 차단하는 그런 기준의 설계방법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곤 했죠. 우리나라의 전통건축이 좋아 보이는 이유 중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겁니다. 특히 정자 같은 경우는 완전히 자연 속에 일체가 되어 있지요? 이 주택에서는 그런 공간의 보이드가 수평으로 뿐만 아니라 또 수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류전희 예전에 쓴 건축방법론의 접근태도가 합리적이고 체계적이었다면, 최근 발표하시는 일련의 글들에서 보면 건축이외의 예술분야 - 소설, 영화, 회화, 사진 등 타 장르 - 를 연결시키는 등 관심의 영역이 넓고 굉장히 치밀하다고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박연심

체계접근으로서의 건축형태

론은 85년이후 4-5년간의 작업을 정리하여 90년에 건축사지에 발표한 것이고 최근 월간 건축세계를 통하여 현재한 ‘공간 속으로의 팀협(Scene & Sequence)’ 시리즈는 그 이후의 사고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이들 둘은 또 다른 건축관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팀은 꼬르비지에나 마스처럼 일생을 한 건축관으로 시종일관하였던 것과는 너무 비교가 되지요? 정보화시대에서는 시대적으로 변화가 빠르다는데 거기에 그 원인이 있다고 평계를 달 수 있을까요? 타분야에 대한 관심은 일종의 호기심으로 볼 수 있는데 정리하다가 보니 그런 관심이 ‘씬 그리고 씨퀀스’라는 하나의 연장선 위에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나 스스로도 놀라웠습니다.

류전희

그런 맥락에서 보면 이 집의 구성이 집의 중심을 차지하는 긴 복도와 그 복도로 연결되는 여러 유형의 공간들이라고 보여지는데 위의 지적 작업을 이번 작품과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설명될까요?

박연심

이 주택의 경우도 그 연장선 위에서 보행자가 느끼는 공간들의 열림과 닫힘, 중첩, 그리고 깊은 시각들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장면을 연출하고자 한 거지요. 거기에서 사용되어진 건축요소는 연못, 중정, 긴 복도 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류전희

역시 연못도 그러한 연출에 한몫을 하는 것이군요? 연못의 위치가 집의 내부가 아닌 현관측면에 배치된 것이 흥미 있네요. 성격상 거실, 복도 등을 걸러주는 장치로써 의도한 것인지 어떤지 설명해 주시죠?

박연심

현관으로 접근하면서 거실사이에 있는 연못은 이 집에서는 일종의 원심적인 작용을 합니다. 가령 현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원편의 연못을 느끼고 들어가서 복도를 걸을 때 계속해서 원편의 연못을 느낍니다. 거실에 들어섰을 때 그 연못은 원편에서 빛에 반짝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집이 다이아그램에서 보이듯이 거실공간으로 대별되는 푸른색과 그 외의 갈색부분의 구조가 서로 구심력을 갖게 되는 것과 대비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 연못에는 떠다니는 오브제가 놓여있기를 바랍니다. 하다못해 낙엽같은 것이라도.

류전희 고저차를 이용한 등근 외벽에

둘러싸인 공간이 거실이란 점이 특이합니다. 이 거실은 시야가 안 마당으로 열려 내부지향적인 성격이 많이 강조된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거실공간에서 외부의 차경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가장 많다고 볼 때 반전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면들 이 빛거기면서 생기는 틈새 등으로 조금씩만 외부를 끌어들이는 것 같은데?

박연심

이 거실의 외부를 차단하는 벽은 우리 나라 전통공간에서 볼 수 있는 담같은 것으로 그 벽은 같은 높이로 등산로를 연결하는 도로의 담과 가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왜 비오는 날 한옥의 한 귀퉁이 낙숫물이 줄줄 흐르는 담벼락에 비를 맞고 서있는 나그네의 이미지 같은 것… 분명히 그런 상상으로 설계를 했다고 생각되요.

류전희

최근 쓴 글들에서 보면 건축물을 설계할 때 접근하는 방식이 독특하게 있으신 듯 한데 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실 수 있는지요?

박연심

콘텍스트라는 말은 이제는 한 물간 느낌이 드는데 보통 계획을 진행하면서 먼저 주변상황을 봅니다. 거기에는 대지의 고저차나 형태는 어떤가, 도로상황은 어떤가, 주거로써 장애가 되는 프라이버시의 침해요소가 있는가, 소음 정도는 어떤가 등을 보게 되죠. 그리고는 방금 전에 질문한 내가 나타내고 싶은 공간의 분위기를 믹스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독특한 수법인 다이아그램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생성된 다이아그램은 이후 시공단계까지 작용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은 어떤 면으로는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이란 점을 요즘은 반성해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수학을 전공하면서 인공지능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그 애가 보는 책 중에 ‘Pattern for Problem Solving’ 이런 책이 있드라고요. 그 책에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입력하면 그 문제를 전체적으로 해결해 주는 시각적 패턴을 생성하여 보는 사람이 문제를 용이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의 한 장치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실제로 일리노이 공대의 컴퓨터연구실에서는 그런 용역을 받는답니다. 예를 들면 멕시코 씨티의 공해문제를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도시의 지형과 자동차와 공장의 매연, 그리고 기상 조건 등이 복합된 삼차원의 다이아그램을 그려내서 그 도시의 공해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방향제시를 얻게 된다고

합니다. 내가 반성하게 되는 이유는 그런 방법이 인공지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속할 수도 있다는 것인데 앞으로는 좀 더 시적 poetic이고 체험 tectonic적인 요소가 많이 가미될 수 있는 쪽으로 노력하려고 생각합니다.

류전희_____ 가상 건축가들에서는 보기 드물게 직접 인터넷에서 좋은 정보를 찾아내시거나 지적 탐구를 끊임없이 한다는 느낌을 받는데,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로 어떻게 얻는지 밀해 주시죠?

박연심_____ 정보화 사회에서 나의 자리 - 비록 계단 밑방이지만 - 는 변방에 있지 않고 세계의 중심도 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 해도 도서관은 아직도 내겐 중요합니다. 텍스트에 의존하게 되는 것은 건축적 역사성이나 정통성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고요.

류전희_____ 특별히 좋아하는 건축가가 있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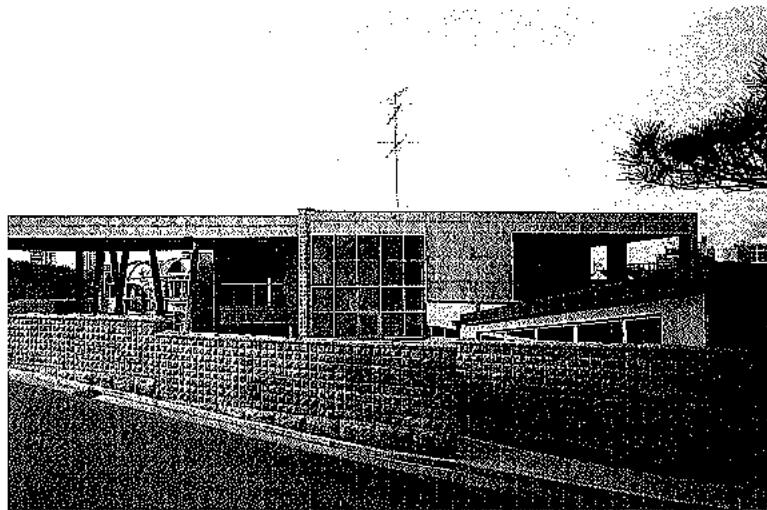
박연심_____ 미국의 건축가 스티븐 홀을 들고 싶어요. 그의 작품들은 사고가 점진적으로 진보하는 것을 보여 주어서 좋아합니다. 건축실무에서 차용해 오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도 좋아합니다. 미국 소설가 스티븐 멜빌의 '백경'에서 건축의 아이디어를 따오기도 하고 일본의 오행사 문학인 단가에서도 모티브를 얻기도 합니다. 또 유명한 Stretto House에서처럼 바르톡의 음악 형식에서 건축형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의 문화적 행위는 모두 건축에 연결된 것이기도 하지요. 그런 점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류전희_____ 이야기를 마무리지으면서 여성건축가가 드문 현실에서 지금까지 오시면서 보람만큼이나 어려움도 많았으리라 보여지는데 특별히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요?

박연심_____ 이화여대 건축과에 강연을 하러 가보니 모두 여성이던데… <웃음>… 그들 앞에 서니까 무엇인가 여성건축가로서 책임감이랄지, 새로운 다짐같은 것을 갖게 되던데요. 지금까지 여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성건축가로서 사회적으로 환경문제, 맞벌이부부를 위한 보육사업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환경문제는 여성건축

가협회나 경실련 도시문제연구소에서 하고 보육문제는 여성보육회에서 연구나 실무를 통해 실천하고 있어요. 주변에 여성건축가 등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들의 건축에 대한 열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각각이 가진 애환이랄까 그런 이야기나 하소연 같은 것을 많이 듣지요. 그럴 때는 영화 '델마와 루이스'처럼 동지애가 느껴지곤 해요. 요즘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는 메시지는 하나같이 여성을 사회로 끌어내려 하는 게 사회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남성들의 인식이나 여성들을 위한 사회적인 배후여건은 그러기에는 문제가 많죠. 언젠가 시간이 되면 건축을 통해서 자기를 실현하고자 하는 친구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써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에 감동을 전달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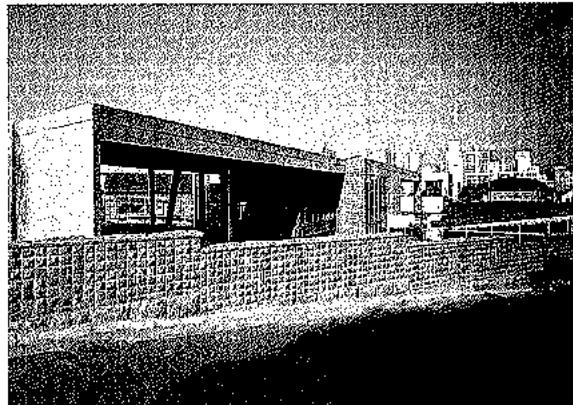
류전희_____ 오랜 시간 말씀 감사합니다.



박연심건축이 가장자리에서 머무르는 이유 - '모델하우스'의 명암에 관하여

The Reason Her Architecture Remains on the Edge
- The Light and Shade of Model House

전진삼 / 월간 건축인 POAR 주간
by Jahn Jin-Sam



대체로 한국의 건축가들에게서 자연을 품은 건축을 생산해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한 것은 한국건축의 전통에 대한 유전적 형질로부터 기인하는 것이다. 자연친화적이라는 요즘 유행어 이전에 이 땅에서 이미 오래된 건축의 교훈으로 살아온 것이 있다면 바로 '건축이 자연을 품는다'라는 명제일 수 있는데 이는 건축 행위라는 것이 소극적임을 전제로 하는 것 이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자연에 다가서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며, 또한 대륙 한귀퉁이의 한반도라는 작은 땅덩어리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선현들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말미암아 건축행위를 통해서 자연을 크게 받아들이고자 하는 포지티브한 공간의 생산을 염두에 둔 태도라 아니할 수 없다.

한국의 현대 건축가들이 자신들의 건축에서 즐겨 말하는 '마당'이라는 현대화시킨 전래의 공간에서 그것을 '비운다'는 공간작법의 한 발견으로 체득하는 것과, 그것의 성장을 '중성적' 이다라고 하는 것과 때로 '중간영역'이라고 기술하는데에는 한국의 '마당'의 건축이 서구적 시각으로 재단하기에는 심상치 않은 깊이와 생산적인 공간으로서 그 역할이 크기 때문이다. 그런 연유로 그동안 무수히 많은 건축이론가들로부터 마당의 건축에 대한 매력적인 논문의 양산은 물론이려니와 실무 건축가들로부터 현대건축에의 적용이라는 과제를 던져 졌던 것 또한 사실이다. 언제부터인가 한국 현대건축에서 마당을 빼놓고는 우리 건축의 이야기가 별반 소득없는 딜로 상태를 면하지 못한다는 기우조차 용납되어졌던 것에는 마당의 건축이 서구에서 빌려다 쓴 건축언어로부터 자유롭고자 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었기에 가능했다.

'체나눔'이라는 건축수법의 발견이 공론화 되고, '마당'이라는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대지를 비운다'라는 언어가 이를 대체함으로써 한국의 현대건축은 그만큼 용량이 증대되었다. 사용할 수 있는 언어가 많아진다는 것이 곧 시유의 건강성이라는 단서로 작용한다고는 할 수 없어도 소모적인 고착언어에의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만큼은 바람직한 양상인 것이다.

체나눔 이론에 대하여 '느림'의 철학이 동원되고, 만성적 기능 우선주의를 탈각한 건축의 방향성이 현대의 '신건축사상'으로 교감되어지고 있는 우리의 주거문화 현실을 바라보건대 마당에서부터 출발하는 광활 세우기가 비움의 공간이라는 단축기를 누르기보다도 훨씬 더 복잡계 안에 들어서 있다는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주거공간에서 조차 빠르게 사는 삶이 바람직한 것으로 오도해온 우리의 근대화 발전단계에 쇄기를 박는 것이기도 하다.

비우고 아니 비우고의 문제라기보다 비워둔 공간으로 무엇을 끌고와 채울 것인가의 문제인 것이다. 채우기 위해서 나누는 것이 체나눔의 본류이다. 마당은 그런 의미에서 비움의 미학을 앞세우기 보다는 적절하게 채울 수 있는 채움의 미학으로 거론되어져야 마땅하다.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것은 건축가 박연심이 그려내는 공간의 '씬(scene)'과 시퀀스(sequence)로도 접근이 가능해지며, 기능을 분리시킴(privare)으로 해서 얻어지게 되는 프라이버시(privacy)의 재구축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의식적 주생활 패턴으로도 채워질 것이다. 주거공간에 거주자의 독특한 생활이 물어나게 유도하는 것이 채운다는 것의 정의에 다름 아니다.

건축가 이일훈이 체나눔 이론을 처음 거명하면서 '작을수록 나누라'고 한데에는 그만큼 채울 수 있는 여백을 많이 생산해내야 주거공간이 깊어진다는 것으로도 통한다.

따라서 마당의 건축이 생산적 공간을 전제로 한다는 결론에 이르는 것은 당연하다. 삶의 생산성이 고려된 공간작법이 오늘날 건축가들의 과제가 되는 셈이다.

박연심이 분당에 제안한 단독 주택 프로젝트는 일면 필자의 장광설과 맥을 같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녀는 이 프로젝트와 관련한 다른 지역에서 자연친화적 개념으로부터 출발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그 구체적인 공간작법의 하나로 '중간영역'에 해당하는 '대기속의 보이드'를 갖는 14

미터 장스팬의 캐노피를 설명하고 있다. 그녀에게서 자연과 일체가 되는 집을 완성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가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게 보여주는 명증한 사례이다.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이 만나는 눈높이의 차를 최대한 줄이면서 이 집의 담장을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들여다 볼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끔 집의 안팎을 엮어낸 점은 주출입구 옆의 인공연못을 사이로 거실과 본채를 가르고, 그 사이 공간을 외부에 철저하게 노출시키는 수법의 전개와 다르지 않다. 1, 2층의 침실을 제외하고는 어느 공간 하나 땀부러지게 자연이라는 외부공간에 대립적이지 않게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단독주택으로서는 공간의 안과 밖이 끔찍할 정도로 일체가 되고 있다는 것이 이 집의 특징을 이룬다. 그녀가 체험(tectonic)적인 요소를 건축의 언어로 끌고 들어온 이유라면 바로 자연과 합일하는 공간작법에 승부수를 걸었기 때문이리라.

공간이라는 화두를 짊어지고 논술하는 그녀의 최근 관심사인 가운데 중심을 이루는 시나리오된 공간과 더불어 건축과 영상이 만나는 깊은 씬(scene) 또는 깊은 뷰(view) 예의 천작은 그녀의 건축이 개념의 가장자리(edge)를 무척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으로 읽힌다.

그런 이유로 대지의 경계에서 이루어지는 건축의 언어들은 벽이기보다는 다소곳한 담장의 스케일로, 또한 매스의 보이드로 나타나고 있다. 그녀가 설계초에 그려낸 개념도의 선들이 가장자리에서 빛을 발하고 있듯이 이 집은 건물이나 담장이나 (그녀가 표현하고 있듯이) 장스팬 슬라브 하부의 '삼차원 허공간'이나 모두가 깊게 드리우는 공간의 연출을 위하여 끈적끈적한 집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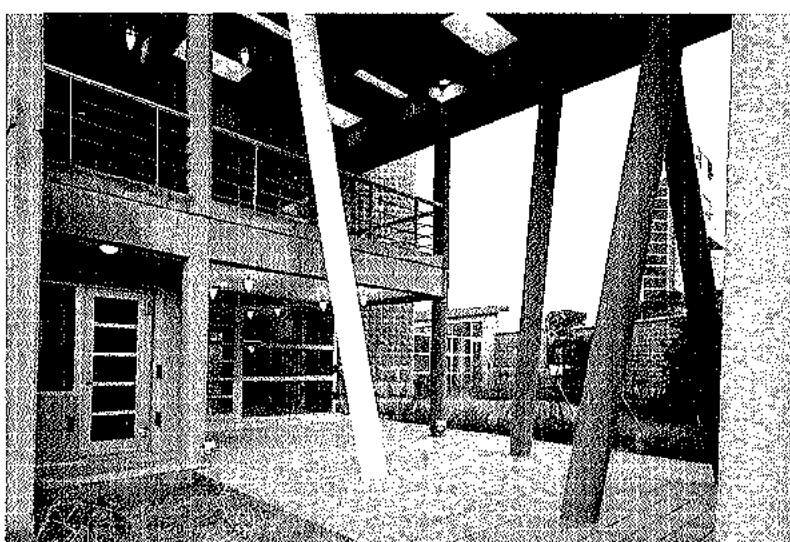
그러나 아직까지 생활방식이 노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거주할 사람의 생활공간으로서 이 집은 자유롭지 못하다. 이미 건축가가 설정해놓은 무대의 세트와 같은 내, 외부 공간의 건축언어들은 일상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집 사용자의 시각에서 만들어지는 공간의 구성이라기 보다는 관찰자의 시점에서 정리해낸 공간의 성격이 강한 것은 어차피 처음 설계 되어질 때 건축가가 할 수 있는 가장 모범적인 주거공간의 사례를 실험할 수 있다는 건축이벤트의 전제를 달고 태어난 것이라는데 기인하는 데도 크다. (1927년 독일공작 연맹의 부회장이던 미스 반 데 로에가 책임을 맡았던 슈투트가르트 바이젠호프 Weissenhof 주거단지가 수공적인 건설방법에서 산업화로의 변화와 새로운 생활방식의 정후를 입증해주었다는 평가를 득한 이래 65년의 세월이 지나 이 땅에서 그와 유사한 프로젝트로서 분당의 주택전람회가 1992년 7월 참여건축기의 선정을 시발로 오늘에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져내려오고 있다. 서로의 시대적 정황이 많이 다르긴 해도 그것의 끈을 일부러 연결해보는 것은 이 땅에 모더니즘 희복이리는 건축 운동의 한 표징으로 그것을 가능해볼 수 있겠다는 발원에서부터 기인한다. 그러나 그 시

행 과정중에 이것이 건축의 운동성을 상실했던 것은 이것이 새로운 건축으로 대중들의 환심을 사지 못하고 거꾸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건축의 상업적 속성을 중시하는 태도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분당주택전람회 단지의 – 지금은 건영 퓨처빌로 통한다 – 평가를 잠시 유보해두자.)

분명히 그녀의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도시에서 만나게 되는 이웃으로부터 차폐된 단독주택이 소화해내는 생활방식과는 전혀 다른 사용자의 생활방식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이채롭다. (건축행위를 통해서 자연공간을 만들어보고자 했던 것이 건축가 박연심의 의도였다면 그것은 충분히 설득력을 갖춘다.) 그러나 이 집에서조차 체험자이고자 하는 그녀의 방식이 자유로운 선택을 했던 만큼 이 집에서 살아갈 사람의 미래는 결코 그녀의 개념도에 머물러 있으리라는 보장이 서지 않는다. 그것은 이 집이 현실에 대한 통찰에서 우러나온 디자인수법이라기보다는 도상학적 자기 도취의 현시를 오브제화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뜻과 통한다.

그 집에 살만한 적합한 사람을 궤따우든지, 아니면 입주하게될 어떤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이 '모델하우스'는 충분히 변할 요량을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것은 건축가에게 무척 고단한 일이 될 것이다. 백화점에서 파는 기성복도 표준 크기라지만 사람에 따라 가위질을 예사로 하게 되듯이 모델하우스의 운명 또한 고단하다.

박연심에게 이 집은 '완성된 건물'로서보다는 하나님의 '귀중한 프로젝트'로 남을 것이다. 그녀가 실험하고픈 마음속 이미지의 공간 전부가 구사되어있기 때문이기도 하며, 그 결과를 건축가 스스로가 분명하게 확인받을 수 있었던 쉽지 않은 기회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The common aim of Korean architects to produce a work in relation to nature can be traced back to our traditional architecture. Before we spoke of the now-famous word 'environmental-friendly', we've always had that phrase on our minds: Architecture embraces nature. This does not suggest a passive participation of architecture into nature but an active one, one that enlarges nature and builds a positive space from our limited peninsula.

Many contemporary Korean architects use the traditional concept of garden, i.e. the 'Madang'. It implies various meanings; it can be interpreted as a method of creating void area, or as a neutral space, or still as a buffer zone. The view on Madang can only be this diverse since it is not equivalent to any western architectural idea. It has unusual depth within and acts as a productive space. It has therefore become a central subject of enormous architectural studies, and practicing architect's obsessive object of modernization. Without the consideration and adaptation of Madang, our architecture often seemed to wander around without progress. These extreme emphasis on Madang shows how eager we are to free ourselves from the western architectural language.

As the tradition's internal division of space became commonly used, and the idea of Madang developed into a more subtle concept of forming empty space, the content of our contemporary architecture expanded. The increase in architectural vocabulary is a healthy sign of overcoming the boundaries of fossilized language, if not a proof of the profession's revitalized thinking.

To look at the current situation of our living culture, which, with the addition of philosophy of slowness to the internal division of space and the departure from the once dominated functionalism, now is commonly acknowledgeable of containing 'new ways of architectural thought', we can see that Madang has not taken an easy shortcut in development to creating empty spaces but has established multi-layered connotations. This has righteously put a stop to the preoccupation of modernization that values speed over everything else, even in our living spaces.

The issue was not a matter of leaving or not leaving the space empty; it was deciding how to fill that empty space. To fill is primarily to divide the content. Hence Madang should rather be characterized by the aesthetic of filling than that of emptying.

How do we fill it up? Architect Park Yum-Shim approaches this question with the concept of scenes and sequences in space, and fills the space with a pattern of conscious inhabitation, developed through the reestablishment of privacy by dividing the functions. To fill means to attach the inhabitant's own life-styles into their living spaces.

Architect Lee Il-Hoon has once mentioned, on the division of internal spaces, to divide the spaces especially when they're small. Dividing naturally yields more spaces to fill, and this is what enriches the living area.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architecture of Madang aims to build a productive space. Establishing space in consideration of the productivity of living has become the task of contemporary architects.

The housing by Park in Bundang seems to be in coherence with the current issue. She has mentioned elsewhere that this work had begun from an environmental-friendly concept. Its concrete realization can be found in the 14 meters-spanning canopy, containing a middle space, or a void in air. This clearly shows that it was her foremost end to create an architecture breathing within nature. The artificial pond next to the main entrance divides the living and main spaces, and the area in-between is thoroughly exposed to the outside. This manipulates the rupture between

interior and exterior spaces. The difference between inside and outside of the fence is also diminished by providing the passers-by with a glimpse of the house. With the exception of the bedrooms on the 2 stories, every space is in harmony with the nature outside. The interior and exterior of spaces in this house are almost perfectly, perhaps even dreadfully, integrated. The adaption of tectonic elements to the architectural language can also be viewed alongside of her goal to establish a space in harmony with nature.

Her recent insistence upon space and the arrangement of them into a scenario, along with the emphasis on scenes and views, the junctions of architecture and image, proves that she values the edge of architectural concepts.

The languages used in the bordering lines of the site are rather light fences than walls, with voids in masses. The lines in her early sketches on this work emanates light on the edges, and the actual materialization also presents three-dimensional negative spaces beneath the long-span slabs. These clearly uncover her restless will to create deep effects of space.

As a space for dwelling, however, this house doesn't provide much freedom. The theatrical aspects of this house are determined by the architect for some client whose way of life she does not fully understand. Its architectural languages in the interior and exterior are anything but ordinary. The organization of space is set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viewer or visitor, not the user or inhabitant. But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inevitable character of architecture, whose design can only remain in the experimental field to build an exemplary living space. (We can remind ourselves of the Stuttgart Weissenhof Housing Project in 1927, coordinated by then vice-president of German Werkbund, Ludwig Mies van der Rohe. 65 years from that incident, which marked the turning point in life-styles and construction methods, a similar attempt has been executed in Bundang. From the initial invitation of 7 architects, it is now in its final stages. The two projects bear much difference in its temporal or spatial context, but one cannot help reading the underlying movement of reviving Modernism in the latter. This intention was then mutilated since the overall project failed to communicate with the general public, and as usual, deteriorated into commercialism, adapting the taste of the class that can financially afford such housings. But the discussion on Bundang Housing Project, now commercially known as KunYoung Future Ville, is something beyond the current article.)

Park's housing is quite extraordinary in that it requires a different life-style of the user than the ones from secured urban neighborhoods. (If it was to construct a space of nature through architectural activity, it is totally convincing.) But her choice of freedom to approach the house from the viewpoint of the visitor will not prevail over the freedom of the inhabitant's ordinary use. They will not have a living confined to her concept diagram. The work is still within that usual criticism on architecture, that it is not a work based on the comprehension of reality but a realized iconographic narcissism.

There are only two choices, now: either to find the perfect inhabitant that will fulfill the architect's desires, or to charge this 'modelhouse' with capability for further changes stemming from unpredictable uses. This will certainly demand very much from the architect. The standardized pret-a-porter in department stores still needs various adjustments, and so does the modelhouse.

This will be remembered, to architect Park Yun-Shim, as a 'meaningful project' than a 'finished building'. It was one of the rare occasions where the architect can fully realize his/her architectural thoughts and images.. and face the results.

산청 양수 흥보관

Visitor Center

김정희 / 건축사사무소 토반
by Kim Joung-Hwee

전화가 왔다.

어느 엔지니어링회사의 상무였다. 도서지방의 전력 공급계획의 일환으로 내연발전소를 울릉도에 짓게 되는데 그 일을 수주하여 일하고 있다고 했다. 그 중 사택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협조를 받아야 하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수주한 부서에서 처리할 수밖에 없게 되어 도움을 청한다고 했다. 소문에 워낙 까다로운 원발주처인지라 별로 마음에 내키지 않았고 수주한 회사의 부서간 일의 협조가 예산문제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걸렸으나 대기업에서 잔뼈가 굵은 나로선 그 처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선뜻 거절하기가 어려웠다. 직접 알아보고 답을 드리겠다는 말로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었다.

먼저 20여년만에 군생활동기를 만났다. 어떤 일로 찾아왔느냐고 의아해 했다.

이 일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은데 워낙 까다롭게 한다하니 내가 해도 그렇게 어렵게 할 건지 알아보려고 왔다고 했다. 순진하게도….

그 친구는 그 답에 앞서 별 특이 없는 일을 하려는 나를 말했다. 그리고 실무자를 소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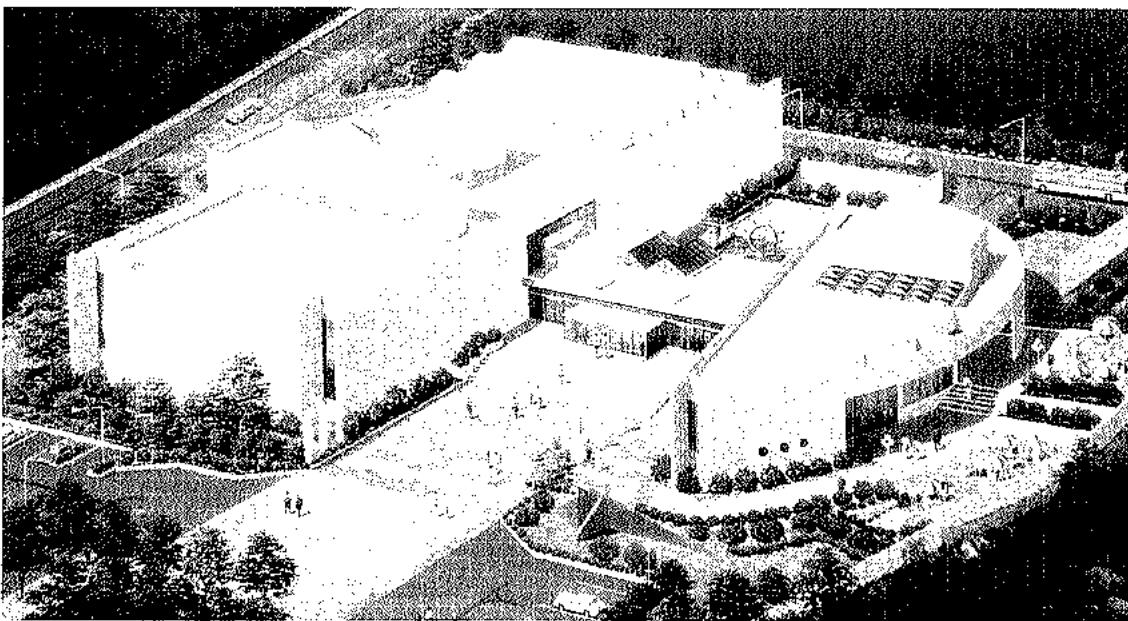
설계요구조건이며 일이 다급해진 경위며 잡다한 일장들을 이야기한 이후에 며칠까지 일을 끝내야 한다며 육박질렸다. 일을 하겠다는 결심도 서지 않은 상태에서 그것도 내용이 어떤 건지를 알아보려간 입장에서 이렇게 활당한 꼴을 당하고 나니 화가 치밀었다.

"보시오, 지금 내가 온 것은 어떤 일인지, 일은 할만한 것인지를 알아보려고 온 것이지, 일을 한다고 했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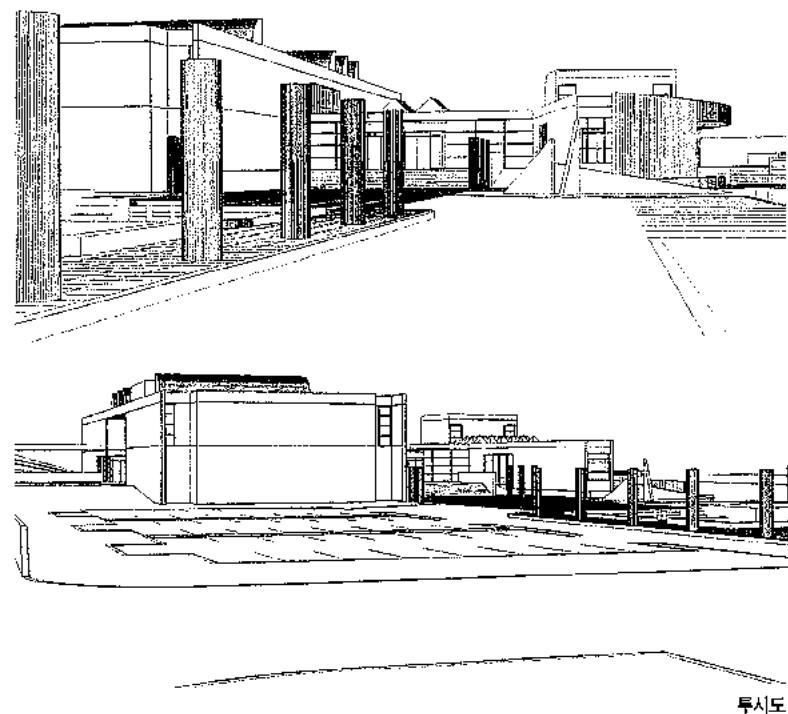
그네들도 활당해 했고 낭패한 표정이 역력했다. 한순간 침묵이 흘렀고 그냥 일어서기에는 같아 건축하는 사람들인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일은 없었던 걸로 합시다. 하지만 그렇게 난감해 하니 우선 어디까지 일을 하면 금한 불은 끄겠소?"

그래도 한 조직의 장으로서, 같은 건축인으로서 그냥 나오기가 어려웠다. 정중한 거절은 이 정도의 수고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었다. 그런데 엉뚱하게도 사택이 아닌 가설건물 이야기가 나왔다.



조감도



투시도

가설건물 정도야! 했는데….

그 이후로 만 1년동안을 12세대 사택 한 동과 가설건물을 한 동을 설계하는데 소비했고, 미움을 비우지 않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러나 뜻하지 않게 실무진이 직접 찾아와 그 동안의 수고를 감사해 놀랐고 부시장도 만날 때마다 감사의 인사를 했다. 엔지니어링 측에서도 별탈없이 마무리가 지어진데 대한 감사의 인사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우연한 경험이었고 일종의 포기였으나 뜻하지 않았던 결과였다. 그래도 좀 더

성의를 갖고 계속 자어질 사택의 패턴에 큰 흐를 긋지 못한 점이 못내 아쉬워지는 것은 웬일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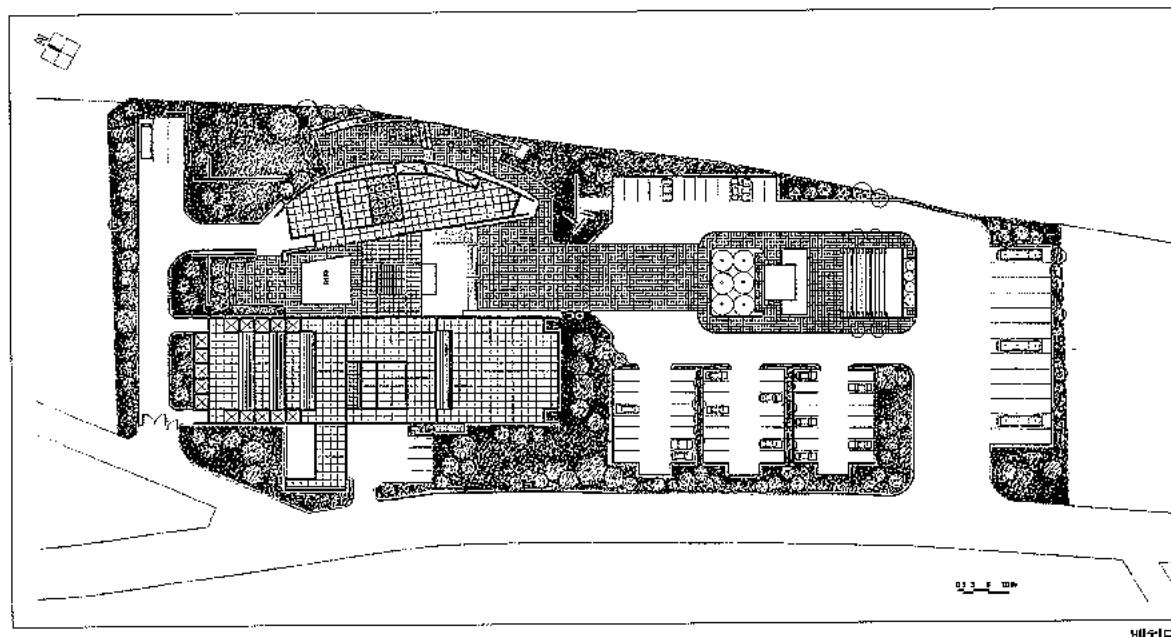
'건축은 건축주보다 중요하다?'

그 이후로 이것이 인연이 되어 가끔씩 현상에 붙여진 일들의 연락이 있었고 그 동안 성의를 다하지 못한 후회스러운 마음으로 몇 번의 현상에 참여했다. 이 산청 양수발전소 홍보관도 현상에 붙여진 프로젝트였고 당선작 발표일을 한달여 연장하여 각축하다가 안타깝게 차석에 머문 계획안이다.

지리산을 오르는 길은 진주에서 중산리 방향으로 나 있고 계획부지와는 내대천을 사이에 두고 15m 이상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여름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지리산을 오르는 차들로 메워지는 도로라고 한다. 홍보관은 이 도로에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 내려다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자리하게 되고 간혹 양수발전소를 방문할 경우도 가파른 그 진입도로를 돌아 올라가면서 밟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위치에 있다.

건축은 대지위에 지어지는 것이고 그 대지의 특별한 해석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리고 건축은 중심이 아니고 주변이라는 말도 있다. 어느 현상설계나 미친가지로 이번에도 자연과의 친화적 계획의 필요성이 강조되었고 주어진 기능을 어떻게 만족시키고 그 대지에 대한 특별한 해석이 주변상황을 토대로 어떻게 내려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었다. 본 대지의 조건과 주변환경을 읽어내는 일은 여전히 설계의 첫 단계이면서도 자연과의 조화, 자연에의 순응이라는 문제 때문에 설계의 초입부터 어려운 화두가 되어 다가왔다.

어떠한 생각, 정신, 철학으로 이 어려움에 답할 것인가? 디자인이라는 것이 감각의 깊이를 더하여 정신적 문제라는 생각



배치도

이 들때 방황하게 된다. 그러나 그 높에서 빠져나올 수 있음은 그 일의 마감시간이 있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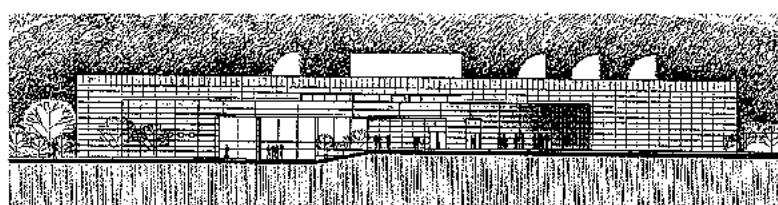
홍보관이란, 주목적이 홍보를 위한 시설이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는 불특정한 다수를 대상으로 하고 많은 사람이 방문하기를 원한다. 우연이건 목적을 기孩童간에 방문자에게 그 원리와 목적, 경제성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이러한 사업의 타당성을 비전문가에게 이해시키고 앞으로의 사업에 더욱 협조적이기를 기대하는 場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건물이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방문객을 많이 유인할 수 있어야 하며 보다 좋은 환경에서 효율적인 홍보가 이루어지도록 건축물이 뒷바침되어야 한다.

어떻게 많은 사람에게 홍보할 것인가의 문제는 먼저 홍보 Program이 유익해야 하고 홍보를 위한 효과적인 홍보도 있어야 할 것이다. 홍보관의 설계는 먼저 홍보 Program의 수용에 적합해야 하고 홍보를 위한 홍보에 일조를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홍보 Program의 수용은 그 Program을 기능적으로 수용함은 물론이고 전시공간의 효율성, 기변성에 기본을 둔 풍요로운 공간감 및 동선상의 공간감에 있고 홍보를 위한 홍보는 그 건물의 인지도 및 부대시설의 유용성에 있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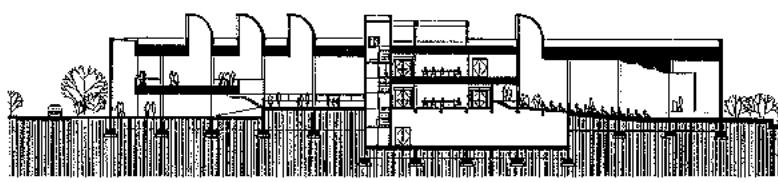
이 홍보관은 양수발전에 관한 대민홍보를 위한 건축물로서 전시홍보공간, 업무공간 및 서비스공간으로 이루어진다. 전시홍보공간은 상시전시를 위한 공간과 접회 및 영상공간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따른 홍보관 운영, 기획 및 유지관리, 통제의 업무공간이 있다. 이와 더불어 방문객의 휴식공간을 마련하여 홍보관으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 및 지리산 여행객들에게 좋은 휴식의 공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요구되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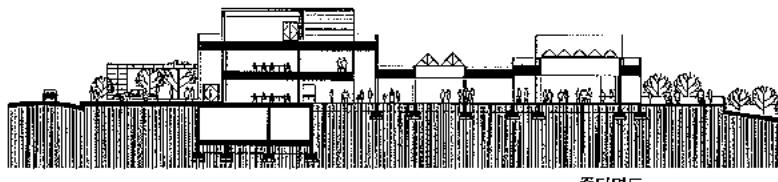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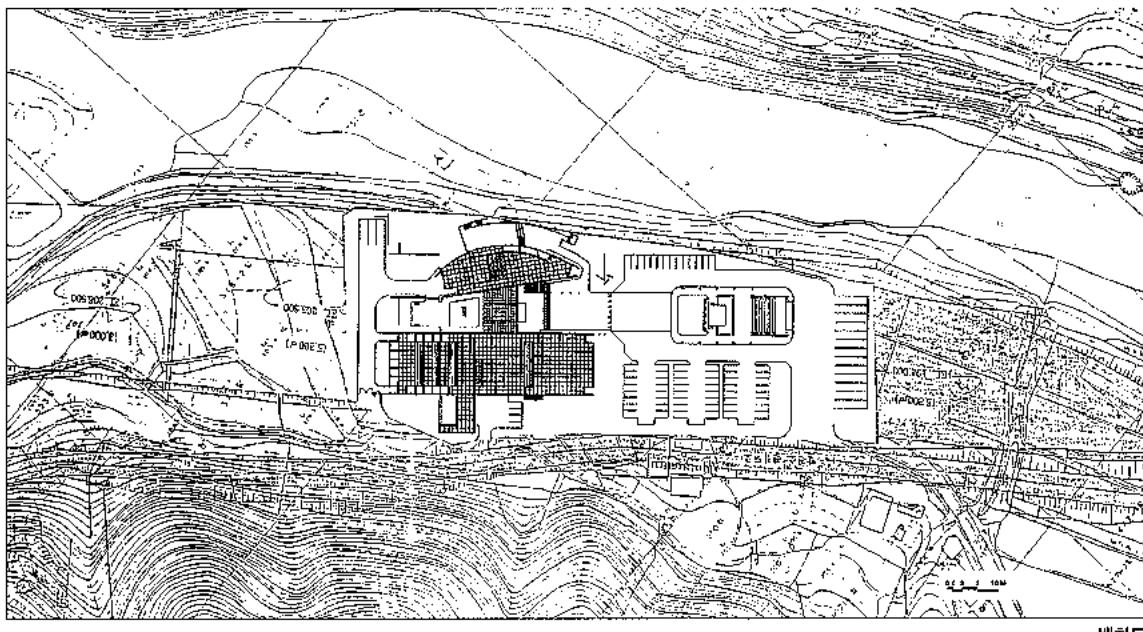
우측면도



주단면도



종단면도



배치도

계획건물의 Mass는 주공간인 전시실, 다목적 Hall 및 사무공간을 한 Mass에 묶고 휴식공간을 다른 덩어리로 하여 두 Mass로 분리하였고 그 사이로 주진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홍보목적의 주공간에 대한 휴게공간의 위계를 높였으며 진입공간을 자연속에서 인위적 공간으로의 이전에 매개공간역할을 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기존 지형의 Level차이를 반영하여 건물 바닥높이를 진입 Level보다 높게 하여 진입상의 공간의 변화를 느끼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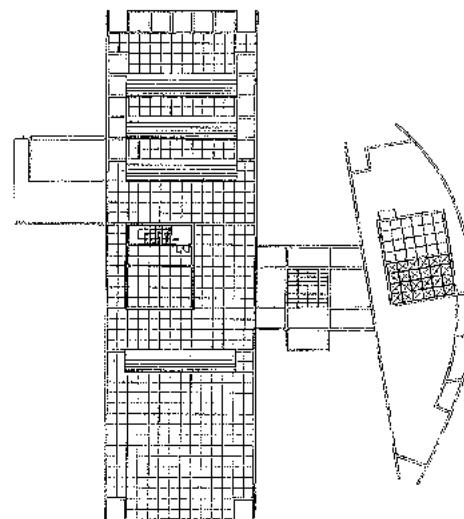
두 Mass는 진입축상에 평행하게 위치시키지 않음으로써 투시도적 효과를 더욱 강하게 하였고 출입과정의 느낌에 또 다른 심리적 변화를 기대하였다. 두 Mass를 잇는 부분의 Lobby는 진입축상으로 전후를 개방하여 Lobby후면에 자연과 대치되는 지극히 인공적인 정원을 두고 그곳에 시각적 목표물을 두어 두 Mass사이의 이동간의 흥미를 더하도록 하였다.

전시실, 다목적 Hall 및 사무공간등은 2개층 높이의 상자로써 2개층 높이의 단일공간인 다목적 Hall과 부분 2층의 전시실 사이에 2개층의 사무공간을 두었고 Lobby에서 뿐만 아니라 인접 도로에서도 직접 사무공간으로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Lobby를 통한 다목적 Hall과 전시실의 출입은 사무실의 폭만큼 이격시켜 단일화했고 전시실은 간접조명으로 유리한 북쪽에 우선 배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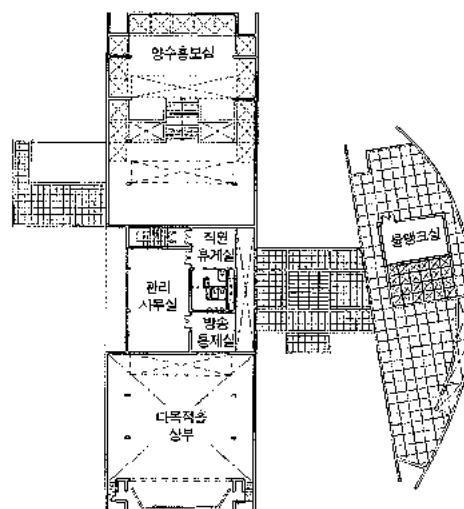
휴게기능의 동은 유형을 사용하여 형태적인 변화를 주었으며 내대천을 건너 지리산 진입로와 마주보고 개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건물형태는 가급적 단순화시켜 주변상황, 즉 자연과 인공적인 것의 대립으로 인지성을 높이고 지리산 진입 도로쪽으로 휴게기능을 배치하는 것, Solid한 Frame이 되어지는 홍보등에 Void한 입면을 갖게 하는 것과 더불어 그 외부를 여름철에 옥외 휴식공간으로 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활력에 찬 느낌을 주었으며 성수기의 지리산 방문객을 유인도록 하였다. 물론 이 휴게기능은 내대천과의 연관으로 더욱 다양한 기능을 수행케 했다.

비록 깊은 골짜기 지리산 천왕봉 아래 내대천변에 위치하여 격리된 곳에 자리하고는 있지만 홍보관이 발전소에 안접하고 있다는 사실 외에 지리산 진입로 변에 자리하고 있다는 이점을 살려 이 곳을 '세인의 주복을 받고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어 가 볼 만한 곳, 지나다가 들러 볼 만한 가치를 가지는 곳'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이 홍보관의 효용성을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점이라 생각되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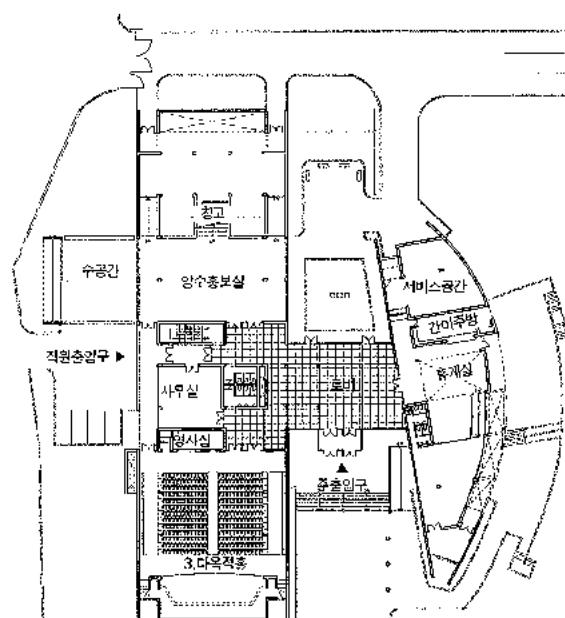
자신이 설계한 건물을 내놓고 발표하기란 그것이 계획안으로 머물고 있다하더라도 웬지 긴장된다. 그것은 다양한 잣대로서 그 건물을 평가할 다양한 눈들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그래서 설계자는 다소간의 겸손과 아울러 뱀舛스러움도 동시에 가져야 되는 것 같다.



지붕총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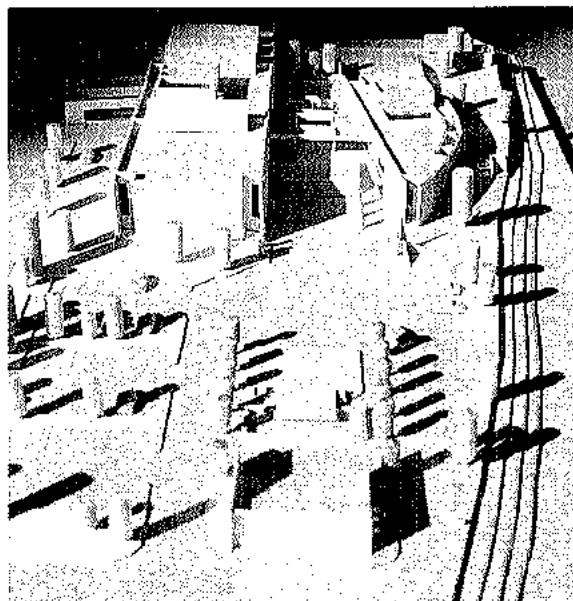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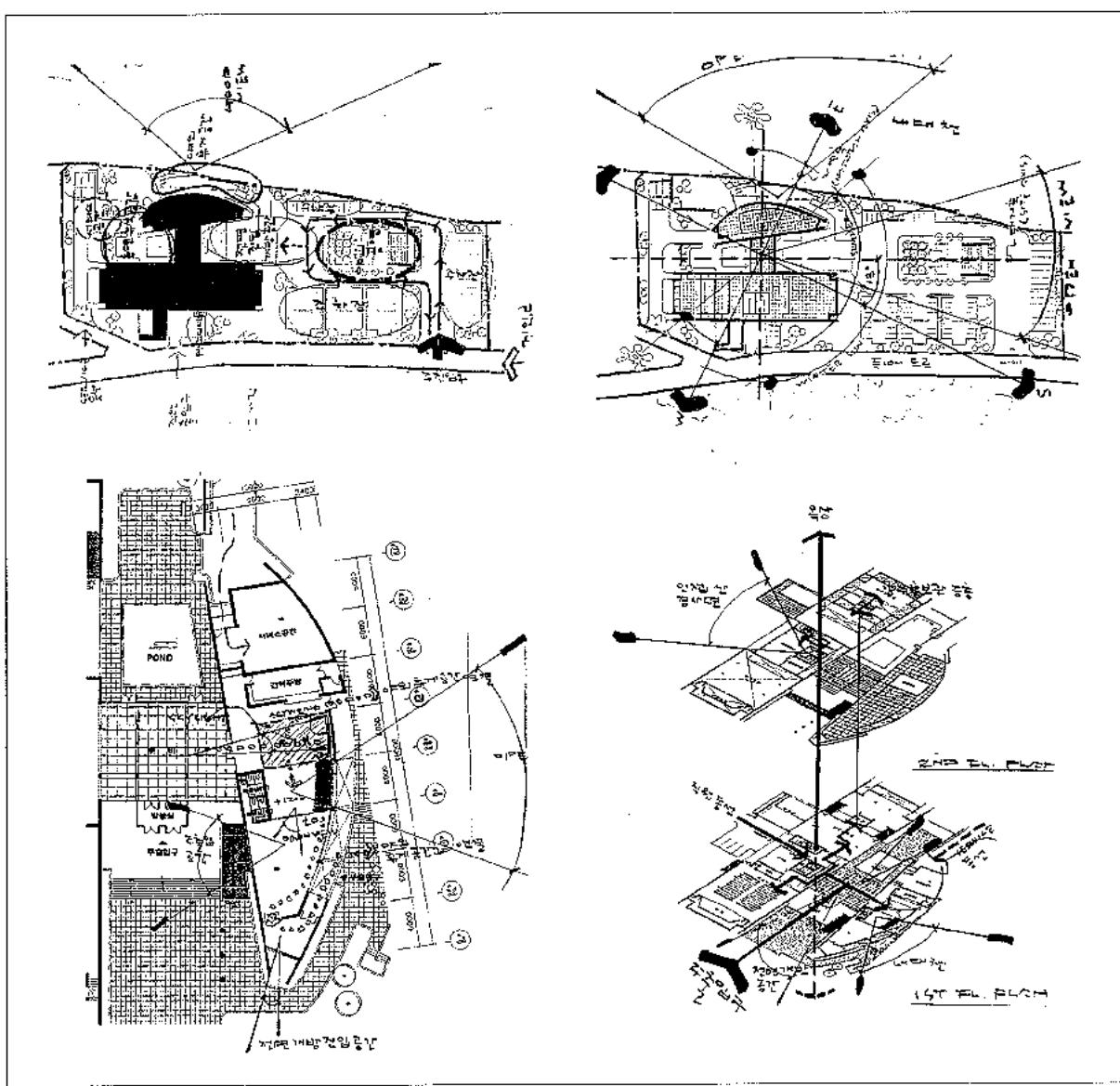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대지위치	경남 신청군 사천면 신천리 518번지
지역지구	취락지역 · 준도시지역
주요용도	전시시설 · 관람집회시설
공사종별	신축
구 조	철근 콘크리트 구조
외부마감	THK 30 화강석
대지면적	12,790.40m ² (3,869.09평)
건축면적	2,244.44m ² (678.94평)
연 면 적	2,525.00m ² (763.80평)
건 폐 율	17.50%
용 적 률	19.74%
규 모	지하1층, 지상2층
설계담당	주상선, 배진호, 한영주, 구홍석



모형



스케치

한국의 건축가 10 - 배기형(3)

Korean Architect, Bae Gi-Hyeong

그의 작품세계(2)

원정수 / 인하대 건축학과 교수
by Won Jeong-Soo

고 배기형 선생에 관한 역사자료를 정리하는 작업에 있어 본론의 내용이 부실한 듯해 안타까움을 느끼곤 한다. 고인에 관한 자료가 말소되다시피해 기록이 전무한 상태여서 건축가의 인생이 하루하루를 느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구조사를 중심으로 고인의 업적이 보존되어 한국건축역사를 보다 투명하게 평가할 수 있는 풍토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아쉬울 따름이다. 구조사를 이어가는 윤흥갑 소장에게서 배기형 선생에 관한 증언을 기대하던 중 윤소장이 갑작스런 건강악화로 서울대 병원에 입원하게 돼 필자가 기대하던 보다 알찬 자료지원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윤소장의 빠른 퇴원을 기원하면서 배기형 선생의 전기를 짜맞추어 원고를 이어가는데 전화, 메모 등으로 협력하여 주신 증인(특히 공장설계에 관한 증언은 김창서 소장, 최영규 교수, 주경재 교수 협조 내용임) 여러분에게 지면을 빌어 감사드린다.〈필자 주〉

◇ 연재 목차 ◇

(개재월)

1. 이희태 (9503~9505)
2. 김정수 (9506~9508)
3. 김수근 (9509~9512)
4. 정인국 (9601~9605)
5. 박길룡 (9607~9608)
6. 박동진 (9609)
7. 강 윤 (9610~9612)
8. 이천승 (9701~9702)
9. 김중일 (9703~9707)
10. 배기형 (9710~9801)

1. 건축가 배기형에 관한 기록과 자료
2. 그의 작품세계(1)
3. 그의 작품세계(2)
4. 증인들의 증언

주요작품의 시대적 구분과 배경

구조사의 설계실적기록자료에 의하면 1947년 인천 소재의 조선제마(製麻) 방직공장 신축 및 복구 설계로부터 시작되어 1975년 대한체육회 태승선수촌 실내 체육관 설계에 이르기까지 약 28년 동안에 걸쳐 설계활동을 한 실적을 볼 수 있다.

설계하였던 프로젝트의 종류를 분류하여 보면 공장건축설계가 무려 53건에 달하며 이를 건물 등수로 따지면 몇 배에 달하는 건물 건수가 되며 공장 이외 특수 공간 구조 또는 창고 건축 등 구조물의 설계건수도 37건에 달한다. 그리고 1958년부터 1963년까지 5년동안에 걸쳐 집중적으로 한일은행의 각지점 26개소 건축 설계를 거의 힘들다시피 설계하고 이어서 조흥은행지점 3개소를 설계하여 한국의 은행 건축에 관한 근대건축역사를 새롭게 전개하였던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역사의 전파과정은 대체로 전기, 중기 또는 전성기, 그리고 후기 또는 말기로 구분하는 3단계로 나누어 분석하는 형식을 많이 보게 된다. 배기형의 건축작품세계도 전기(前期), 중기(中期), 후기(後期)로 구분하여 보면 작품내용의 진기와 전문성의 성숙도가 사회적 영향과 관련되어 진화되어짐을 고찰할 수 있는데 이점은 건축학계가 다각도의 관점에서 연구되어야 할 대상이라고 본다.

우선 본론에서는 1947년으로부터 1958년까지 전기로 구분하고 1958년으로부터 1965년까지를 중기로 하였는데 이때 건축사법시행과 김창서의 사직으로 인

한 원인으로 구조사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1965년에서 1975년까지를 후기로 보며 이후는 윤홍갑 소장이 후계하는 구조사로 이어진다.

전기에 설계된 작품은 1950년 6.25 동란때 모든 정부 기구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피난 갔던 시기는 전국토가 파괴되고 경제가 파탄되었다가 전세가 호전되면서 임시 수도의 기능이 1954년에 휴전회담이 이루어지면서 서울로 환도하며 건설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이 때 대한중공업 인천공장(1953, 1954)을 건설하게 되는데 이는 한국 근대 건축 역사에 기록되는 중대한 설계 프로젝트가 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제일제당 부산공장(1953), 제일모직 대구공장(1954) 설계 실적은 배기형의 우수한 설계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저력을 건축계에 드러내며 관심을 모으는 결정적 단서가 되었다.

당시의 건축가들은 설계방식을 독자적으로 계획을 작성한 다음 상세작도는 물론 구조계산, 견적까지 독자적으로 완성해야 하는 설계 능력이 갖추어 있어야 하고 이를 뒷받침 해야 하는 설계 조수 역할의 보조원을 거느리는 구성의 설계 조직이었다. 배기형 역시 독자적으로 직접 설계 작업에 전념하며 2, 3인의 설계 보조 인력에 의존할 뿐이었다. 이러한 설계 체제로 1958년 까지 유지하는 시기를 전기라고 본다. 그 뒤 사무소의 규모가 커지고 발전되면서 파트너 건축가 박학재와 협력하기도 하며 본격적인 다수 인력의 집합단체의 설계조직으로 성장하면서, 종합건축의 주력이었던 이천승과 협력하게 되면서 배기형의 독자설계방식에 큰 개혁이 일어났다. 이때를 중기 또는 전성기 시작이라고 본다. 이때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1959)를 치르게 되고 1등 당선이 되어 구조사 배기형은 구조전문 건축가라는 선입관을 떨쳐 버리고 명실공히 한국건축계를 선도하는 건축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됐다. 이어서 남산 국회의사당 현상설계 참가 그리고 삼성계열의 한일은행의 여러 지점 설계가 전개되는데, 때에 따라서는 지점 설계를 동시에 두건을 한달에 완성하는 강행군의 격무에 시달릴 만큼 구조사는 프로젝트가 넘치는 분위기였다. 그리고 공군본부에서 의뢰하는 대형 철골구조의 격납고와 각종 특수구조설계를 도맡을 만큼 배기형의 구조물설계의 명성과 신뢰가 높았다고 본다.

구조사 배기형의 설계 실적 가운데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는 한국 전력 영월 제2 화력발전소 설계였다고 본다. 그리고 이때를 구조사 배기형의 전성기이며 절정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한국 건축가의 능력으로 발전소 건축을 독자적으로 설계 할 수 있다는 건축 기술 해석에 의한 역사적 평가이기 때문이다. 역사상 최초이기 때문이다. 이때 건축계에 기록되어진 작품으로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한일은행 을지로지점,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제일모직 “톱(Top)” 공장의 콘크리트 셀구조를 국내 최초로 연구실험설계하는 등의 새로운 건축창작활동이 두드러지는 활기찬 구조사의 전성기로 보게 된다.

배기형 건축·주요작품 연대표

	주 요 작 품		년 도	시 대 상 황
	일 반	공장 및 특수구조		
			1945 1946 1950	6.15 해방·배기형 귀국 구조사건축기술연구소 창립 6.25 통일·부산 임시 수도
		●대한농공업 인천공장 ●제일제당 부산공장 ●제일모직 대구공장	1953	수도 서울 수복
전		·동양제당 용산공장 ·실풍차지 청률공장 ·동양방직 전주공장	1954 1955 1956 ~ 1957	신간축문화연구소 거실 유전법정 조선 화재사건·신간축해산 구조사명의료 원원
기	·민성사 출축 ·을지 국장 ·파카디리 국장			
중	●중주비료사택단지 현상설계 1동 당선 한일은행 지주지점 1958~63까지 한일은행 자점 등 26건 및 조흥은행 3건 설계 ●유네스코회관 현상설계 1동 당선: 59. 4 착공, 67 재시공설계)	●공군예구기지 격납고 와 1963까지 15건 설계	1958	박학재교수 임시협력 이천승·김종식 추후 이희영 장류
기	●공군사관학교 도서관 ●조흥은행 남대문지점 ●한일은행 등지로지점 ·호남비료 톡신자속소	·공군사관학교 체육관 ·한국경력 양일제2 화력발전소 ·밀산산업 무령봉공장	1959 1960 1961 1962	남산국회의사당 현상설계 4.19의거 이대동령 헌야 5.16군사 구데타 위키힐 설계
	·중앙일보사옥(서소문)		1964	구조사+김종식 발전소 협동팀 저탄장설계, 흥운모 뮤립이행
		·동양나이론 용산공장	1965	배기형 간호기협회 부회장 1급 건축사법 시행
후	·경향신문사 서목 설계 폐기	·전주제지 전주공장 ·한국유리 제3로 인천공장	1966 1967 1968	김향세 사격 배기형 건축가 협회장
기	·카톨릭대학 본관 도서관 ·서울농협 본사무소 ·대한체육회 ·태평실태목관	·대양한 중소기업 생산공장 및 민관시설 설계가 예년 이어짐 ·한국유리·관련시설 계속 설계 ·제일제당 관련시설 계속 설계 ·1971 ·1973 ·1975	1969 1970 1971 1973 1975	남미여행 한국전업 그문 윤봉길·영보빌딩 철거로 장교사무소 이전
	·한국산업은행 본점 현상설계		1976 1977 1979	윤홍갑 소장 구조사 인수 건강악화 발세

주요작품(공장 및 특수구조)

- 대한중공업공사 중형압연공장(1953), 50톤 평로공장(1954) 인천

6.25동란으로 파괴된 공장건물, 산업시설의 재건 사업이 시작되는 가운데 중요한 중공업 산업시설이며 해방후 국내 건축 기술진에 의하여 설계되는 최초의 대규모 공장건축이다. 독일 데마그회사의 기술에 의한 제철생산시설의 공장구조설계 가운데 80톤, 50톤, 20톤의 2단 천정주행크레인을 지지하는 25m의 단층 중구조물을 설계한 것이다. 이미 본론에서 앞서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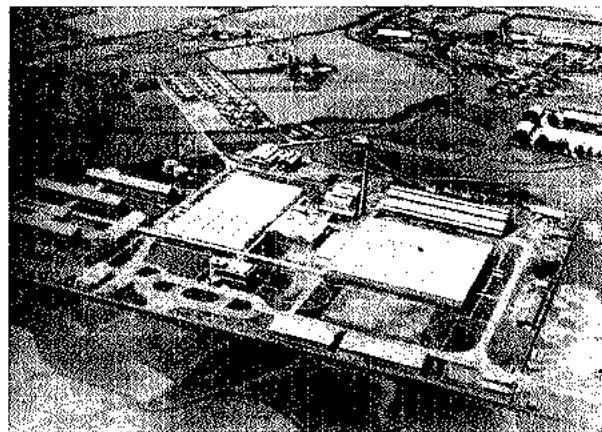
술한 바 대로 배기형의 공장구조물의 설계능력의 우수함이 한국 건축계에서 공인되는 계기가 되는 점과 당시를 대표하는 중견건축가의 구성으로 설계되어지는 협력설계과정이 특기될 만하며 이어서 협동설계사무소인 신건축문화연구소가 태동되는 역사적 사건이라고 본다. 이는 마치 1907년대에 독일 A.E.G 전기회사 터빈공장을 설계하는 피터 베렌스에게 모였던 그로피우스, 미스, 르 콜부제가 20세기의 현대건축을 펼쳐나가는 역사적 사건과 유사함을 연상케 한다.

- 제일제당 부산공장(1953)

1996년 5월호 「건축가」지에서 배선생 추모좌담회를 다루면서 함성권 교수가 제일제당 설계에 참여하고 현장시공의 시트파일기초와 철골조에 관한 언급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설계에 관한 자세한 기록과 자료를 확인할 수 없고 제당공장 건물도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철거되어지기 때문에 「이상건축」에서도 역사자료로 보존하려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들은 바 있다. 근대건축사 사료로서의 가치는 제당생산 공장건축의 성공으로 삼성기업의 발전에 계기가 되며 공장건축과 철골조, 구조설계의 실력을 드러내는 배기형의 첫 데뷔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 제일모직 대구공장(1954)

필자가 배선생과 함께 대구공장 현장을 방문하면서 실습 조수로서 건축 입문의 첫걸음을 하는 시기였다. 당시 영국산 양복지를 마카오에서 수입에 의존하여 소위 마카오 신사라는 속어가 유행하던 때 고급 양복지를 국산품으로 생산하는 모험을 성공시킨 생산시설공장을 설계한 건축가 배기형의 작품이다. 현대식, 수세식 세면시설의 여공 숙소, 식당, 후생시설이 완벽하고 방직을 직조공장은 톱날지붕의 재래, 자연 채광구조이며 생산지원설비의 배치계획은 기능적이다. 특히 공장구내에 분산된 각 건물을 연결하는 옥외통로를 물결치는 파도형태의 지붕을 덮어 생산효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공장구내는 마치 문화공간의 캠퍼스 환경을 느끼게 하였다. 그런데 곡선의 지붕재료는 미군 막사의 폐품 골 함석재료를 이용하므로써 폐품 재활용과 경제성을 높이는 건축적 해결이었다. 제일모직의 우수한 모직제품은 세계시장에 진출하게 되는 눈부신 발전을 보게 되고, 1961년에 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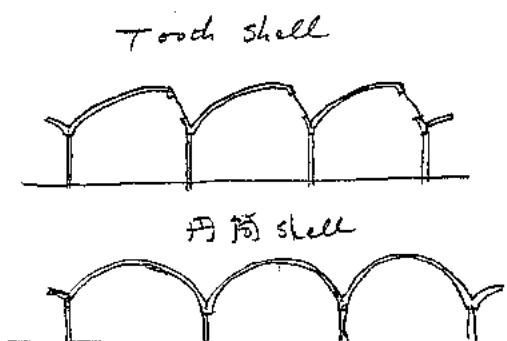


초기의 제일모직 대구공장

모로부터 실을 만들고 염색을 하는 원자재 가공 생산공장을 설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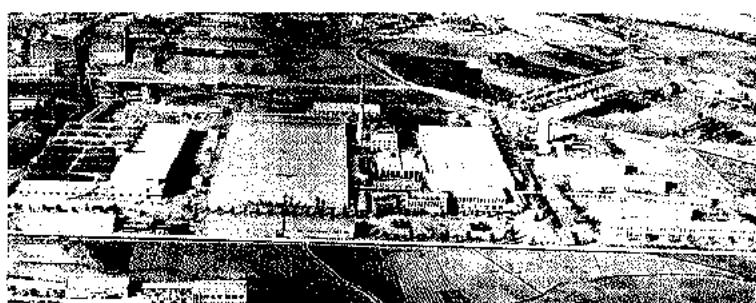
- 제일모직 Top 공장(1961)

1차 건설 단계에서 건설한 방직공장의 생산기능에 이어 방직 원자재인 양모에서 실을 뽑아 낸 실묶음의 Top을 제조하는 공장건물을 확장하는 설계를 하게 됐다. 1차 건설 단계의 생산공장 건물 구조는 철골조였으나 Top공장은 철근 콘크리트 셀구조로 계획하였다. 이는 국내에서 최초로 설계될 뿐만 아니라 건설 공사비의 증가가 예상되며 건설 공법에도 실험의 도함이 뒤따르는 것이었으나 당시 삼성 측의 이해가 따른 것은 건축가 배기형에 대한 신뢰가 어느 정도 두터운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당시 새로 발간되는 건축설계 자료 외국 문헌의 공장건축은 영국의 구조 건축가 오베아룹(Ove Arup)의 다양한 콘크리트 셀구조가 개발될 때이었으며, 철골구조에 도통했던 배기형은 외국 공장건축의 새로운 구조에 흥미를 크게 가졌던 것을 필자는 함께 문헌 자료를 다루면서 자주 대화를 나누었었다.



Top공장의 셀구조는 밀폐지붕의 원통형 셀(R.C. Cylindrical Shell)구조와 천정 채광창이 있는 톱날형 셀(R.C Folded Plate)구조의 두가지였다.

국내에서 최초로 구조 설계되는 구조 해석은 스판 20m의 원통형 셀을 함성권 교수(주경재 교수, 이병해 교수)가



제일모직 대구공장

담당하였고 톰날형 쉘은 최종원 박사가 담당하였다. 최초로 다른 어지는 쉘구조의 구조 해석의 최종 검토에서 일본의 지문을 받는 등의 철저와 완벽을 기하는 과정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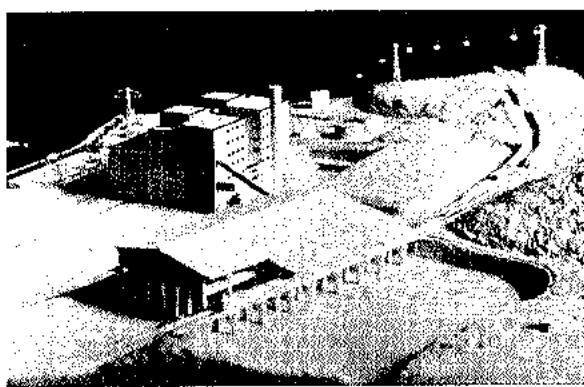
건설 과정에서 발생한 어려움이 전해진 내용 가운데 거푸집의 제작과 이를 이동시키는 공법인 Travelling Form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쪽면으로 경사진 지붕 표면 위에 콘크리트를 손으로 놀려 불일 정도로 슬립프치를 5정도로 하는 어려운 공사를 치렀고 지붕 방수는 특수 쉘구조 방수가 없던 상황에서 재래 아스팔트 방수로 마감한 결과 외기에 영향으로 흘러내리는 하자로 인해 마침내 재래식 경사 지붕 구조를 덧붙이는 모순을 낳게 됐다.

당시의 기술과 신재료가 후진성인 상황에서 선진국 건축의 새로운 시도를 실험하기에는 너무나 참담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도전하는 그의 건축적 집념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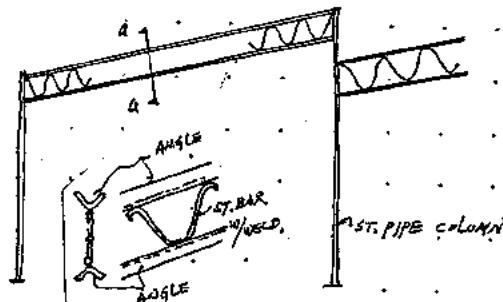
- 동양염작 진주공장(1957)

한국동란 휴전 이후 공장건설의 활기가 넘쳤으며 특히 방직산업의 발전이 가장 활발했다. 특히 국산직물로 세계시장으로 크게 수출되는 것은 실크산업이었으며 동양염작 진주공장도 그 가운데 하나였다. 동양염작 회사는 진주공장의 설계를 의뢰하고 이어서 서울에 세울 을지국장 설계마저 의뢰하게 되는 고객이었으며 건축가와 유대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신뢰와 호감이 뜨거운 가운데 설계가 진행된 것을 필자는 생생하게 기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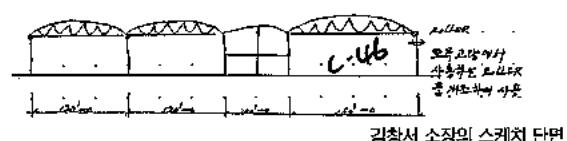
공장구조의 기본개념은 간결하고 경제적이며 간편한 공법을 목표로하여 한국실정에서 값싸게 구할 수 있는 철재와 쉽게 철골제작이 가능한 구조재로 설계하여 건축주의 만족도 크게 높인 셈이다. 기둥은 파이프로 세우고 지붕트拉斯는 철판 접합을 생략한 조립빔을 앵글과 철근으로 융접하여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철골구조의 설계방식은 바로 국내 상황의 어려움과 현장현황을 철저히 고려한 경제성과 효율성을 가장 뛰어나게 해결할 수 있는 목표를 언제나 중요시하는 연구자세와 창의적인 구상을 배기형의 명성을 높여가는 저력이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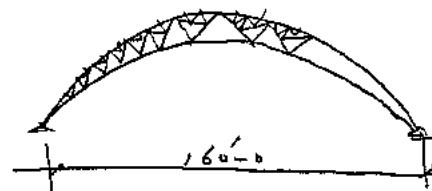
영월 제2 화력발전소



- 공군 대구기지 격납고(1958)



김창서 소장의 스케치 단면



최영규 교수의 스케치 단면

한국동란의 휴전에 때 맞추어 군사기지 및 시설은 견고하고 장기적인 영구구조로 건설하게 된다. 한국공군도 대구기지에 수송기 정비 격납고를 건설하는 설계를 구조사에 의뢰하게 되는데 당시 필자는 공군시설장교로 복무하던 때이다. C-46 기종의 쌍발수송기를 수용하는 대형아취 트拉斯의 스판은 160피트로써 국내 최초의 대형 공간 구조물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동란으로 파괴된 전국은 일체 공업생산기능이 마비되어 건설자재는 전적으로 외국원조에 의존하게 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군사시설은 군사원조로 지원받은 건설자재를 활용하였으므로 설계철도 기준 단위도 미국의 피트, 인치 단위로 사용되었다. 구조재로부터 설비기자재에 이르기까지 군사원조 품목에 따라서 설계 견적을 하면서 척도 단위의 혼란으로 인한 번거로운 문제가 많이 야기됐던 시대였다. 철골 트拉斯 구조계산은 김창우(작고)에 의해서 해결되었으나 뒤에 변경조정되는 과정에서 최영규(인하대)교수에 의해서 재설계 되어졌다는 최교수의 증언이 있다.

설계에 관여했던 김창서의 기억으로는 아취구조가 3점 힌지트拉斯에 롤러힌지 처리하는 상세로 해결하면서 대형 건축용 롤러힌지를 구할 수 없어서 토목교량용을 개조하였던 것을 증언했다. 트拉斯의 변경이 발생한 원인으로 아취 지붕표면의 쪽면을 살리기 위해 트拉斯 부재구성을 최교수 그림과 같이 변경하게 되었다고 증언했다. 당시 필자의 기억으로는 지붕마감은 목

재널판을 덮고 방수층의 지붕 마감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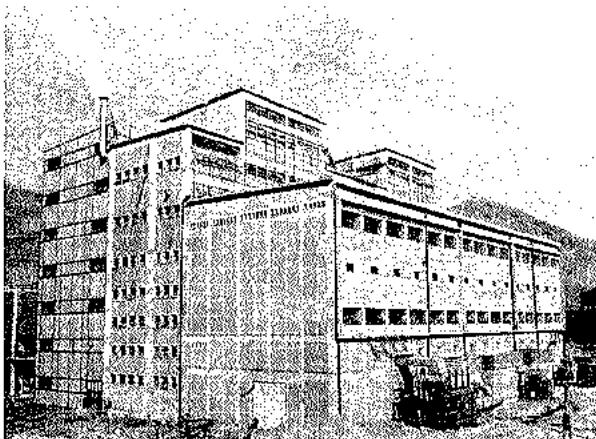
장스판의 대형트리스를 시공하는 과정에서 태풍 피해 때문에 추락한 트리스에 깔려서 안부 3명이 희생됐던 난공사였으며 군사시설의 건설관리업무 또한 특수부대구성의 건설본부 시스템으로 건설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건설사업이었다.

- 한국전력 영월 제2화력발전소(19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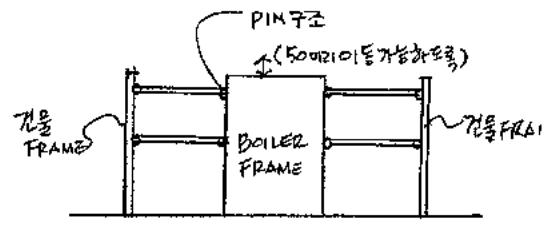
남북분단으로 말미암아 남한이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의 하나는 압록강 수풍댐에서 송전되던 전기공급이 단절되어 모든 가정은 석유 등불빛 어둠의 세계에서 큰 고통을 겪었던 것이다. 이때 발전소 건설을 착수한 것이 영월 화력발전소인데 제1화력발전소는 일제시대 건설한 용량 2만Kw 규모였다. 여기에 국산 저질탄(3,500Kcal)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전 시설로서 독일의 MAN회사의 기술지원으로 용량 20만 Kw를 설치하는 발전소 건물을 국내 설계로 건설하는 것이다. 설계는 구조사 배기형을 중심으로 김종식 건축설계와 협동으로 발전소 건물을 설계하고 저탄장은 홍순오 건축설계에서 맡은 발전소 설계 협동팀이 구성되었다. 건축가 배기형, 구조담당 학성권 교수는 설계 협의자 독일을 방문하고 돌아와 설계를 미쳤다.

발전소 건물구조는 국내최초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일반 콘크리트 라멘구조와는 달리 외벽과 중앙보일러 건물 사이를 연결하는 보를 핀으로 접속시켜 50mm의 이동이 허용되도록 하는 특수 구조이다. 특히 진동이 심한 터빈 기초의 설계는 독일의 자문협력으로 성공적으로 해결하는 등 새로운 특수설계를 국내설계 실력으로 해결한 점은 한국 근대 건축역사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는 것이며 건축가 배기형의 전성기에서 가장 중요한 작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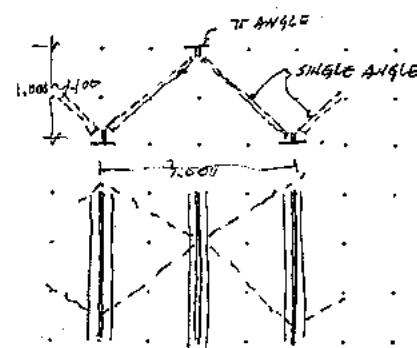
저탄장 구조의 설계를 최종단계에서 구조사의 설계로 완성되어지는데, 구조계획을 국내최초로 입체 트리스로 하여 구조를 정경(작고)교수가 해결하였는데 구조체계의 이해를 돋기위해 구조 모형을 만들어 스터디하는 열의를 보일만큼 새로운 시도였다. 최근에는 볼조인트로 파이프 부재를 이어 구성하는 입



영월 제2화력 발전소



단면 개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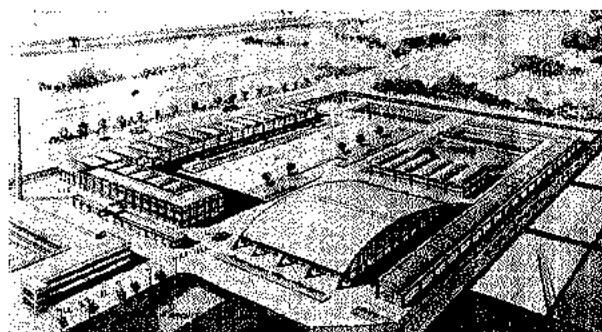


저탄장 지붕구조 입체트리스 상세 스케치

체트리스 구조가 대중화되어진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다.

공장건축의 설계를 해결한 사례를 들이켜 보면 국내 최초로 건설되어지는 것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구조설계를 볼 때 그의 실력과 저력이 뛰어남을 말하여준다.

뒤이어 일신제강 영등포 공장(1962)을 파이프 구조로 설계하여 구조접합부의 상세해결을 일반 철강제의 접합을 철판과 리벳트 상세의 일반해를 벗어난 파이프와 철판이음을 용접 해결한 설계였고, 국립건설연구소 수리시험실(1967)을 입체 트리스 구조로 설계하여 공간구성의 효율과 건설비 절감의 큰 효과를 거두는 등 많은 공장 구조물의 계획과 설계는 한국 건축계에 커다란 공적을 세웠다는 것을 말하며 배기형이 남긴 작품 제작 과정에서 크게 영향을 받은 후진들은 오늘의 건축설계분야 발전에 주축이 되는 인재로서 많은 활약을 하고 있다.



국립건설연구소 수리시험실

지역건축탐방 2 - 울산 · 경주 · 포항

Visiting Regional Architecture/ Ulsan · Kyungju · Pohang

건축적 지역주의

이번 지역건축을 기획하면서, 여러 가지 상념에 잠기게 되었다. 건축에서 지역성이 어느 정도 내재되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혹시 더욱 부정적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라면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을지, 또 어떤 긍정적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지… 계다가 여러 개발도상국의 상황과 아시아의 건축적 진행을 보면서, 어찌면 우리는 더욱 난감한 상황을 보게 될지도 모른다.

'건축을 발전시켜온 어떤 민족도 각기 독자적 언어, 복장, 민속이 있는 것처럼, 그들이 좋아하는 형태를 발전시켜 왔다. 19세기에 문화의 국경이 붕괴될 때까지 온세계의 건축에는 지역고유의 형태와 디테일이 있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 특유의 건물도 사람들의 창조력과 그 지역의 필요성의 결합에 의하여 태어난 아름다운 산물이었다. … 그러나 현대 이집트에는 이집트 고유의 토착양식을 찾아볼 수가 없다. 바로 이집트인의 서명이 없다. 그것이 부자들의 집이건 가난한 자의 집이건 무성격하기는 마찬가지이며 이집트인의 자취란 사라져 버렸다.' - 하산 화티, 1973년 -

선진국은 스스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이런 사회적 문화적 변동에 적응하기 위하여 1세기 이상의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다. 개발도상국의 급속한 변화에는 건물도 변화의 수단으로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민족적이며, 지역적인 전통이야말로, 새로운 지역주의의 기초로서 보존하고 사용되어야 된다는 '설세한' 서양의 관찰자들의 탐원은 이같은 상황에서 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커티스는 보았다. 설세한 서양인이 아니라 자국민 스스로 자신의 문명에 대하여 파괴적인 입장에 서있다면 더욱 난감한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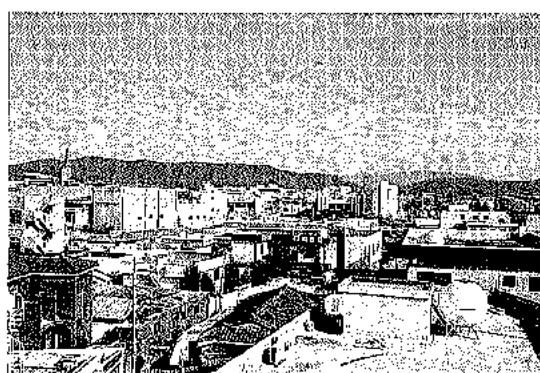
지역주의의 의미는 무엇일까? 건축에서 '지역'의 범주는 어디인가? 인종적 분포 또는 민족적 무리를 이룸지 은 것인가? 아니면 인종과 민족의 공통점인가? 그것도 아니라면 정치적 경계선으로 둘러싸인 경계를 말하는 것인가? 모든 지역이 다 지역주의로 대별될 수 있는가? 어느 곳이 건축에서의 중심지역이며, 또 지역주의는 누가 판별하는가? 프릳튼은 문화적 인 중심지와 종속적 관계를 지니는 지역주의를 잘못된 구조로 보았다. 근래 10년간 세계적으로 다양한 지역주의가 대두했다. 지역의 개념적, 제도적, 법적인 상태가 어떠한가가 중요한 요인이 된다.

19세기 동안에 유럽사람들이 그들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목적에 활용하기 위하여 부분적으로 거짓된 역사관을 피력했을 때, 유럽지역에서의 지역주의 개념들은 아이리쉬, 까탈로니아, 핀란드 등을 평가하는 역할이 있었다고 한다. 지역주의를 "김상적인 민족적 편견에서 비롯된 광신적 배타주의"라고 낮추어 바라보는 그로피우스의 시각에 대해, 당당히 맞설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리페르의 말대로 미래에 어떠한 유형의 침된 문화를 유지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문화나 문명의 단계에서 외래의 영향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역문화의 활기찬 형태를 발생시키는 우리 능력에 달려있다.

'지역적' 범위는 서구에서 합중국으로 존재하는 경우, 대부분 이질적 문화들의 혼합지역이기 때문이다. 한국과 같이 비교적 단일한 성분의 종족으로 한 국가가 유지된 경우와 미국과 같이 다양한 종족이 모인 경우 등과 비교하면 '지역'이란 이름에 어떤 판단기준이 있어야 할까? 근래 지역적 변동이 적었던 한국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재론할 여지가 적다. 그러나 한국의 역사시대내에서도 확인되지 않은 부분들이 존재하고, 역사시대의 범위를 넘어서 선사시대로 확대하면 '지역'의 개념의 외연적 대상은 더욱 모호해진다. (성인수 / 편집디렉터)



울산 신시가지 전경



경주시내 전경

지역과 지방

Region and Regionalism

장남수 / 울산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
by Chang Nam-Soo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수년이 지나면서 지방시 대니 지역문화니 하는 낱말은 더이상 낯설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단어들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사용하는 것들이고 또한 그런만큼 습관적으로 희자되기도 하지만 가만히 되새겨 보면 묘한 뉘앙스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 듯하다. 실제, 지역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지역운동)와 '지방'이라는 접두어를 사용하는 경우(예컨대 지방대학)가 때에 따라 각기 다른 뿐 아니라, 후자는 어떤지 모르게 촌스럽고 덜 세련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이다.

사전상으로 볼 때 지역과 지방은 엄연히 다른 낱말이다. 이것은 지역의 상대개념이 전국 내지 전체이고 지방의 상대개념이 중앙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더욱 그렇다. 그러나 사람살이의 구체적인 터전을 놓고 따져 들면,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이 문제도 복잡하게 얹혀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내가 살고 있는 울산을 예로 들어보자. 울산은 대한민국 전체가 아니므로 엄연히 한 지역이지만 서울이라는 중심에 비하면 분명히 지방이기도 하다. 따져 보면 울산만이 지방이겠는가. 서울도 미국의 뉴욕이나 LA 같은 중심지에 비할 때 지방에 불과하다. 또한 뉴욕이나 LA가 서울 내지 울산에 대해 지방(변두리)으로 위치지워질 날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가능성은 있지만 관념상으로는 그려볼 수 있다.

그러나 울산, 서울, LA, 뉴욕 모두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특정 공간 즉, 지역이기도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지역은 지구상의 특정한 공간을 의미하는 '중립적' 인 개념이지만



포항시내 전경

지방은 타지역과의 관계를 전제하고 따라서 일정한 '권력관계'를 함축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문제의 복잡성이 더해지는 것은 지역, 지방이 지리적인 차원만을 지칭하진 않는다는 사실에서 비롯한다. 지역과 지방의 문제에는 지리적인 차원뿐 아니라 문화적이고 사회적인 차원이 복잡하게 섞여되어 있는 바, 성(性)·계급·인종·민족 어느 관점을 취하든지 중앙과 지방, 중심과 주변의 문제는 거의 자동적으로 제기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역이나 지방이라는 회는 대상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낱말이다. 평면적인 사고로는 지역이 안고 있는 문제의 특수성을 제대로 고려하기도 어렵거나와 그 일감을 보편적인 차원으로 승화시키기는 더욱 불가능하다. 오늘날 우리의 관심을 끄는 굵직한 문제 중에서 한 지역에만 국한된 문제는 없다해도 과언이 아닐텐데, 이는 동남아시아의 산불피해가 주변지역에 연무현상으로 확산되면서 일으키는 피해를 봄도 실감할 수 있다.

또다른 예를 들자면 한 회사가 망해서 공장문을 닫거나 역으로 공장을 특정지역에 새로이 짓는 문제는 해당 지역뿐 아니라 그 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타 지역의 관심사이기도 하고, 국가경제 전체의 관심사이기도 한데 특정지역에 국한된 시야로는 타 지역이나 국가전체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역과 지방의 문제가 각기 별도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한 지역의 문제를 타 지역과 관계짓지 못하고 그 자체에 국한해서 생각하는 발상의 다른 표현으로써 이야기로 평면적 사고의 한 전형인 것이다.

오늘날 "전지구적으로 사고하고 지역적으로 행동하라"는 슬로건이 새삼 의미있게 다가오는 것도 자본주의 전지구적 팽창과 함께 한 지역의 특수한 문제를 보편적인 시각에서 생각할 필요성이 점차 증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영문학의 대가 중엔 잉글랜드 본토 출신이 아닌 작가도 쉽사리 찾을 수 있다. 에이츠(Yeats), 조이스(Joyce)를 위시하여 아일랜드, 스코틀랜드 출신의 많은 작가가 그들의 위대성을 인정받는 깊은 이들이 자기 지방의 문제를 협소한 시야에서 디루지 않고 인류 보편적인 문제로 소화해냈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의 문학이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는 소이는 자기지역의 구체적이고 특수한 문제에 대한 치열한 관심이 이들의 창작에 뒷배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잉글랜드 본토 출신 중에서도 위대한 대가로 인정받는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이 살고 있는 시대의 핵심적인 문제를 거시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 이를 예술적으로 형상화하는 데어난 솜씨 때문에 주목의 대상이 된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작은 범위의 특수한 문제와 그보다 넓은 범위의 보편적인 문제는 입체적 상호작용을 통해 서로의 건강성을 담보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바, 우리가 지역과 지방의 문제에 새삼스레 주목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울산의 과거와 현재

From the Ancient to Today
:The Rise and Development of Ulsan양상현 / 울산대학교 사학과 교수
by Yang Sang-Hyun

1. 전통시대의 울산

울산에 남아 있는 빗살무늬토기 등의 유물과 암각화 등의 유적으로 보아, 이 지역에는 신석기시대부터 사람 이 살기 시작하였음을 알 수 있다.¹⁾ 청동기시대에 들어와 울산에는 구릉지대를 중심으로 취락이 형성되었고, 언양면과 두동 면에 산재하는 고인돌로 보아 권력출현과 초기국가의 성장을 증명할 수 있다. 이 지역의 우시산국, 거지화국, 호로국은 그 구체적인 예이다.²⁾

삼국시대 울산은 경주의 외항(外港)으로 기능하면서, 신라의 대외접촉 창구와 수도 방어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였다. 율표, 사포, 개운포는 대외접촉 창구였고, 관문성, 벌서산성, 대운산성 등은 방어기지였다. 더욱이 석씨 집단의 등장과도 관련이 깊은 농소지역의 달천 철광산은 이 지역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고 있었다. 경주 불교의 영향으로 울산에는 많은 사찰들이 건립되고, 불교문화가 전파되었다. 동축사, 태화사, 망해사, 영축사는 울산의 대표적인 불교 유적들이다.

통일신라시대까지 몇 개의 군과 현으로 분리되어 있던 울산은 고려 태조 때 홍려부(興麗府)라는 독자의 행정 단위로 인정되면서 하나의 영역으로 통합되었다. 이는 당시 울산 호족 박윤웅이 왕건을 도와 고려를 일으킨 것과 관련이 깊다.⁴⁾ 고려시대 울산은 동해안을 통하여 침입하는 왜구 등 해적

을 방어하는 군사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하였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울산에는 경상좌병영이 설치되고, 한때는 경상좌수영까지 설치되면서 동부 영남 방어의 중핵으로 기능하였다.⁵⁾ 임진왜란, 정유재란 때 이 지역에서 전개된 관군, 의병, 일본군 사이의 공방전은 군사기지로서의 울산의 중요성과 관련이 깊다.⁶⁾ 병영성, 개운포성, 학성, 서성성 등은 그 대표적인 군사 유적들이다.

19세기 울산의 인구는 32,376명이었다.⁷⁾ 당시 울산에서도 중세 사회의 모순이 심화되면서⁸⁾ 민란이 발생하고 있었다. 1862년(철종 13) 민란은 좌병영이 운영하는 환곡 폐단이 발단이 되어 발생하였는데, 병사 정주용의 무력진압으로 좌절되었다.⁹⁾ 1879년(고종 16) 민란은 아전이 공금을 유용하고는 이를 농민에게 부당지운 것이 발단이 되어 일어났으나, 좌병사의 설득으로 해산하고 문제가 된 아전과 민란 주모자 처형으로 끝났다.¹⁰⁾

1985년의 군사제도 개편의 과정에서 좌병영은 해체되고 그후 진위대가 설치되었으며¹¹⁾, 울산부는 울산군으로 위상이 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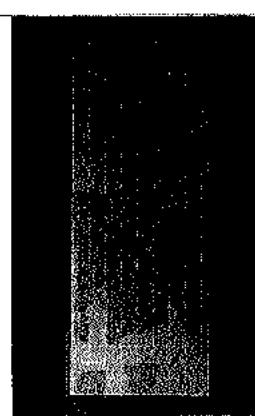
2. 일제시대의 울산

1916년 말 울산에서는 2,593명의 일본인을 포함하여 124,343명의 주민이 거주하였는데, 이들의 직업은 대다수가 농업이었고, 다음은 상업, 어업의 순서였다.¹²⁾ 특히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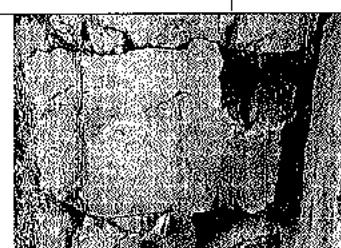
1) 문명대, 1973 「울산의 선사시대 암벽화」, 『문화재』 제7호 16, 33-40쪽
2) 진호태, 1997 「울산 유적 유물의 특성과 시립박물관의 성격」, 『울산의 고대문화』, 처음기획, 51-52쪽.

3) 신석기, 1997 「고대의 울산과 신라 산씨 왕실」, 『울산의 고대문화』, 처음기획.
4) 구산우, 1992 「울산 농민항쟁의 고찰」, 『한국문화연구』 5(부산대 한국문화연구소), 19-48쪽
5) 조선왕조실록에는 울산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좌병영, 좌수영과 관련된 논의가 적지 않는데, 그 내용은 좌병영과 좌수영을 동일한 지역에 설치하여 주민의 무관 가들이 기동하고, 방어에도 문제를 막으니 좌수영을 다른 지역으로 옮길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많았고(이는 실형에 둘기제 1892년에 좌수영을 동래로 이전하였다), 일부 해설 설치와 관련하여 좌병영과 아전과 관련한 논의도 여러 번 있었으나 실증화지는 않았다.

6) 권호식, 1993 「정유재란 중 울산현전」, 『소현남도임박사고회기념 역사학논총』, 349-404쪽
7) 「경상도읍지」, 울산.
8) 신분제의 변화와 관련한 조선 초기 울산지역의 중세사회의 변동에 대해서는 이광규, 1984 「조선 초기의 사회구조와 법령 : 울산지역 혼적을 중심으로」, 『한국문화』 5(서울대 한국문화 연구소), 109-105쪽
9) 양원한국사연구실 19세기 농민항쟁부과, 1968 「1862년 농민항쟁」.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6,602쪽, 「울산민란」 항목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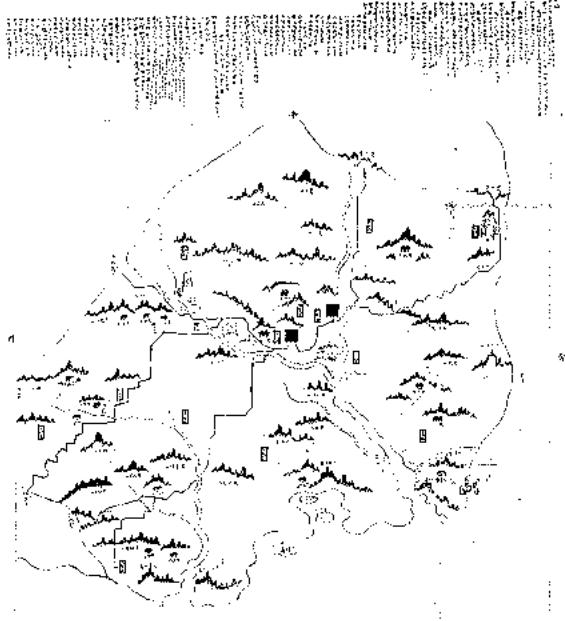
반구대 암각화 탁본. 위치: 울산대학교 교수휴게실 내



가까이에서 본 암각화



경상좌병영에 있던 선정비들, 병영 1동 사무소 (사진 한상건)



蔚山地圖 18세기 중엽 「朝南地圖」帖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조선시대 지방지도", 43쪽.)

생포를 근거지로 한 포경업은 이 해에도 128두의 고래를 잡아, 153,653엔의 생산고를 물리고 있었다.¹³⁾

강과 해안을 끼고 있는 울산은 조선 후기부터 태화강의 연어 어장을 비롯하여 훌륭한 어장이 발달하고 있었으며, 소금과 미역이 많이 생산되고 있었다.¹⁴⁾ 그러나 일본의 어업침탈이 시작되면서 울산어업의 주도권도 일본인의 손에 들어갔다. 장생포항과 방어진형을 거점으로 진행된 어업은 1910년 대에 전국 어획고의 10%를 차지하는 수준에 도달하였지만 어업의 주도권은 일본인이 장악하고 있었다. 특히 고래잡이의 경우에는 압도적이었다.¹⁵⁾ 당시 일본인은 어업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주요 상권도 거의 독점하고 있었다. 이러한 일제의 울산 침략은 민족적 모순을 심화시키고 있었다. 3.1운동 시기 울산에서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는 대중들의 만세 시위가 일어난 것¹⁶⁾도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일제 말기 대륙침략을 위한 병참기지 건설과 관련하여 기존의 부산과 사모노세끼 항로 이외에 울산과 일본

아미구찌현 유곡(油谷)을 연결하는 제2항로 건설의 일환으로 울산항 축항계획사업이 추진되었고, 이와 관련하여 50만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울산 대도시화 계획이 수립되어¹⁷⁾ 대현면 전역을 물산읍에 합치면서 장생포에는 출장소를 두었고, 울산항과 울산항 사이에 진입 철도가 부설되었다.

한편, 1944년에는 일제가 침략한 남방지역에서 생산된 원유를 이용하여 석유를 생산할 목적으로 울산 고시동 일대 15만평에 조선석유주식회사가 건설되었고, 방어진에 대규모 조선소 건설계획이 진행되었다.¹⁸⁾ 또 1941년에는 1928년에 삼산동에 건설한 울산비행장을 군용비행장으로 개조하였다.¹⁹⁾

이러한 일련의 계획들은 국가 총동원령에 따라 공사현장에 강제 동원된 지역주민에게 고통을 안겨주었으며, 각종 사회간접시설과 공장의 건설도 대륙침략을 위한 식민지 공업화의 일환으로 이루어져 울산 지역의 경제 발전과는 거리가 멀었다.

3) 현재의 울산

해방 이후 자주적인 민족국가를 건설하려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과 충돌은 울산지역에서도 예외가 아니어서, 울산에서도 1946년 2월 연양면 농민조합 간부에 대한 테러 사건이 있었고²⁰⁾, 10월에는 미군정의 경제정책에 반대하는 대규모 대중 시위가 있었다.²¹⁾

1962년 공업화 이전에 울산은 인구 8만 5천명의 중소규모 지방으로 취업인구의 71.4%가 농수산업에 종사하였고, 공업 인구는 4%에 불과하였다. 공장의 숫자도 42개에 불

11) 서인환, 1996 「대한제국 고사제도 인구」(국민대 박사학위논문), 185쪽.

12) 『울산민내』(1917, 울산군), 4-6쪽.

13) 위의 책, 44쪽.

14) 양상현, 1997 「내장원의 해새 관리와 징수」, 「대한제국기 내장원 재정관리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264쪽, 295쪽 참조.

15) 울산지역의 포경업에 대해서는 어우수, 「울산향토사연구」, 197-216쪽에 자세히 나와있다.

16) 兵船二一詞奉禁令 편, 『병영 3.1운동 악서』 참조

17) 주경, 「증희의도도」(『경문화학』, 1981년 11월호), 145쪽 울산중암단지 입지조사단 안경호의 증언.

18) 『해비고集 30年史』(1992, 울산상공회의소), 68-69쪽.

19) 위의 책, 95쪽.

20) 『해양조선』(1988, 과학과 사회), 280쪽, 2월 5일자 기록 참조.

21) 김지연, 1991 「대구 10월항쟁인구」, 부록 『투쟁일지』 105쪽과 109쪽 참조



연양울성의 성벽 (사진 한삼건)



'1962년 시승격 당시의 울산시 중심가' (출처:
울산공업 30년사)



경상좌병영의 하마비, 병영초등학교 내
(사진 한삼건)

파하였으며, 업종도 식품 등 소비재 가공공장이 대부분이었다.²²⁾

그후 울산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특별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업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건설부에 울산특별건설국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등급도 올라 승격되었다. 이에 힘입어 농, 어업이 주었던 울산은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비철금속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의 임해 중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울산의 도시 공간구조도 구울산읍과 병영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신정, 아음동의 신시가지, 장생포와 석유화학단지의 공업지대, 기계장치산업의 중심지인 얼포, 방어진지구로 변화되어 갔다.²³⁾ 이 사이에 울산의 인구도 급증하여 1990년에 69만명에 도달하였다.²⁴⁾ 공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자가도 높아갔고, 노동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계열사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의 발전이 울산 주민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기업이 공해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해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갔고, 금기야는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과 농업과 수산업의 황폐화라는 사태를 야기시켰다.²⁵⁾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함께 금년 들어 인구 100만의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 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울산공연 30년사』, 263쪽.

23) 『울산광역 30년사』, 119쪽.

24) 『울산공업 30년사』, 103쪽.

2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공해로 쫓겨나는 주민들 - 울산, 괴질로 신음하는 주민들 - 온진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51-85쪽, 같은 책, 86-119쪽.



현재의 울산 시가지: 태화강과 멀리 고층아파트들이 보인다.



위험받고 있는 태화강변 대나무 숲과 멀리 보이는 고층아파트



울산도호부 동현의 주건물 (사진 한삼건)

울산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한삼건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by Han Sam-Gun

울산의 중심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강은 말하자면 울산의 젖줄이다. 이 강의 전체길이는 약 41.5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길이에 비하여 수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70년대 이전, 즉 울산공업단지의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의 태화강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지금은 사라진 모래섬을 경계로 앞강과 뒷강이 나뉘고 그곳에는 은어며 황어, 모치 등이 강물만큼이나 많았다. 맑은 강에는 강조개가 널려 있었고 강기에 늘어선 포풀러 숲과 길고 푸른 강둑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었다.

이 태화강에는 용금소 혹은 황룡연이라 불리는 깊은 소가 있다. 태화강 북쪽의 구시가지와 남쪽의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주동맥인 태화교 바로 상류가 이 황룡연이다. 황룡연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위에는 과거 어느 때인가 태화루라는 큰 누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곳을 찾았던 시인 육객의 시문이 읊지 등에 전한다. 말하자면 이곳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승지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 울산도호부의 사직단이 위치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수 백년간 나라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던 이 곳도 일제시대에 대지가 민간에 불하되고 현재는 국적불명의 건물이 예식장 간판을 달고 서 있다. 높은 대 아래에는 청수도 흐르지 않으니 누각도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태화강이 생활하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70년대의 어느 날 우리는 태화강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

파하였으며, 업종도 식품 등 소비재 가공공장이 대부분이었다.²²⁾

그후 울산은 1962년 경제개발계획에 따라 특별구로 지정되었으며, 공업도시 울산건설을 위해 건설부에 울산특별건설국이 설치되었다. 도시의 등급도 올라 승격되었다. 이에 힘입어 농, 어업이 주었던 울산은 석유화학공업, 자동차공업, 조선공업, 비철금속 등 공업을 중심으로 한 국내 최대의 임해 중화학공업도시로 발전하였다. 울산의 도시 공간구조도 구울산읍과 병영을 중심으로 한 구시가지, 신정, 아음동의 신시가지, 장생포와 석유화학단지의 공업지대, 기계장치산업의 중심지인 얼포, 방어진지구로 변화되어 갔다.²³⁾ 이 사이에 울산의 인구도 급증하여 1990년에 69만명에 도달하였다.²⁴⁾ 공업도시 울산의 성장과 더불어 노동자들의 자가도 높아갔고, 노동자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면서 현대계열사 노동자들의 활동에서 보듯이 우리 나라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울산의 발전이 울산 주민에게 행복만을 가져다 준 것은 아니었다. 정부와 기업이 공해문제를 방치함으로써 이 지역의 대기, 토양, 수질, 해양이 심하게 오염되어 갔고, 금기야는 지역주민의 건강 위협과 농업과 수산업의 황폐화라는 사태를 야기시켰다.²⁵⁾

이러한 모든 문제와 함께 금년 들어 인구 100만의 광역시로 승격된 울산은 이제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새로 운 도전과 응전의 역사적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2) 『울산공연 30년사』, 263쪽.

23) 『울산광역 30년사』, 119쪽.

24) 『울산공업 30년사』, 103쪽.

25) 한국공해문제연구소, 1986 공해로 쫓겨나는 주민들 - 울산, 괴질로 신음하는 주민들 - 온진 (한국의 공해지도, 일월서각) 51-85쪽, 같은 책, 86-119쪽.



현재의 울산 시가지: 태화강과 멀리 고층아파트들이 보인다.



위험받고 있는 태화강변 대나무 숲과 멀리 보이는 고층아파트



울산도호부 동현의 주건물 (사진 한삼건)

울산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한삼건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전임강사

by Han Sam-Gun

울산의 중심에는 태화강이 흐르고 있다. 서에서 동으로 흐르는 이 강은 말하자면 울산의 젖줄이다. 이 강의 전체길이는 약 41.5킬로미터라고 하는데 그 길이에 비하여 수량은 비교적 풍부한 편이다. 70년대 이전, 즉 울산공업단지의 건설이 본 궤도에 오르기 전의 태화강은 그야말로 삶의 터전 그 자체였다. 지금은 사라진 모래섬을 경계로 앞강과 뒷강이 나뉘고 그곳에는 은어며 황어, 모치 등이 강물만큼이나 많았다. 맑은 강에는 강조개가 널려 있었고 강기에 늘어선 포풀러 숲과 길고 푸른 강둑은 시민의 휴식공간이었다.

이 태화강에는 용금소 혹은 황룡연이라 불리는 깊은 소가 있다. 태화강 북쪽의 구시가지와 남쪽의 신시가지를 이어주는 주동맥인 태화교 바로 상류가 이 황룡연이다. 황룡연이 곧바로 내려다 보이는 절벽위에는 과거 어느 때인가 태화루라는 큰 누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이곳을 찾았던 시인 육객의 시문이 읊지 등에 전한다. 말하자면 이곳이 울산시가지에서 가장 가까운 경승지인 셈이다. 이 자리에는 조선시대 어느 때부터 울산도호부의 사직단이 위치해 있기도 했다. 이처럼 수 백년간 나라를 상징하는 성스러운 장소였던 이 곳도 일제시대에 대지가 민간에 불하되고 현재는 국적불명의 건물이 예식장 간판을 달고 서 있다. 높은 대 아래에는 청수도 흐르지 않으니 누각도 필요는 없으리라.

이처럼 태화강이 생활하수로 사망선고를 받은 지도 꽤 많은 세월이 흘렀다. 70년대의 어느 날 우리는 태화강에서 등이 굽은 물고기가 잡혔다고 법석을 피운 적이 있었다. 그

래도 그때는 강물에서 멱이라도 감았지만 이젠 물고기 얘기는 아예 사라진지 오래다. 이처럼 오염시켜서는 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태화강을 잊고 산다.

강 건너편의 남산도 수난을 당하기는 마찬가지다. 태화루터에서 바라보는 남산은 울산의 조망경관 가운데는 일품이다. 그러나 즐기던 장소가 훼손되어 잊혀져 가듯이 바라보던 명소도 상처를 입기는 마찬가지이다. 남산은 은월봉이라 불리는 봉우리를 포함하여 12봉이 있다. 동에서 서로 뻗은 이 산줄기는 그 북쪽이 금경사를 이루어 나란히 흐르는 태화강과 강가의 대발과 함께 잘 어울린다. 그러나 이곳에도 고층아파트가 벽처럼 서서 산을 태반이나 기리거나 산너머로 빠죽이 고개를 내민 아파트까지 있어 쳐다보기도 쉽게 되어 버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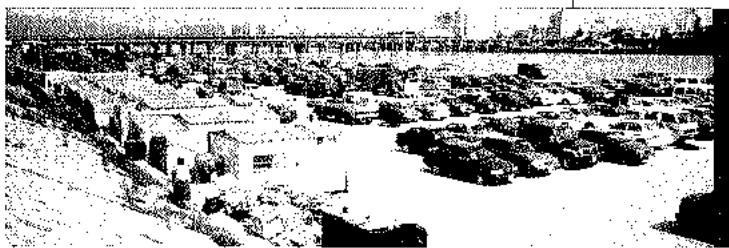
태화강은 강물의 오염과 함께 구 시가지 쪽 하천부지가 시멘트로 포장된 공영주차장이 되고 강 남북의 양 둑은 4차선 강변도로가 전구간에 걸쳐 개통되기 일보전이다. 이렇게 되면 강은 그 성격이 단순화되어 그저 주차장이나 도로공간만 제공하는 것으로 사명을 다하고 우리 인간들은 이 두 가지 편리가 지상 최고의 가치라고 기뻐하고 있다.

울산을 이해하는데는 강 다음으로 산을 살펴보면 좋다. 울산에는 영남알프스라 불리는 해발 1천미터급에 이르는 산줄기가 시 서쪽의 밀양시, 경주시와 경계를 지워주고 있다. 가지산, 신불산, 간월산, 영취산, 고현산 같은 산이 울산의 담벼락이 되어 있는데 이들로 해서 울산은 인간이 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한 아래 독립된 지형, 독립된 문화, 독립성이 높은 기질을 만들어 내게 하였다. 그러나 신라에 의한 병합과 함께 일본으로 대표되는 해양문화와의 접점이 또한 이곳이었기 때문에 자생적 인 문화나 그 흔적은 잘 남아있지 않다. 왜냐하면 이들 외부 세력과의 투쟁의 결과는 필연적으로 이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들이 과거에는 울산을 무과급제자가 많은 상무적인 고장이 되게 하였고 일견 거칠어 보이는 지정서를 만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성격은 현재의 공단문화의 그것과 잘 어울리기도 한다. 울산은 본래 언양현과 울산도호부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1914년의 지방행정구역 개편 때 합치

면서 생겨나게 되었다. 울산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울주군과 울산시로 나뉘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도농통합시로, 다시 작년에는 광역울산시로 승격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면 울산과 언양, 아니 울주군은 별개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울산에는 울산읍성이 있었고 언양에는 언양읍성이 있었던 것을 보아도 이러한 짐작은 가능하다. 울산도호부의 진산은 시 동쪽에 있는 무룡산이며 언양현의 진산은 고현산이다. 고현산은 높이가 해발 1천미터를 넘지만 울산의 그것은 불과 2백미터 낮지만 함월산이다. 그러나 울산의 주산인 이 산은 그 위에 올라서 보면 그 가치가 짐작이 된다. 산 정상이 아닌 현재 개발중인 택지지구의 정상에만 서 보아도 시방 백 리 안의 산과 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이처럼 이 산은 해발고도나 그 덩치에 비해 대단한 장소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함월산은 울산 구시가지의 정북쪽에 위치하고 있다. 수년전에 이곳을 개발하여 수만평에 이르는 택지가 조성되면서 이 산의 이름은 마스컴에도 자주 오르내렸고 풍수를 연구하는 이들로부터 일반시민, 유식자들에 이르기 까지 이산의 개발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지금은 택지조성은 마무리되고 원래 단독주택으로 계획되었음에도 여려 곡절 끝에 상당부분이 아파트건설지역으로 변했다.

본래 이 산은 울산의 주산이면서 시민의 휴식처였다. 이 산 정상부근에 있는 백양사는 그 규모는 작으나 창건시기가 신라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이 절의 새벽종소리는 울산 팔경의 하나이기도 하다. 특히 이 절과 그 주변은 울산시내 각급 학교 학생들의 소풍지로 더욱 유명했다. 산에 오르는 길 좌우에는 언제부터인가 시민단체나 자자체가 만든 운동시설들이 설치되었고 매일 새벽이면 아침 운동하는 사람으로 성시를 이룬 적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왕복 4차선의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완공을 기다리며 내뻗어 있을 뿐 시민의 기억속에서 잊혀져 가고 있다. 산은 고깔모자를 쓴 아이머리처럼 정상부만 남기고 다 파헤쳐지고 절은 누렇게 드러난 절개자위에 불편없이 서있다.

울산에는 이렇다할 건물이 없다. 아니 건물은 무수히 많이 있지만 우리들에게 말을 걸어오고 노래불러주는 건축은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다. 경제원칙과 건축관련 법규가



태화강변의 공영주차장과 강남 신시가지의 아파트군 (사진 현삼건)



파헤쳐지고 있는 울산의 주산인 함월산 (사진 현삼건)

만들어낸 무수한 건물은 있지만 그 속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나 그 곳을 찾는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건축은 잘 보이지 않는다.

흔히 울산은 문화의 불모지라고 일컬어진다. 상대적으로 강한 산업도시의 이미지가 이를 증폭시키기도 하겠지만, 출부들의 성공신화와 대형승용차 보유비율 전국 최고인 이 도시에는 새로운 도시문화가 비집고 들어갈 틈조차 없었던 것이다.

우선 울산시로 승격되고 특정공업지구로 선포된 1960년대 초반부터 이곳은 '건설'이나 '경제개발'의 구호만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다. 초기가 모여있던 한적한 어촌과 배꽃이 지천으로 피어있던 농촌마을이 풍기의 소음으로 덮이면서 울산은 변해가기 시작했다. 우리 것은 물론이고 방어진이나 장생포, 그리고 울산 시가지에 남아있던 옛식건물들도 일시에 쓸려나가고 조국근대화를 위한 새로운 식민도시 울산은 태어났던 것이다. 그러나 도로가 만들어져도 시민의 생활이 아닌 원로나 생산품의 수송에 맞춰지고 상수원을 개발해도 공업용수가 우선인 도시에서는 인간이 중심에 서기가 힘들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 한 일이다.

이런 배경에서 건축가도 건축도 만들어지고 키워질 수는 없었다. 4년제 대학이라고는 울산대 한 곳 뿐이고 전문대학도 울산대 한 곳뿐이면서 인구는 100만을 바라보는 광역시가 울산이다. 사실, 광역시가 된 것도 울산의 공업생산력 때문이다. 즉, 1996년 말 기준으로 볼 때 전국 광공업 총생산액의 약 11%를 울산이 차지하여 수도서울도 능가하는 실물경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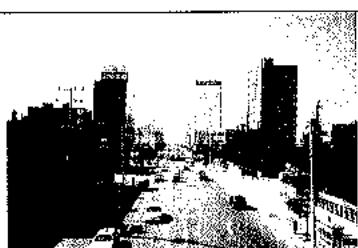
울산의 향후 과제는 이런 공업생산력과 같은 경제적 실력이 침된 울산의 저력을 비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공장만 있고 회사가 없는 체제를 탈피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 도시에서 산출된 부가 이 도시를 위해 쓰여진다면 시민생활의 가시적인 변화도 보여질 것이다. 이러한 저변의 경제구조가 변화할 때 시민의식의 전환으로 이어질 것이다. 시민의 의식전환이 선행되면 비로소 이 도시에도 미래에 넘길 수

있는 신 문화유산으로서의 건축이 탄생하게 될 것으로 보여진다.

현재의 울산에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라앉은 침통한 건축과 격화장이 화려한 건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전자는 각급 관청건축으로 대표되고 후자는 시내에 산재한 상업건물들이 주축을 이룬다. 우리가 화려한 조명 속에서 화장으로만 개성을 주장하는 것처럼 건축은 입면구성이나 그 형태의 기발함으로 자기주장을 하고 있을 뿐이며 관청은 구태의연하게도 그 건축형태로 시민을 위압하고 있다. 이러한 건축과 고층아파트가 울산 건축의 전부이다. 전통적인 단독주택지에 어느 날 들어선 20층 짜리 고층 아파트는 울산 모순의 상징이다. 법규가 허락하는 한도까지 용도를 채우는 아파트 단지들은 이 도시의 미래를 절망으로 바꾸고 있다. 화려한 도심의 건물도 상업성의 산물일 뿐 인간이 모이고 쉬며 교류할 수 있는 장소는 제공하지는 않는다. 회색공간 아니면 풀 칼라의 색채 홍수 속에서 그나마 눈을 쉴 수 있게 하는 녹색은 구 울산도호부의 판이었던 '동헌'공원에서나 찾아낼 수 있다. 이곳에는 긴 시간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고목이 아직도 몇 그루 남아 있다. 이처럼 노인과 청소년이 찾는 동헌경내 정도가 울산사람 임을 알게 해주는 장소이다.

울산은 고급스런 공업단지다. 흔히 생각하는 기름때 찌들은 공단과는 다르며, 공장의 근로자들은 일반적으로 생활이 안정된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과 그 가족이 시민인 이 도시는 여전히 문화의 불모지 소리를 듣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면 서 경제가 곧 문화를 살찌우지는 않으며 부가 건축으로 이어지지도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울산에서 알게 됐다. 어떤 건축을 남길 것인지 고민하지 않는 공무원과 시민과 전문가들의 공동작품이 오늘의 울산 건축이다.

옛것을 지키지도 못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하지도 못하면서 쓸만한 장소나 공간을 오늘날의 가치로만 파악하여 금기야는 버려놓고 마는 것이 오늘의 우리들의 자화상이다. 이러한 모순이 극대화 된 땅 - 바로 울산이 아닐까.



울산시청 앞의 가로경관 (사진 한삼건)



울산시청시와 의회동 (사진 한삼건)



주택가로 밀려오는 5일장의 모습 (사진 한삼건)

세계 속의 경주건설의 고민

Anxiety about Kyungju-Placing the Old City on the World Map

권오찬 / 경주문화원장
by Kwon Oh-Chan

경주의 도시계획이나 또는 행정은 미래지향적이라는 일반의 범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 근본은 회고적이 안될 수 없다는 것이 특징이다. 신라의 영광이 내일의 세계에서는 영광이 될 수 없다 하더라도 신라를 벗어날 수는 없다. 이런 뜻에서 오늘의 경주 도시계획을 말하는데도 먼저 옛 신라의 서울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1. 신라의 옛서울 경주

경주는 우리나라 도시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다. 삼국유사의 단군기에 의하면 단군의 阿斯蓮에서 立都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것은 신화적인 기록이니 예외로 하고 고구려는 卒本(BC37년) 국내성(AD3년) 환도(209년) 끝으로 평양(427년)으로 옮겼고 백제도 하남 위례성(BC18년) 漢山(BC5년) 웅진(47년) 부여(538년) 등으로 옮겼으나 660년에 멸망했다(팔호 안은 천도한해). 그러나 신라는 건국(BC57년) 이래 멸망할 때(935년)까지 한 번도 서울을 옮기지 않았다. 다만 神文王9년(689년)에 達句伐로 옮길 것을 계획한바 있었으나 이루어지 못했다. 그리고 신라는 국명과 수도명이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그것은 신라가 정복에 의해서 이루어진 국가가 아니고 6부의 부락이 연맹해서 이루어진 나라이기 때문에 한 곳이 중심이 될 수 없고 6부의 중심이 공동의 중심이고 그 영역이 곧 나라의 영역이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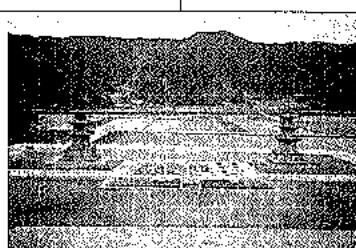
도시로써의 신라가 6부의 각각의 중심지와 구

벌어 독자적인 발전을 하게 된 것은 왕권이 강화되고 전제체 제가 갖추어져가는 과정과 일치한다. 도시로서의 신라(앞으로 서라벌)의 발전은 昭知王 12년(490)에 처음으로 서울에 시장을 설치하고 智證王 10년에는 東市가 설치되었다는 三國史記의 기록으로 짐작될 수 있으며 法興王 7년(520)의 律令정치의 시행은 도시의 발전을 가속화시켰을 것이다. 그 후 徐羅伐은 신라의 팽창에 비례해서 확장되었으며 3국 통일의 결과 統一新羅의 수도로서 영화를 누렸으나 唐나라의 長安과 함께 세계의 길은 서라벌로 통했고 서라벌의 길은 세계로 통하게 되었다. 전성시 17만8천9백36호에 1천3백60坊 35金入宅 4節遊宅이 있었으며 그 영역은 55里였다. 49대 懿康王이 月上樓에서 비라본 서울의 거리는 초가 하나 없고 집들은 서로 치마와 담이 맞붙어 있고 노랫소리와 피리소리는 길거리에 가득하여 밤낮으로 끊어지지 않았다. (三國史記 懿康王 6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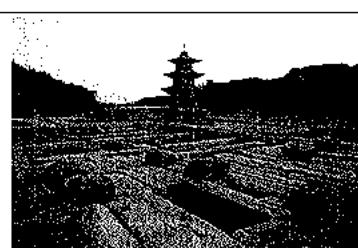
그러나 신라 전성시대의 서라벌의 도시구성에 대한 정확한 구조는 알 수 없으며 일제시대부터 많은 학자들이 王京의 복원작업을 시도했으나 자료의 빈곤으로 상상의 영역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다. 몇 가지 자료로 그 대체의 모습을 그려본다면 王의 在城인 半月城과 통일후 복잡해진 행정업무를 다루었던 韓月成이 남북으로 마주 보면서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시가 기능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재상인 車得公이 安吉에 자기 집의 소재를 “皇龍 皇聖二寺之間”이라고 했는데(三國遺事 文虎王 法敏條) 재상의 사저가 사찰 가운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지구는 지금 “구룡리”인데 皇龍寺 皇聖寺 皇陵寺 芬聖寺등 “皇”자가 있는 九寺가 있었음을 알 수 있고 末香寺 普門寺도 여기에 있으니 “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고 말한(三國寺 염축멸신조)것도 이 지구일테니 사찰과 세도가의 저택지구였을 것이다. 宮城의 서쪽 문이 歸正門인데 景德王은 여기서 인연있는 스님 忠談師를 만났으나 南山三花嶺으로 통하는 길길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 서편에 35金入宅의 하나인 財賈井址가 있으니 이 일대가 호화주택 지구임을 알 수 있다. 재매정과 蚊川을 사이에 둔 南山기슭에 天宮寺址가 있음을 미루어 볼 때 南山기슭 일대가 유흥가였으며 金入宅과 이웃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존재의 이유



시내에 있는 능 (사진 최명기)



김은사지 터와 좌, 우의 3층 석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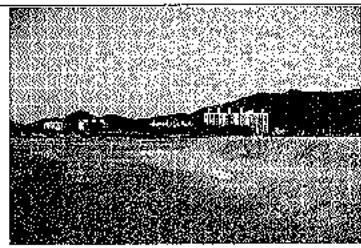
둔무와의 설화가 담긴 김은사지 금당의 유구

를 찾을 수 있다. 현강왕이 月上樓에 올라 장안의 장관을 바라보았을 곳은 “月上樓”라는 이름으로 미루어 王城의 동쪽이 염을 것이며 여기는 일반 백성들의 주거 지구였을 것이다. 이렇게 서라벌은 관아 지구 사찰지구 金入宅²³⁾ 지구 민간 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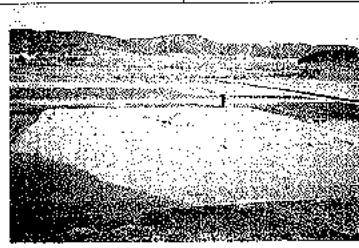
로 구분되어 있었고 사찰유택은 경관이 좋은 외곽에 마련되어 있었을 것이며 서라벌의 범위는 六村의 각 中心地까지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전성시대의 戶數가 18萬戶에 가까웠다는 것은 백제 전성시의 호수가 15면 2천3백호(三國遺事 변한 백제조(였고 1907년의 통계에 한성(京中五部)의 인구가 18만9천여에 불과했고 경주(昌內面)의 인구가 6천3백여명에 지나지 않았다(孫禪陵교수의 朝鮮時代都市社會研究 p.209))는 사실과 비교할 때 수긍이 가지 않으나 이것이 신라시대의 기록상의 모습이다. 이러한 기록상의 서라벌의 모습과 지금의 경주사를 대조해 볼 때 재성인 반월성은 첨성대, 안압자까지를 궁궐내에 포함해 있었을 것이며 만월성은 “新月城 북쪽에 만월성이 있다.”(三國史記地理志)고 한 기록에 맞는 대간물지가 경주고등학교의 서관일대에서 발굴된바 있고(소위 전량지) 그 동편으로는 대사찰군을 확인할 수 있으니 서라벌의 관청지구와 사찰지구임이 틀림없다. 그러나 반월성의 사북방면은 내물왕릉을 기점으로 하여 중앙대고분군이 형성되어 수백의 대소고분들이 무리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는 도시가 형성되지 못했을 것이다.



慶州府地圖, 18세기 중엽, 『慶州都邑左邊地圖』첩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조선시대 지방지도』 41쪽, 양상현교수 자료제공)



황룡사지에서 바라보는 아파트들 (사진 김충정)



황룡사 9층탑의 초석



경주 동천동의 한국전력 건물 (사진 김충정)

金入宅지구로 추산되는 재매정자 일대도 5陵을 비롯한 대고분과 흥륜사, 영홍사, 영묘사 등의 사찰에 가로막혀 인구밀집지대는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서라벌의 인구는 대지역일 수 밖에는 없다. 金周元이 39대 王位에 오르게 되어 있었는데도 金敬信에게 폐한 것은 알천의 범람으로 입궁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이것으로 上寧었던 金周元의 집은 알천밖에 있었으며 세도가들의 집이 황룡사 부근에만 있었던 것도 아니다. 오늘날 경주의 도시 계획 수립이 곤란하고 어려운 한 원인은 이와 같은 당대의 역사의 현장을 오늘에 되살릴 수 없다는 점에 있다.

2.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경주

신라가 망하고 신라(도시)가 경주로 강등됨과 동시에 경주가 급격히 쇠퇴하게 된 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다. 평화적인 정권교체이기는 했지만 고대국가의 특징상 首都의 기능이 상실된 도시가 걸어야 할 당연한 길이었다.

태조23년(940) 신라 王京을 경주로 함과 동시에 6부의 명칭도 변경시켰다는 것은 신라와 구별지우려는 고려 왕조의 의사표시였다. 같은 해에 대도호부가 되고 또 성종6년(987)에는 풍수도참설에 의해 三京제도가 시행될 때 中京四京과 더불어 東京이 되고 畏수가 디스리는 특별시가 되었으나 도시로서의 경주에는 아무런 변동이 없었고 오히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축소되었다. 그것은 현종3년(1012)에 경주읍성이 축성되었는데 그 규모는 신라 성대의 도시규모에 비해 너무나 소규모이다. 즉 동의 向日門, 서의 望美門, 남의 徵禮豐門, 북의 洪辰門 등 4대문의 위치나 성벽의 범위가 조선조시대까지 유지되었다고 보아하는데 그 범위는 현 경주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축소된 경주에 결정적인 타격을 주는 사건이 또 생겼다. 봉고의 침입이다. 고종25년(1238) 동경에 쳐들어온 봉고병은 황룡사 9층탑을 비롯한 사찰 궁궐 등을 불지르고 동경을 젓더미로 만들고 말았다.

國破山河在의 치참한 모습이 되었을 경주가 그래도 제 모습을 어느 정도 갖출 수 있었던 것은 그 후도 계속 지

방행정의 수도가 되었기 때문이다. 지방행정의 중심지였다는 경주의 위치는 조선조시대에도 변함이 없었다. 즉 경상도의 감영이 경주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감영은 尚州 星主 大邱 慶州 등에 웠다갔다하다가 宣祖 34년 대구로 간 후에는 다시는 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후도 경주는 府尹이 다스리는 특별시였으나 때로는 府使가 주재하는 도시로 강등되기도 했다. 조선조 말 통감정치가 실시될 때 행정구의 변동으로 慶州君이 되고 外南面(울산으로) 杞溪面, 神光面(홍해군으로) 竹長面(청하군으로) 北安面(영천군으로) 등이 他郡으로 이속되는 등 서리벌의 영역이 대폭 축소되었다.

3. 일제치하의 경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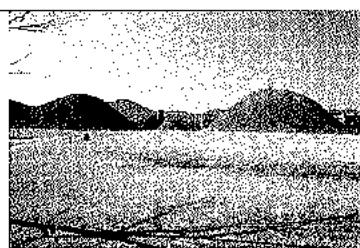
신라가 망한 후 경주는 망각과 파괴 속에 방치되어 왔다. 행정상의 한 중심이었다고 해서 경주를 잊지 안았다 고는 할 수 없다. 민족의 고향으로서 민족문화의 발상지로서 경주를 가꾸는 일은 민족이라는 관념마저 없었던 고려시대나 조선 시대에 기대하기는 힘들었다 하더라도 역사의 발상지로서 보호해야 한다는 생각도 없었다는 것은 너무나 아쉬운 일이다. 민족 의식이 생기고 국민의식이 생기게 된 20세기 초부터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으니 무엇보다도 큰 불행이었다. 그들은 통치와 지배에 편리한 방법만으로 경주를 요리했다. 조선조시대의 통치 중심지였던 동현자리에 군청, 경찰서, 법원, 검찰청, 새무서 등 의 관청을 설치하고 객사인 동경관도 없애고 집경전 자리에는 日人の 소학교를 지었다. 이 관청가를 중심으로 신작로를 4방 8 방으로 개설했으며 무열왕릉지구, 중앙대고분지구, 안암지의 왕 궁지구, 사천왕사지구 등에 철도를 관통시키는 만행을 서슴없이 자행했다. 일제의 이와 같은 행정위주 편리위주의 도시계획은 해방된 우리에게 극복하기 어려운 흉한 유산으로 인수되었다.

4. 경주의 도시계획과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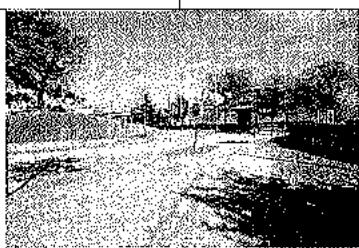
일제가 물려갔으나 또 하나의 난관이 닥쳐왔다

다. 한국동란이었다. 그 후 우리는 너무나 무서운 기난이라는 적과 대처해야 했다. 경주가 신라 멸망후 처음으로 통치자의 따뜻한 품안에서 제자리를 찾으려는 움직임을 갖게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철학인 “나라의 발전을 민족사적 정통성 위에 정립” 하려는데서 본격화되었다. 그러나 경주의 도시계획이란 너무나 어려웠다. 그것은 일제때의 파괴가 너무 심했고 주택지가 너무나 무분별하게 이루어졌는데다가 지표조사마저 불충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조차 힘든 점이다. 거기에다 여태껏 필요한 법마저 정비되지 못하여 위정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그 결과 사적지구 미관지구 등 地區의 특성에 따라高度의 제한을 한다던가 또는 건축제한, 금지 등의 구별이 있기는 하나 강자에게는 통하지 않는다. 이 결과 선도산지구와 금강 산지구는 아파트와 같은 대형건축이 숲을 이루고 금오산도 중턱까지 인기가 들어섰으며 대왕암자역과 같은 성스러운 곳도 향락의 대상지가 되었다. 이러한 시점에서 경주의 도시계획에 화급을 요하는 것은 고도보존법(기침)의 제정이며 개발과 보존을 조화시키고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법의 위력으로 확정 지우는 일이다. 다음으로 시급한 것은 개발의 모델을 제시해 주는 일이며 건물의 양식까지도 제공해 주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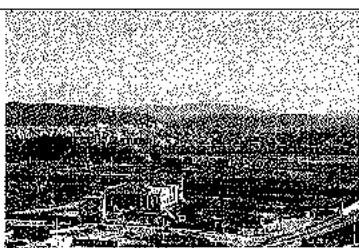
한옥지구라고 지정만 해 놓고 아무런 규제가 없으니 기와만 덮고 대문만 있으면 상관하지 않은 현실이다. 이래서 賀村을 만들어 내고 비로크건물의 느낌을 주는 시기지도 생겼다. 古都保存法에서 또 하나 빠져서는 안될 것은 경주의 영역문제이다. 신라 6부를 그 영역에 두고 명청도 그때 그 이름을 되찾아야 할 것이다. 다행히 고속전철이 경주를 통과하게 되었다. 더욱 바람직한 것은 통합역사가 이루어져 동해남부선과 중부선의 철도가 경주시 중심부를 통과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와 같이 고속전철역과 일반 철도역이 함께 있는 종합역사가 생기면 그 일대에는 새로운 역세권도시가 형성될 것이니 그 신역세권 도시가 경주의 중심시가지가 되고 현 경주시는 신라 고도를 재현시키는 문화재를 주로 하는 명실공히 서리벌 문화도시가 되었으며 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경주의 내일의 모습일 것이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고 믿어진다.



능의 원경 (사진 최영기)



시내에 있는 능 (사진 최영기)



경주시내 원경 (사진 최영기)

경주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최영기 / 경주전문대 건축과 교수

by Choi Young-gi

천년고도의 현주소

신라 멸망 후 지배 계층의 상당수가 고려의 수도인 개성으로 이주하면서 서서히 천년의 도읍지는 퇴락하였으며, 동고족의 침입과 임진왜란 등으로 목조건물은 거의 소실되거나 파괴되었다.

조선시대는 경주읍성을 중심으로 겨우 도시의 를을 유지하다가 일제시대에 들면서 신라의 궁궐인 반월성과 주작대로로 연결되는 통일신라 이후의 궁궐터(북궁지) 사이를 가로질러 경주에서 포항, 울산으로 연결되는 간선도로가 개설됨으로 인하여 반월성과 별궁인 안암지가 단절되어 신라의 중심부는 삼분되고 말았다.

반월성 북부에 산재한 문화유적에 대한 고려는 하지 않고 북궁의 서편으로 철도역과 부대시설들이 위치하는 등 일제는 문화유적지 중심부에 신도시를 계획하여 우리의 문화유산을 철저하게 파괴(역사의 축소와 단절)하였다 것이다.

도시외곽도 주변지역으로 연결하는 간선도로와 철도로 인하여 상당수의 문화재지역(사찰터, 고분군 등)이 암분되었거나 훼손되었으며, 경주 읍성도 조선말까지 명맥을 유지하다가 일제시대의 도시계획으로 인하여 성문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현재 성곽도 훼손된 채 방치되어 겨우 50여m만 남아있는 실정이다.



시가지의 모습 (사진 최영기)



좁은 도로와 상가 (사진 최영기)

이와 같이 문화재의 의도로 도시계획이 입안되고 개발되어져 상당수의 문화재가 훼손되거나 원형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일제시대 입안되어진 도시의 틀을 기조로 구도심은 대부분 문화유적들과의 상관성은 고려하지 않고 아직까지 안일한 자세에서 이러한 틀에서 부분적으로 보완(?)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고도 경주는 당연히 보존되어야 하는 도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이러한 의식은 경주에서 생활하는 원 주민들도 같은 맥락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규제를 위한 개발의 억제로 인식되어져 타도시에 비해 규제로 인한 피해의식은 상대적으로 높은 실정이다.

지방화시대를 맞아 점차 개발은 필연적인 문제로 대두될 것이며, 무계획하고 즉흥적인 개발로 인하여 도심의 문화유적은 결국 서울의 남대문과 같이 초라한 외톨이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보존의 차원에만 초점을 맞춘 문화재보호법은 지역민과는 상당한 괴리감을 불러일으키며, 원 주민들의 피해 의식만 가중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문화재보전 및 보호차원에서의 규제는 바람직하겠으나 규제와 더불어 원주민에 대한 배려가 함께 제안되어져서 원 주민들의 피해의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가로체계

구도심 기구의 기본골격은 격자형의 가로체계를 하고 있다. 도로에 접한 부분은 어느 정도 도시건축의 규모를 하고 있으나 기구내부는 이면도로의 단절(대부분 막다른 골목)과 접근의 한계로 인하여 대부분 단층의 노후한 건물로 낙후되어 있다.

가장 변화한 거리인 중앙로는 폭 12m의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차량의 쟁방통행과 노상주차로 인하여 보행자들은 곡예보행을 하는 실정이고, 가로는 콘크리트와 유리숲의 표징



시내 중심가 도로 (사진 최영기)

을 하고 있다. 중앙로를 제외한 도로 폭은 9m 이하로써 차량의 일방통행을 제외한 도로의 형태는 중앙로와 비슷한 설정이다.

이상과 같이 구도심 기로의 형태의 특징은 좁은 도로에서의 노상주차로 인하여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되어 무질서하며, 가로수 등 녹지 공간과 보행자를 위한 공용의 편의시설이 전무하여 삭막한 경주의 이미지 부각에 일조를 하고 있다.

도시경관의 어제와 오늘

경주로 접근하면서 인지되는 도시경관의 특징은 기와지붕과 대형 고분 군이 될 것이다. 과거에는 도심에서도 이러한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나 건물의 대형화와 고층화 추세로 인하여 현대적인 건물(?)로 대체되면서 과거 푸근했던 도심의 분위기가 점차 고도의 향취를 잃어가고 있다.

구도심에 위치한 고분 군(노동동 고분 군, 노서동 고분 군, 대릉원)들은 도심의 랜드마크적인 역할과 도시경관의 좋은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각 고분 군들은 도로로 단절되어 마치 개개의 고분 군으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대릉원 후면부의 태종로와 중앙로에 접한 건물 군으로 인하여 도심에서 보행자들이 고분들에 대한 시각적 인지도는 기대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잘 정비된 대릉원은 높은 담으로 인하여 도심 속의 열린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접근의 한계, 시각적 단절, 개방시간의 제한 등 그 역할이 반감되고 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변의 낮으막한 건물과 어우러져 과거 응장하게 보이던 고분들은 점차 주변의 고층건물들로 인하여 점차 왜소한 무덤으로 전락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도심공원으로서의 역할도 부각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도시 속의 휴식처로서 적극적인 정비와 편의시설 확충 및 사료관의 설치로 시민 및 관광객의 휴식과 산 역사교육의 장으로서 역할 뿐만 아니라 역사와 문화관광도시로서의 경주 이미지를 함축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명실상부한 도심공원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가로와 접한 고분 군 전면부의 필지들을 수용하여

소공원으로 정비해 보행자들의 휴식 공간의 기능뿐만 아니라 고분 공간과의 자연스런 연계와 기로에서 고분 군이 인식(녹지의 조망)될 수 있도록 정비되어야 하겠다.

도시건축의 현실

이전까지 규제되었던 지역이 90년대에 들면서 규제의 완화와 더불어 개발의 붐을 타고 고층아파트들이 본격적으로 건축되어져 도심에서 주변 산으로의 조망은 차단되는 등 과거 정감어린 도시의 면모는 퇴색되어져 여타 중소도시와 다를 바 없게 되었다.

도시건축의 특징은 단층의 목조건물과 대부분 2~3층 규모의 건물로서 상당수가 20여년 전에 지어졌으며, 노후한 건물들이 많다.

대지의 상황은 영세한 필지이며, 주차장법이 발효되기 전의 건축물들이기 때문에 건폐율이 매우 높아 현재의 건축법규 테두리 내에서는 개발의 잠재력이 낮은 편이다. 물론 영세한 몇 개의 필지를 합침하여 개발하거나 공동개발 하면 가능하겠으나 도심의 규모나 도로 폭의 한계, 도시 성격상으로 제고의 여지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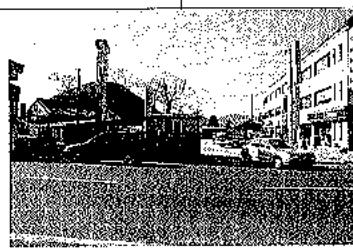
이와 같은 기존 구도심의 도시건축 특징은 오히려 개발의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나 역설적으로는 개발의 한계가 매장 문화재의 보존적인 관점에서는 다행한 일일 수도 있다.

과거에는 도심에 기념품판매 및 숙박시설 등이 도심의 가로변에 위치해 여행자들이 자연스럽게 주아로 경주 도심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으나 도심과 격리된 지역에 인위적인 관광단지의 개발로 인하여 지역민과의 자연스런 접촉은 단절되고 도심은 점차 관광도시로서의 면모보다는 소비 및 향락의 도시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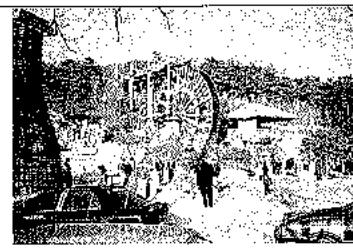
주변의 신흥도시들은 문화예술회관, 시립미술관, 복지회관 및 실내체육관 등 다양한 시민시설들이 건축되어져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되는 등 시민의 참



대릉원 옆 도로 (사진 최영기)



건물에 둘러싸인 능 (사진 최영기)



보문관광단지내 둘레방아

여의식 고취 및 체험의 장으로서 시민생활의 언장선상에서 종오하게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경주의 현실은 이러한 시민시설이 전무하며, 상대적으로 상업적인 성격의 놀이 문화가 팽배하여 있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위상을 찾기 힘들고 소비 및 향락의 도시로 전락한 느낌마저 들게 한다. 더구나 도심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한 핀광특구로 지정되어 주변지역에서 경주로 와서 밤새 여흥을 즐길 수 있는 도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다. 물론 이러한 행태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건전한 문화의 정착과 선양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역사도시의 정서와 배치되는 현상이다.

개발방향의 제안

신라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역사적인 유적과 유물 및 문화가 산재해 있으나 개발과정에서 노출된 유적에 대하여 발굴작업이 이루어지는 현실을 볼 때 한심하다기보다 무지에 가까운 느낌이 든다.

한번 훼손된 유적은 돌아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발굴 후 원형의 복원이 아니라 수습된 유물들은 고작 박물관의 전시장에 진열되거나 몇 장의 사진으로 납을 뿐 대부분 본래의 개발계획대로 추진되어 영원히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현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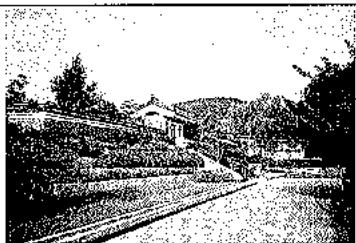
이와 같이 매장문화재 위에 세워진 구도심은 부분적인 개발이나 즉흥적인 발상에 따른 점적인 개발로 인하여 훼손되었거나 멸실되고 있으며, 이제는 평지뿐만 아니라 선

도산 자락까지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파헤쳐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제부터라도 총체성을 지닌 보존과 개발의 대책을 수립하여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도시로서의 균형있는 면모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종합적인 장기 종합계획은 100년 대계를 내다보고 명실상부한 문화유적의 역사 및 관광도시로서의 토대를 마련하여 보고 듣고 행위 할수 있는 장소적인 특성을 제공하여 보고 지나치는 관광에서 탈피하여 머무르면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적인 성격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이다.

즉흥적이며, 일회적인 성격의 개발은 오히려 더욱 그 원형을 잃어가고 있으며, 나이가 희생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보존되어야 하는 지역과 부분은 그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과거 잘못 설정되거나 개발된 부분이 있으면 과감히 수용하여 원형을 복원하는 등 신라문화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신라, 고려, 조선, 근대, 현대에 이르기까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시공을 초월하는 장소적인 특성을 최대한 고려하여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명실상부한 역사·문화·관광도시로서의 면모를 보여줄 청사진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되고 수립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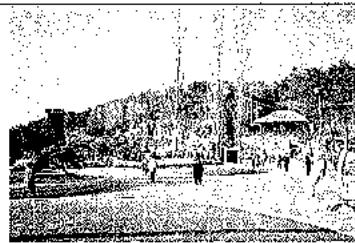
역사적으로 볼 때 타 민족이 침입하여 그들에 의하여 우리 문화의 훼손 혹은 말살을 당한 쓰라린 경험이 있지만 이제는 타민족의 침입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훌륭한 유·무형의 문화유산들을 제대로 간직도 못한 채 훼손하거나 말살하여 혼적조차 없애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으니 후손들에게 어떠한 문화유산들을 물려줄지 의문스럽다.



보문관광단지내 담장 및 거리



보문단지 호수와 전경



보문관광단지

포항의 역사**The History of Pohang**

배용일 / 문학박사, 포항전문대학 교양학 교수,
by Bae Yong-II

1. 촌락형성과 해군기지로 변모(통양 포수군만호진 설치)

포항지역은 바다에서 융기된 지역과 형산강에
서 퇴적된 삼각주와 같은 사주로 발달하였는데, 사주는 영일만의
조류에 의해 반원형으로 오늘날 동해면의 도구해수역장에서부터
동촌동(현 포제철 공장부지에 편입)을 자나 포항승도해수욕장과
두호동의 북부해수욕장에 이르기까지 남한 제1의 속청 어리불
명사 30리의 모래톱지역의 해안을 형성하였다. 영일만에 유입되
는 하천에는 넓은 충적층이 있어, 유수에 의한 운반, 퇴적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 포항 남쪽 5개 섬은 육지가 되었다.

언제부터 인류가 서식하기 시작하였는지 정확
히 알 수 없으나, 해맞아(해동이)고장임을 전해주는 영일의 연오
랑세오녀 설화를 비롯하여, 무문토기, 고인돌 묘제의 청동기문
화 흔적이 넓게 분포되어, 역사의 시원을 밝혀줄 실마리가 되고
있다. 이를 유적과 유물로 미루어 보아 오늘날 포항영역에서는
포항의 양곡(陽谷)이며 진산(鎮山)격인 죽림(竹林山)과 대홍산
기슭(현우방아파트 입구지역)과 형산강 하류를 기준으로 동남
쪽의 일월동, 남서쪽의 효자동, 서쪽의 이동과 득량동, 북쪽의
장성동과 영덕동 등지의 주변 구릉지대에 먼저 선사문화인이 거
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오늘날의 중심시가지를 구성하
고 있는 해안지역의 남쪽의 5도와 북쪽의 3호(湖)지역에는 사람
이 살지 못했다. 이 지역들이 사람들이 살 수 있을 지형으로 개
발된 것은 빠른 곳이 고려시대, 늦은 곳은 조선후기로 나타난다.

이 고장은 진한 부족연맹사회 때에 갈산(현 수
도산) 이남지역은 성읍국가인 근기국 촌락으로 성장하고, 신라
초기에는 근오지현, 157년(신라 아밀라왕 4년)경에는 영일현
으로, 757년(신라 경덕왕 16년)에는 암정현으로, 고려시대에
는 연일현 또는 영일현으로 개칭된 현에 소속된 마을로 발전했
고, 갈산 이북지역은 신라초기부터 토화군의 촌락으로 성장하
고, 757년에는 의창군으로, 고려시대에는 흥해군으로 개칭된
군의 마을로서 발전하였다.

이 고장은 해안지역이며 왜와 가까웠고, 신라
서울을 향하는 길목이어서, 문물이 미개하고 풍토가 척박했던

왜구의 노략질을 받을 기회가 많았다. 이에 조정에서는 중요 국
경지역과 왜구의 잦은 출몰지역에 성을 쌓아 방비를 하고자, 지
증왕 5년(504) 홍해의 미실성과 함께 12성을 축조하였다. 미
실성은 오천의 고형성·신광의 토성과 더불어 영일지역 최고의
성들로 꼽히고 있다.

고려시대에 왜구의 침입이 잦아지고 특히 고려
말 영일만 주변지역에 왜구가 창궐하자 우왕 13년(1387)조정
에서 영일만 주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영일
만 내에 통양포수군만 호진¹⁾ 해군기지를 설치하였다. 영일만지
역은 1389년 홍해읍성을, 1390년에 영일읍성을 개축하여 방
어선이 구축되면서 다시 평화를 회복하였다. 최초의 해군기지
를 설치하여 중앙관리를 파견하여 포항 발전의 첫 발전단계가
되었다. 당시 규모가 어떠했는지 고려시대의 자료로 규명할 수
없으나, 조선초기의 기록(경상도지리지: 1425)을 보면 병선 8
척과 수군 218명이 주둔하고 있었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은 이후
1510년 칠포로 기지를 옮길 때까지 영일만지역 관방의 해군기
지로서 역할을 수행하였다.

2. 여천원 설치, 지명 유래와 조선후기 상권형성

고노(古老)의 전하는 바에 의하면, 옛날부터 형
산강의 중심하류는 양산미기에서 솔안다리(형·형산교)를 거쳐
영일만으로 유입되는 것, 효자방면에서 칠성천을 지나 동빈으로



浦項縣地圖
(출처: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조선시대지방지도', 42쪽)

유입되는 것과 북쪽의
갈산앞을 따라 나루끝
을 거쳐 학산천을 경유
하여 항구동 앞바다로
흐르는 세 갈래가 있었
다고 한다.

이 중
나루끝지역은 <경상도
지리지>(1425년)에
의하면, 일찍부터 홍해
와 영일의 경계지역으
로 육상, 해상의 교량

역할을 담당했을 뿐 아니라, 조선초기 이후 포항 서편마을, 남동
쪽 주민들과 홍해를 비롯하여 신광, 기계, 청하, 영덕 등지의 북
쪽 주민들의 주요통행로로써, 영일만을 에워싼 동해안지역의
육, 해상의 중심길목으로 성장해 왔다. 영일만 어촌에서 생산되
는 해산물을 배로 운반되어 내륙지방으로, 내륙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배로 운반되었으니, 200년전 조선후기 나루끝지역은

1) 통양포·현·포항시 주호진

어선, 상선, 뱃사람, 장사꾼 및 구매자들로 크게 블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전기 나루꼴 입구지역에(현 덕수천주교회) 포항지역 유일의 여천원이 설치되었다. 원은 공용여행자와 상고 및 사용여행자의 숙식등 여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주요 교통로에 설치된 것인데, 이 제도는 고려 때부터 있다가 조선 초기 세종조에 정비되었으며, 임란이후 상공업과 유통경제의 발전에 따라 일반 상인, 여행자들이 원 대신 주점 to 이용하면서 쇠퇴하였다.

통양포수군만호진이 홍해 칠포로 이관된 후, 쇠퇴한 이 고장의 형세는 1731년(영조7) 다시 포항 창진이 설치되면서 크게 변모하여, 포항발전의 두번째 단계를 맞이하였다. 포항창진은 정부에서 북관(함경도지방)의 기민구제를 위하여 조운모충지에 설치한 것으로써, 경주, 홍해, 영일, 청하, 장기 등의 환곡을 거두어 보관해 두었다가, 함경도지방에 홍년이 든 경우, 바로 운반하는 관창의 업무를 맡게 되었다. 예로부터 함경도는 산악지대로 기름진 평야가 적어 곡물생산이 부족한데다가 자주 홍년이 들어 주민들을 괴롭혀왔다. 포항창진이 설치되고 경주와 영일권의 평야를 배후에 두고 영일만과 협산강 하류가 만나는 중심항만지역이며, 함경도에서 가까운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전라도와 함경도의 중간기착지였기 때문에 관선조운의 최적지가 되었다. 포항창진의 설치 이후 다량의 곡식을 하역 운송에 필요한 많은 노동인구를 유입 정착시켜, 18세기 농촌사회와 상공업 발달의 시대적 기운을 타고 영일만권의 새로운 생활중심지로 부상하였고, 이로 인해 영일현의 인구가 홍해군의 인구를 능가하였다.

'포항' 지명은 '갯목' 이란 한글지명에서 유래하였으나, 포항이란 한자 지명사용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포항이란 지명은 1731년 함경도의 깊주린 백성을 구제하기 위해 관창인 '포항창진'이 대홍산²⁾을 배경으로 협산강 북하구(철성강)의 갯미기(갯목)지역³⁾에 설치되면서, 명칭의 한자화가 이루어져 개울 '포' 자와 목 '항' 자의 합침으로 탄생되었다.

기록상으로 이곳에 장시가 등장하는 것은 1832

년이 처음이나, 실제 상업활동과 장시의 등장은 이보다 훨씬 앞선 것이다. 장시의 형성시기가 이 고장을 크게 변모 발전케 한 포항창진이 설치된 때와 무관하지 않다고 추정된다. 이 장시권의 중심지가 포항장, 여천장, 아래부조장이 열린 포항지역이었다. 포항창진 설치 이후 육운, 해운의 조건으로 보아 포항이 해안과 내륙지방, 동해와 남해를 잇는 세곡과 제민양곡의 운반 및 상거래의 중심지(또는 중개지)로서 영일만 상권의 중심지가 되었다.

3. 포항진의 설폐와 포항면, 읍으로의 승격

대원군 집권시의 병인양요(고종 3년: 1886)는 중앙군제 뿐만 아니라 지방군제 강화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당시 고종3년에서 9년 사이에 증설된 변진은 14개소, 방어령은 4개소였는데, 이때 영일만 동해지역의 포항진이 설치되었다. 포항창진이 폐쇄된 지 86년(1870)만에 다시 설치되어, 포항진은 활기를 띠게 되었다. 1872년 11월에는 삼군부에서 포항진에 별포수 10명을 배치하여 외적의 침입에 대비토록 하였다. 이 때에 영일현에도 별포수 30명이 신설 배치되었다. 1865년 7월에 영일현 임곡진에 이양선 1척이 표박하여 남자 16명과 여자 1명이 상륙한 사실은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포항진이 비록 3년만에 경제적 운영난과 국내 외정치, 안보적 상황변화에 의해 혁파되었지만, 1731년 이후 영·정조대의 포항창진, 1871년의 포항창, 1976년의 포항진이 국가적 차원에서 존립하여 포항의 성장발전에 기여한 발자취는 이 고장이 정치, 경제, 군사적 요충지임을 밝혀주는 사료가 된다.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의하여 종전의 연일, 홍해, 청하, 장기의 4군을 영일군으로 폐합하여, 포항면이 탄생하였다. 포항면은 3년 뒤 1917년 포항동, 학산동, 두호동의 3개동으로 지정면이 되면서 급성장하였다.

지정면제는 오늘날 읍제의 전신으로 당시 전국

2) 오늘날 대봉산 또는 대안산으로 잘못 헷하고 있음.
3) 오늘날의 대홍동-포항역 부근



동해면 공당리 고인돌, 출처: 영일만 지역 고인돌 문화연구



총해읍 총안리 선돌, 앞책 뒷 표지(자료제공: 배웅일).

에서 24개면, 경북에서는 포항과 김천 2개면이 지정될 정도로 지정면과 보통면 사이에는 큰 차별이 있었다. 지정면이 갖추어야 할 요건은 일본인이 많고, 재력이 풍부한 비교적 도시적인 곳이다. 당시 포항의 인구는 이러한 시정을 잘 반영해주고 있다. 1914년 포항면에는 3,026명(일인 1,260명)의 한국인이, 1928년에 7,932명(일인 2,282명)의 한국인이 살고 있었다. 포항은 1920년경에 포항면 단독으로 인구순위가 전국에서 30위로 부상하였고, 일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24.35%로서 전국 15위가 되고, 일인 이주증가율이 전국 7위가 되었다. 이는 일제의 강압적인 식민정책과 이 고장 전래의 개방 진취적인 향토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면은 1931년 경북의 김천, 경주, 안동, 상주 등과 함께 옵으로 승격하게 되었다. 이후 해방될 때까지 포항은 한차례 구역이 조정되었다.(1938) 당시의 행정구역은 기존의 포항을 13개동에 형산면 13개동과 대송면의 송정동 일부를 편입하고, 소화정(대신동), 향조동(송도동)을 신설하여 28개동으로 확장되었고, 포항의 인구는 1942년말에 31,251명(일본인 2,275명)으로 늘어나서 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도시적 형세를 갖추게 되었다.

4. 일제병탄기의 포항상공업과 상권의 변화

일제시대 포항은 상업행위가 타지역보다 활발하여 상업종사(교통업 포함) 호수가 약 35%나 되었고, 시장은 한국인 위주의 시장과 일인중심의 시내중심가의 좌고(座貢)시장으로 구분되었다. 재래의 포항, 여천, 부조 등의 점기시장외에 속칭 불종거리에 상설시장이 개설되었다. 부조장은 점차 수산물과 가축류의 주거래장으로 변모되었다가 1930년대에 이르러 위축되었으며, 반면 포항장(앞장)과 여천장(뒷장)이 번창하여 영일만지역의 상권을 주도하였다.

조선후기에 포항장이 지리적 위치나 포항창진의 영향으로 여천장보다 절대 우세하였으나 1920년대가 되면

서 작품과 기타 잡품에서 여천장에게 순위를 빼앗기기 시작하여, 1930년대 중반에는 전품목에서 여천장에 뒤지게 된다. 이는 일인들이 포항으로 이주한 후부터 포항의 중심지가 포항시장지역에서 여천시장지역으로 점차 옮겨가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일인들이 여천, 중앙동에 밀집하여 상권형성 등 모든 지역 생활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일제후기 포항의 중심지역인 중정, 본정, 동빈정 등은 거의 일인들의 상가나 주거지가 되었고, 한국인으로서 이곳에 거주하거나 점포를 가지는 경우는 이른난 상공인들로서 손꼽을 정도였다.

포항에는 농산물과 수산물 거래가 많았으나 그 중에서도 주거래상품으로 꼽혔던 것은 수산물의 명태·소금·청어·전복·방어·대구포 등이었다. 함경남북도지방의 명태가 포항에서 내륙지방으로 거래되어 나갔고, 포항지방의 청어 등 고급어종은 국내보다 일본에 다량 수출되었다. 그리고 포항지방의 소금이 일제 초까지 주목을 받았으나 이후 대만의 값싼 천일염이 수입되면서부터 주거래 상품의 자리를 내놓게 되었다.

이 고장의 공업은 일제병탄기에도 수공업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마포, 토관와, 둛자리, 관풀, 토사, 담뱃대, 낫쇠용구, 술, 간장 등이 생산 거래되었으며, 소수이지만 일인들도 이러한 업에 종사하였다. 1920년대에 와서는 현저히 변화하여 정미, 조선, 철공, 제재, 주조, 장유 같은 근대공업이 포항에 등장하였다. 당시 포항은 구룡포와 함께 수산가공품의 생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청어가공품 제조와 각종 통조림업의 발달은 대표적인 것이었다. 제조와 더불어 양조·곡차·어구 제조업도 활발하였다. 아직도 몇 분야에서 공산품의 생산수준이 수공업의 단계에 그쳤으며, 제지생산은 전통적인 방법으로 농가의 중요 공산품 업종이었다.

5. 영일만 수산업의 호황

포항의 수산업은 1904년 통어조약 이후 1907년경 일인 기업가·어민들의 포항이주가 실시되고, 병란 후 일제가 어업정책의 개선이란 명목으로 수산업침략에 박차를



1930년대의 포항(‘포항’, 포항시, 10쪽 / 자료제공 : 구자문).

가하면서 1917년엔 지방항 지정, 1923년에 지정항으로 지정됨으로써 조그만 어촌에서 지방항의 면모를 갖추고 크게 변모하기 시작하였다. 일본인 이주어민 호구는 1907년경의 25호, 120명에서 1935년 39호 236명에 달하여 전체 일인의 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상황변화와 영일만 근해의 어황호조로, 1928년의 영일군 수산업자용 선박수가 한국인 1,465척, 일인 2,016척에 이르렀다. 1914년 영일어업조합이 결성되고, 1923년 경북수산시험장과 경상북도수산회가 설치되어 어선·어구의 개조와 어로의 개선 및 시험사업의 진전으로 새로운 어장이 개척되고, 공장설비에 의한 가공제조기술이 전보하고, 항만의 축조·수축에 의한 해운이 발달하고, 제염업이 활발하여 포항은 경북 제일의 근대적인 어항과 상항으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대표적인 영일만어업은 청어·장어리·고등어·대구어업이었으며, 어업의 호황은 양식업과 수산제조기공업에도 영향을 주어, 양식은 1917년 영일어업조합에서 대승면 해안 부근에서 시도한 바 있었으나 실패하여, 1926년 이래 바위김의 양식을 도모한 결과 양질의 제품을 얻기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바위에 시멘트를 끌라 번식을 도모하여 1935년에는 어촌부업으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였다.

6. 근대적 항만형성과 포항시 승격

포항의 해운은 조선후기 남한의 농산물과 북한의 명태등 해산물의 교역지로 범선의 출입이 상당수에 달했으나 무역항으로서의 조건은 갖추지 못하여, 구한말에도 한국정부가 소유한 융성호가 연 5~6회 입항하던 정도였다. 조선총독부는 1912년 4월 이후 3년간에 한반도 연안 각 방면에 9선의 명령항로를 정하여 연안항로를 통일하였다. 이 기간에 정기적 해운이 시작되고, 이어 영일만-울릉도선이 조선우선(주)에 의해 개설되어 정기적인 해상교통이 이루어지고, 1918년에는 조선우선의 용기관문선과 부산원산선 그리고 부산울릉도간을 항해하는 기선 기항이 이루어지고, 10년후 1928년에 이르러서는

1년간 1,010척의 기선출입과 1,112척의 범선출입 및 포항과 그 주변에 근거지를 둔 어선 5,117척의 출입이 있는 상당한 규모의 해운항으로 발돋움하였다.

형산강의 남북하구가 토사로 메워져 선박출입과 어로작업이 불가능해지고 심할 때는 포항주민의 인명과 재산이 크게 손실되어, 포항항민기성회(회장: 일본인)를 결성하여 당국에 청원한 결과 1914년 10월에 형산강제방축조공사를 도에서 착수하였다. 이 기간에 포항은 1917년 지방항, 1923년 세관 지정항으로 승격 지정되고 포항과 일본, 빈전 간에 직통 새항로가 개설되어 외항해운이 개시되어 항세가 신장되었다. 일본자본의 해운업독점과 화장에 따른 항만시설의 확충으로 포항항을 출입하는 선박수가 증가하였다. 화물량이 증가하였으며, 동시에 부두노동자 등 인구가 증가하였다. 1934년 포항항 출입선박수는 1,700척(총 572,907톤)이며, 수출입한 화물은 81,300톤이 되어 포항항은 전국적 규모의 항구로 성장하였다.

포항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인이 다수 거주하고, 근대 항만시설의 설치와 수산업의 호황으로 읍승격 이후 도시 세가 더욱 성장하여 해방후 서로 승격할 수 있는 능력을 거의 갖추게 되었다.⁴⁾ 광복 후 4년간 포항읍 시기를 거쳐, 1948년 '지방자치법'이 공포되어 8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포항부가 포항시로 개칭되었다.

포항이 도시적 형세를 갖추면서 국제적 항구로 발돋움하고자 한 노력은 일제의 태평양전쟁의 도발로 중지되었고, 광복후 자유당정권시절에도 수심이 얕아 대형선박의 출입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4·19혁명후 포항개항추진위원회를 조직하여 노력하였고, 1961년 5·16 이후, 1962년 포항지정항이 된 후 동년 6월 12일 인천·부산·마산·군산·목포·여수·목호·제주에 이어 포항개항장으로 탄생하게 되어, 1968년 포항제철(주)의 포항유치설립의 기본여건을 마련하였다. 따라서 포항개항의 지정은 현대적인 국제무역항으로서의 포항발전의 방향을 제시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4) 1942년 12월 현재 인구 31,251명



1960년대의 포항(‘포항’, 포항시, 10쪽 / 자료제공: 구자문).

포항 도시탐색

Investigating the City

구자문 / 한동대학교 건설도시환경공학부
by Gu Ja-moon

포항은 포항제철을 품고 있는 인구 50만의 공업도시이다. 포항은 현재 도시와 농촌이 결합된 도농통합시가 되어 서울의 1.8배나 되는 광활한 면적을 포함하고 있으나 3년전까지만 해도 현재 면적의 6%에 35만의 인구를 지니고 있었다.

포항은 1960년대 중반만해도 인구 6만의 어업도시였는데 1970년 포항제철이 착공되면서부터 인구가 불어나고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된 것이다.

포항하면 누구든 포항제철을 떠올리듯 포항의 도시화와 산업화는 사실상 세계적인 규모인 포항제철이 이끌어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요즈음 지난 30년간의 포항의 변모에 대한 포항제철의 영향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은 않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 문제 등 점점 악화되는 환경오염에 지역민들의 우려가 반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포항은 오염된 공업도시로 치부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자연과 인문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최대의 철강도시이면서도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소질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생각한다.

포항을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동쪽으로는 푸른 바다가 둥글게 만을 이루고 고층아파트들이 군집을 이루며 여기저기 솟아있는 넓디란 시가지가 한눈에 들어온다. 도시의 남쪽은 온통 공장지대인데 인접한 포항항과 영일만에는 커다란 화물선들이 장난감같이 줄을 지어 떠있다. 비행기를 타고 포항에 오는 이들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이 포항임을 다시금 느끼고 감탄하게 될 것이다. 시내로 들어가는 공항로변에는 포항제철과 강원산업 등의 공장건물들이 우립한 모습들을 내 보이고 있다. 아, 이곳이 그 유명한 포항공단 지역이로구나 하고 다시 한

번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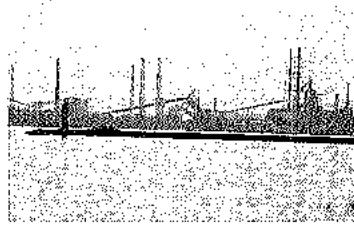
이 공항로는 가로수가 잘 가꾸어지고 길가의 공장이며 부속된 건물들도 잘 정리된 모습이어서 역시 세계적인 기업 포항제철이 있는 곳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때로는 공장매연이 잔하게 깔리고 자동차의 배기ガ스 낌새 또한 섬하기에 실망을 해가면서 한참을 더 달린 후에야 주홍색 아치형의 형산강 다리가 나타나며 비로서 포항시가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다리를 지나면서 형산강은 이제 바다에 다다르고 이곳에는 항상 바닷바람과 강바람이 세차게 불어온다. 이 형산강은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원으로서 포항의 절줄파도 같은 것이다. 포항시는 생태적인 도시건설을 21세기 개발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데, 이 목표의 성패도 이 형산강을 어떻게 정화하고 개발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말 할 정도로 포항에게 형산강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형산강은 물이 짙 차 흐르며 깨넓은 모습인데 형산강 다리는 구다리 신다리 등 3개의 다리로 번잡하게 이루어져 있다. 지금 이용하는 두개의 다리는 각각 2차선 3차선으로 하루종일 공단의 출퇴근 차량, 철강을 실은 트럭 등 온갖 차들이 비쁘게 왕래하는 곳으로 누구도 걸어서는 건너가 볼 엄두를 못내는 곳이다. 곧 이 다리들은 헐리고 새로운 다리가 세워진다는 데, 이 많은 교통량을 소화하면서도 좀더 낭만적인 아름다운 다리가 건설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것이다. 이 다리 주변과 이 형산강가가 좀더 시민들이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이 강변에 위치하며 포항시내 저 멀리에서도 보이는 철도통제탑은 누구든 서울타워와 같은 전망대로 느끼기 싫상인데 정작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곳이라서 안타깝기 만하다.

이 형산강을 지나면서 길은 네다섯 갈래로 나뉘어지며 가지각색의 크고 작은 건물들과 간판들로 거리의 양족이 메워지기 시작한다. 강을 건너 이 형산로터리에서 직선으로 난 길이 통일로이다. 이 거리는 아직 개발의 여지가 많은 곳으로 넓디란 가로에 대한항공, 한국통신, 한국은행, 동대병원 등의 큰 건물들로 채워져 있고 거리나 건물의 스케일에서 포항의



여객선 터미널에서 보이는 풍경



포항 여객선 터미널에서 바라 본 포항제철



포항 터미널에서 바라본 해변가 아파트군

터미널
지역건축물
문화
여주
포항

중심가로와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는데 아쉽게도 짧게 끝이나 버린다. 형산로터리에서 바로 왼쪽 길을 따라가면 길 한편의 넓디란 터에 종합경기장, 실내체육관, 문화예술회관 등이 커다랗게 위치하고 있다. 이 지역은 형산강가이기도 하지만 빌더가 많고 조경이 아름다운 곳으로 이들 경기장에서는 전국체전을 비롯한 각종 경기들이 열리고 문화예술회관에서는 음악회, 전람회, 토론회들이 자주 개최되어 시민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형산로터리에서 바로 오른쪽의 길을 따라가면 포항의 중심가로 연결이 되는 형산로이다. 이 길은 각종 상점들이 가득 차 있고 오거리, 육거리로 불리우는 방사선 형태의 도심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포항의 중심 도로망은 방사형에 격자형을 결합시킨 조금은 독특한 형태로써 가로가 비교적 넓은 편이며 여러 갈래로 갈라지는 넓은 로터리를 많이 지니고 있다. 건물의 형태며 행인들의 모습에서 포항 특유의 특징을 찾기는 힘들다. 다른 대도시에서 그러하듯 화려한 듯 하면서도 허술한 모습의 건물들과 커다란 간판들이 수없이 눈에 들어온다. 길 양측으로는 수많은 전봇대가 솟아있고 전기선이며 전화선들이 건물 주위를 어지럽게 지나가고 있다.

도심에는 언제나 자동차와 사람들이 쏠려 넘친다. 차량보유대수가 인구비례 당 전국 최고의 수준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 도심의 좁은 골목 골목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별없이 자동차와 사람들이 제멋대로 뒤엉켜 있다. 그러나 포항의 교통소통은 비교적 좋은 편이라고 말할 수 있다. 리시아워에 교통체증이며 주차난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도시 곳곳을 대체로 질주해 달려갈 수 있으니 말이다. 골목 골목은 좁고 정비되지 못하였지만 도심 전체가 비교적 효율적인 도로망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된다.

포항의 도심부는 넓은 지역이 이미 크고 작은 건물들로 뒤덮여 있다. 하지만 도심의 외곽에는 아직 크고 작은 구릉들이 존재하는데 파헤쳐지고 벌거벗은 경우가 많아서 보는 이들로 하여금 식막함과 안타까움을 느끼게 한다. 이것은 요즈음 가뭄이 계속되고 산불까지 겹쳤는데 나무가 잘 자라지 않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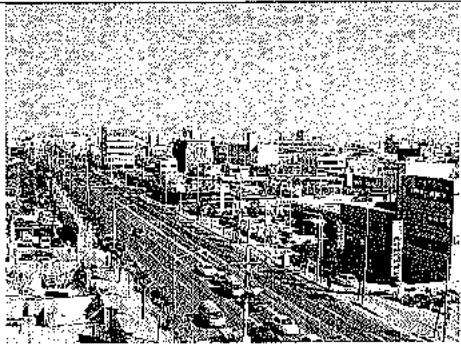
척박한 토질이라서 산림녹화에 애로점이 많다. 군데군데 송림과 관목숲이 보이기도 하지만 벌거숭이 구릉이며 아산들이 더욱 눈에 띄이며 포항의 한 모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릉들 사이로 특징있는 스카이라인을 형성하는 또 하나의 그룹들이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지어지기 시작한 대규모의 고층아파트군들이 그것이다. 일부 산등성이며 골짜기가 대규모로 개발되고 수천세대식의 대규모 아파트군들이 지어져서 포항의 새로운 모습을 이루었고 사람들의 거주양식을 바꾸어 놓았다. 이 20층씩이나 되는 고층의 아파트들이 높고 낮은 구릉들과 함께 더러는 구릉들보다 더욱 높이 솟아서 이 도시의 풍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시내 곳곳의 빈땅과 재개발지역에도 거대한 고층아파트들과 조금은 작은 스케일의 저층아파트들이 여기저기 지어져서 기존의 동네들과 모양과 크기에서 많은 부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풍경들을 이루었다. 시내며 외곽을 운전해 가다보면 저층의 주택과 상가로 이루어진 풍경속에서 갑자기 높고 멍치 큰 아파트 건물들이 시야를 사정없이 가로 막는다. 이 도시에서는 이상한 형태의 기계실 혹은 물탱크를 얹은 고층아파트군들로 스카이라인이 이루어진 경우가 아주 흔한 것이다.

50만의 도시이면서도 포항에는 역사적인 건물도 기념비적인 건물도 눈에 띄이지 않는다. 다른 대도시에서 볼 수 있는 큰 규모의 기차역도 광장도 시청사도 존재하지 않는다. 인구는 50만이지만 어쩌면 30년전 6만 규모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는 곳이 포항이 아닐까 생각이 된다. 또한 이 도시에서는 보행자보다는 차량소통 위주로 버스교통 보다는 자가용 위주로 교통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도시 또한 이에 맞추어 개발되고 있으므로 시설들이 집중적으로 연관성있게 개발되지 못하고 개구리 점프식으로 제각기 산만하게 자리잡고 개발되는 것이다.

이 도시에서는 걸어서 쇼핑하고 이야기하고 쉴 곳을 찾기가 힘이 든다. 길가에서는 잘 가꾸어진 가로수, 균린의 공원, 꽃밭, 녹지대를 찾아보기가 힘이 든다. 시민들도 자가용이나 택시를 타고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것 이외에는 거리에서 별 다른 감흥을 느끼지 못한다. 이러한 면에서 이 도시는 시민들에게 도시미관에 있어서나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나 너무나 삐



포항시 전경



포항시 전경

악함을 주고 있는지도 모른다. 실제 많은 주민들은 포항을 문화와 예술과 낭만이 없는 도시, 공장과 술집만 있는 도시라고 혹평을 서슴치 않는다. 이 도시에 공연장이며 박물관이며 스포츠센터가 없는 것이 아니며 음악회며 전람회가 열리지 않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설들이며 행사들이 사람들이 손쉽게 닿을 수 없고 이용할 수 없는 위치에 있다면 별 효용이 없는 것이다. 시민들이 매일 매일을 살아가는 거리며 골목에 잠시 쉬거나 눈길을 돌릴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되고, 손쉽게 닿을 수 있는 위치에 다양하고 흥미있는 시설들이 마련된다면 이러한 도시의 삭막함은 많이 치유 될 수 있을 것이다.

포항에는 시민들의 활동과 사회·경제적인 기능으로서의 장소성을 갖는 곳이 몇 군데 눈에 띤다. 육거리나 남빈사거리로 지칭되는 곳은 분수대 하나 없고 변변한 건물 하나 없는 평범한 중심가 교통의 요지일 뿐이지만 이 두 로타리를 잇는 선상의 중앙로와 우체국골목은 포항의 변화가로서 충분한 장소성을 갖는 곳이다. 많은 옷가게, 음반가게, 디방, 카페, 국장들이 몰려 있고 미국풍의 맥도날드, 캔터카후라이드치킨, 피자헛이 있는 곳이다. 가게들이 일집하고 차들이 세워지고 빠져나가는 이 넓지도 않은 이 골목은 10대와 20대들이 어울려져 젊음을 발산하는 곳이다. 이 지역에 사는 외국인들이나, 잠시 정박한 미국함대의 사병들이 우루루 찾아오는 곳도 이곳이다. 서울의 명동이나 압구정동 보다도 더 멋쟁이가 많다는 곳도 이곳이다. 이곳이 없다면 포항의 젊은이들은 갈 곳을 잃을 것이다. 이곳이 없으면 포항 또한 활기를 잃을 것 같다.

이곳에서 몇 블럭 동쪽으로 가면 죽도어시장이 있고 바로 그옆은 바다이다. 이곳은 이 도시의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서 어시장에는 횟집들이 떼지어 몰려 있고 조그만 만으로 이루어진 바다에는 오징어잡이배가 줄지어 정박하고 있다. 물이 혼탁하고 주위의 건물들이 허술하기에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하얀 갈매기들이 떼지어 날고 갖가지 형태의 어선들이 즐비하고 갖가지 종류의 싱싱한 물고기들을 맛볼 수 있는 곳이기에 이곳은 시민들에게는 아주 정겨움을 주는 곳이다. 어민들과 상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이며 나이든 시민들에게는 상상한

횟집에 한잔 술을 위하여 찾아 드는 곳이다. 이곳 포항에서는 요즈음도 서해안이나 남해안에 비해 해산물의 오염이 적어서 안심하고 사시사철 활어회를 즐길 수 있다고들 말한다. 겨울 한철 청어며 꽁치를 추운 바닷바람에 얼리고 말려 만들어낸 괴매기는 포항의 특산물로서 두릅으로 얹어 말리는 모습 또한 전 풍경인데, 미역과 미나리에 싸 소주에 걸들여 먹는 맛이 일품이라 포항사람들은 괴매기 맛 보기 위해 겨울을 기다린다. 이 곳에서 좀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울릉도행 페리선착장이 있다. 울릉도로 가는 길은 뱃길뿐이기에 울릉도의 주민들과 울릉도행 관광객이라면 꼭 거쳐야 하는 곳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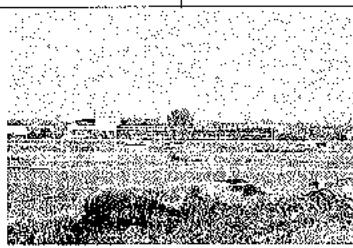
이곳에서 울릉도까지 쾌속정으로 겨우 세시간이 걸린다니 울릉도는 더 이상 멀고 먼 섬나라가 아니다. 울릉도에는 정작 일만요천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이 포항에는 더욱 많은 수의 울릉도 사람들이 정착해 있으니 이 포항에서는 “아름다운 울릉도 ~” 하는 가요가 “영일만 천구야 ~” 혹은 “아주끼리 포항부두 ~” 하는 가요를 만큼이나 친숙함을 누렸을 것이다. 이 선착장을 지나 좀더 북쪽으로 가면 북부해수욕장이 나오며 드디어 탁 트인 바다를 볼 수 있게 된다. 이곳은 최근에 폭넓은 도로가 바닷가를 따라 개통이 되었고 카페, 음식점, 노래방, 모텔들이 고층으로 모양 좋게 자리 잡은 곳이다. 긴 백사장이 있고 그 끝으로는 푸른 해송으로 뒤덮인 구릉이 보인다.

바다건너 오른편에는 특징적으로 조형화된 포항제철의 시설물들이 장난감같이 그러나 장대한 느낌으로 밤에는 휘황찬란한 불빛을 발하는 광경을 볼 수 있다. 바다 저편 멀리로는 한반도의 꼬리를 이루는 장기곶이 내다보이고 거대한 화물선들이 유판하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파도가 치고 바닷바람이 불고 아색적인 전망을 자닌 이 북부해수욕장은 24시간 낭만을 만끽할 수 있는 이름다운 장소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름다움을 이곳 사람들은 얼마나 느끼며 가꾸어 가고 있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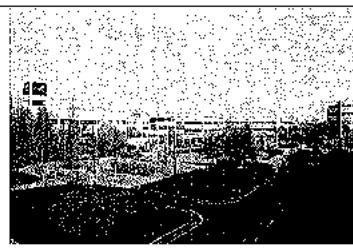
이 백사장에 쓰레기가 쌓이고 바닷물이 오염되어 날새가 나니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 없는 것이다. 또 하나의 아쉬움을 주는 도심 속의 바닷가가 송도해수욕장이다. 이 곳



포항시의 야경



포항시 공실운동장 전경



포항공과대학

온 오거리에서 동쪽으로 4 ~ 5분만 운전하면 닿을 수 있는 송림이 아름다운 유명한 여름 휴양지였다. 그러나 영일만에 방조제를 쌓은 후 조류가 바뀌어 아름답던 백시장이 다 유실되고 빨만 남았었다. 포항제철과 협산강을 지척에 두고 바닷물 또한 오염되었다. 송도는 아직도 시민들의 휴식처로 불리우지만 수송 해운 모래사장에, 오염된 바닷물에, 지척으로 건너 보이는 협산강 하구 저편의 연기를 내뿜는 포항제철의 입도적인 모습에 송도해수욕장의 옛 모습을 찾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도심 속의 바닷가들을 어떻게 정화하고 개발해 나갈 것인가?

이곳을 오히려 포항의 특징과 아름다움을 내보이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바꾸어 나갈 수는 없는 것일까? 이제 장소를 남쪽으로 옮겨 효곡동으로 가보자. 효곡동은 포항제철이 많은 투자와 정성을 들인 이제는 국내 굴지의 대학으로 성장한 포항공대와 산업과학연구소가 있는 곳이다. 이곳에는 학자며 교수들의 수도 많지만 이곳의 풍경은 한국의 도시라기보다는 미국의 전원도시를 연상시킬 만큼 넓은 가로와 잘 가꾸어진 숲 그리고 깨끗하게 지어진 학교건물, 연구소, 체육관, 아파트들이 있다. 또한 포항을 좀더 알려지게 하는 거대한 규모의 방사선 가속기의 건물이 있다. 포항에서 이곳만큼은 잘 계획되고 잘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을 방문했던 외국인들은 포항이 선진국 수준의 도시임을 감탄하게 되는 것이다. 저명한 대학, 첨단의 연구소, 산뜻한 환경을 지닌 이곳은 정말 포항의 큰 자랑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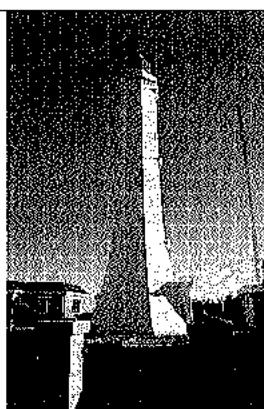
그러나 이곳을 거닐면서 마음속의 괴리를 느끼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저 중심가의 초리한 거리며 집들은 언제나 이곳같이 개발될 수 있단 말인가? 아름다운 거리를 조망하면서 자꾸 더럽고 정비되지 못한 그 저자거리를 떠올리는 이가 의외로 많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 곳곳을 다양하고 특색 있게 가꾸어 나가는 것이 오히려 권장해야 할 개발방식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항구는 항구대로, 연구 도시는 연구 도시대로의 맛과 냄새를 지녀야 하는 것이 아니라 고… . 옳은 이야기이다. 다만 모든 지역들이 골고루 계획과의지를 가지고 형평성있게 개발되고 정비될 수 있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포항은 도시개발이며 건축에 있어서 어떠한 확고한 계획과 원칙이 있었던 것이 아니었던 것 같다. 거대한 포항제철이 지어지고 연관 산업들이 발전하고 지역경제가 더불어 발전되어 감에 따라 필요한 시설이며 건물들이 그때그때 임기응변적으로 지어져 왔다고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 도시는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운 도시로 성장하기보다는 시행착오속의 하점 많은 도시로 발전되어 온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상하수도 문제, 쓰레기 문제, 교통문제, 도시미관문제 등등 점점 악화되는 환경문제의 해결이 모든 시민들의 큰 과제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예전과는 달리 시민들은 자기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주거환경에 좀더 신경을 쓰게 되었다. 정부기관이나 사회단체에서도 물량적인 건설이며 생산보다는 환경의 질에 좀 더 관심을 쏟게 되었다. '푸른파도 푸른꿈 푸른포항' 혹은 '21세기의 생태도시건설'이라는 포항시의 시정구호나 개발목표를 자체가 포항시민들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와 노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의 상태를 개탄만 할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풀어나가며, 좀더 환경친화적인 개발, 미래를 대비하는 개발을 위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인다면 우리의 도시는 좀더 살기좋고 정감어린 장소로 변모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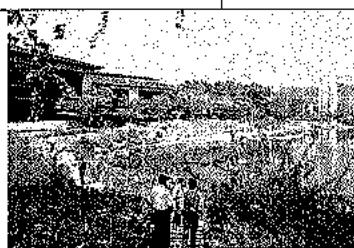
포항은 오염된 공업도시로 치부되기에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과 인문을 가지고 있다. 최대의 철강도시이면서도 환경,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에서 살기좋은 도시가 될 여건과 가능성을 충분히 갖춘 곳이 바로 포항인 것이다.

〈참고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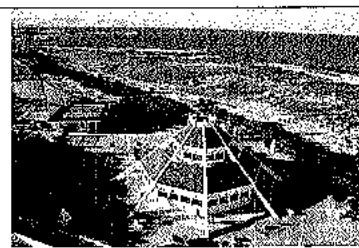
- 포항시, 포항, 1996.
- 포항시, 엘런포항: 신록에서 장기곶까지, 1997.7.
- 포항시, 우리고장 문화지, 1997.
- 포항시, 포항市史, 1987.
- 포항시, 포항의 역사와傳統, 1990.
- 포항지역사회연구소, 포항지역 환경오염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1994.5.
- 국토개발연구원, 21세기 경기종합개발을 위한 포항 도시기본계획환경 연구, 1995.



장기곶 등대



포항공과대학 구내



등대 박물관

동부경상권의 건축적 현황

Today's Architecture of
the Eastern Kyungsang Region김충정 / 경주전문대학 실내건축학과 교수
by Kim Chung-Joung

글을 시작하며

동부경상권의 건축이라는 주제로 지역의 현대 건축을 논하는데 있어서 포항·울산과 경주만으로 이 도시의 현대건축이 동부경상권이라는 지역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다. 공업도시인 울산·포항과 역사와 문화의 도시인 경주가 함께 다루어 진다는 점에서 다소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 지역으로 다루게 된 것은 자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도시이고 옛 신라의 문화권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논의는 뒤로하고, 울산은 지난여름 광역시로 승격하여 이제 인구가 100만에 이르고 포항은 68년 포항제철이 이 도시에 들어섬과 함께 작은 포구에서 인구 50만에 이르는 공업도시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경주는 시군 통합으로 인구 30만에 이르는 도시로 두 공업도시의 사이에 있는 휴양도시며 관광도시로 그리고 모든 국민의 관심이 있는 문화유산의 도시이다. 이러한 점에서 포항과 울산은 생산성이 강한 도시이고 경주는 소비성향이 강한 도시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두 공업도시는 공산품이외의 일반소비제품에 대한 산업시설이 부족하고, 경주는 두 공업 도시와 관련이 있는 경공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꼭 그러하지도 않다. 이러한 3개의 도시를 단지 지역적으로 인접한다는 이유로 지역의 현대건축 평가할 수는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각각의 도시에서 나타나는 현대 건축물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한다.

울산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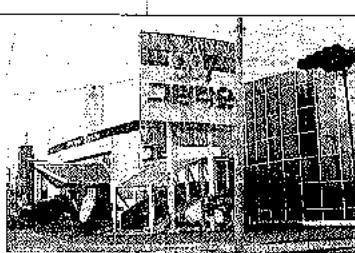
급격한 확장으로 있는 울산의 신시가지 삼산동 일대는 공해로 인하여 농사도 되지 않는 땅이었으나 지금은 아파트 단지와 많은 상업시설들이 들어서 있는 곳이다. 이 곳은 주변공단의 공해로 인하여 식물도 자랄 수 없는 불모의 땅이었던 것으로 기억되는데 언제 사람이 거주하기에 폐적인 환경으로 개선되었는지 궁금하다. 많은 도시의 재개발 또는 현대화의 과정에서 자연녹지가 부족하고 회색의 공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건만, 아직도 도로와 건물들로 채워져 가는 도시의 모습을 보면 씁쓸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신시가지를 개발하고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공원이라고 하는 녹지체계의 충분한 확보는 울산시가 공업도시라는 사람들의 인식이 살아있기에 좀더 고려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이 곳 삼산동 일대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다. 어느 도시의 아파트나 마찬가지이지만 그 커다란 단순 사각형의 콘크리트 덩어리가 뭐그리 자랑스러운지, 시공업체의 이름을 외벽에 커다랗게 써 놓은 것이 아름답지도 않지만 건축의 형태에서 다른점이 없으니 자기점을 찾으려면 방법이 없지 않은가? 반면 이러한 아파트의 분양을 위한 모델하우스는 도시에서 2~3년 후에 없어질 임시건축물인데도 불구하고 참으로 다양한 형태로 사람들의 시선을 모으고 있으니 재미있는 현상이다.

울산의 현대건축으로 최근에 지어진 주리원 아트리움 백화점이 있다. 주변의 공기가 아직도 많이 있는 지역에 세워진 건물이라 삼산동 일대에서 시각적인 짐승도는 양호한 편이다. 건물의 매스는 백화점건축으로 일반적이고 모서리의 처리기법은 새로운 방법처럼 보이지만 그렇게 특이한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백화점건축이 외부로 면한 개구부가 제한적인 편인데 주리원 백화점의 경우는 다양한 크기의 개구부로 된 외벽의 의장적 처리가 이를안다. 서부동의 명덕복지회관은 일부 사용중이고 한편으로는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복합건물 군이다. 이 건물의 특징은 다양한 매스의 조합으로 건물과 건물 사이에 나타나는 크고 작은 공간의 변화가 돋보인다. 사용된 재



울산 삼산동 아파트 단지 (사진 김충정)



울산 그린타운 모델하우스 (사진 김충정)



울산 주리원 아트리움 백화점 (사진 김충정)

로와 디테일에서도 상당히 정리된 건물이다.

최근의 일이지만 울산시가 광역시로서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것과 도시규모에 비하여 종합대학이 하나뿐이지만 울산대학교의 건축과에서 그 동안 지속적으로 도시의 문제와 지역건축의 문제를 다루었던 점 등도 울산의 건축발전에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포항의 건축

포항시의 건축은 건축물다운 건축이 없다는 것이 포항건축의 특징이다. 그 만큼 건축적으로 논의의 대상이 될 만한 건축물이 없다는 것이다.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어 건축 경기가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은 요즘의 문제이고, 꼭 이러한 이유가 아니고도 건축주의 적극적인 투자가 보이는 건축물이란 찾아보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그렇다고 포항지역의 건축가가 모두 건축디자인 능력이 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다. 전국의 어느 지역이나 공통적이겠지만 건축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은 건축가보다 건축주의 사고와 시공자가 담당하는 부분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또한 포항시의 일반적인 풍경은 건축물의 높이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도시의 지역적인 특성은 경주와는 다른 이유에서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이유중 하나는 포항시의 전반적인 지반이 약하여 기초공사를 하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건축물의 시공을 건축주들이 꺼려한다는 것이다. 포항시의 지반은 밑으로 물이 흐르고, 물위에 떠 있는 땅이라 고층건축물의 시공이 쉽지 않은 까닭이다. 이러한 지질학적인 환경이 지역의 건축 형태를 결정짓는 하나의 원인이 된다면 포항시의 지역적인 건축의 특성중 하나는 고층건물이 많지 않다는 것이 될 수 있다.

포항시의 지역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또 하나는 제철도시라고 하는 점이다. 해안도시 포항에 제철소가 들어온 지는 30여년 전으로 그 전까지는 율동도로 항하는 연락선이 출발하는 작은 포구로, 한반도의 고리 영일만과 구룡포로 기억되는 항구도시에서 지금의 모습으로 되기까지는 포항제철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이러한 포항제철의 모습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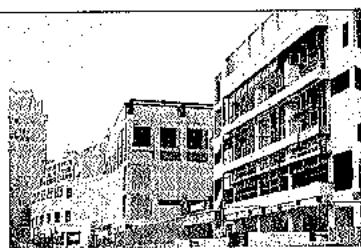
포항시의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며 그 제철소의 굴뚝이며, 반짝이는 제철소의 아경은 포항시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다. 많은 공장건물로 인하여 철골건축이 잘 발달된 도시로 평가되지만 반면 도심의 건축물은 일반적으로 잘 디자인된 건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것이 포항시의 모습이다. 그나마 최근에 들어서는 북부해수욕장과 포항공대를 중심으로 한 흐자주택단지 등에서는 활발한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보다 발전한 포항의 건축적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건축들도 많은 부분 서울등 대도시에서 설계를 하고 있어 지역에서 활동하는 건축가의 마음이 담긴 지역성있는 현대건축이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경주의 건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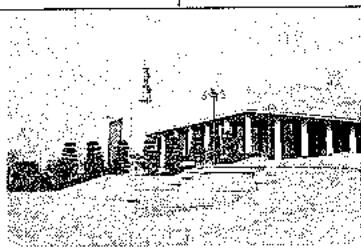
경주라고 하는 도시를 생각하면 우선 신라천년의 역사도시라는 점과 함께 전통이라는 말을 연상하게 된다. 사실 경주를 방문한 사람들에게 경주의 건축적인 특성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전통과 역사로 대변되는 전통한옥의 모습보다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높이가 높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 한다. 이제 까지 계속 되어온 이러한 경주의 모습이 근래에 바뀌고 있는데 다름아닌 아파트 때문이다.

국내의 모든 도시에 심하게는 농촌에 이르기까지 분포되어 있는 아파트라는 주거용 건축물은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거의가 같은 모습으로 지역의 건축적인 특성없이 도시를 다 같은 분위기로 만들고 있다. 경주에서 이러한 고층 아파트는 사방이 국립공원으로 둘러싸여 있는 경주의 도시 미관에서 산의 능선이 중첩되어 연결되어지고 그 아래 나지막한 건축물이 자리하던 경주의 스카이라인과 어울리지 않는 요소로 나타나게 된다. 거주자는 넓은 전망과 양호한 일조로 더 없이 좋은 환경에 있는 반면 경주라고 하는 도시 전체의 모습을 망가트리는 결과를 가지고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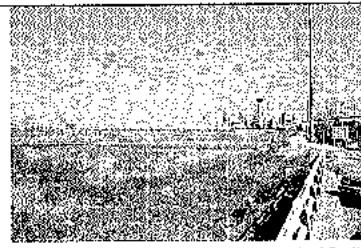
지역성을 내포하고 있는 건축물을 국내에서 찾기 아보기는 흔하지 않은 일이다. 하지만 경주는 다행스럽게도 그



울산 명역 복지회관 (사진 김충정)



울산 문화예술회관 뒤에 보이는 KBS 블루 (사진 김충정)



포항제철 (사진 김충정)

동안 계속되어 온 건축의 여러 규제의 결과와 함께 타 지역에서 바라보는 역사와 문화의 도시라는 이유로 강요된 전통건축의 모습을 한 건축물이 많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건축의 전통성을 외형에서 보여지는 형태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전통의 공간이 가지고 있는 질적인 내용은 우리 건축을 하는 사람들의 이해에 관한 것이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쉽게 인지되지 않는다는 점과 그 공간 안에서의 기능은 건축물 내부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다고 할 때 관광도시로서의 경주가 그나마 전통양식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많은 건축물들이 있다는 것이 큰 다행이기도 하다.

경주시의 현대건축을 논하는데 있어서 다루어야 할 첫번째가 전통의 탈을 쓴 현대적 대형건물들이다. 시내 황성공원의 시립도서관, 동천동의 한전사옥 등과 관광 보문단지의 조선호텔, 불국사 앞의 상가와 주변의 숙박시설 등이 전통 골기와를 이용한 지붕으로 처리되었고 이러한 형식의 건물들은 천마공원, 교육청, 많은 한식전문점과 행남동 일대의 주택 등 종 소규모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강요된 전통으로 인하여 사각형의 건물에 골기와 지붕을 한 건축물들은 그 스케일이 한국의 전통건축에서 오는 공간의 스케일이 아니고 훌로 서 있기 때문에 기형의 모습으로 다가오고 있다. 우리 전통건축의 공간과 그 분위기는 독립된 하나의 건축물이 아니고 건물과 건물의 사이공간이나 그 주변의 자연경관이 함께 하여야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주에서의 건축은 건물의 형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새로 지어지는 건물이 국립공원을 가리는가? 도심에 산재되어 있는 고분들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예 더 많은 관심이 있어 건축물 자체의 형태는 특이한 것이 별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경주에 새로운 형태미 - 단순사각형에서 벗어난 - 건축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대부분 소규모의 건축물들인데 흔히 이야기하는 전통과는 어울리지 않게 형태가 강조된 건물들이다. 지역의 랜드마크적인 경향을 가지기도 하는 이러한 건축물들에 대해 고도 경주에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비평의 목소리도 있지만 건축가의 고민한 흔적이 보이는 이러

한 건물들은 경주시의 새로운 건축문화를 창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문화재 관리국의 김동현 보존과학 연구실장은 “복원은 남아있는 유적을 손상시키고 그 위에 현대건물을 짓는 행위”라고 하였다. 보존과 개발의 사이에서 표류하는 경주에 필 요한 것은 현재의 경주를 더 이상 훼손하지 않는 것이다. 개발보다는 정비위주의 건축행위가 필요하고 이러한 정비에 기존의 아파트가 포함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더 나아가 주변에 위성도시를 설립하고 현재의 경주를 일반인의 의식에 남아있는 경주의 모습으로 보존하는 것이 경주의 지역성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제시될 수 있다. 지역의 현대건축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발전하는데는 학교의 역할도 크다. 이제는 경주에도 건축, 도시관련 학과가 있는 대학과 전문대학이 있다. 경주 지역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자발적인 해결방안의 제시와 함께 지역내의 건축전반에 대한 충고나 비평을 소홀히 하여서도 안되며, 이를 소홀히 함으로 인하여 들어오는 지역건축에 관한 남들의 충고나 비평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지역의 건축과 관련된 문제인데 그 지역의 거주자가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글을 마치며

경주와 포항·울산의 지역적인 특성중의 하나는 울산이나 포항의 도시가 대부분의 바닷가를 공업시설로 인하여 시민들로부터 접근을 막고 있지만 울산과 포항을 연결하는 양호한 경관의 동해남부 바닷가를 끼고 있다는 점이다. 이 해안도로를 따라 나타나는 건축물의 유형은 이 지역 역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의 러브호텔과 횃집들이 널려 있을 뿐 크게 다를 것이 없는 실정이다. 그나마 바닷가를 즐겨 찾는 연인들을 위한 통나무건축의 레스토랑들이 있으나 그 모습으로는 산 속이나, 어디에나 있어도 무방한 국적불명의 건축이라 할 수 있고 그 외에는 바닷가라는 지역적 특성이 살아 있는 건물은 찾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해안도로와 해안선사이의



포항의 북부 바닷가 풍경 (사진 성민수)



포항공대 주택단지 (사진 성민수)



경주보문단지의 현대호텔 (사진 김충정)

좁은 땅에 지어진 건축물들은 도로를 따라 달리는 차량에서나 해안도로의 서편에 위치하는 사람들이 바다를 바라보는 자유를 박탈하고 건축을 내부에서 소수의 사람만이 바다의 경관을 점유한다는 점에서 법규를 통한 제약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벌써 늦은 감이 있다.

울산, 포항, 경주를 상대로 한 현대건축의 논고에서 각 지역의 현대건축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성을 가진 건축가의 작품에 대한 논의도 없었다. 결국에는 본 글을 통하여 살펴본 3개의 도시에서 다른 도시와 차이가 보이는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현대건축의 특징을 찾아내자는 뜻하였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고 하여 동남경산권의 세도시를 포함한 전국의 도시들에서 지역적인 특성을 찾을 수 없다는 단언을 내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 세개의 도시를 다루며 현대건축의 현황을 이야기하기에는 지면이 모자랄 수도 있겠지만 이 작은 나라에서 전통건축에서나 찾아볼 수 있었던 지역적인 건축의 특징을 교통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 찾아본다는 것이 무의미하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어느 지역을 가더라도 그 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건축의 특성이 없다고 속단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의 건축이 나름대로의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발달하며 그 모두가 모여 한국의 건축만이 나타낼 수 있는 세계건축 속에서의 한국적인 지역성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마지막으로 지역성이 있는 건축들은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활동하는 건축가에 의해서 완성될 수 있다. 지역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단편의 모습으로 건축에 반영된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지역의 역사와 오랜 전통과 삶의 모습인 지역의 문화 등이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종합하여 지역성이 있는 건축물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그 지역의 건축기가 가장 근접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비평: 지역성과 현대건축의 혼전

Regionalism and the Disorder of Contemporary Architec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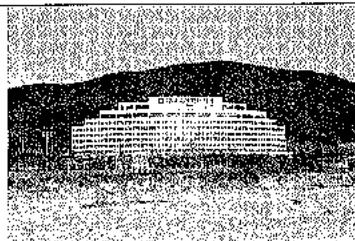
성인수 / 울산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by Seong In-Soo

1. 건축에서의 “지역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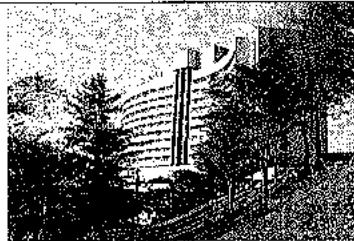
비판적 지역주의는 그저 ‘프루스트 증후군’(Proust Syndrome)이나 연출해내는 지역주의 단편들의 조합정도로 비판된다.『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쓴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는 소설을 통해 획일적인 인생의 덧없음에 대해 말했는데, 인간들은 돌아갈 곳이 없다고 한다. 인간들이 방황을 마치고 귀향할 곳에 도달하는 방법이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그런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맛이나 향기를 통하여 추상적이고 은밀한 내적 세계로 접어드는 방법을 말했다. 무의식적인 기억에 의해 과거를 회상하며, 인간적인 구원의 상태로 접어들면서 예술적 성취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프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주제라 한다.

‘프루스트 증후군’의 사례로, 우리는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에 있는 뢰머 광장에 면해있는 옛양식의 목조건물이나 경주 보문단지나 시내에 지어진 기와로 된 건물들의 사례를 쉽게 들 수 있다. 커티스는 ‘지역 고유의 것과 유입된 것의 결합을 시도하는’ 행위는 근대 구조의 상자에 걸만 번드르 한 ‘역사적 장식’을 덧붙이는 것과 같은 “사이비 지역주의”的 함정이 있다고 보았다. 우리나라에서 “골기와 계란색 페인트”的 건축적 형태에서 우리는 시각적 단서를 이용한 사이비 지역주의 건축적 형태를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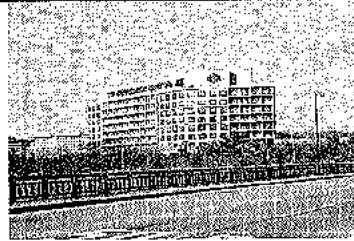
프루스트가 말한 것이, 건축에서는 눈에 보이는 과거의 단서들을 낙엽해서 과거와의 접목을 시도하는 것이다.



경주 보문단지의 교육문화회관 (사진 김충정)



경주 보문단지의 현대호텔 (사진 김충정)



경주 보문단지의 힐튼호텔 (사진 김충정)

그 과거가 서양 사람들처럼 편안했던 시간을 장시간 항유했던 삶들인 경우와, 우리처럼 과거가 애증으로 얹혀있는 경우는 다른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한국의 지역주의가 '프루스트 증후군'의 한 예로서 과거의 기억과 추상적이고 촉각적인 형태의 지역주의를 창출한다 해도, 비판적이어야 할 대상에 관한 인식에 따라 다양하고 혼란 지역주의의 한 사례로 낮춰지기 쉽다.

'한국의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한 관심은 21세기 한국건축이 지향하여야 할 바를 모색하는 단서가 될 것이다. 우루파이라운드로 대표되는 경제질서 속에서, 비판적 지역주의가 범세계적인 보편성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우리도 그런 논리를 힘없이 따라가며, 세계적인 조형논리에 빌맞추고 있다고 자위할 것인가? 세계적으로 확산된 지역주의는 자신들의 정치적 상황에 비판적이며,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하는 비판적 지역주의가 존재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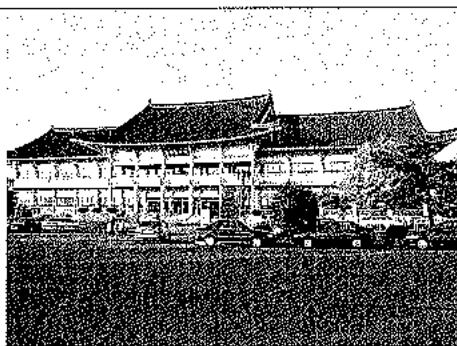
이에 반대하는 세계적인 통합주의자 간의 문제는 역사적으로 존재했고, 과거에도 강대국에 의해 세계질서가 통합되었듯이, 과학과 기술에 의해 위성통신체제로 통합되어 하나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다. 새로운 형태로 나타나는 21세기 '건축의 리턴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지역주의의 논의에 대한 역사적인 탐구를 하면 우리는 두 개의 개념과 만나게 된다.『이익사회와 공동사회』¹⁾ 개념이다. 지역주의에 부정적인 시각은 이익사회 또는 협연사회의 대상으로서의 지역주의 개념에는 반대하는 것이다. 공동사회 또는 계약사회 내에서의 지역주의로의 기능성을 묻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단일 종족 단일 국가(그게 맞다면)로서는 지역주의를 주장하기에 불리하다. 그저 '한국의 건축'이 있을 뿐이다.

2. 정통적 지역주의²⁾

윌리엄 커티스³⁾는 '정통적 지역주의'를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정의에 따라 지역주의가 특수한 장소, 문화, 기



경주 시립도서관 (사진 김충정)

후에 반응하는 독특한 내용을 찾는 것이라면, 세계적 건축에서 논의되는 거대한 지역주의는 잘못 말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국제적인 방식을 현란한 말로 표현하는 것을 거부하는 힘과 지역적 전통을 계속 추구하는 힘이 동시에 있다고 보았다. 의심할 바 없이 식민지 이후의 제3세계 지역에서 늘어가는 지부심의 정신적 반영일 뿐 아니라, 또한 근대화의 단순한 모델에 대한 광범위한 저항의 일부분이다.

최악의 상태로서, 지역주의는 한 국가 문화에 대한 상투적 수단으로서 모조품으로 이루어진 토속적인 대용품의 이미지로 결합된 피상적이고 급조된 역사로 퇴보할지 모른다. 최선의 상태로서, 지역주의는 과거의 상징적 하부구조와 원리를 넓게 하고, 이것들을 현재의 사회적 질서를 변화시키기에 적당한 형태로 변형시킨다. 지역주의는 사회에 응축된 힘과 에너지를 주는 드러나지 않는 기막들, 신화들과 영감들을 감지하는 일이며, 또한 건축형태의 질서 표현에 권위를 제공하는 일이다. 낡거나 새로운 것을, 지역적이거나 세계적인 것을 놓여서 건축의 어떤 영원한 특성을 만드는 것이 지역주의의 희망이다.

프랭턴은 비판적 지역주의가 "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작업을 의뢰한 건축주가 있다는 전제하에, 건축의 '지역적 학파'를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념이라 했다. 한국 건축계 또는 울산, 경주, 포항의 어떤 건축학파⁴⁾가 세계 건축계에 대하여, 아니면 서울에 대하여 비판적 지역주의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지, 또는 건축가들의 정치 분권적 관심사로, 또는 국가에 대하여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독립하고자 하는 열망으로 규정했다. 타인의 견해로 한국 지역주의 건축을 보증 받을 이유는 없지만, 스스로 비판적 지역주의 건축을 추구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의문점을 밝혀 보고 어떠한 전제조건이 필요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3. 도시와 지역성 그리고 건축가

울산·경주·포항의 건축적 지역성을 찾기 위
1) Civilization versus Kultur and Gesellschaft versus Gemeinschaft.



김포 은정회집 (사진 김충정)

하여 우리는 몇 가지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먼저 자신의 고유한 정신세계가 있어야 한다. 세계에 대하여 우리나라에 고유한 건축적 형태와 의미를 찾는 길이며, 한편으로 다른 도시에 대하여 고유한 지역적 가치를 잃어버리는 일에 대하여 저항해야 한다. 그래야 지역적 가치를 높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우리의 지역성을 대표할, 지역주의를 대표할 건축이 따로 존재하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이다. 실제로 그것이 존재할 수도, 그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이 우리의 지역성일 수 있다.

서양인들은 지역주의를 말하면 보스니아, 퀘벡, 영국의 웨일즈 저방을 연상한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것으로 치부된다. 건축의 경우, 미국의 샌프란시스코가 동양으로의 출구역할을 하므로서 동양과 서양건축의 전통들이 만나서 이루어 놓은 것이 만 - 지역주의이며, 미국에서 몇 안되는 사례라는 것이다.⁵⁾ 웃존의 경우 Bagsvaerd 교회에서, 세속적인 시대의 교회를 복유럽의 풍토건축과 동양의 목구조 격자체계로 암시한다고 보았다.

스페인 카탈란 지역은 8~10세기경 프랑크왕국의 스페인 변경 땅이었던 곳으로 스페인 내란시 공화파의 최후 근거지로서 역사·문화적 전통이 건축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질적 지역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문화적 자극은 불가피하게 현대지역문화의 혼성적 특질을 확고하게 해 주었다.

포르투갈 알바로 시자의 경우 지방도시의 땅과 해안경관에 밀착된 반옹과 더불어 지역재료, 수공, 지역적 차이에 따른 빛의 미묘함에 대한 애정과 기억을 말한다. 루이스 바라간의 경우 어린 시절의 프레블로 인디언의 기억을 예로 든다. 이것이 국제건축양식의 통사론을 벗어나 추상적 형태를 지향하고 있는 바라간을 돋는다. 안도 다다오는 공간적 명료성이 재료의 감촉성과 함께 기하학적 질서가 있는 통사론을 향한다.

4. 울산·경주·포항의 현대건축

모던건축은 우리에게 비정상적으로 다가왔지만

해방 이후 그동안 다양한 실험으로 근대건축의 가능성을 선보인 건축가들은 소화해냈다. 근래 모던건축, 포스트모던건축, 하이테크건축, 해체주의건축 등 새로운 패러다임이나 경향이 짧은 기간 차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람에 우리는 지역성의 문제를 심사숙고할 겨를이 없었다. 1960년대 지역성이 이슈가 되었지만, 사회적 여건은 이에 따르지 못했다. 지역적 건축을 고민하는 이 지역 건축가가 주위에 없는 것은 아니지만, 상업적 논리와 맞부딪쳐 효과적인 지역주의의 모습을 그려내는 데는 미약했다고 생각한다. 지방 경제체제 내에서 지역건축이 차지하고 있는 역할과 사회적 의식이 굳건한 토대로 건축가들에게 활동영역을 제공해주어야 하는데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다.

최근 들어 건축의 인문학적 성격이 부각되면서 건축의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건축이 문화의 중심에 서게 된 영역의 확장은 21세기를 맞이하여 시대가 변화했다는 증거이다. 점점 더 도시에서 사는 인구가 늘어나 이제는 농촌이라는 말이 불필요해지는 중이다. 형태상으로 농촌이라 하더라도 인터넷으로 이어지는 도시생활에서는 의식상으로 모두 도시인이 되고 통합되는 중이다. 그래서 이제 건축과 도시는 그 한계영역이 없어져 가는 중이다. 도시 같은 건축, 건축 같은 도시가 태어나자, 지역적 이슈는 악화되었다. 규모를 키운 린 콜하우스 같은 대표적 건축기는 이미 규모가 커지고 주제가 너무 방대해 저서 지역적 특성은 악화시킨 지 오래이다. 이 변화는 지역주의의 성격도 변화시켰다. 이전에는 지역적 성격으로 국한시켰지만 이제는 그 영역을 보이지 않는 지역으로 확장하는 중이리라.

그러나 우리에게 지역성이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지방자치가 구체적으로 건축가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일이며 누구에게나 현실적인 문제가 된다는 증거이다. 울산, 경주, 포항에 대한 지역주의적 성격에 대하여 자세히 말하지는 않겠지만 앞선 필자들이 이미 모든 지역이 거의 유사하게 도시의 변화

2) William J.R. Curtis, 'Authentic Regionalism', *MMAPs*, Jan/Mar 1986, Vol 19, p 24-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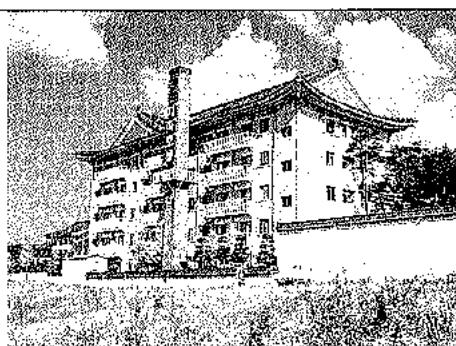
3) William Curtis

4) 浮城地帶 Bay Regionalism.

5) Paul Heyer, 'Architects on Architecture', (New York: Walker & Company, 1966), pp 86-88, 'The Bay Region'.



불국사 앞 경주온천 가족호텔 (사진 김충정)



불국사 앞 경주온천 가족호텔

를 겪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5. 지역성의 난제와 우리의 입장

역사적으로 행정조직,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지립적 정신이 어느 정도 내재해 있느냐에 따라, 각 지역이 지나는 문화적 고유성이 지립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지역주의로서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에 유리한 입장에서 있지 못했다. 그 동안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그 동안 군부독재체제 아래 단일한 가치와 규정으로 움직여온 사회적 관성에 따라 문화적 개념이나 행동양태도 획일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 토양에 변화가 온 것은 지방자치의 시행이었다. 이제 지방마다 독자적 문화적 행사를 주관하고 행사를 벌이며 국제화를 꾀하고 있다. 그 동안의 기간이 세계적 문화를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시간이었다면 이제 과거가 아닌 있는 그대로 허점이나 단점도 수용하는 우리의 표현규범이 지역적 건축으로 태어나리라 본다.

둘째, 민족성이나 지역성을 거론할 만큼 그 내용이 특성이 있거나 특수하지 않으면서 지역적 특성을 거론하는 것은 아니었는지 우리는 살펴야 한다. 비판적 지역주의 학파'를 배출할 지역적 조건으로서 우리나라 안에서 '서울' 또는 '울산', '경주', '포항'이 도시국가의 형태로서 전통적 면모를 지니고 있었는가? '서리벌' 또는 '한강'의 지역적 범위에 대하여 상대되는 다른 특색으로 나타나야 최소한의 지역성을 부가 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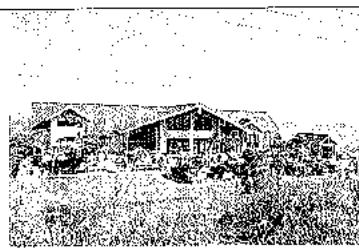
셋째, 한국내 지역주의 보다 세계적 범주를 대상으로 할 때에도 지역성 특성이 문제가 된다면 우리는 지역적 개념으로서 '한민족'에 대응되는 모집단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살펴보아야 한다. 한민족의 민족적, 지역적인 특성과 관련되

는 외연적 대상들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이것의 내포적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 이러한 특성을 한반도로 국한하기에는 점체성의 민족적, 민족적, 문화적 범위에 대한 의문이 가중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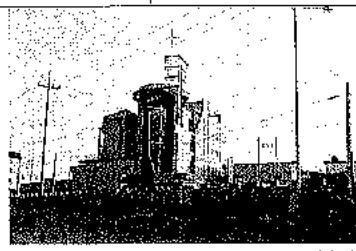
넷째, 우리는 지역주의에 관한 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어쩌면 이것은 북한이나 중국에서 또는 일본에서 보인 방법들에 우리가 노이로제에 걸려 자유롭게 바라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이미 많이 등장한 기와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하여 기와를 사용하여 다른 효과적인 어휘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시아권에 통용되는 지역적 특성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만 재료와 표현에 진실한 태도를 지니고서 말이다.

다섯째, 우리에게도 사회적 비판적 대상은 동일한가? 이것은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는 것이며, 이러한 점을 거들고 있는 것은 세계의 경제적 상황과 조건이다. 단지 비판적지역주의가, 단일 민족의 공감대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다른 나라의 설계규범에서 벗어나기 위한 개인적, 지역적인 건축적 희망정도로 낮게 평가하려는 의도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여섯째, 비판적 지역주의는 정치, 문화적 관점에서 사상적 자유가 있는 유럽지역에서 단일 도시국가의 건축적 유산을 배경으로 특성화된 지역이 비판적 지역주의 지역으로 부각되고 있다. 즉 자본주의로부터 발생한 피해상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역에서의 특수한 건축형태를 지닌 곳을 말한다. 사회적 공간을 탄생시킬 수 없는 사회 상황이라면 우리는 다양한 표정의 거리를, 공간을, 형태를 소유할 수 없다. 이때 사회에 대하여는 말을 못하면서 건축형태에만 지나치게 몰입하는 것은 정상적 지역주의를 바라보기 어려운 입장에 서게 된다.



제이드 레스토랑 (사진 김충정)



경주시내 교회 (사진 김충정)



갈포 은정회집 (사진 김충정)

좌담 : 역사도시와 공업도시의 건축적 지역성

City of History, City of Industry, and the Architecture
of Regionalism

일 시 / 1997. 11. 14. (금) 15:00 ~ 18:30

장 소 / 경주 교육문화회관 향비파 A홀

참석자 / 이규성(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조경호(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성인수(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신재익(울산대 건축학부 교수)

구민원(울산광역시 도시국장)

노진달(울산광역시 건축사회 회장)

박문창(울산 우성건축사무소 대표)

김희곤(서울 흥간건축사사무소 대표)

김충정(경주전문대 실내건축과 교수)

최재영(경주대 조경학과 교수)

김정호(경주시 건설도시국장)

강신태(경주 덕인건축사사무소 대표)

구자문(한동대 건설도시환경공학부 교수)

이병규(포항 건축사사무소 건미 대표)



좌담회 현장(좌담진행 / 이규성)

이규성 _____ “지역건축팀방” 두번째 ‘울산 · 경주 · 포항’의 지역성에 대한 좌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 도시는 동부경상권 또는 동해남부권이라고 호칭할 수 있으며, 울산과 포항을 산업도시라고 한다면, 경주는 역사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지리상으로 가깝게 위치하여 서로 보완적이며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봅니다. 오늘의 주제를 먼저 짚어보고, 세 도시를 차례로 이야기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는 전체적인 결론이나 공통적인 의견, 세 도시의 관계를 좀더 긴밀히 하는 방법 등을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성인수교수께서 말씀해 주시지요.

성인수 _____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은 근대건축이 발전하면서 공통적인 아이디어로 우리가 흔히 보는 콘크리트 박스 스타일이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것에 대해 반대되는 움직임이라고 봅니다. 십자형의 고층아파트를 도시에 확산시키겠다는 생각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케네스 프랭턴은 비판적 지역주의로 일곱 가지 요소로 정리해 놓았습니다.



첫번째가 모더니즘의 이상을 꿈꾸기보다 소규모 계획쪽을 선호한다는 것, 두번째는 건물이 서 있는 땅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그 땅이 어떤 역사와 내력을 가지고 있는지 관심을 갖는다는 것, 세번째는 서양건축의 특징이라고 할 수도 있는 서양사람들은 배경화법이라는 부르는 건물의 전면이 극장처럼 늘어서 있는 건축이 아니라 건축적인 사실로서 보는 것, 네번째는 보편적인 문명적 기구 또는 도구들보다는 자연적인 것을 선호하는 것, 다섯번째는 시각적인 대상 뿐만 아니라 촉각적인 것에 의해서도 경험되는 것, 여섯번째는 비판적 지역주의는 지역적인 것을 감각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피하고 전통적인 것을 재해석해서 세계건축의 하나로 지향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로는 문화적인 중심지가 있고 그 곳에 종속되는 관계로서의 지역주의는 잘못된 것이라는 점입니다. 각 지역들이 대등하게 설정이 된 관계로서 설명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개략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비판적 지역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형태로만 그대로 모방한 것으로, 경주에서 볼 수 있는 옛날 기와집 형태를 그대로 짓는 것은 지역주의라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옛날 목조형태를 다시 콘크리트 재료로 복원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실제로 상업적으로는 그런 것이 더 많이 선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의 실정에 맞게 바꾸면서 옛것이 필요한 소지를 남겨야 할 것입니다. 실제로 지역주의는 그리스 모던건축물에 그 지역패턴으로 장식을 했던 격자무늬를 그리스 건축가가 말하면서 건축에서 확산되었습니다.

다. 그와 같이 생각해 주시면 건축에 있어서의 지역성을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규성 성인수 교수께서 지역주의, 특히 비판적 지역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셨는데 말씀하신 관점은 오늘 토론의 방향으로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분의 의견을 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경호 건축 전공이 아니면서 여기에 온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건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제가 따로 공부하는 부분에 지방도시에서 건축민원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일-도움을 받고 싶었습니다. 저는 행정적인 접근-리엔지니어링을 많이 하고 있는데 민원인들, 즉 지역주민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행정방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둘째, 울산 건축문화를 청달하는데 좀 거들고 싶어서 나왔는데, 큰 도움이 안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도시들은 도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꺼꾸로 이야기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서울에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들을 전부 건축의 프로토타입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울산에 살면서도 서울의 포철건물을 생각하면 그게 정말 멋 있고 따라가고 싶었는데, 지역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 책을 보니 “도시의 종주성”이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도시의 종주성이 너무 심화되어 모든 국민들이 서울을 중심으로 보고 대도시 거점도시를 그 다음 중심으로 생각하여 그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인구의 집중, 좋은 시설의 집중, 놀이시설이 큰 도시가 거점도시로 몰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무비판적이고, 모방적인 것이 생겨서, 제가 어떤 특정계층, 특정역할을 담당하는 분들에게 탓을 돌릴 수 없지만, 행정측에서 부분적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의 사책, 정책들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져서, 지역에서 건축문화의식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중앙집권적이고 권위적으로 지시하고 따라야만 하는 지역의 건축인들, 시민들, 학자들, 이러한 관계가 구조적으로 얹혀서 확대되는 사회제도문제라든가, 좀더 우리가 지역에서 지역 제도적인 규범을 통하여 지역민으로서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요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그들의 규범을 행정이나 건축하시는 분들이 연결시키지 못한다면, 지역주민들이 그 지역을 사랑하지 않게 됩니다. 특히 울산 같은 곳은 외향

시민들이 상당히 많으므로 떠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있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의 문화, 건축 등에 애착을 가지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도시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생각을 반영될 수 있는 건물들이 제도적으로 태어났으면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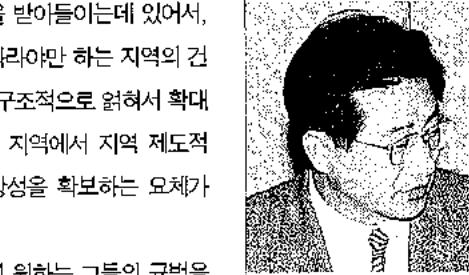
이규성 조금 전 성인수교수가 말씀하신 지역성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가 살만한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도시가 어떤 특성을 가지며 독특한 인상 내지는 이미지를 주어야 하는데 거기에 건축인들이 많은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 물론 행정하시는 분도 해당되겠지만 - 말씀해 주셨습니다. 재미있는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울산 오신 지는 3년 되셨죠? 그렇다면 울산이라는 지역은 살만한 곳 입니까? 어떻습니까?

조경호 울산을 생각할 때 울산의 어떤 상징적인, 그러니까 가슴에 와 닿는 상징들이 없습니다. 울산을 사랑하려면 울산의 전체를 사랑하기 보다, 부분적인 어떤 단면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업하기 좋은 동네로만 알려져 있지 울산의 무엇을 사랑하기 때문에 울산을 사랑한다는 인식은 잘 안됩니다. 공업탑 같은 경우는 하나의 단면으로서의 역할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잘 꾸며진 ‘울산공업공원’ 같은 장소가 있다면, 울산을 사랑하는 마음이 확인될 듯 한데, 그러한 장소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규성 울산의 현재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구자문교수님 포항쪽에서의 지역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구자문 고건축이라든지 경주와 같이 기와집 같은 집을 짓는다고 해서 정체성이 있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를 볼 것 같으면, 지금 제가 오래된 도시를 가면 사오십년 된 건물들이 가장 오래된 것이

죠. 우리가 미국도시들을 역사가 없는 도시라고 말하지만 남북전쟁 이전에 지은 건물이 상당히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정체성이 있는 건축 이란 무엇일까?’ 6·25 이후 판잣집에서 출발해 조금씩 고쳐 온 동네를 이야기하는 것일까? 심장적 건축이나 광장이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런 건축가의 책임이라기 보다, 주택정책 내지는 현재의 상업성의 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래 많이 다녀 보았지만 실제 눈에 띠는 것은 15층, 20층 아파트이고 스카이라인을 보면 실제 아파트 몰탱크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등산이고. 사실 주택업자들이 집을 팔기 위해서 실용적 집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것을 가지고 건축가로서도 어쩔 수 없는 것이겠죠. 팔리지 않으면 안되니까.

제가 구룡포 해변가 일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를 가보았습니다. 그 곳에는 멋있는 콘도미니엄 스타일 내지 단층집을 짓거나, 모트 정박장 등을 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15층, 20층 아파트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돈을 만들이고 인프라스트럭처를 만든다는 것이고, 업자들은 집을 만들어 파는 것입니다. 그러면 네모 반듯하게 팔리는 집을 짓는 것이지, 그곳에서 건축성이라든지 지역성을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멋있는 건축을 짓기도 하겠죠. 그러나 현재로서는 건축가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회의가 듭니다.

이규성 감사합니다. 지금 하신 말씀도 옳지만 이야기의 방향을 현재 그나마 존재하고 있는 정체성이랄까 지역성을 찾아보는 쪽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자연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세 도시가 다를 것인데 이것도 염두에 두셨다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려면 경주의 지역성이나 특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정호 ...경주하면 신라 천년의 고도로서 경주답게 되어야 되고, 건축도 경주답게 건축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주에 와 본 사람들과 이야기하면 흔히 경주에는 전국 어느 도시보다 한옥건축이 좀 많다고 하며, 경주건축이라 함은 한옥건축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들어선 아파트들을 보고 경주에 저러한 건축이 들어서서야 되겠는가? 하는 비판적 견해도 많습니다. 여기에 우리 경주의 개발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경주라고 해서 과거의 역사성을 살려서 건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현재 경주시 민 인구가 약 30만이 되는데, 현대를 살아가는 생활양식과 건축이 조화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경주를 어떻게 보존하면서 개발해야 하는가? 하는 것이 항상 우리 경주가 가지고 있는 도시개발에서의 문제점입니다.

경주시의 도시계획을 보면 문화재 보존위주에 서 도시계획이 시행됩니다. 문화재가 있는 주변은 거의 경주의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전통한옥을 짓게 하고 있으며, 건물의 높이도 그 주변 문화재와 맞는 고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또 거기에서 조금 떨어지면 고도를 조금 더 높여서 일반건물들도 들어설 수 있도록 한다던가, 또는 문화재와 둘떨어진 지역에 있어서는 타 도시와 마찬가지로 일반건축물이 들어 설 수 있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존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면 도시의 남쪽에는 거의 문화재가 들어서 있는데 문화재 주변에서는 한옥건축을 의무화하고 고도지구와 미관지구가 동시에 지정되어서 시행하다 보니까, 그쪽에 사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한 피해가 발생됩니다.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대식 건축으로, 그리고 공간을 더 활용해야 하는데 쓸모는 일반건축에 비해 더 떨어지면서 한옥건축의 건축비도 일반건축에 비해서, 배정도 비쌉니다. 또 그 이외에도 문화재주변에 있어서 통제를 받게 됩니다.

경주시에서는 94년도부터 한옥을 짓는 경우에 보조금을 주고 있습니다. 평당 50만원정도인데 이 금액도 주민들로 보아서는 만족스럽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기와에 대해 시가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 시가 재정이 빈약합니다만 매년 한 5억 정도 순수한 시비로서 보조를 해주고 있으며 한옥을 짓는 지역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으로 해주고 있지만 그래도 시민들은 한옥을 선호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보조를 주는 곳은 우리나라에서 아직 경주시가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 경주의 여러 가지 경관보존을 위해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이외에도 또 건물에 대한 심의를 구체적으로 받습니다. 일정규모 이상의 건물일 때에는 건물의 형태, 색깔, 예를 들어 한옥 같은 데는 담까지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사실상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고도의 정취를 살릴 수 있는 건축행정을 한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이연에는 경주 시민들의 많은 피해가 있고 이것을 보상하기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고도보존법을 중앙정부에 제안하고 있습니다. 아마 고도보존법이 시행되면 지금 현재 경주시의 보조금 외에 중앙정부에서 고도의 보존을 위한 정책적인 배려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경주의 도시계획 실무를 맡고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경주의 특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최재영 조경전공이므로 조경적 측면

에서 말씀드리죠. 경주는 문화유적도 많지만 아울러 주변의 자연경관도 다른 지역과 달리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연경관이 문화유적과 같이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경주의 문화유산이 한층 더 빛을 발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동으로는 명월산, 서로는 선도산, 남으로는 갈산, 북으로는 소금강산 이런 산들은 아주 나지막한 산들로서 인상적인 스카이라인을 구성하고 그 주변에 경관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주에서 고도제한지구 규제지역이 일부 해제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제가 되고보니 바로 인근에 고층 아파트 군들이 여기저기 서게 되고, 천혜의 자연경관을 이 적지 않게 훼손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경주는 고도제한지구라든지 한옥지구라든지 미관지구 등에서는, 그 지구의 향토성이 표현되는 조경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사림동 한옥지구에는 그 지구에 어울리는 가로수를 선정하여 심어야 하는데 현재 허망라야 시다라는 외래수종을 심어서 서구적인 느낌을 주고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고려해 심어아겠습니다.

이런 점은 문화재 주변에서도 많은 문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첨성대의 경우입니다. 첨성대의 높이는 실제로 9.5미터입니다만 바로 그 앞에 심어진 나무들은 높이가 10미터 이상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문화재보다도 나무가 더 키가 큽니다. 따라서 문화재가 오히려 왜소해 보이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문화재를 더 돋보이도록 조경을 해야 하는데도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또 삼릉하면 기장 인상 깊은 것이 소나무입니다. 아주 오래된 소나무가 삼릉의 자연경관을 돋보여주고 있는데 그 소나무 밑에 잣나무를 심었습니다. 잣나무는 고산수종이고 색상이 들판의 잎색깔이 짙푸르고 검은 빛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커서 숲이 무성하게 우거지면 삼릉 왕릉의 모습을 차단하여, 너무 어렵게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원래의 노송에 비교하면 경관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잣나무는 병충해 때문에 심는 대체수종인데, 동일수종을 심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잣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몇 백년된 소나무는 있지만 몇 백년된 잣나무는 없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그러한 안목이 있었기 때문에 잣나무를 심지 않았던 것입니다.

경주지역의 신라유적에 어울리는 경관수종으

로 소나무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김유신 장군 묘 부근에 산불이 났었습니다. 산불이 나서 아름드리 소나무가 모두 불에 타다 보니까, 빨리 조경을 해서 그 주변을 원상 복귀시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시에서도 많은 조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소나무는 그렇게 심었다고 하더라도, 소나무 밑에 하층식재는 왜철쪽을 모두 심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보이려면 진달래 같은 수종이 원래 제격인데 빨갛게 피는 영산홍을 심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좋지만 소나무와 그 영산홍이 어울리는 모습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그러한 면도 경주 고도시에서의 조경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주시내의 가로수 문제입니다. 가로수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녹음을 제공하는 것, 도시에서 미적이고 실리적인 정서를 담당한다든지 여러 기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가로수를 보면 특히 은행나무와 플라티너스가 제일 많습니다. 그러한 것을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경주라는 고도시에 어울리는 가로수로서는 수종이 잘못 선택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경주라는 도시, 고건축이 많은 지역에서는 그 지역성을 나타낼 수 있는 향토수종의 식재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규성 감사합니다. 조경쪽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강신태 선생님은 경주의 건축을 어떻게 보십니까?

강신태 경주의 건축은 과거 20년간 30년 이상 동안 문화재보호 또는 보전의 차원에서 미관지구, 고도지구 등의 엄격한 제한을 받아 왔습니다.



한옥지구에서는 기와지붕으로 사적지와의 조화, 시가지에서는 고도제한으로 고분군과 대비시켰으며, 대로변의 미관지구에서는 전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주변에 사적지가 산재해 있는 곳과 관광도로변에는 한옥건축만을 허가하여 자연과 조화되게 하여 지역적인 전통성을 갖는 나름대로 역사도시의 성격을 띠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에 규제되어 오던 조건들의 완화로 시가지내의 아파트건립과, 새로 개발되는 지역에 고층아파트가 건립됨으로 인해 수려한 경관이 차단되어 과거의 아늑하고 포근한 경주의 분위기가 콘크리트 숲으로 잠식되어 가고 있으며, 대규모 건축물의 건립으로 무질서한 건축환경이 조성되어, 점차 고도의 이미지를 잃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최재영교수가 방금 말씀하신대로 가시권 이내에 역사적인 명산들이 동서남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산들 기슭에 학교나 아파트 병원들이 고층으로 들어서서 경주를 찾는 사람들에게 실망감을 주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인 이야기가 되겠지만, 시가지내 도서동 고분군, 노동동 고분군이 있습니다. 그 주변을 보면 도로를 끼고 고분군이 들어서, 고분군 주변에 건물들이 있습니다. 건물 때문에 도로변에서 고분군이나 사적지의 풍경들이 안보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정비되어야 합니다.

경주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피해의식을 느낍니다. 보존이나 보호 측면에서 토지의 재산성이 떨어지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외지인들입니다. 경주사내 원주민들 대부분이 아직도 농사를 짓고 사는 데 농사를 짓는 소중한 토지를 사적지보호라는 명목아래 방치 또는 악간의 농작물을 경작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이러한 땅들도 문화재 당국이나 정부 차원에서 빨리 발굴하고 복원해서 관광유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저층의 현대건축 콘크리트 건물들 때문에 경관이 좀 버려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대로 경주에 옛것이 많다고 하지만 실제로 사적지나 형태적인 것 뿐이지 않습니까?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을 하고 경주를 찾는 사람들이 뭔가를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이규성_____ 감사합니다. 그러한 면들도 있겠군요. 그러면 김충정 교수님께서 경주에 있어서의 건축의 흐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충정_____ 다른 도시도 마찬가지이겠지만 문화재와 현대건축의 갈등이라든가 아니면 울산이나 포항 같은 경우 공업도시와 지금 닥치고 있는 현대화와 갈등이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경주에서 건축 일을 하시는 분들은 힘들다고 봅니다. 지역 내에서 건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분들은 개발과 보존을 다 만족시켜야 하는 일을 해야 하므로, 매우 어려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지역에서 볼 수 있는 건축들을 크게 볼 것 같으면, 골기와로 이야기되는 전통성을 띤 건물들, 일반적인 도시내 현대건축물들과 도시외곽에 산재된 현대건축물들, 그리고 보문관광단지내에 있는 관광 건축물들, 크게 세 종류로 생각됩니다.



한옥이라는 것은 타지 사람들이 경주를 볼 때 경주에는 한옥이 많다는 것을 느낄지 모르지만 실제로 경주를 보면 그렇게 많은 한옥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한옥이라는 건물의 형태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건축물의 높이가 낮다는 것이 외부에서 볼 때 경주라는 지역을 더 이야기해주는 요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높이가 이제까지의 규제에 의해서 낮다고 하는 것이 경주라는 도시의 이미지를 말해 모던 것이었는데 그것이 완화되면서 주변의 경관을 가로막게 되고 그런 것들이 안타깝게 느껴집니다. 그 다음에 현대적인 건축물을 볼 것 같으면 관광단지 중심으로 있는 보문단지 내에 있는 현대적인 건축물들과 도심지 또는 도시외곽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분에게 들은 이야기지만 포항이나 울산 - 울산은 어쩌면 덜 할지도 모르지만 - 지역 보다 현대건축에 있어서 그래도 경주가 좀더 낫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한 원인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보문관광단지라는 지역이 단지의 특수성 때문에 다른 지역보다는 우리가 말하는 형태미를 갖춘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도심에서 보면 대규모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나름대로 건축적인 형태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는 규모의 건축물들을 만들 수 있었다고 봅니다.

김학곤_____ 저는 서울에서 경주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만, 개인적으로 로마가, 그 다음으로 스페인이 생각납니다. 도시계획적인 측면으로 과연 다 보존할 것인가? 현실적으로 경주는 다 살리려고 하고 있지 않은가? 예로 로마의 사례를 보면 로마는 스케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은 로마에서도 '아파야 가도' 같이 문화적인 길거리가 있습니다. 역사성을 느낄 수 있는 보행로가 현대적인 거리와 어울리는 사례가 필요합니다.

시급히 경주의 본래 스케일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느 곳을 역사적으로 활성화하고 어느 곳을 현대적으로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점을 찾아 중앙정부와 빠른 시간 내에 협의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현대 로마는 스케일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료나 공법은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스케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를 들자면 시골초등학교를 다닐 때 크게 보이는 운동장도 우리가 객지에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보면 굉장히 좁아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 대문을 크게 만들고 앞에 들어오는 진입도로를 크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그 문화가 살아있겠는가? 그게 누적적으로 쌓여 있는 그 자체가 과거가 묻혀 있는 것이며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옥을 짓는데 최하 평당 700만원이라는 현실적인 액수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최고급 공간을 만드는 데도 평당 600만원이면 가능합니다. 저는 기와에 대해서도 실험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와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쓰게 된 것은 삼국시대로 바빌론에서 나와서 그리스 로마를 거쳐 서아시아를 거쳐서 인도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에 온 것입니다. 그것이 일본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기와만이 중요하다기보다, 우리가 도시를 봄 때 도시의 역사와 함께 누적된 지역성이 쌓여서 경주의 본래의 정체성으로 다시 살아나고 문화유적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경주의 복원 상태로 보존할 것은 정부나 문화재단에서 강력하게 지원을 받고, 필요한 부분은 정부에 요구를 하여야 되고 그 다음에 과거와 현재의 스케일 정도를 유지하면서 융합되어 갈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신도시 지역과 같이 새로이 성장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러한 지역을 완전히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현재 경주에서 문화를 짓곤 할 때 지금 어차피 700만원 짜리 집을 지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심포식, 다포식, 익공식 하는 것들도 고려시대에 생긴 것입니다. 그게 과연 신라 천년시대에 익공식이 있었느냐는 것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면서 흘러가는 데, 결국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어야 진정한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만 더 건축적으로 짚어가자면, 경주에서 아파트의 모델은 무엇인가? 10년전의 일이지만, 일본이나 독일 같은 경우처럼 세계적인 건축가들을 모아서 새로운 도시모델을 제안하게 했습니다. 정부차원에서 좀더 외국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합니다. 지금 경주의 건축사들이나 건축가들이 잘 못했다기보다, 경주를 종합적으로 살리는 대책에 대한 어떤 과감한 투자나 그런 어떠한 모델을 제시받아야 가능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답습한 상태에서 좀더 나은 것으로 저절로 발전하기를 기다리는 것은 잘못입니다. 일본의 안도 다다오나 이또 도요 같은 경우는 가장 일본적이지 않는 현대 건축을 하면서 일본적인 건축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규성 김

희곤 소장의 이야기도 옳은 부분이 있지만, 먼저 말씀하시는 분들이 경주는 고도의 분위기를 유지해야 한다는데 거의 일치하고 있었습니다. 주위 도시에 사는 사람들로서는 경주에 와서 색 다른 분위기를 맛볼 수 있다는 점에서



고맙게 생각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경주는 울산, 포항 사람들도 많이 오는데, 그 두 도시와는 다른 어떤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마 상당히 긍정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정호 아까 김희곤 소장이 아파트도 경주에 맞는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은 경주가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입니다. 총체적으로 보아서,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경주시가 통합시군이 되고 있는데 도시계획으로 가장 고민스러운 것은 어디를 어떻게 어느 범위를 보존해야 되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시 전역에 문화재가 분포되어 있지 않은 지역은 없습니다. 문화재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경주시 전체를 옮겨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다구나 경주 시가지 내에도 건축을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경주시의 허가서류에 보면 협약 조건에 반드시 들어가는 항목이 있습니다. “건축 착공 때에는 문화재 관계관이 입회하여서 하라.” 이것은 어느 건축할 것 없이 다 하도록 문서로 나옵니다. 그 만큼 문화재가 지역에 산포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어느 범위까지 보존하고 또 그 주변은 어떻게 제한할 것이며, 나머지 지역은 또 현대건축을 어떻게 자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경주에 심심한 인구가 살아간다면, 고도가 제한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60년대에 도시계획 이후 그 동안 수없이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차츰 차츰 구역을 확장하여 나가고 있지만, 경주의 어느 선까지 구획을 정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건축도 그렇습니다. 아까 문화재 700만원은 사실 평당 700만원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김희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은 어떤 포작, 공포나 형식을 제대로 빌리지 않을 것 같으면, 굳이 그 자체를 어떤 서투른 공법이나 형식을 원용하는 것보다는, 적합한 모델을 경주에서 고건축을 전공하는 사람이 제안하는 편이 낫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부산, 광주나 대전에서 어차피 새로운 도시의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작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희생없이, 지역적이고 문화적인 반작용없이, 도시가 발전되어 가는 도시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이규성 경주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을 맺기로 하고, 포항에서 두 분이 오셨는데, 이병규 소장은 건축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구자문교수는 그 다음을 이어서 자연환경 내지는 포항이 가진 가능성 좀 전에 미추셨는데 그

려한 것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병규 저는 13년전에 포항에 왔습니다. 와서 포항제철과 더불어서 건축설계 실무를 하면서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역사적으로 보면 1949년 포항을 자그마한 포구에, 68년 포항제철이 들어오고 갑작스럽게 공업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의 인구가 지금은 통합해서 52만이 되는데, 당시 포구 시절에 한 6~7만 정도, 그리고 현재에도 포항 원주민들은 7~8만명 정도밖에 안됩니다. 대부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포항으로 유입된 외부인들로 나머지 인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소속감이나 연대감이 부족하게 되고, 그것이 건축이나 기타 산업발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의 구성을 본다면 포항은 항구도시입니다. 울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구를 끼고 있으면서 구 포항도심과 주변의 군 지역의 읍으로 되어 있고요. 주변에는 내연산과 계약산 등 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가지와 중심지역이 종래 포항제철이 들어오게 되면서 상당히 분리가 되어 있다가 그 부분이 점차 연결되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구 도심지역과 공단지역, 최근에 발달한 포항공대가 있는 혼자 주택가 밀집 지역, 그리고 최근에 아파트들이 많이 들어가는 북부의 주거지역 크게 보았을 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주변에 군지역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신항만과 테크노파크에 대한 열망이 있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발전의 가능성이 많이 내재된 도시입니다. 건축적 환경으로 보면 경제활동의 주체가 공업단지 철강공단이므로, 오래 전 60년대부터 철골건축이 많이 발달되었습니다. 철골건축이라면 국내에서는 앞선 도시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단이 발전하게 되면서 그것과 연관된 단지가 발전이 되고, 지원 부대시설들이 자꾸 추가되면서 복지시설, 주거시설, 문화시설들이 또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건축이 이루어졌지만 일반지역에서는 포항제철 중심의 공단지역과 건축적 수준이 차이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의 괴감한 투자와 비교되는 일반 시민들의 경제력은, 출장은 외지인들을 위한 여관, 유흥시설, 그리고 거주를 위한 조그마한 짐작사들의 건축들을 만들었습니다.

1985년도쯤에 포항시가 소년체전을 하게 되었을 때, 포항시의 종합운동장과 실내 체육관과 수영장들이 건

립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반 대형건축물들이 등장하였고, 그 이후에 포항공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해외건축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서울지역 즉 타 지역의 유명한 건축하시는 분들이 이 건물설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항공대나 산업과학기술연구소 또 포항기술연구소, 주택단지들이 변창하게 되었습니다. 포항지역의 건축과는 사뭇 다른 양상을 가진 포항제철의 칼라를 가진 건물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것이 포항에 없다는 부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항을 처음 진입을 하게 되면 포항제철 입구의 고로 굴뚝이 보입니다. 어떻게 하려고 해도 그 굴뚝을 보지 않고는 포항을 들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일 첫번째 인상이 공업도시로서의 딱딱한 느낌을 먼저 받게 되고, 또한 밤에 혹시 포항을 들어가게 되면 포항제철의 야경 때문에 포항의 도심이 포항제철쪽에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들어와서 보면 그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활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항제철의 불빛을 항상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포항제철의 이미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포항에는 건축적으로 뛰어나고 유명한 건축물들은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대형 오피스텔과 문화회관이나 협동조합 주택들이 상당히 현대적인 감각으로 나름대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포항제철이 약 30년의 역사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하나하나 발전되어 온 흔적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포항시를 대표하는 건축의 흐름으로 자리잡지 않을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포항에는 좋은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닷가를 중심으로 해서 송도와 북부 해수욕장지역에 일반 상업건축들이 나름대로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서울지역의 모방건축이라든지, 서울성을 표방한 건물들이지만 현재의 포항지역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미흡해 포항시민들이 그런 곳들을 찾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라면 포항에는 공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 탑상공원 하나밖에 없는데, 포항시민들에게 적절한 공원공간은 거의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포항에서 신혼부부가 사진을 찍으려 갈 장소가 없어서 경주로 가게 되는 결과가 되는 실정입니다.

이규성 전반적이고 개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구자문 교수님은 다른 차원의 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자문 전 2년반을 포항에서 살았지만 13년 산 분과 거의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포항제철입니다.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포항제철의 공과를 논하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포항제철이 있음으로 해서 포항이 발전했고, 앞으로 포항제철 뿐만 아니라 그 연관 기계공업들이 발전해서 포항이 유지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포항으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은 공업 단지를 잘 육성하면서 사람이 살기 좋은 환경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게 가장 큰 과제로 보입니다.

또 하나는 좀 전에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역에 따라서 상당히 수준차이가 나고 생활차이가 나고 사람에 따라서는 상당히 거부반응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차차 해결이 될 것으로 보고, 저는 두 가지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현재 포항자체가 1960년대 포항제철이 들어서면서부터 나름대로의 도로망을 개설하였는데, 다른 도시와 다르게 육거리, 오거리도 있고, 약간 방사선에다가 격자형을 연결시킨 것 같은 특이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차가 밀리긴 하지만, 하늘에서 내려보면 다른 곳보다 좋게 보입니다.

그렇지만 골목을 들어가 본다면 상당히 복잡하고 차들이 많고 - 물론 인구도 많지만, 전국에서 자동차 보유율이 가장 높기 때문에 - 문제점이 있습니다. 더구나 버스회사가 제대로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교통체계가 승용차위주로 되고, 버스교통은 불편하기 때문에 도시형태를 보면, 도시가 아기자기하게 그리고 집중적으로 흥미 있게 개발되지 못하고, 사람들이 어떤 지역을 가더라도 꼭 차를 타고 가야합니다. 그래서 가족들끼리 혹은 친구들끼리 걸어가면서 쇼핑도 하고 하는 장소가 없습니다. 공원이 꼭 큰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공원이 있어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쇼핑몰도 가고 해야 하는데, 차만 타면 주위환경을 돌아볼 여유도 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도시자체가 전체적으로 윤곽이 엉성하게 막 퍼져나가고 있는 스타일입니다. 도시가 대중교통우선도시가 되고, 개발과 보존이 공존하는 도시개발이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하나는 바다가 아름다운 점입니다. 지금 송도하고 북부해수욕장이 있는데, 북부해수욕장에 가서 저는 감탄을 했습니다. 사실 고층건물이 지어지고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접어두면, 바다가 보이고 뒤에 해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멀리 포항제철의 시설물이 미니어츄어로 보이는데 이것이 굉장히 이색적입니다. 밤에 가보면 불빛이 보이고 마음이 후련해지지만, 실제 낮에 가보면 바닷가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것을 정화 시켜 포항시가와 잘 연결시켜서 워터프론트 개발을 잘 하면 도시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송도도 과거에는 사람들의 휴양지였지만 지금은 상당히 오염되었습니다. 연기를 뿜고 있는 포항제철시설물이

바로 옆에 보이기 때문에 좀 이상하게 보이지만, 어떻게 특징적으로 살리느냐가 관건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도 신항만 개발, 재개발지구가 많아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이 계획들이 제각각입니다. 신항만은 신항만대로 배추지를 만들고 도로망을 뚫는 데, 그 밑에 있는 양덕동이나 창포동 쪽에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또 다른 개발계획이 진행되고, 도시개발의 측면에서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가 따로 움직이거나, 아니면 위원들이 그것을 모르고 있지 않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좀 잘 정리된다면 포항이 좀더 살기 좋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규성 포항이야기는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울산이 세 개의 도시 중에서 인구, 면적 등에서 가장 큰 도시인만큼 울산에 대한 전반적인, 특히 도시 계획적인 측면을 구민원국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구민원 울산하면 공장이 생각날 정도로 공업도시이고 1995년도에 도농통합이 되어서 농지와 산지, 즉 농촌면적이 많습니다. 행정구역면적은 서울의 1.7배에 달하고 있어 매우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도시구조를 보면 태화강



하류지역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도심부에 도시기능이 집중되어 항만, 공단, 공항 등이 밀집되어 과밀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 해안지대가 공단으로 구성되어 시민층의 친수공간이 부족합니다. 도심부 외곽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어 도시가 평면적으로 확산되지 못해서 또한 과밀현상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반면에 물주군 지역은 토지자원은 방대하지만 도시기반시설이 전무하고 지역주민들의 상대적인 피해의식으로 인해 집단민원이 자주 야기되고 있습니다.

2016년을 목표로 도시기본계획을 확정하였는데, 중점을 둔 것은 지역간 균형개발입니다. 강동, 농소, 두동, 두서, 언양, 삼동, 웅촌, 남창 등에 권역별로 도시를 배치해서 각 지역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중점을 두었습니다. 울산은 도시개발이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실시되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용지가 빈약하고 특히 공원녹지가 부족해 도시환경이 열악하고, 또한 건축의 경우는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주택의 양적인 공급측면만 고려하다 보니 고층아파트가 난립하고 일반건축물의 경우는 - 울산만의 현상은 아니지만 - 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다보니 미관이나 질적인 수준이 악합니다.

앞으로 균형있는 도시의 발전을 위해 신항만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단지를 계획했으며, 체육시설 등을

포함하여 2002년의 월드컵개최를 위한 종합스포츠타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롯데타운의 호텔, 백화점 등의 건축적인 시설도 도시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특색있는 주민친수공간을 확보하고 천혜의 자연공간을 보전하며, 두동에는 대학유치계획과 함께 대학촌의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장생포 지역에는 공해영향을 배제해서 마린타운을 확보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대공원은 넓이가 110만평인데 21세기 생태공원을 꾸미려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농촌지역에 아파트 등으로 폐해가 많은 만큼 전원주택을 지어서 전원적 도시를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준농립지역의 경우 용적률을 400%에서 100%로 낮출 예정입니다. 성안지구를 특별히 건축사협회와 협조해서 아름다운 건축물단지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규성 울산은 올해 7월로 광역시가 되었습니다. 행정적으로나 다른 면으로 이점이 있습니까?

구민원 물론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광역시가 됨으로써 도의 승인과 지지를 받지 않으므로 인해 광역시 자체의 권한이 많아지고 중앙과 직접적인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합리적인 개발이 좀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규성 울산시의 도시계획적 측면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김희곤소장께서는 특히 울산출신으로 현재 서울에서 활동하고 계시지요. 저희들 보다 좀더 객관적인 시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울산의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나 도시이미지 등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김희곤 울산의 도시계획은 현재, 과거, 미래의 공존의 틀을 통해서 보고 싶습니다. 포항과 울산을 바라볼 때 역사도 일제 36년에 의해 악화되며, 급속한 성장으로 모든 것이 생략되어 그 후 우리 것을 찾는 기회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우선, 울산의 도시계획이 미래지향적이었나 하는 것과 도시계획이 능동적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하는 것, 또한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울산의 지역성이라고 얘기하는데, 지역성을 일깨우는 역사나 지나간 체험이 묻어 있는 장소를 깅그리 없애버렸다는 것이죠.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일을 벌이다 보니, 구조물들이 공지에 대한 자연적인 배려가 있었나 질문을 던지

고 싶습니다.

도시계획은 능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는가?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 시행착오가 있고, 사회적 해악에 대한 반작용의 결과로서, 과도기적인 화생을 거쳐서 목표에 도달하는 것이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차선의 대안인 현재 울산의 도시계획을 보면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과거로 회귀하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경우를 보면 삼산의 도시설계를 보면 우선 녹지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는 것을 하고 싶고요.

블록, 평면적인 개발에서 공개공지나 녹지를 확보하려고 했는데 그게 점적으로 개개 필지로 환원하고 있어요. 그걸 서울 경우처럼 블록식으로 개발하려고 했으면 개발하든지 해야 합니다. 울산의 도로는 정신을 못 차릴 정도입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동경이나 뉴욕을 기보면 용적률이 우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국내에서는 서울이 용적률이 제일 높은 걸로 착각하고 있는데 도심 용적률이 80~90% 정도밖에 안됩니다. 일본은 120%정도이고 뉴욕은 400%정도나 됩니다.

미래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생각해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고주석 박시가 울산대공원계획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생태공원 자체가 우리에게 낯설지만 과거 우리가 서글에서 했듯이, 그 지역에 맞는 식재를 심고 그 지역에 어울리는, 뒷산을 가지리 않고 그런 건물을 짓겠다는 것 자체가 생태적인 것입니다.

바라건대 울산 각지에 제각기 흩어져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모아서, 울산대공원과 연계하여 방어진 등의 스페이스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과, 유럽같이 거리에서 샷백되는데 3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보듯이, 이제부터 빠른 속도보다 기다리면서도 적극적으로 도시이미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합니다. 울산대공원에서 생태도 에코 브릿지를 조성해야 하지 않는가, 현재 평면적으로 점적으로 개발되는 공개공지가 사라지는 것을, 다시 도시계획으로 재정비해서 빨리 생태환경을 벨트로 연결시키지 못하면, 울산의 도로는 노약자나 장애자들에게는 불편한 도시가 됩니다. 물 순환체계도 친수환경으로 돌아야겠고, 높지도 보존하고, 산 속에 다림주가 살고, 강에서 낚시할 수 있는 생태환경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울산의 도시 공간 형태구성의 책임과 대안은 누가 책임져야 하는가 모색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건축의 외부공간에서 단층이 생겨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인데 건축물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개체로서 주장을 해왔습니다. 도시라는 전체로서 인식되지 못했기 때문에 개체로서의 아이덴티티만 추구하다보니까 전체적인 질적인 저하를 가져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시민의 문화의식 결여에 있고 둘째, 도시계획 부재에 대해선 지방정부가 책임을 져야하며 세번째, 전문가집단인 건축가와 공무원과 시공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중에서도 건축의 균형적인 문제 파악없이 도시를 미화할 수 있다고 믿는 사고를 지닌 전문가집단에 대하여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축가집단은 도시에 대해 건축물을 하위차원에서 도시에 대해 균형적으로 접근하려 하지 말고 동등한 상호 융합적인 대등한 입장에서 도시를 만들려는 개인적 철학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민원 현재 도시계획에서의 문제점은, 계획은 이상적이지만 도시개발이 그 계획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너무나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만 개발하다보니까 녹지확보 등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도시개발에 있어 가장 문제점은 녹지문제라고 봅니다.

이규성 울산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사회의 노진달 회장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노진달 첫째로 울산의 건축문화가 낙후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둘째로 교육시설이 뒤떨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1962년에 공업도시로 승격했습니다. 공업도시가 되어 양적으로는 성장했지만 질적으로 뒤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경주지역은 지역별로 규제가 있는데 울산은 아직 없습니다. 울산은 도시형성이나 미관에서 조화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2002년 월드컵을 위해 체육관 주위에 옥현지구가 개발되었습니다.

그 지역은 우리 건축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 지역이 울산의 관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경기가 이루어진다면 국제적인 관문도 될 수 있을 것이니 그 지역을 국제적인 도시에 맞도록 규제를 해야할 것으로 봅니다. 형태나 규모 면에서 규제가 행하여져야 하고 상업적인 면에서는 부족하더라도 지형의 형태를 살려 도시를 만든다든지 평면적으로 보면 획일적으로 만들어졌지만 우리는 도시가 색다른 방향으로 개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은 또 교육시설이 굉장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울산에는 대학이 두 개 밖에 없습니다. 진주에는 여섯 개, 마산은 일곱 개가 있습니다. 대학단지를 만들어 가는 것에 있어서 생태적인 것을 고려하되 획일적으로 하지 말고 미관이나 주위

환경에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시설은 생긴 지 2년 여밖에 안 된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도시에 비하여 백만인구에 비해 너무도 뒤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울산시민과 같이 노력하여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규성 **신재익** 교수님 울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신재익 지금까지의 이야기들을 평가한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수교수의 지역성이나 조경호교수의 지역성하고 지금 이야기되는 지역성을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역성들은 보통 얘기하시는 서울하고 지방하고 다른 이런 류의 지역성이 아니고, 현 우리가 살고 있는 장소성을 살려서 더 개발을 잘 하자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대략 지역성이라는 것이 보통 극복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시켜야 할 과제라고 보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의 정체성 개발에 있어서 저희들이 간과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울산을 공업도시로 보아야 하는가요? 제 생각에 지금은 공업도시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울산의 전체 산업구조라든지 인구규모 등을 볼 때 타 도시에 비해서 공업적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공업도시라고 말하기에는 어려운 대도시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이런 대도시의 경우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려하면서 공업도시의 정체성을 개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습니다. 우선은 시민들이 살기에 편한 그러한 도시계획이 되고 그것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중에서 미흡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설계, 도시계획의 목표는 큰 목표를 가지고 앞으로를 지향하는 바를 설정하게 되는데 아까 구민원국장이 설명하신, 개발계획이 제대로 수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말씀에 동의는 하지만, 목표를 세울 때 행정편의주의적인 산술적인 점이 너무 많지 않은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녹지가 부족한 것들은 다를 지적하고 계시는데, 울산의 경우에 녹지개발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목표에 대해 해결책의 거의 대부분이 앞으로 대규모의 대공원을 조성하여 해결한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는 대공원의 녹지가 아니라고 봅니다. 자기 사는 동네 옆의 작은 녹지가 더욱 중요하고 그것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마찬가지로 문화시설도 울산문화예술회관을 지적하셨는데 울산의 문화시설의 부족이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을 설립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화시설을 향유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있어야 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구도심이나 새로운 주거지부근에도 시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작은 문화시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대규모 계획에 의한 숫자들의 나열보다는 개별적인 노력이랄까요, 작은 것부터의 시작이 선행되어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것들을 이루려면 구성원들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제도적인 뒷받침이 강조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울산의 여러 가지 모습 중에서, 어쩌면 최근에 들어서 울산만의 모습이 아니라 전국적인 모습이라고 보여지는데, 상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나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규제 아니면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면 과천에 가보면 간판들이 깨끗이 정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건축가나 건축주가 자발적으로 우리 건물의 간판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 보다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 울산이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은 한번 같이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겠는데, 우선 경제적인 자립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울산은 공업도시라는 점 때문에 피해가 많았는데 실은 공업의 바탕이 없었으면 발전의 바탕이 없었다고 봅니다. 앞으로의 산업패턴이 공해산업에서 탈피되어 나간다고 가정하면 경제적인 자립은 발전가능성의 중요한 점이며 행정적인 면에서도 광역시로 승격하므로써 자율적인 개발이 가능합니다.

두번째로 자연적인 요소도 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의 방어진이나 정자, 그리고 태화강같이 앞에서 구민원국장이 친수공간이라고 말씀하신 부분들은 공업지역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시민들이 사용하기에는 불편하긴 하지만 앞으로의 개발의 여지에 따라서 상당한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요, 울산이 다른 도시에 비해서 짚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얼마 되지 않아서 한창 성장하고 있는 도시라는 점도 있지만 인구구성을 볼 때 20대, 30대가 많은 도시가 울산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가능성이 많은 도시라고 생각됩니다.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울산의 현재의 가능성들을 제도적인 뒷받침으로 잘 살리는 것이 울산의 정체성을 개발하고 지역성을 자율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제일 중요하다고 생

각합니다.

이규성 _____ 울산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박문창 소장의 말씀을 들어보고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창 _____ 간단하게 요약하여, 울산의 지역성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해답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난해한 점이 많습니다. 울산의 역사나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선행과제라 생각합니다. 울산의 도시공간이 집중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외부사람들이 울산하면 연상하는 이미자는 공업도시입니다. 현대그룹, 공장, 게다가 “공해는 울산”이라는 이미지만 풍기고 있고, 울산에 있는 처용이나 반구대, 장생포 또는 울산 출신 최현배 선생, 박제상 선생 등에 대한 연상은 거의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울산의 풍경을 보면 포항도 미찬가지고 공업화된 현대도시로서 정체성은 거의 상실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시지역 자체의 정체성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겠느냐? 제가 생각한 것은 도시 자체가 갖고 있는 가로체계나 도시가 갖고 있는 자연적인 요소를 최대한 이용해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도시가 갖는 고유한 언어를 통해서 울산이라는 도시만이 가지는 정체성을 회복해보자. 결국 앞에서 지적한 친수공간, 수변공간, 워터프런트에 대한 개발 등이 울산에 적합할 수 있습니다. 울산의 중심을 보면 태화강이 구도심과 신도심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안도시여서 동해바다를 끼고 있습니다.

울산의 공해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공해를 벗어날 수 있는 이미지를 줄 수 있도록 물이라는 요소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물은 인간하고 가장 친숙한 요소로서 서울에서의 한강과 파리의 세느강같이 울산의 태화강이라는 수변공간을 잘 활용하면 울산의 장소성, 잠재적인 특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태화강 상류에 보면 석남사 또는 반구대라는 역사적인 장소가 있고, 무거동을 가로질러서 태화강을 내려오면 교육문화공간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강동이나 주전 등의 해양위락공간을 특성화시켜서 울산의 지역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상당한 효용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화강을 가로지르는 여러 개의 교량이 있습니다. 태화교, 울산교, 학성교, 삼호교 등의 교량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이 울산교인데, 지금 노후한 울산교는 차량통행을 금지시

키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태화강에서 구도심의 성남동 등과 신도심의 삼산 등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교량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태화강이 구도심과 신도심을 양분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 차원에서 이것을 연결시켜 하나의 도시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도시 이미지의 공간색깔을 나타낸다면 그 자체가 짧은 거리로 활성화되고 독특한 장소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도시공간의 가로체계가 전체적인 가로체계로 완성되어야겠지만 부분적으로 교량이나 도로를 전면적으로 개조하고, 도시계획차원에서 하는 것보다 부분적으로 특성화시키는 것이 더 빠르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규성 태화강을 중심으로 보존 개발
해서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는 말씀이셨는데 울산의 미래얘기를 좀더 하고 넘어가는 것이 어떠할지 한 분 정도가 울산의 가능성 을 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성인수 문화축면에서 건축이 도와주어야 할 역할이 있다고 보는데, 실제로 활발하게 문화가 벌어질 만한 장소가 없습니다. 또 하나는 문화라는 것이 나이, 계층별로 공통분모가 적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쉬운 예로 울산에 처음문화제가 있는데 행사를 벌이다 보면 기획하는 분들이 사를 놀이하는 정도로, 그 안에서 막걸리 마시면 되는 정도로 생각하고, 또는 문화예술회관에서는 고상한 것을 보면서 만족해하고 행사 를 치릅니다. 예를 들면 운동장에서 많이 모이면 2, 3만 정도 모여서 축제를 알리는 개막행사를 벌리고 시가행진을 하면 끝이 나는 정도쯤에, 조그마한 전시회들이 병행해서 진행됩니다. 그렇다 린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많이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그 행사에 젊은이들이 많이 참여를 하느냐하면 그것도 아닙니다. 바쁜 듯워이 될 정도입니다.

도시에서 서구적인 축제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보면 전통미술에서 공동으로 하는 행사가 있고, 공동작업이 있다고 보면 그것이 새로운 기능성을 열어주는 지역성을 넓げる 가장 애향심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가 필요한 구심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행사를 하기 위한 장소들이 있고, 연계를 갖고 구청 단위와 시 전체에 체계를 갖게 되면. 또 그것이 비슷한 시기에 모여서 하게 되면 그것이 축제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고 도시의 문화제로 소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예를 들면 종교적으로, 집단으로, 동창회로, 회사단위로 모이거나 해서, 같은 동네에 살아도 한 동네 사람이라고 하는 집단의식이 없다는 입장에서 그것을 대표할 만한 거축적인 풍자 도시적인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네에서(아파트단지내에서)

노래자랑대회를 했는데 물론 그곳에서 하는 노래가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유행가 위주이고, 그게 낫다고 볼 수 없지만 지금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참여하는 방법으로 시작해서, 문화행사로서 울산의 도시문화라고 부른다면 그런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장소가 공간으로 연결되고 또한 문화적 특성을 넣게 하는 요인으로 자리잡아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순수예술이 라고 보는 고급문화를 찾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노래방으로 대표되는 일반문화도 있습니다. 이런 문화는 어린이들의 문화와도 서로 섞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서로 섞일 수 있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확산시켜 나가면 지역문화로 가시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건축적인 표현에 있어서도 과거의 긴 역사를 이 반영된 건축물을 일궈낸다면 지역적인 것이 더 많이 담겨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경호 저는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공간문제에서 순진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시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 토지개발하고 용도를 설정할 때 생각을 해두었다가 스케이트보드를 탈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거나, 그림을 그린다든지, 낙서를 해도 괜찮다든지 하는 공간을 만들거나, 또 공간을 만들 수 없다면 시민들이 실제로 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이나 선진자치구 같은 경우를 참고로 울산광역시가 보도블럭의 문양이라든지 색깔 이런 것까지도 주민투표를 통해서 결정하고, 또 이를 통해서 시민의 식이 색채에도 묻어 나오는 등 이것이 문화를 형성한다고 봅니다. 건축문화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시민들이 살아가면서 가꾸고 마련하는 것이 문화인데, 거기에 시민들이 참여할 통로가 막혀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행정절차법도 시행이 된다고 하는데, 시에서 적극적으로 남는 자투리땅에 대하여 물어보고, 또 건축물 같은 경우에 설계한 사람이나 시공한 사람들을 실명 제로 표기해야 합니다. 문화를 내재화시킨 건물, 다양한 문화를 흡수하고 있는 공간을 마련해줄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희곤 저는 울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커뮤니티의 회복이 아닌가 합니다. 대공원계획도 좋겠지
만 균형공원도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구조적이고 하드웨어적
인 문제와 소프트웨어적인 문화를 같이 논할 수 있는데, 소프트
웨어적인 문화를 논하려면 결국은 개발모델을 설정하면 된다고
봅니다. 도시에서 커뮤니티가 생기려면 아까 신재역교수나 성
인수교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기까운 곳에서 만나야 된다고 볼
니다. 그리고 구민원국장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모델을 제시
하면 지금 동경의 복판에 사당을 복원해놓고 일본에 문화를 불
어넣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울산에서 문화를 찾으려 할 때

너무 거시적인 안목에서 큰 것, 대단한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주 안점을 둔 게 아니나? 울산에서 왜 볼 게 없는가? 구시가지 또는 삼산이라든지 하는 곳에서 역사적인 장소를 살릴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미시적인 관점으로 거시적인 관점과 연계가 될 수 있는 쪽을 보고 실천 가능한 것부터 실천하는 것이 도시계획의 미래를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규성 포항하고 울산에 대해서 보완해 주실 분들은 더 말씀해 주십시오.

구자문 울산과 대동소이한 말이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형산강이나 송도해수욕장이나 그 연인을 어떻게 정화시키고 개발하느냐가 중요한 현안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도시체계를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서 - 예를 들어서 대중교통을 얘기했지만 -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녹지공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사실 포항도 녹지공간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큰 덩어리를 엮어서 만든 공원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곳에 쉽게 갈 수 없습니다. 그런 대규모의 것 말고 작은 녹지공간이나 공원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만나고 얘기 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강신태 제가 볼 때는 경주는 건축적인 것이나 도시계획으로나 전체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대부분의 도시는 산과 강을 끼고 형성되어 있으며, 도시가 발전하면 산을 개발하여 확장하지만 경주 주변의 산들은 도심의 가시권내에 있으며 또한 역사적인 명산으로서 문화재가 선재해 있기 때문에 보호 및 보전의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최근 건립되는 건축물들은 이제까지 낮게 가꾸어 온 도심의 스카이라인에 변화를 주어 보는 이에게 실망감을 줍니다. 경주민의 스케일을 찾자는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경주 시가지는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조작한 가로망 위에 세워졌다고 합니다. 스케일을 찾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최선의 방법은 과거에 거론된 바도 있는데 도시 자체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사적지 를 록 내에 존재하는 건축물을 정리하여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고대와 현대가 공존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고분군과 사적지의 연결로 고도 도시 특유의 분위기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규성 동부경상권의 세 도시가 통합되었을 때 무슨 이익이나 아니면 그 자체로서 뭉을 수 있는 정체성이 생길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말씀들을 해주십시오. 세

개 도시에 대해 한꺼번에 묶을 수 있는 전반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경호 저는 시설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지역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고려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시설이라고 생각한다면 관광단지같은 것을 연계해서 해안벨트를 끼고 공동으로 할 수 있다든지 공동 투어프로그램 등을 만든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비행기를 많이 이용하다보니 포항방면으로 가기 위한 셔틀버스 등이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지역공항들을 묶는 것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교통망도 고속도로 중심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데 국도를 좀더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향도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중심으로 해서 벨트화하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구자문 사실은 미래를 위한 영남권 자체를 생각한다면 산업구조, 인구구조도 재조정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기 위하여 고속도로라든지 관광단지 등을 말씀하셨는데 실제적으로 획기적인 경전철 같은 교통기관이 연결될 수 있다면 서로 도와줄 수 있고, 가깝게 연결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10내지 20년을 내다보면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성인수 최근에 도시별 축제로 만들어 키우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정부에서도 10개를 지원하는 걸로 압니다. 지역마다 자기 문화를 알릴 수 있는 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경주는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세계적 행사를 개최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행사를 개최하다보면 컨벤션센터를 하나 지어서 세 도시에서 필요한 일들은 한 도시에서 할 수 있고, 관광과 연결되고, 상업적인 효과도 되고, 예를 들면 모터쇼를 어디다 열기로 하자든지 기타 산업박람회라든지 체험소가 있으니 제철에 관련된 것을 개최하면서 세 도시가 골고루 활용할 수 있는 체계만 잡혀진다면 문화적, 역사적 그리고 건축적인 다양함을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 역할을 서로 나누어서 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싶습니다.

최재영 울산, 경주, 포항은 앞으로 협력체가 분명히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예를 들자면 강을 하나 놓고 보더라도 포항에서 중요한 형산강이 세 지역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강의 발원은 울산시에서 시작됩니다. 그곳에서 발원해서 경주시를 거쳐서 포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환경적인 면에서도 서로간에 문제점으로 대

두될 것입니다. 울산이 팽창하다보니 모화나 임실같은 지역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전원주택을 지어서 많이 통근합니다. 포항에 있는 분들도 경주에서 출퇴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통해 볼 때 이 세 도시는 무언가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로 협력해야만 한다고 봅니다.

이규성 앞으로도 오늘 모임과 같이 건축인의 교류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울산에서 경주를 볼 때 놀라기 좋은 곳이다라는 생각도 있습니다만, 경주에서 울산이나 포항을 볼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김정호 울산이나 포항에서 볼 때 경주는 하나의 휴양지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시가 그런 방향으로 개발되어야만 서로 공동개발 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또 앞으로 동부경상권은 경주를 통한 교통망을 생각해 볼 때 세 개 도시가 상호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김충정 전체적인 이야기가 도시중심으로 진행되어진 것 같습니다. 공업단지에 의해 잠식되고 있는 방어진, 장생포 이쪽부터 포항의 저철소가 있는 바닷가라든지, 그 사이의 바닷가는 양호한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울산과 포항의 사이에 있는 경주, 바닷가도 도시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동해경상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부분을 도시만큼이나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잘 만들어 나가면 다른 곳과는 차별을 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안가를 따라 있는 건축물은 그 안의 사람들에게는 좋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해안도로에서부터 해변을 보는 경관을 막습니다. 하지만 좋은 폭이므로 제도적으로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지역적인 건축으로 이끌어 가는 것이 좋은 방안이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규성 세 도시를 공통으로 연결해 주는 해안벨트의 공동계획 내지는 공동관리는 아주 필요한 일로 잘 제안해 주셨습니다. 특히 그곳의 자연경관이 수려하기 때문에 관광적 가치도 매우 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말씀을 들어 보겠습니다.

구민원 울산에서 경주를 보는 시각으로, 우리나라에 경주가 있다는 것은 정말 자랑스러운 일이며 경주 인근에 울산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주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녹지가 많으니까 쾌적한 기분을 느끼고 경주를 통과하다 보면 한옥건

물의 특징이 잘 살아난다고 봅니다. 경주의 발전과 규제는 현재의 상태를 비탕으로 건축의 방향도 잡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경주와 울산을 연결하기 위해 울산 경주간의 국도 양쪽에 두 개의 도로를 신설합니다. 이 계획을 경주시에서도 받아서 계획해 주시면 두 도시의 연결에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병규 얼마전 통합시를 할 때 포항의 양동마을이 소속을 정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주민들이 포항에 통합되겠느냐, 경주에 통합되겠느냐하는 것에 경주를 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경주를 자날 때 통과세를 내라는 부분도 포항사람들은 심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돗물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경주시민들이 먹고 나온 하수듯물을 다시 형산강에서 받아서 정수를 해서 먹습니다. 그런 점은 포항시 민들로서 상당히 마음 아픈 부분입니다. 그런 점에서 지역적인 협력이라는 것은 많이 생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아까 성인수교수가 얘기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지역적인 건축에 대해서 많이 거론될 것으로 보았는데 오신 분들이 많은 다른 부분들을 얘기 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사실 건축을 하면서 포항문화회관, 야구장 등에 많이 참여를 하면서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포항의 지역적인 컬리를 무엇을 내세울까하는 부분에 대하여 심각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지역적인 문제에 대해서 무엇을 나타낼 것인가?라는 부분에 있어서 포항은 매우 아매입니다.

근대의 최첨단에 서서 철강산업화의 이미지를 나타낼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울산의 문화회관 등도 얘기를 하셨지만 포항의 문화회관에서의 이미지입니다는 부분이 현대 건축의 의미에서 똑같이 경주의 한옥지붕을 재현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가 있고 선박이 있고 산업화 도시의 하이테크한 면이 포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에 가도 울산도 서울도 거의 같은 건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장소성이 주는 의미를 얻기 위해서 저는 이 좌담회에 많은 기대를 걸고 왔었는데 오늘의 얘기에 이 점은 덜 취급된 것은 아닌가 하고 생각됩니다.

이규성 건축적인 문제를 삼도 있게 논의하려 했지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도시에 관한 말씀들이 많았고, 도움이 되는 점도 많았습니다. 수적으로 많은 분을 좌담회에 모시다 보니 줄거리가 되는 이야기들에 많은 시간이 할애되었습니다. 오늘 좌담회는 이것으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21세기의 건축

Architecture of the 21st Century

박태형 / 재미 First Enterprise 대표
by Arthur T. Park

3년 뒤에는 21세기의 시작이다.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선진국의 지도자들은 자국의 경제가 2천년대 세계 경제를 주도하여 나갈 수 있도록 21세기형 산업구조로 바꾸어 나가는데 주력하고 있다. 미국의 고아부통령이 만사제쳐두고 실리 콘밸리의 기업인들과 정례모임을 갖고 있는 것에서 볼 수 있듯이 21세기 첨단산업 혁명을 미국이 주도할 수 있도록 첨단산업분야 육성에 전력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미국의 기업인들은 기업인대로 첨단과학 기술혁명을 자신들이 종사하고 있는 산업분야에서 실용화하여 각 산업부문의 선두대열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투자 확대를 하여 나가고 있다. 그렇다면 21세기 세계경제에 참여하여 치열한 경쟁을 이끌어나가야 하는 건축인들은 앞으로 3년간 어떠한 준비를 하여야 할 것인가? 그 동안 점신없이 경제설장의 초석이 되고자 성장의 성장을 거듭하여 온 한국의 건축 산업부문이 21세기 문턱 앞에서 그냥 주저앉으려는 듯, 국내외에서 불황과 부실의 끝없는 터널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사뭇 건축인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아프지 않을 수 없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가? 국내에서는 국민들로부터 부실로 외면을 당하고 있고, 국외에서는 건축물량 확보에서 왜 뒤쳐지고 있는가? 우리 건축부문은 21세기를 눈앞에 두고 어떠한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는가? 21세기는 건축 기술과 경영 혁신의 시대이다. 이와 같은 시대를 쿄앞에 둔 우리 건축인들은 선진국의 건축업 분야 기업들이 21세기를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부문에 집중투자를 해 나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된다.

오토메이션(Automation)의 수용

컴퓨터가 음성을 인식하여 모든 명령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컴퓨터 산업의 비약적 발전은 급기야 디자인 혁명, 자동화의 혁명을 가져왔다. 상업용 건물을 비롯하여 주택의 건축에 디자인 혁명과 기술혁명이 미친 여파는 실로 몇 년 사이에 엄청난다. 각종 첨단 자동화 제품의 가격하락과 더불어 건물, 주택의 자동화 비율은 엄청난 속도를 보이면서 늘어나고 있다. 첨단 산업부문들의 큰 성장은 실제로 이와같은 첨단 산업부문 제품들을 장착한 건물, 주택들의 건축수요를 더욱 늘려나가고 있다. 바로 여기에 미국의 건축산업의 강점이 있다. 이 강점을 그대로 21세기의 세계 건축산업 부문을 주도해 나가는데 연결시키는 것이 미 건축산업의 21세기 전략인 것이다.

첨단 텔레커뮤니케이션, 컴퓨터와 연결된 건물, 주택의 오토메이션은 인간이 건립된 건물에 단순히 입주하여 생활, 주거, 업무를 영위하던 시대가 종말을 고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제는 건축부문의 새로운 수요창출과 경쟁력은 첨단과학기술을 건축부문에 연결하여 보다 건물 사용자나 건축주가 주거, 업무 생활 공간과 상호 연결되어 사용자의 통제 폭을 늘려 줄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사용자가 주거공간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토메이션을 통하여 공간을 통제하는 적극적 인터페이스

(Interface) 환경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곧 자동화 시설에 대한 엄청난 투자와 대중화를 위한 제품개발의 결실이 그대로 건축부문에 수용되어 건물사용자가 그 가치를 누릴 수 있는 건축 상품화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명, 보안, 오락, 에너지 관련 자동화 장비들이 건축 및 설계 단계에서 첨단 종합 건축물의 필수 구성요소화가 빠르게 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21세기 건축부문에서 살아 남기 위해선, 첨단 자동화 기술부문들의 수용을 앞장서서 받아들여 건축수요를 단순히 충족시키는 차원을 넘어 창출하여 나갈 수 있는 기술능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추구하고 있는 오토메이션 분야야말로 20세기까지의 건축산업 분야가 새로운 첨단 전자통신분야와 접목되어 발전하는 시대인 21세기의 건축업 발전 방향의 지표이다. 주택 자동화 분야는 실로 다양하다. 음성 명령을 통한 각종 주택 장비들의 통제가 상당한 수준까지 진행되어 와서 이의 보편화가 급격히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인터넷을 통한 화상, 음성 대미터 전송능력이 날로 뛰어 나게 진행되므로써 주택이나 상업용 건물들에 보안 카메라를 달거나, 자동화시설을 설치하여 두고, 전세계 어디에선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주택, 상업용 건물들을 관리하고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일례로 IBM사가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 전세계 어디에선지 인터넷을 통하여 보안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곳의 감시 및 통제가 가능해졌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즉 이제는 주택, 건물공간이 보다 건축주나 사용자의 통제를 받고 원하는 다목적인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되었다는 것이다. 건축설계와 시공에서부터 이제는 이와 같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간 확보라는 디자인 개념이 들어가면서 커뮤니케이션망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야 한다.

선진 건축기술의 한국적 수용

첨단 자동화 시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발전되어 온 각종 건축방식의 한국적 수용과 더불어 더욱 빛을 볼 수 있다. 즉 환경친화적 건축, 미국식 합리적 전원주택, 조립식 주택 등 미래 건축양식으로서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시도되고 있는 바람직한 건축 요소들을 수용하려는 적극적인 국제화 자세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중산층의 확대와 더불어 건축업 종사자들은 이제 단순히 아파트나 지어서 분양하는 식으로 사고해서는 안될 것이다. 즉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더불어 진행되어야 한다. 그 상품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본격적인 미국식 전원주택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미국식 전원주택이라고 한국에서 등장하고 있는 주택들은 장기적인 기술투자가 부족하면서 단기적으로 만들어진 수요에 대응하려는 한국적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중

산층 수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이 수립되어야 한다. 아마도 21세기에는 빌게이츠가 마련한 자신의 집, 꿈의 궁전은 단순히 재벌 등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지 않을 것이다. 빌게이츠는 전원과 첨단 과학기술장비가 연결된 자신의 전원주택을 마련하였다. 이곳에는 미국식 전원주택공법과 첨단과학문명의 정수가 그대로 정착되어 있다. 이와같은 미래상품의 개발에 성공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는 또 하나의 건축분야에 대한 불신요소를 소비자들에게 주는 것밖에는 되지 못한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본이 미국식 건축양식을 배워가고 있는데 주목하여야 한다. 한국과 비슷한 주거환경에 속한 일본의 건축계에서 왜 미국식 공법 및 주택 건축양식을 배워가려고 하는가? 미국식 주택 건축 양식이 갖는 여러 가지 효율성을 일본식 다양화 양식과 결합하기 위해서이다. 한국도 주택용 목재건축양식이 콘크리트 건축문화의 지배와 아파트 공급으로 뒤로 밀려나가게 되었다. 그러나 시장의 포화상태는 새로운 상품개발, 그것도 더욱 중산층 이상의 기호에 어필할 수 있는 주택의 개발필요성을 극대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한국도 미국식 주택 건축양식 중에서 한국적인 전원주택 건축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수용하여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적으로 한국의 건축업체와 공동으로 각종 기술교류와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이 필수적이다.

첨단 과학기술들을 그대로 건물, 주택 건축에 응용하여 사용할 수 있고, 주택공간까지 효율적인 공법에 의해 건축된 주택이야말로 21세기 건축시장의 주 상품이 될 것이다. 결국 건축분야에 있어서 첨단 자동화 시설 및 기술, 선진 건축공법에 있어서 우수한 장점들을 수용하여 이를 통하여 새로운 수요를 창조해나갈 수 있는 기업만이 21세기의 세계 건축시장을 주도해 나가는 선두그룹에 끼게 될 것이다.



21세기 자동화 미래주택

협회소식 / 95
건축계소식 / 101
현상설계경기 / 104
제시판 / 108
해외잡지동향 / 109
통계(설계도서신고현황) / 116

협회소식 KIRA news

■ 충청남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4일(금) 11:00
- 장소 : 아산시 그랜드호텔
- 참석인원 : 재적인원 148명중 81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임원개선의 건
 - 대의원(9인) : 구본근 남궁달 남기
덕 서관원 이갑준 이동교 장세춘 최종욱 홍순백(신임)
 - 간사(3인) : 이문석(유임), 김동환
안영식(신임)
 - 서산지역건축사회장 : 홍순백(신임)



충청남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97년도 시·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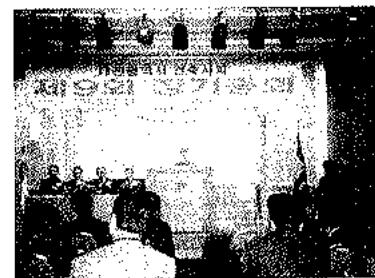
정기총회 개최

98년도 회계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우리협회 시·도건축사회의 97년도 정기총회가 지난 11월 13일 대전광역시건축사회를 시작으로 11월 28일까지 각 건축사회별로 개최됐다.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등이 주요안건으로 삼정된 올해 각 시·도건축사회별 정기총회의 의결내용은 다음과 같다.

■ 대전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3일(목) 18:00
- 장소 : 제주 홀리데이 인 크라운 프리자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3명중 11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당초 331,147,000원 보다 15,000,000원이 증액된 346,147,000원의 수정(안)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간사(3인) : 임성국 최재문(신임), 최진(유임)
 - 감사(1인) : 박현배(유임)



대전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광주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18일(화) 10:30
- 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98명중 15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안) 승인의 건
 - 사업비(항)중 국제사업비를 예비비에서 증액키로 하되, 계수조정은 집행부에 위임키로 하였으며, 기타항목은 원안대로 승인함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간사(4인) : 박임전(유임), 김유자 김희현 양동현(신임)
 - 감사(1인) : 강찬수(유임)
 - 대의원(8명) : 박현석 안태경(유임), 김희현 송양석 양동철 임금수 주형신 최수일(신임)



광주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전라남도건축사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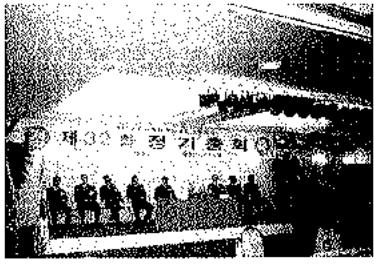
- 일시 : 1997년 11월 18일(화) 11:30
- 장소 : 광주 추선희관 5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88명 중 5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일부항목간 조정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3인) : 정남조(유임), 실우석 차영식(신임)
 - 감사(1인) : 김강수(유임)
 - 나주지역건축사회장 : 김덕태(유임)
 - 대의원(1인) : 김덕태(유임)



전라남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상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09:00
- 장소 : 제주 오리엔탈호텔 연회장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85명 중 16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부회장 : 조국환(유임)
 - 감사 : 최용달(신임)
 - 간사(4인) : 이진희, 임병욱(유임), 김성태, 김국태(신임)
 - 포항지역건축사회장 : 이진석(신임)
 - 경주지역건축사회장 : 손명문(신임)
 - 구미지역건축사회장 : 김정겸(신임)



경상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김천지역건축사회

- 안동지역건축사회장 : 권기탁(유임)
- 상주지역건축사회장 : 김종길(신임)
- 경산지역건축사회장 : 장학선(유임)
- 영천지역건축사회장 : 김봉일(유임)
- 칠곡지역건축사회장 : 김영태(유임)
- 대의원(7인) : 김봉일, 손명문, 김영길(유임), 권기탁, 김정겸, 이진석, 함회록(신임)

■ 인천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00
- 장소 : 인천 오림포스호텔 에미럴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12명 중 10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승인(총규모: 370,000,000원)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회장 : 정희승(극동건축사사무소)
 - 감사 : 이교진(세진건축사사무소)
 - 간사·대의원: 신임회장에게 위임

등의 막구조는 20%, 기타 조립식구조는 50%를 적용키로 하고 주4번에 삽입키로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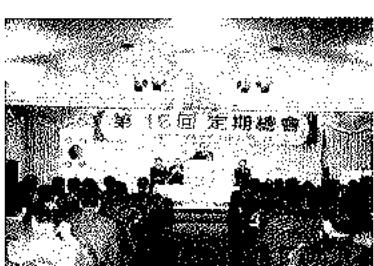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 사무소운영정상화대책추진위원회 구성 결의 건
- 지역건축사회별로 각2명(지역회장 포함)씩 12명과 도회임원 3명을 포함하여 총 15인으로 구성키로 결의함)
- 충회성원에 따른 지역건축사회별 책임분담 결의 건
- 차기 임시총회에서 다시 협의키로 함.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부회장 : 이병일(유임)
- 간사(6인) : 이명섭(유임), 김성호 문용성 민병협 방승문 한광호(신임)
- 대의원(9인) : 김명렬 박용인 이찬호 이병일 최병욱(유임), 김동식 오영근 조정호 홍영배(신임)



강원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서울특별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4일(월) 14:00
- 장소 : 서울 건축사회관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2,732명 중 49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일반회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3만7천원인 정회원 월정회비를 3만원으로 인하하고 그외 운영회비·감정실적회비·광고수입·신문발간비와 96회계년도 결산에 의한 차기이월금 수입원 등을 97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설정키로 함.
 - 일정규모 이하 건축물의 공사감리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4층이하 규모 건축물에 대하여는 서울건축사회가 정한 '일정규모 이하 건



인천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강원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1일(금) 10:30
- 장소 : 켄싱턴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42명 중 89명
- 의결내용
 - 98년도 운영회비 산출기준(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함 (단, 우사, 토사, 계사

축률의 공사감리 운영지침(안)에 추
가로 단서조항 등을 보완해 시행키로
결의함.

- 대의원 선출 및 개선·보선의 건
- 회원수 자연증가에 따른 대의원 11명
추가선출과 임기만료 대의원 1백23
명, 그리고 본협회 임원으로 피선된
대의원 1명 결원분 등 총 1백35명의
대의원을 충전관례와 같이 본회에서
20%, 지역건축사회에서 80%씩 선출
키로 하고, 향후 신병·지병·전출 등
의 이유로 결원이 되는 대의원 보선관
례는 회장단에 위임하기로 함.
- 임원 개선의 건
- 임기만료 간사 9명과 사임한 간사 1명
의 개선은 회장과 부회장에 위임하기
로 하고, 임기만료 감사 1명에는 김성
탁(한인건축)회원을 선출함.



■ 경기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0:00
- 장소 : 경기도건축사회관 대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703명 중 238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
(안) 승인의 건
 - 원안통과
 - 임원 및 대의원 선출의 건
 - 감사 : 박효남(유임)
 - 간사 및 대의원 : 회장에게 위임
 - 일정규모이하의 건축물에 대한 공사감
리 운영지침(안) 승인의 건
 - 임원회에서 검토하여 시행키로 위임함

■ 제주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6일(수) 15:05
- 장소 : 제주 하니관광호텔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58명 중 37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
인의 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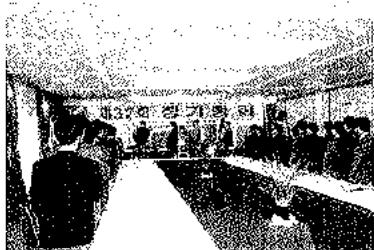
- 원안통과 (총규모 160,000,000원)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3인) : 김한진(신임), 이동춘 조
길홍(종임)

- 감사(1인) : 강성현(신임)

- 대의원(4인) : 김영식(유임), 강요준
김한준 양창완(신임)



제주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부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30
- 장소 : 부산 롯데호텔 3층 회의실
- 참석인원 : 재적회원 631명 중 39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
(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
 - 간사(5인) : 회장에게 위임키로 결의
 - 감사(1인) : 조년순(유임)
 - 대의원(23인) : 집행부에 위임키로
결의



부산광역시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대구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10:00
- 장소 : 대구 파크호텔 국화홀
- 참석인원 : 408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원안대로 승인

- 임원·대의원 개선 및 대의원 추가 선
임의 건

- 회장 : 이길웅

- 감사 : 안준원

(부회장, 간사, 대의원은 추후 통보기
로 함)

■ 충청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7일(목)
- 장소 : 청주 명암파크호텔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52명 중 88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
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개선의 건
 - 간사(3인) : 권오준 심규태 이재삼(신임)
 - 감사(1인) : 류익선(유임)
 - 지역회장(3인) : 김이구(유임), 강경
구 이충구(신임)
 - 대의원(7인) : 박오균 이원선 표재범
(유임), 송준영 신상일 유영수 장현석
(신임)
 - 충청북도감리협의회 구성의 건
 - 위원 : 이철호, 김이구, 유영수, 김준
봉, 이원선, 강경구, 박정걸



충청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경상남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30
- 장소 : 창원호텔 목화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313명 중 223명
- 의결내용
 - 97년도 제2차 추경수지예산(안) 추인
의 건
 - 원안대로 추인
 - 98년도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거창지역건축사회장 : 신중광(유임)

- 간사(2인) : 손수일(유임)
- 대의원(2인) : 김정관, 백봉길(유임)
 - * 간사 1인은 미결정, 추후 선임
- 98년도 내부운영회비 징수 변경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전라북도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0:30
- 장소 : 전주 리베라호텔 백제홀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72명 중 110명
- 의결내용
 - 98년도 사업계획(안) 및 수지예산(안) 심의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임원 및 대의원 개선의 건
 - 간사 : 박충서, 심생길, 송천규
 - 간사 : 고기성
 - 대의원(9인) : 강신중, 김성수, 김주식, 문준영, 심생길, 임종선, 정근, 전형직, 추연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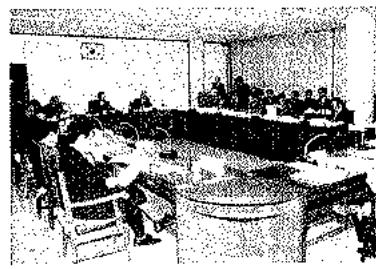
전라북도건축사회 정기총회 광경

■ 울산광역시건축사회

- 일시 : 1997년 11월 28일(금) 15:00
- 장소 : 울산건축사회 회관 강당
- 참석인원 : 재적회원 118명 중 93명
- 의결내용
 - 98회계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 승인의 건
 - 사업계획 및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하고, 세출예산 중 인건비(항)의 예산은 간사회에 위임하여 예비비(항, 목)과 증·감 조정하는 조건으로 승인
 - 임원선출의 건
 - 감사(1인) : 윤승록
 - 간사(4인) : 곽한열 박재현 윤승보(신임, 개선), 김진규(보선)
 - 대의원 선출의 건
 - 대의원(6인) : 김기원 김성하 박문철 이병술 이상렬 이종태

이사회 개최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



이사회 광경

우리협회의 당면 주요 현안을 협의하기 위한 제16회 정기이사회가 지난 11월 11일 협회 중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업무보고에 이어 전회 회의록 승인과 부의안건 처리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의 주요 의결내용은 각각 다음과 같다.

● 제16회

<부의사항>

- 제1호의안 : 비상근부회장 선임의 건
 - 김무언 이사를 비상근부회장에 선임키로 결의함.
- 제2호의안 : 임원선거관리규정 개정(안) 승인의 건
 - 다음과 같이 개정키로 결의함

구분	개정 내용	비고
제2조 (적용범위)	임원선거 → 회장선거	적용범위의 명확화
제13조 (현직임원의 임후보) 현직임원의 태직임원 임후보사 사임에 대한 현직회장의 예의조건 삭제	공정선거 유도 및 경직(본협회장+시 도 건축사회장) 홀린방지	

- 제3호의안 : 건축연구소 운영세칙 및 관련규칙 제정(안) 승인의 건
 - 연구원 임용자격기준에 건축사를 명시하고 임용제한연령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승인함.
- 제4호의안 : 98년도 회관임대료 및 관리비 인상(안) 승인의 건
 - 임대보증금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관리비만 8% 인상키로 수정 승인함.

- 제5호의안 : 보수기준 및 심사료 지금기준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6호의안 : 98년도 건축연구소 직원 정원 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7호의안 : 서울건축사회 직원조정(안) 승인의 건
- 원안대로 승인
- 제8호의안 : 사무기구 개편 및 소위원회 위원 보선의 건
- 전학주 이사 및 변종환 이사를 보선키로 결의함

협회 대표단, 일본건축사회

전국대회 참가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김규태전임회장을 평예회원에 위촉

김영수 회장과 김규태·오운동·고문·송양석·감사로 구성된 우리협회 대표단이 (사)일본건축사회연합회 초청으로 일본을 방문하고 지난 10월 19일 귀국했다. 대표단은 3박4일간의 일본 체류기간 동안 「제40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를 비롯해 일본족이 마련한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한편 일본족 대표단과 만나 오는 98년 4월 제주도에서 열리는 동북아건축교류협의회 제2차 회의를 위한 사전의견을 교환하였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방문기간 중 일본의 주요 건축계인사들과 향후 건축정보교환 등의 교류확대와 양국간 우호증진을 위한 접촉을 갖는 등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과있는 활동을 펼쳤다. 한편 일본건축사회연합회측은 지난 10월 17일 일본 나가사끼에서 열린 제40회 일본건축사회전국대회에서 우리협회 김규태 고문(제21대 회장)을 명예회원으로 위촉하였다.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내한

두나라간 건축정보 교류 더욱 활발해질 듯

몽골건축사협회 대표단 일행이 우리 협회 초청으로 지난 11월 7일부터 14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하였다. 모든 몽골건축사협회 이사를 단장으로 한 이들 대표단은 방한기간중 우리 협회 김영수 회장을 비롯한 협회 임원진과 만나 건축관련 법령 및 제도 등 공동관심사에 대해 협의하고 향후 한·몽 양국간 건축기술정보 교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기념품을 전달하고 있는 모든 몽골건축사협회 이사(기운데)

제7회 경남건축대전

수상자 발표

大賞에 권성만, 류한규 공동작
'Theme Museum'

경남건축사회(회장 허필도)가 도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제7회 경남건축대전에서 권성만, 류한규(울산대) 공동작품인 'Theme Museum'이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경상대, 경남대, 울산대, 창신전문대 등 경남도내 소재 7개 대학 건축관련학과생들의 작품 80여점이 응모한 올해 경남건축대전의 최우수상은 조문현, 최영록(울산대) 공동작 'Pulse in Repulse'에게 돌아갔으며, 우수상은 하원일 김구희(경상대) 공동작 'Above all is Right' 외 2개작품이 차지했다. 이밖에 올해 공모전에서는 특선 5점과 입선 18점 등 모두 28개 작품이 상을 받았다.

한편 학생대상의 일반공모전과는 별도로 건축사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완공작품전 부문에서는 허정도(서진 종합건축사사무소) 회원의 '거창샛별초등학교'가 금상을 수상했으며, 문철수(두양건축사사무소) 회원의 '목산정형외과'가 은상을, 임부춘(주. 가원건축사사무소) 회원의 '경남청소년 수련원'과 장경섭(에우건축사사무소) 회원의 '대방동 S씨 주택', 조용범(건축사사무소 범건축) 회원의 '가야동'이 각각 동상을 차지했다.

이번 공모전의 심사위원장인 경상대 오인환 교수는 '올해 공모전은 예년에 비해 양적, 질적으로 많은 발전이 있었으며 특히 소재선택에 있어 다양성이 돋보였다'고 밝혔다.



일반공모전 대상작 "Theme Museum"



완공작품전 금상작 "거창샛별초등학교"

충북건축사회 제3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

5개 강좌이상 수료자 102명 수료증 수여

충북건축사회(회장 오선교)가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온 제3기 시민건축대학 수료식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3시 한국통신 충북본부 3층 세미나실에서 개최되었다. 김현수 청주시장을 비롯한 많은 내외빈과 수강자 기족, 충북건축사회 임직원들의 축하속에 진행된 이날 수료식에서는 전체 수강신청자 161명중 그동안 5개 강좌 이상을 수강한 102명에게 수료증이 수여되었다. 또 이날 수료식에서는 시민건축대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정홍희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 충북지회장과 권구원 한국통신 충북본부장에게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충북건축사회는 국민소득수준의 향상으로 건축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95년부터 시민건축대학을 개설, 건축에 관심이 있거나 내집마련을 하려는 시민들에게 건축관련 기본상식을 위주로 교양강좌를 실시하므로써 지역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해 왔다. 특히 이번 제3기 강좌는 지난 9월 30일에 개강해 5주간 총 7개 강좌를 진행해 오는 동안 건축상식을 비롯해 건축재료와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상식, 세무상식, 풍수지리 등 실생활과 밀접한 커리큘럼을 통해 수강생들의 높은 참여도를 불러왔다.

한편 충북건축사회는 지난해보다 27명이 많은 총 102명의 수료생이 배출되는 등 해를 더할수록 시민건축대학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호응도가 높아가고 있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기술자 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

오는 98년까지 전국 규모의 종합네트워크망 구축

우리협회가 정보화시대에 발맞춰 협회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추진해온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 실현단계에 접어들었다. 지난 11월 25일 협회 중희의실에서는 「건설기술자경력관리프로그램 개발 용역 및 시스템 구축」 최종보고회가 열려 본회와 16개 시·도건축사회를 하나로 연결하는 종합네트워크망 구축사업의 실체를 확인시켜 주었다. 이날 보고회에서 프로그램 개발용역업체인 (주)유니시스템은 지난 1년여동안 협회전산관계자들과 공동 연구개발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업무용 전산 프로그램과 시스템 등의 성과물을 공개하고 이를 직접 시연해 보였다.

협회는 이번 건설기술자경력관리프로그램의 개발로 관련업무의 신속성과 공명성 제고는 물론 이를 기반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향후 각종 건축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정보통신망의 틀을 갖추게 되었다.

특히 이번에 공개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프로그램의 경우 건설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경력변경사항은 물론, 각종 증명서의 발급이나 조회, 통계관리, 건축사사무소 등록관리, 미신고자나 미보고업체 현황 등을 보다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제한된 인력만으로도 많은 수의 건설기술자경력관리 관련업무를 손쉽게 소화해 낼 수 있도록 돼 있다. 건설기술자경력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사업은 올해초 컴퓨터프로그램 전문개발사인 (주)유니시스템을 용역업체로 선정, 본격적인 프로그램개발에 나선 이후 그동안 시험기동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현재는 본회와 서울건축사회간의 LAN설치작업이 완료된 상태로 지난 7월 28일 개설된 경기도건축사회의 공중정보통신망 서비스(DNS) 개설과 함

께 오는 98년까지는 WAN설치를 통해 각 시·도건축사회를 하나의 통신망으로 연결하는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프로그램개발 보고회 환경

전시준비과정에서 수차에 걸쳐 치밀한 협장답사를 벌이는 등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열의를 보였다.



청솔마을 모형도

'97 그룹 '티' 회원작품전

광주지역 건축사 10인 참여

광주지역에서 활동중인 30대의 젊은 건축사들 모임인 '그룹티' (회장 박상구, 구상건축사사무소 대표)가 첫 번째 회원작품전을 가졌다.

지난 11월 6일부터 5일간 광주 예술의 거리에 위치한 빛고을 갤러리에서는 이광천(동신건축사사무소), 김주연(범미건축사사무소), 김한일(신라건축사사무소), 임경희(건축사사무소 이우) 등 광주 지역을 무대로 활동중인 건축가 10인이 모여 「'97 그룹티 회원작품전」을 개최하였다. '청솔마을 전원 스케치'란 주제로 열린 이번 작품전에서는 그룹티의 회원들은 각자의 개성과 철학이 담긴 작품들을 조화있게 일궈낸 새로운 전원주택단지 모델이 선보였다.

'그룹티'는 지난 95년에 결성된 이후 그동안 작품비평회와 전통건축답사, 해외건축기행, 친선체육대회, 회원사 직원연수회 등 다양한 자체행사를 통해 회원 각자의 철학과 건축세계를 함께 나누어 왔는데 이번 전시회에서는 호화로움을 연상시키는 기존의 전원주택들과는 다른 우리의 전통주거의 소박함이 배어있는 주거공간을 '청솔마을' 이란 이름으로 선보여 화제를 낳았다. 특히 이를 회원들은

포스에이씨 심인보 회원, 고속철도 경주역사 현상설계 당선

쾌적한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경주의 상징성과 조화시켜

포스에이씨건축 심인보회원의 현상설계안이 한국고속철도공단이 실시한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설계공모에서 당선작에 선정됐다.

한국고속철도공단은 지난 11월 21일 경부고속철도 경주역사 설계공모 심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선작으로 천년고도인 경주의 상징성과 쾌적한 차세대 교통수단인 고속철도의 이미지를 잘 살려낸 포스에이씨 심인보회원의 안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당선작인 포스에이씨 안은 대지 3만2천평, 건축면적 1만6천여평의 규모로 철근콘크리트 및 철골조구조물로 설계됐다. 한편 이번 현상설계에서는 우수작으로 선정된 남산건축 안을 비롯해, 동우건축과 원도시건축의 출품작이 기작에 선정됐으며, 아키플랜과 공간건축이 각각 입선을 차지했다.

건축가협회,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개최 '97 건축가축제 함께 열려

한국건축가협회(회장 강석원)가 우리건축의 문화적 위상 고양과 건축에 대한 저변확대를 위해 개최한 「제16회 대한민국건축대전 및 '97건축가축제」가 지난 11월 19일부터 30일까지 예술의전당 미술관에서 열렸다. 올해 대한민국건축대전에는 일반공모부문 당선작 1백50점과 77인의 초대작가 작품 77점, 제2회 건축사진전 당선작 33점, 제19회 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 등 올 한해동안의 우수 건축작품들이 한자리에 전시됐다.

앞서 한국건축가협회는 지난 11월 19일 올해 대한민국건축대전의 부문별 당선작을 발표했는데 총 7백68점이 응모한 일반공모부문에서는 도시의 주택들이 안고 있는 주차·탁아·주민 공동체 형성의 문제점들을 실체적으로 제안해 심사위원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은 「도시단독주택지 개발안」의 이현창(명지대 대학원 건축학과)씨가 대상을 차지했으며 우수상은 「단성사 재건축안」을 출품한 흥만식(서울시립대 건축학과 4년)씨와 「정신대 추모관」의 정수은(이화여대 건축과 4년), 「동사무소 계획안」의 안장식씨 등 3명이 수상했다. 이밖에 특선작에는 김사원(홍익대 건축과 4년)씨의 「공존」 등 모두 7개 작품이 선정됐다.

또 기성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초대작가전에는 「부산수산영보단지」(서울포럼/김진애 설계), 「고속철도 남서울 역사」(신아건축 설계), 「대구종합경기장」(이상건축 설계) 등 모두 77점의 작품이 전시돼 우리건축의 최근경향을 한눈에 확인시켜 주었다.

특히 이번 전시기간중에는 올해 완공건축물 가운데 완성도가 높은 우수작품의 건축가와 건축주, 시공자를 선정해 시상하는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 7점도 함께 전시됐다. 올해 한국건축가협회상 수상작으로는 건축문화사옥(김광현 서울대 건축과 교수 설계), 부산방송국 리노베이션(한울건축 이성관 설계) 삼보컴퓨터 사옥(정립건축 설계), 신도리코 아산공장 본관(기오현건축 민현식 설계), 신정동 여성의원(일간씨엔씨건축 설계), 용문 청소년수련장(건축문화 김영섭 설계), 휘닉스파크콘도미니엄(시상건축 유건 설계) 등 모두 7점이 선정됐다.

한편 이번 행사기간중에는 건설 및 자재업체들의 신자재 및 기술개발 현황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건설 및 자재업체 전시회」도 함께 열려 많은 건축인들과 일반 관람객들의 시선을 끌었으며 지난 11월 28일 오후 3시부터는 각 부문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이 거행되었다.



개막식 광경

현실비평연구소 주최 제3회 비평상 공모전

주제는 「한국학파」

현실비평연구소에서는 한국 현대건축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참신한 비평인 발굴을 위해 제3회 「비평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올해 공모전의 주제는 「한국학파」로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무대예술, 조경,

디자인, 사진 등 7개 부문에 걸쳐 오는 98년 3월 20일까지 원고를 접수한다. 주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현실비평연구소가 발행하는 문화무크지 「비평건축4호」에 소개되며 특히, 응모작에 등장하는 대상작품이나 소재작가는 한정된 지역을 반영하고 봉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어야 한다. 원고분량은 200자원고지 70매 분량의 미발표작으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1차 심사를 거쳐 예비당선작을 선정한후 별도의 공개포럼을 통해 최종 당선작을 가리게 된다. 응모자는 내년 1월말까지 현실비평연구소 측에 미리 참가신청 접수를 마쳐야 한다. 문의 : 현실비평연구소 (02-304-6539, 376-7775~6)

두물워크샵 건축전시회

건축가 11인의 「북한강 이야기」

무분별한 개발에 의해 단절된 북한강 지역의 고유한 특성과 잠재성을 회복하기 위한 건축전시회와 세미나가 열린다. 「자연과 커뮤니티(Nature & Community)」란 주제로 오는 12월 7일부터 15일까지 경기도 양수리 북한강변 두물워크샵에서 열리는 이번 건축전시회 및 세미나에는 우경국, 백문기, 김준성, 민선주씨 등 모두 11명의 건축가들이 참여한다. 특히 이번 전시회는 땅의 가능성을 비현실적 공론이 아닌 현실적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피부에 와닿는 대안들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 지역건축의 새로운 좌표와 함께 건축의 존재가치를 회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장소인 두물워크샵은 양수리 영화촬영소에서 샷터삼거리(칠길건널목)방향으로 2.5km 떨어진 북한강호텔에 인접해 있다.

• 건축전시회 : 1997. 12. 7 ~ 1997. 12. 5
 - 개전식 : 1997. 12. 7(일) 오후 3시
 (피아니스트 김진호 연주회)
 • 세미나 : 1997. 12. 13(토) 오후 3시
 - 우경국 : 북한강 이야기
 - 김원식 : Circulation
 - 장립종 : Periphery
 • 참여건축가
 - 김준성, 민선주, 조병수, 김홍일, 전인호, 김현, 헬렌박
 문의 : 두률워크샵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 721 / Tel. 0346-592-3336)

건축가협회 강석원 회장, 프랑스 국가공로기사단장 훈장 수여받아

양국 건축교류 기여 공로

강석원 한국건축가협회 회장이 지난 11월 25일 한·불 양국간 건축교류에 기여한 공로로 프랑스 정부로부터 국가공로기사단장 훈장을 수여받았다.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

이상건축誌 주최, 연립·다가구
주택의 문제점 해소방안을 주제로

건축전문지 「월간 이상건축」에서는 「탈도시주택 아이디어 공모전」의 출품작을 공모한다. 주최측은 기존 도시내 연립주택이나 다가구 주택 등의 집합주택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공모한다는 뜻에서 올해 공모주제를 「집합주택」으로 정하고 있다. 응모자들이 선정될 대상부지는 서울경기지

역, 대전충청지역, 광주전라지역, 부산경상지역 등이며 각 대학 건축관련 학생이나 건축설계종사자(건축사면허 소지자 제외)면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작품제출기간은 98년 2월 5일부터 10일까지이며 조성룡(도시건축 대표), 김영섭(건축문화 대표) 2인 심사위원이 2월중 심사해 당선작과 기작, 입선 각 10점씩을 선정하게 된다.
 도면의 경우 캘트지나 그와 유사한 용지에 자유롭게 표현하면 되고, 패널은 600×900mm 사이즈 3매 이내를 5~10mm 우드락 등에 부착해 제출해야 한다. 설계설명서는 A4용지 3장분량에 설계개념과 아이디어 형성과정, 기본도면 등을 수록해 출품자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문의 : 월간 이상건축(051-465-1833, 5)

한국의 휴로그램 · 빛의미래展

진우건축 김동훈씨 등
예술 각 장르별 8인 작품전시

건축, 순수홀로그램, 시각커뮤니케이션, 조각, 패션, 디자인, 미래건축, 조형 등 예술 각 장르의 작가들이 모여 휴로그램이라는 영상매체를 통해 자신의 예술적 감성을 표현한 색다른 전시회가 열려 화제를 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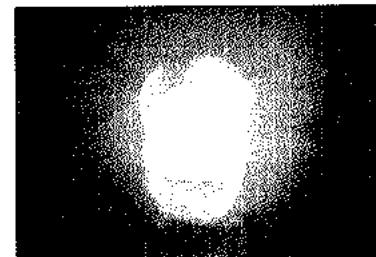
지난 11월 11일 서울시립미술관에서는 예술창작의 세계를 휴로그램과 레이저라는 첨단매체를 이용, 삼차원의 입체영상으로 표현해 내드로써 공간과 색채, 형태의 운동을 조화있게 강조해낸 「한국의 휴로그램 · 빛의 미래전」이 열렸다.

건축가 김동훈(진우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씨를 비롯해 휴로그램작가 김남석(주. 송산 · 휴로그램코리아 대표), 패션디자이너 이상봉(이상봉부티 대표), 조각가 최병상(이화여대교수) 심영철(수원대 교수), 건축가 조택연, 조명디자이너

허승호(주. 일토건축 대표), 시각디자이너 박순보(홍익대 교수) 등 8명의 예술인들이 참가한 이번 전시회에는 건축장르의 「전이」를 비롯해 「보리밭」, 「빛과 소리의 언약」 등 각 예술 분야의 작품 20여점이 전시됐다.

이번 전시회에 참여한 건축가 김동훈씨는 "이번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큰 의미가 있었고 또한 조형적 언어가 시간적 상황에 맞게 창작되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경로가 모색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출품소감을 밝혔다.

김동훈씨의 전시작품 "전이"는 여러 예술비평가들로부터 공간적 해석경험을 토대로 한 수준높은 작품이라는 평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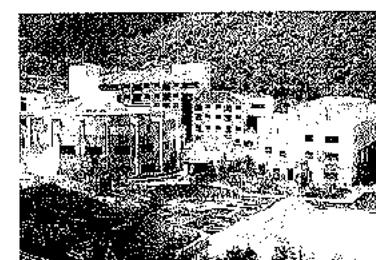


김동훈作 "전이" (90×90cm 석고, Bestwood)

제8회 환경문화상 종합대상에

삼성重 산청연구소

건축, 조경, 조각 · 환경조경
4개부문 수상작 발표



삼성중공업 산청연구소

문화체육부는 지난 11월 5일 제8회 대한민국 환경문화상 수상작을 선정, 발표했다. 지난 90년에 처음 제정돼 올해로 8째를 맞는 환경문화상은 건축, 조경, 조

각·환경조형 등 4개부문에 걸쳐 대상 작품을 공모, 이를 기운데 부문별 우수 건축물을 선정, 시상해 있다. 올해 부문별 수상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종합대상

경남산청군 삼성중공업 산청연구소

건축부문

경기도 안양시 신병원

조경부문

경남 창원시 생태도시 문화공간

실내장식

경기도 용인시 국민생명 미래원

조각·환경조형부문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개발원 내 '생성'

빌딩외벽관련 설계도서 제공 하이텔 정보서비스 등장

빌딩외벽 설계전문업체인 훌텍스에서 운영, 하이텔 go FAD 접속

빌딩외벽에 대한 설계자료와 시방서자료, 이론자료 등의 정보를 PC통신망을 통해 제공하는 새로운 서비스시스템이 등장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빌딩외벽관련 설계전문업체인 훌텍스(대표 이기용)가 FAD라는 이름으로 하이텔을 통해 지원하고 있는 이 인포샵에는 커튼월을 비롯해 창호, 석재·판재크레딩 등 주로 빌딩 외벽과 관련한 각종 정보와 자료들이 들어있다. 이용자는 분당 500원이 과금되는 자료실 뿐만이 아니라 회원에 가입할 경우 정보나눔터를 통해 다른 이용자들과 필요한 정보를 서로 주고받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진의 도움을 얻어 해결할 수도 있으며, FAD측이 지원하는 각종 서비스들을 활용할 수 있다. 이용방법은 하이텔 접속후 go FAD를 입력하면 곧바로 FAD자료실로 접속된다.

인포샵이란 정보제공자 IP(Information Provider) 또는 SP(Service Provider)가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요금을 한국통신이 대신받아 IP(또

는 SP)로 정산, 분배하여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문의: 훌텍(02-202-9123/담당:고재학)

건축신간 안내

한국전통조경구조물

+산조

건축가 박서홍 작품/글모음 2집

◇ 한국전통조경구조물

저자는 이 책에서 우리 전통공간을 구성하는 연못, 우물, 문, 담장, 석조, 장승, 옛길 등 전통구조물들을 망라해 각 구조물들이 갖는 물리적 특성과 경관적 특성을 뿐만이 아니라 이를 요소의 상징적 의미들을 오랜기간동안 전국 각지의 한국 전통조경 유적들을 직접 답사하고 촬영한 사진자료와 함께 분석하고 있다. 전통 조경구조물은 전통건축의 일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건축인들에게는 자료 가치가 크며 더욱이 이 책에는 전통조경구조물을 직접 설계·시공하는 저자의 전문가다운 해박함이 곳곳에 잘 들어나 있어 그 가치를 더욱 높여주고 있다.

박경자著/ 도서출판 조경(02-569-9967~8) 펴냄 / 160쪽 / 1만2천원

한국전통조경 구조물



128p

◇ 안영배 교수의 건축이야기 "+산조"

이 책은 올해로 건축인생 40년을 맞이하는 서울시립대 안영배 교수의 '철학과 인생'을 담고 있다.

건축에 있어 중요한 사항인 '조화'는 정연한 조화인 '정조(整調)'와 흐트러진 이질적 요소의 조화인 '산조(散調)'로 볼 수 있으며, '+산조'는 정조를 이루되

부분적으로 산조를 병행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정조와 산조는 우리나라 고건축에서 많이 찾아 볼 수 있으나, 중국과 일본, 인도 등 아시아의 미스(Mies)나 루이스칸의 작품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것으로 한국 건축만의 특징으로 단정 지을 수는 없다고 한다.

저자인 안영배 교수는 삶의 철학이자 작품활동의 개념으로 +산조를 선호하고 있으며, 추구하고자 하는 건축개념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것은 저자의 초창기 작품부터 이전의 작품활동 전모를 통해 읽을 수 있다. 또한 +산조의 개념을 앞으로도 지속적인 작품활동을 통해 나타낼 것임을 밝혀 퇴임후 자신의 건축인생이 끝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안영배 著/도서출판 발언(02-929-3546) 펴냄/220×200mm/279쪽/1만5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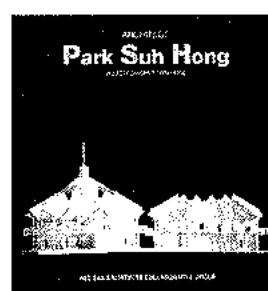


+산조

◇ 「건축가 박서홍 작품/글 모음」 2집

건축가 박서홍(회산건축)은 전등전, 송파구민회관, 진해충훈탑, Darien Hotel 등 45점의 작품과 수년간 건축관련잡지 등에 투고한 원고를 모아 「박서홍 작품/글 모음」 2집을 발간했다. 우리의 전통건축에 뿌리를 둔 그의 건축은 완성한 사회활동과 함께 소박함과 열정이 깃들어 있으며 냉철한 그의 건축철학도 엿볼 수 있다.

박서홍 著/도서출판 정문사(02-266-4555) 펴냄/120쪽/1만5천원



현상설계경기 competition

대구실내체육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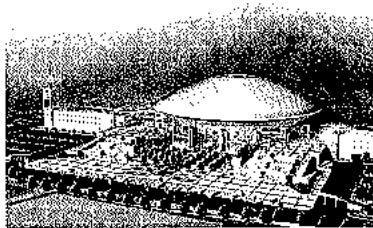
대구실내체육관

Taegu Gymnasi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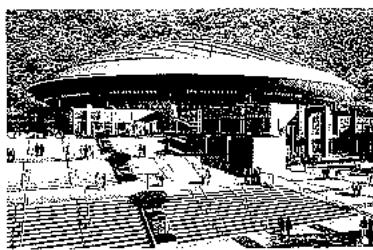
대구시는 21세기를 여는
2001년 U대회 유치에 대비한 고품격 경
기장으로서, 대구시민의 새로운 첨단으로
그리고 사회체육센터로서 역할을 할 대
구실내체육관의 현상설계경기를 실시하
였다.

총 8개 작품이 접수된 가운데
최우수작으로 (주)합동건축(권태
식)+(주)원도시건축(변용)안, 우수작
으로 (주)삼우건축(박승)안, 기작으로
(주)이상건축(강철희)안과 (주)한국건축
(윤영도)안을 선정. 지난 10월 29일에
발표했다.

▶ 당선작 / (주)합동건축(권태 식)+(주)원도시건축(변 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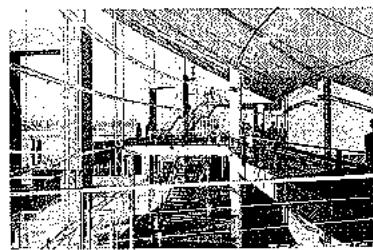
조감도



주진입부 전경



내부전경



콘코스 실내투시도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일원
지 역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체
육공원

용 도 : 관람 집회시설

건축면적 : 16,643.74㎡

연 면 적 : 35,660.47

건 폐 율 : 16.99%

용 적 율 : 17.98%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부속동 : 지하2층, 지상3층

수용인원 : 12,582석

경기종목 : 체조, 펜싱, 배드민턴, 핸드볼, 배

구, 농구, 씨름 등

구 조 : 지붕-단층 래티스 구조

스탠드-철골+PC 구조

외장재료 : 지붕-알루미늄 불소수지 코팅

하부시설물-T12강화유리, 노출

콘크리트

승강기 : 17인승 2대(장애인용)

주차대수 : 707대(장애인용 9대)

조경면적 : 적용제외

총공사비 : 579억

계획의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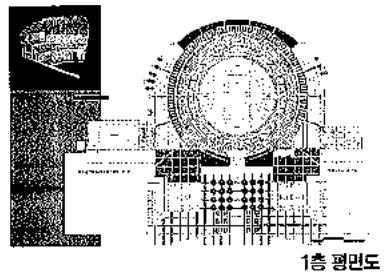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구종합경기장 건설과 연계하여 2001년 U대회 유치에 대비한 실효성 있는 미래형 고품격 경기장 건설과 대구광역시 시민들에게 새로운 건축적 Image와 역할을 그 형태와 기능을 통해 제시한다.

계획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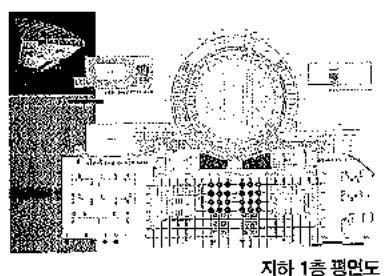
기존의 실내 체육관들은 대부분 평지에 계획되어져 어디서나 거의 평이한 외관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25%의 경사도로 이어지는 산중턱에 위치한 계획대지는 그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대지와 연계되는 접근로에서의 시각이 항상 계획 대지의 Ground Level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계획 건축물을 '아래에서 위로' 치켜 올려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접근 동선상에서의 관찰자의 시점 - '아래에서 위로' -의 개념에서 Idea를 구하여 계획 건축물의 형태에로 접근한다.

여러층의 관중석을 밟치고 있는 커다란 사발형의 Stand구조체와 그 기둥 그리고 Dome형태의 지붕이 실내체육관을 이루고 있는 주요 구조체로 대표될 수 있겠다. 이러한 구조체들의 순수한 어울림의 형태가 기존의 많은 실내체육관에서의 감추어진 모습과는 달리, 대구실내체육관 계획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대담하게 그대로 외부로 노출되어 관찰자의 시점, 즉 '아래에서 위로'의 개념에서 고려한다면 이러한 구조체들로 이루어지는 형태는 커다란 가마솥위에 뚜껑을 덮은 모양일 것이다. 이것은 흄사 UFO(비행접시)를 연상시킨다. 이러한 UFO와 같은 형태의 의미는 최고의 기술력(High

Tech)과 미래에 대한 동경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형태적 표현으로 이 계획안에 대구시의 꿈과 이상, 그들의 기술과 잠재력 그리고 미래에 대한 그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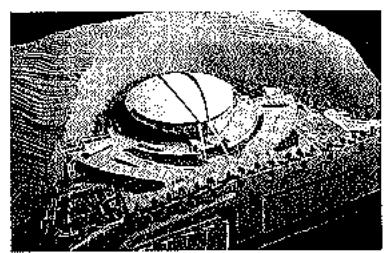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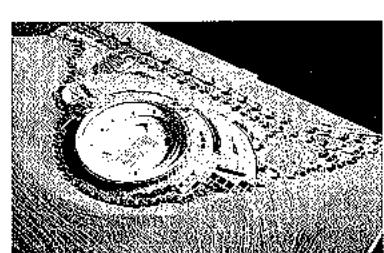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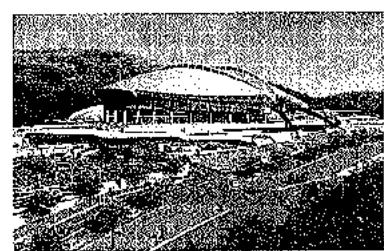
▶ 우수작 / 삼우설계



모형1



모형2



투시도1



투시도2

위 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대구체육공원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체육공원

대지면적 : 97,952m²(29,630평)

건축면적 : 26,309m²(7,958평)

연 면 적 : 31,429.07m²(9,507평)

구 조 : 스텐드-철근 콘크리트조
지붕-KEEL TRUSS

규 모 : 지하1층, 지상2층

관람석 : 12,720석(기변석~
4,820석, 고정석-7,900석)

외장재료 : 지붕-알미늄 시트패널
외벽-복층유리

설계기간 : 1997. 9. 1~10. 23

설 계

건축 : 김보희, 박민철, 김창원, 유재홍, 안성
은, 박 경, 전형기, 명준엽, 이필호

구조 : 민병진

전기 : 원진희, 이주호

기계 : 한재우, 이승우

대지

기존 대구 남동쪽 신시가지 대구체육공원내 Master Plan에 따라서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다. 2001년 유니버시아드 대회유치를 목적으로 체조경기가 가능한 국제규모의 1만2천5백석이므로 보기 드문 규모의 실내체육관이다.

주어진 환경조건은 협소한 전면대지, 부정형의 대지형상, 고저차가 심한 주변산세 등으로 끔찍없이 둘러싸여 있다. 펼쳐지는 개념보다는 지형에 맞게 간결한 구조와 분리된 동선처리, 다목적 공간활용도 등을 핵심적 개념으로 받아들여 열악한 조건을 반전시켜 보았다.

도입

동서의 접근 모두를 고려, 전면광장을 도로와 평행하게 배치하면서 정면성을 부각시켰다. 주경기장과 연계된 진입동선

은 수변공간으로 흐르는 풍경을 만들었고 기능별 주차장과 진입동선을 분리, 관람객과는 완전 차별화를 주었다.

포옹과 흘어짐

좁은 전면 대지에 대기동선을 의식한 활짝 감싸쥐는 데크 계단이 독수리 날개형상을 하고 있다. 이것이 포옹 또는 흘어짐을 적절히 연속하면서 관람객을 유도한다. 원형의 3/1만이 진출입의 실제 사용범위라고 규정짓고 그에 대한 흘어짐의 휴식공간과 연결계단을 구성하여 지루함을 배제하였다.

데크와 진출입

2층의 관람객용 데크는 흐름의 여유를 유도하고, 반면 하부를 유동히 기능공간으로 배분하여 차후 사회체육시설로 효과적 변환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데크의 진입레벨은 관람석 내부의 중간 위치로, 부담없고 원활한 흐름의 중추적 레벨로 설계한 것이다. 특히 외부공간의 레벨변화와 연계한 연결로를 이용, 장애인을 순조롭게 유도하고 있다.

기변관람석

가장 넓은 체조경기장을 수용하면서 모든 경기에 가까이 관람할 수 있는 기변석을 배치하여 유용한 다목적 시민공간이 되도록 제안하였다. 구조는 원형의 120m틀에서 관람석은 장변석을 많이 배치시키는 타원 변환의 배치를 시도하였다.

KELL TRUSS와 유선 지붕 실루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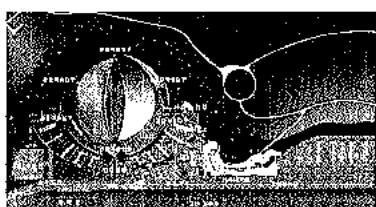
가장 간결하면서도 구조의 미를 외부의 조형에 흐르도록 연결시켰다. 옥중한 지붕을 정면에서 유리로 변환시키는 구사로 가볍고 다이나믹한 철마일 아트리움을 연상시키도록 의도하였다.

FIXATIV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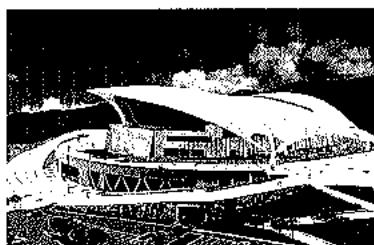
산세를 파고 들어간 대지와의 대비는 쭈 치럼 활짝 펴진 광장과 여유공간을 스케치속에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살아있는 산의 키와 흙의 생김새를 동선의 윤곽으로 교묘한 교차를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자연스러움으로 느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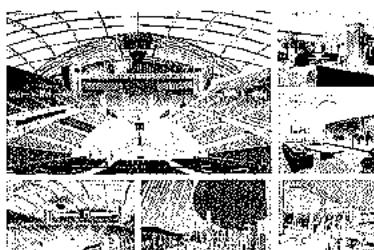
파제끼고 평평하게 만든 인공의 후련함 보다 아기자기한 산모름과 포용이 더욱 우리에게 그 진실한 접근의 실마리로 물어지며 원초적 스포츠 정신이 스며들 느끼게 했다. 새롭다는 것이 자연과 대화 하며 친화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반전의 대자와 공간의 만남이 있었다.



배치도



투시도



내부 투시도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일원

지역·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체육공원

대지면적 :

대구체육공원부지면적 - 1,930,000㎡
(580,825평)

실내 체육관 부지면적 - 97,952㎡(29,630평)

건축면적 : 14,923.39㎡(4,514.30평)

연 면 적 : 31,454.80㎡(9,515.03평)

규 모 : 지하1층, 지상3층

수용인원 : 12,724석(이동석 - 2,532석)

구 조 : 스텐드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붕구조 - PIPE TRUSS + FABRIC

스탠드바닥구조 - PRECAST 콘크리트 +

PRESTRESS 콘크리트

설비방식 : 냉·난방 - 중앙공급방식

급수 - 부스터공급방식

주차대수 : 688대(실내주차 - 소형차 : 36대)

버스 : 4대)

주요외장재 : 치장콘크리트위 아크릴 투명

페인트, PTFE-COATED

GLASS FABRIC, STRUCTURE GLASSING, 인도사암

주요내장재 : 목재 후로링, 치장콘크리트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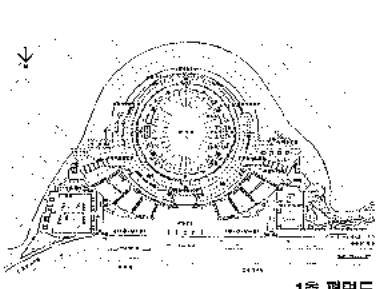
아크릴 투명페인트

용 도 : 관람집회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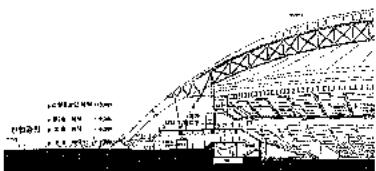
계획의 특성

- 형태

- 배후녹지경사지형의 흐름과 대구시의 상징 독수리의 비상을 주 조형요소로
- 적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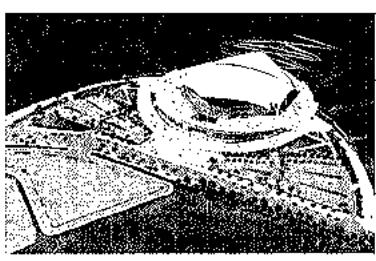


1층 평면도



부분단면도(진입광장)

▶ 가작 / (주)이상건축(강철희)



조감도

- 주변지형에 의해 위요된 배면과 전면의 개방시야를 대비하여 시·공간적 방향성 확보

- 전통의 고건축 이미지 도입, 적용으로 역사성과 영속성 의미부여

- 체마공간 이미지 인용

- 누하진입의 공간효과 도입

- 기단형성

- 기능

- 플로어형 각종 실내스포츠의 국제규모 경기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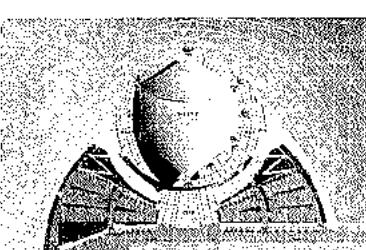
- 농구, 배구, 핸드볼, 탁구 등 구기종목

- 체조, 펜싱 등 플로어종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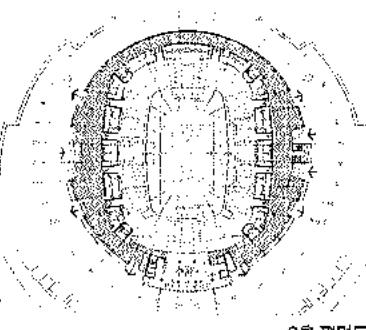
- 복싱, 레슬링, 유도, 태권도, 씨름 등 격투기 종목

- 선수관련 부속시설의 동선, 설비 독립 구호기으로 사회체육시설 등으로의 활용도 제고로 이용율 및 수익성 보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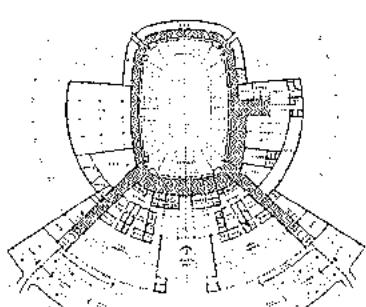
- 지형조건을 최대한 활용한 레벨 및 절 근계획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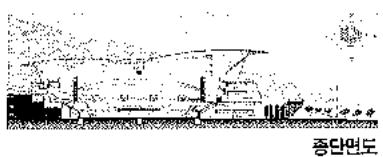
2층 평면도



지하 1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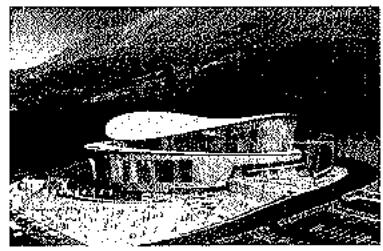


서측면도



종단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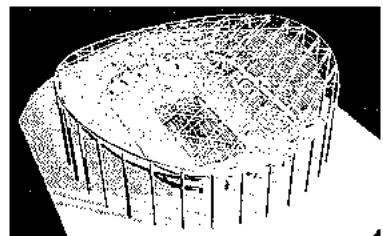
▶ 가작 / (주)한국건축(윤영도)



CAD 모델링 1



CAD 모델링 2



철골 트러스 구조도

대지위치 : 대구광역시 수성구 노변동 일대
지역 · 지구 : 자연녹지지역 개발제한구역.

체육공원

대지면적 : 97,952m²(29,630평)
건축면적 : 13,501.42m²(4,084.18평)
연 면 적 : 31,990.84m²(9,677.23평)
건 폐 율 : 13.78%
용 적 률 : 32.66%
규 모 : 지상3층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 철골트러스조
기둥 · 보 · 통로 : 철근콘크리트조
관람석 : 프리캐스트콘크리트조
지붕 : 철골트러스조 + 메탈데크
주차대수 : 713대(대형15대, 소형681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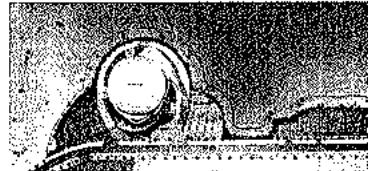
장에자17대)

주외장재 : 알루미늄복합페널, 유리
총관람석 : 12,656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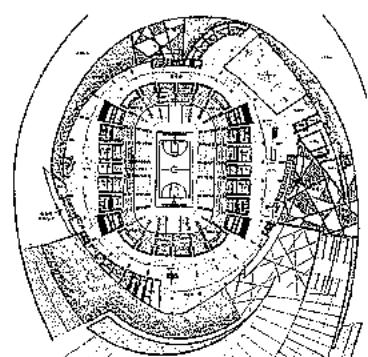
대구체육공원 조성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대구종합경기장 건설과 연계하여 2001년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대비 한 실내체육관 건립을 목적으로 각종 실내경기 수용 및 지역문화 행사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시개방 체제의 다목적 시설로 사회체육기능과 문화편의기능을 극대화하였다.

운동경기 개최시와 평상 개방운영에 따른 운영, 관리, 서비스동선을 구분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였고 수익성 사업의 일환으로 스위트석과 클럽하우스 등의 시설을 계획하여 스포츠관람과 커뮤니티의 장소로 제공하여 시설을 이용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 경사지를 활용하여 자연조건에 순응하는 부지조성과 시설배치로 이용객의 성격에 따른 진입동선을 구분하여 경제성 및 편리성을 추구하였고 체육공원 마스터플랜상의 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배치계획으로 도심지 조망과 체육공원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질서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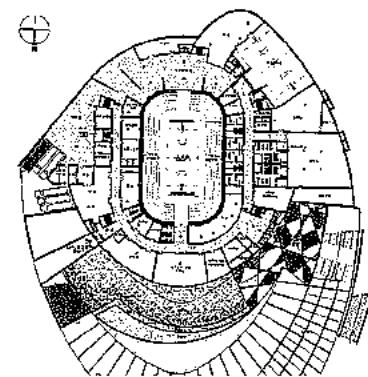
- 스포츠에서 느낄 수 있는 에너지(힘, 속도, 회전력...)를 전통문양인 삼태극을 형상화하여 전통미의 구현과 부드러운 태극선을 지붕형태로 표현 체육관의 조형미를 극대화하였으며 하이테크한 입면구성과 외장재의 조화를 통해 미래지향적인 국제도시로서의 면모와 위상을 보여준다.



배치도



2층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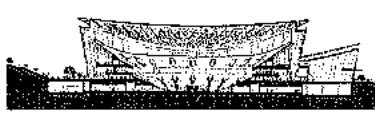
1층 평면도

정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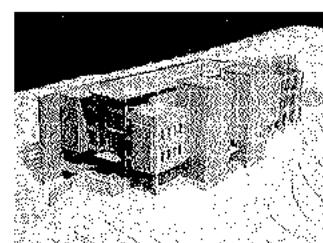
자난초(9711)계획작품 p.99
전국비구니회관(기와건축/최삼영) 모형도



종단면도



횡단면도



ARCHITECTURE
ARCHITECTURAL RECORD
World ARCHITECTURE
l'architecture d'aujourd'hui
l'ARCA
THE ARCHITECTURAL REVIEW
建築文化
a+u
NIKKEI ARCHITECTURE

ARCHITECTURE

97년 10월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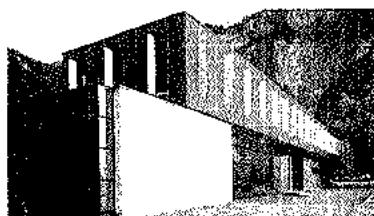
"가벼운" 건축을 지향하고 있는 근대 주의적 유럽 건축가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해외시장에서 활약하고 있는 미국의 건축설계사 무소에 대한 기사가 실려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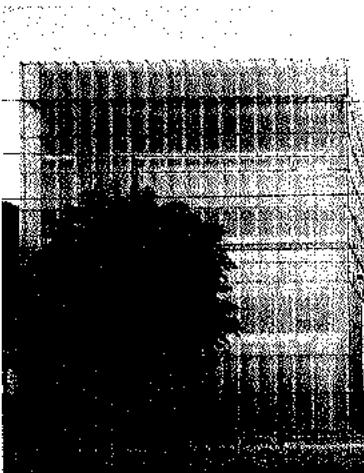
■ 유럽의 근대주의적 건축

국제주의 양식의 유산을 이어받아 모더니즘을 재해석하면서 건축의 재료와 표면을 통해 "가벼운" 건축을 추구하고 있는 Baumschlager & Eberle, Peter Zumthor 등의 유럽 건축가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 Baumschlager & Eberle의 Dornbirn 전기회사 본부, Büchel/Geiger 주택, 독일 Hergatz의 가구 전시장, 오스트리아 Lochau의 Kern 주택. ▶ 스위스 건축가 Peter Zumthor의 Chur 고고학 박물관, Sumvitg 교회, Vals 온천, 오스트리아 Bregenz 미술관, 그 외에 ▶ Chaix Morel의 프랑스 Saint-Romain-en-Gal 고고학 박물관 ▶ 네덜란드 건축가 Erick Van Egeraat의 우트레흐트 패션·그래픽 학교 입면 재건축. ▶ 스페인 화가 겸 건축가 Juan Navarro Baldeweg의 미국 뉴저지주 Princeton 대학교 Woolworth 음악관, 스페인 Mahon 시민법원, 스페인 Villanueva de la Cañada 문화관, ▶



Baumschlager & Eberle의 Dornbirn 전기회사 본부



오스트리아 Bregenz 미술관

Berthold Penkhues의 독일 Korbach 역사박물관 등이 소개되어 있다.

■ 기타

▶ 해외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 건축설계사무소 50선이 소개돼 있다. 국제적인 사업규모를 갖는 설계사무소 중 건축사를 가장 많이 고용한 곳은 HOK, SOM, Gensler, Ellerbe Becket, NBBJ 순이며, 해외에서 가장 높은 수익을 얻고 있는 곳은 Hellmuth, Obata & Kassabaum, SOM, RTKL Associates, KPF, Wimberly Allison Tong & Goo 순이다.

가장 많은 진출이 이루어진 나라는 영국, 중국, 한국, 멕시코, 일본이다. 그 외에 국제 교류에 관한 법률과 증진안들을 다루고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의 주소가 소개되어 있다. ▶ 독일의 바ロック 교회 리노베이션 안 등 고건축물의 보존 및 재활용에 대한 기사, ▶ 아르헨티나, 러시아, 터키 등 세를게 부상하고 있는 건축 시장, ▶ 콘크리트 블록 단열에 대한 기술적 정보, ▶ 설계사무소 운영의 인터넷 활용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ARCHITECTURAL RECOR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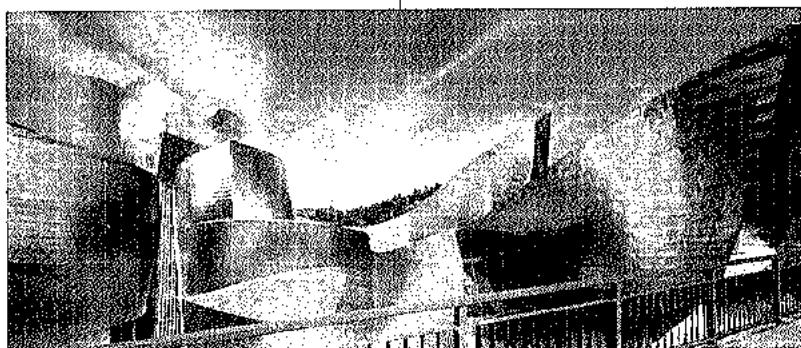
97년 10월호

Frank O.
Gehry의 야
심작인 스페
인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
오가 완공되
기까지의 구
체적인 과정



을 카버스토리로 다루고 있으며, Caesar Pelli의 새로운 공항 건축과 아울러 최근 변화를 보이고 있는 학교 건축의 동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 Gehry의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
스페인 빌바오에 완공된 Gehry의 구겐
하임 미술관에 대한 1991년 겨울부터의
설계, 시공 과정이 게재되어 있다. 그에
게는 자유분방한 형태 만을 그림 뿐 건설



기술이나 시공비 등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선입견이 일반화되어 있지만, Gehry는 3차원 컴퓨터 모델링 시스템인 CATIA를 주도적으로 실험하는 등 시공기술 분야에서도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다. 역학적으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졌던 구겐하임 미술관 빌바오가 오늘날 완공되기 까지의 수많은 난관과 에피소드들이 소개되어 있다.

■ Pelli의 워싱턴 국제공항 신타미널
공항 이용자들의 편의, 복잡한 지하철·
도로 체계와의 연계, 기능적 효율성, 경
제성 등 공항 축에서 제시한 요구사항들
이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작용했다는
Pelli의 공항 계획은 현대적인 재료들
을 사용하면서도 볼트 구조와 각종 회화,
조각 작품을 이용하여 고전적인 분위기
를 내고 있다.

■ 기획 특집 - 학교건축

최근 다소 혼격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학교 건축에서는 개인화, 공동체와의 연계, 컴퓨터화, 텔중심성 등이 주된 특징으로 나타난다. 교육과 교육 시설에 대한 3가지 이상안들을 다루면서 ► Ross Barney + Jankowski의 일리노이주 시카고 Little Village Academy, ► Perkins & Will, Parker/Mudgett/Srnith Architects의 플로리다주 North Fort Myers 고등학교, ► Jersey Devil, Taxis Architects의 플로리다주 타버니에 Montessori Island 학교, ► Simon Martin-Vegue Winkelstein Morris의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Lick-Wilmerding 학교를 소개하고 있다.



플로리다주 North Fort Myers 고등학교

■ 기타

►제1회 Business Week/ Architectural Record상 수상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다.

World ARCHITECTURE

97년 10월호

나라별로 건
축계의 현황
을 알아보고
있는 특집에
서 본 월호에
는 독일이 선
정되었다. 독
일의 대표적
인 설계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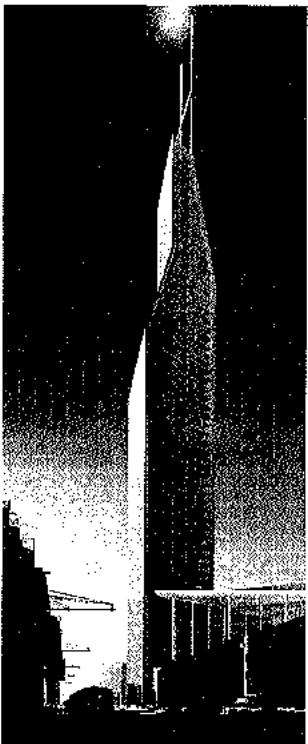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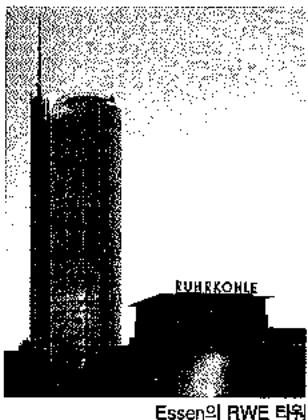
소와 그 중 Ingenhoven Overdiek Kahlen und Partner에 대해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으며, 레스토랑 건축에 대한 보고에 함께 게재되었다.

■ 국가특집 - 독일

1990년 통일과 함께 일어났던 건축붐은 사라졌고, 최근에는 대부분의 건설이 옛 건축의 복구에 집중되고 있지만, 독일은 아직도 유럽 건축 시장에서 가장 많은 건설을 기록하고 있다. 독일 건축계의 현황과 대표적인 설계사무소들이 소개되어 있다.

■ Ingenhoven Overdiek Kahlen und Partner의 작품들

독일 설계사무소 중 가장 독창적인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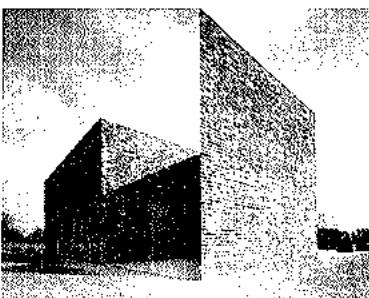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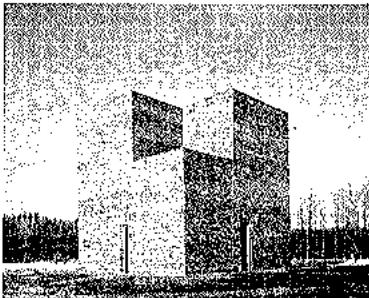


들을 발표하고 있는 Ingenhoven Overdiek Kahlen und Partner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생태학적 고려가 가미된 유럽의 첫 고층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는 Essen의 RWE 타워를 비롯하여, ▶상해 Wan Xiang 국제플라자, ▶Essen 기차역 재개발 계획, ▶베를린 Lehrter Station 빌딩, ▶Hannover Expo 2000 전시홀13, ▶Düsseldorf 공항 마스터플랜, ▶Neuss Rheinland 보험사 사무실, ▶한국 김해 스포츠컴플렉스 설계경기 웅모안, ▶상해 과학관 등의 작품들이 게재되어 있다.

■ 레스토랑 건축

레스토랑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이윤이 높은 산업 중 3위를 차지할 정도의 큰 산업이지만, 아울러 실패율도 가장 높으며 어떠한 건축적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최근 특이한 디자인과 테마로 승부하고 있는 레스토랑 건축의 경향을 분석하면서, 영국 런던의 Putney Bridge Restaurant, 태국 방콕의 Cyberia Internet Cafe 등 대표적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Ando, Alvaro Siza, Erwin Heerich 등이 참여하고 있다.



I'architecture d'aujourd'hui

97년 9월호

건축가 특집으로 카탈로니아의 Enric Miralles의 작품들과 그의 건축관, 그리고 인터뷰가 소개되어 있으며, 독일 Düsseldorf의 Hombroich 미술관, 네덜란드 지역 고아원, Rick Joy의 스페인 Tucson 주택이 함께 다루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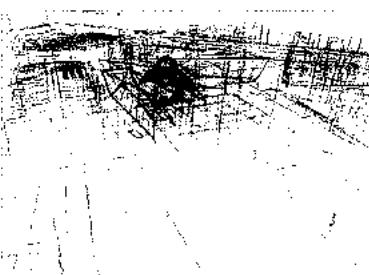


■ 독일 Düsseldorf의 Hombroich 미술관

▶예술을 자연과 조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예술 후원자 Karl Heinrich Müller에 의해 착수된 이 미술관 계획은, Hombroich의 옛 공업지역과 군사시설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조경건축가 Bernhard Korte에 의해 자연상태로 복원된 대지에는 조각가 Erwin Heerich에 의해 11개의 전시관이 삽입되었고, 각 전시관은 동일한 벽돌 재료로 건축되므로써 형태에 의한 다양한 공간감을 제시하고 있다. 인근 대지에 진행 중인 예술가 주거 및 작업실 계획에는 Tadao

■ Enric Miralles의 건축세계

▶카탈로니아 건축가 Enric Miralles는 설계 과정에 있어 단일한 목표보다는 서로 상충되는 다양한 생각들을 보존시키고 그들 사이의 대화를 가능한한 오래 지속시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극장에 대한 증축안 프로젝트에서 Miralles는 역사적, 도시적 맥락이 제시하는 선물, 프로그램 자체의 요구, 건물군 연결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것이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형태를 수용하였다. ▶그의 Igualada 묘지는 1985년에 착공하여 아직 진행중인 작품으로, “경관과 망각과의 관계 맺기”라는 묘지에 대한 그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



덴마크 코펜하겐의 왕립극장 증축안 프로젝트

■ 기타

▶사회적 메시지가 강한 작품들을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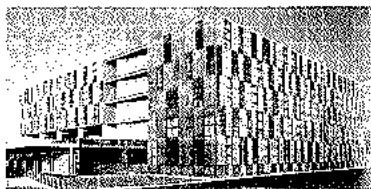


Miralles의 Igualada 묘지

하고 있는 사진작가 Allan Sekula, 설치 예술가 Chris Burden의 작품세계, ▶노르웨이 건축가 Hans Olav Hesseberg와 Sixten Rahlff의 네팔 카트만두 지역 고아원, ▶Rick Joy의 스페인 Tucson 주택, ▶반투명, 유선형의 형태적 특성을 추구하는 디자이너 Ross Lovegrove의 제품 등이 소개되어 있다.



파리 센느 강변의 ZAC 공동주거지역 중 Philippe Gazeau와 Francis Soler의 작품



Bertrand Bonnier의 Reims 농경연구센터

건축의 재료가 갖는 성질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는 건축물들을 주제로 다양한 사례들을 계재하고 있으며, 인테리어 건축에서는 Richard Rogers의 신작을 소개하고 있다.



■ 재료의 물성

건축에 있어서 사용되는 재료는 공간에 앞서 그 사용자와 직접적으로 관계를 맺는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성이다. ▶플라스틱이라는 가장 현대적인 재료를 사용한 Behnisch, Behnisch & Partner의 독일 Dresden St. Benno Gymnasium 유아원, ▶이와 반대로 나무와 벽돌이라는 전통적인 재료를 사용한 Carl-Viggo Holmebakk의 노르웨이 Oslo 정원 관리소, ▶아연도금한 철판을 이용한 Schulitz+Partner의 독일 Brunswick 응용 미세전기학 협회, ▶목재를 새로운 방식으로 사용한 Gregory Burgess Architects 오스트레일리아 Victoria Eltham 도서관, ▶전통적인 석조를 채택하므로써 일반화된 콘크리트 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Ahmet Igdirigil의 터키 Bodrum Gökçebelen 주택 등을 다루고 있다. 그 이외에 재료의 특성을 잘 살린 모범적인 예들로 ▶Elliott+Associates

I'ARCA

97년 10월호

근래 건축계에 대한 다방면의 공헌이 인정되는 프랑스 건축의 근작들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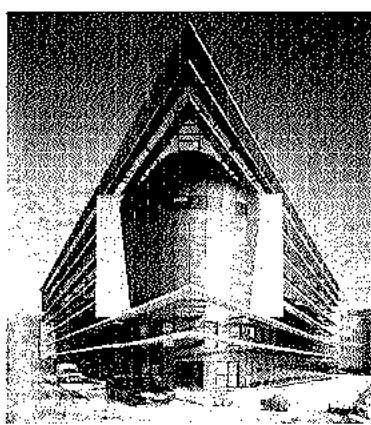


■ 프랑스 근작소개

20세기 건축계에 있어서 프랑스는 그것이 건설한 건축의 양과 질 뿐만 아니라, 건축을 사회적 현상으로 변형시키고, 학계의 수중에서 벗어나게 했으며, 그 사회적 가치를 미학적 가치보다 앞에 위치시켰다는 점에서도 큰 의미를 갖는다. 현재 프랑스에서 완공된 프랑스와 국외 건축가들의 작품들을 살펴보았다.

▶파리 센느 강변의 ZAC 공동주거지역 중 Philippe Gazeau와 Francis Soler의 작품, ▶1996년 파리 행정관 교육부에서 주체한 고등학교 설계 경기에서 당선된 Chemetov + Huidobro의 작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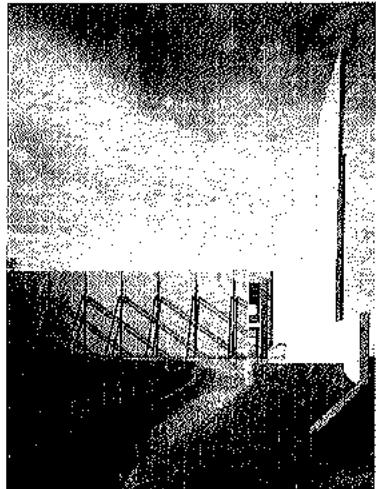
과 Bruno Jean Hubert의 계획안, ▶구조기술자이자 교량 설계자였던 Marc Mimram의 파리 Boulevard Barbès 주상복합 건물, ▶Christian de Portzamparc의 Boulogne Billancourt 사무실 건물군 계획안, ▶파리 근교 Clichy에 있는 Massimiliano Fuksas의 공동 주거, ▶Andrea Bruno의 프랑스 Nîmes Vauban 대학교 캠퍼스 재개발 계획, ▶Jean Lovera의 Grenoble 미래 대학, ▶Bertrand Bonnier의 Reims 농경연구센터, ▶Hélène Fricout-Cassignol의 Saint-Denis 연회장을 다루고 있고, 아울러 프랑스의 도시들에서 신축되고 있는 법원 건물들의 예로 ▶Olivier Brenac과 Xavier Gonzalez의 Montereau 법원, ▶Architecture Studio의 Caen 법원, ▶Claude Vasconi의 Grenoble 법원 등이 소개되어 있다.



Architecture Studio의 Caen 법원



Behnisch & Partner의 독일 Dresden St. Benno Gymnasium 유아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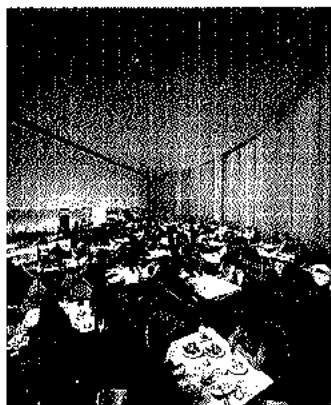


Elliott + Associates Architects의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 본부

Architects의 미국 오클라호마 시티본부, ▶Jose Antonio Martínez Lapena and Elías Torres Tur의 스페인 바르셀로나 수영장, ▶Jo Noero Architects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영화제작사, ▶Hanne Kjærholm의 덴마크 Fyn Odense 전시관, ▶Massimiliano Fuksas의 프랑스 Limoges 법학관 증축관, ▶RFR의 프랑스 Orléans 새사육장이 소개돼 있다.

■ 인테리어 디자인

▶19세기 소방서를 개조하여 빛으로 충만한 주거공간으로 만든 Simon Conder Associates의 영국 런던 주거, ▶선박 내부를 재현한 Antonello Boschi Architects의 이탈리아 Follonica 레스토랑 및 나이트클럽, ▶Richard Rogers Partnership의 일본 동경 피자 레스토랑 등이 소개되어 있다.



Richard Rogers Partnership의 일본 동경 피자 레스토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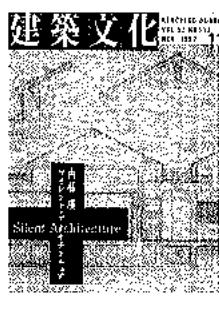
■ 기타

▶텍토닉의 민주화에 대한 에세이, ▶Calcutta의 Howrah 교량에 대한 에세이, ▶일본인들의 전통적인 도시공간 인식에 대한 분석 등이 게재되어 있다.

建築文化

97년 11월호

이번 호에서
는 특집으로
일본의 건축
가 나이토 하
로시(内廣)
의 8개의 작
품이 소개되
었다. 본 호



에 소개된 작품들은 자신의 건축관을 Silent Architecture로 표현하고 있는 나이토 하로시의 최근작들이다. 이 외에 연재물로 「미스 반 데르 로에 전장」의 제4회 분이 실렸다.

■ 특집 - 나이토 하로시

▶Silent Architecture

나이토 하로시는 1950년생으로 1981년 독립하여 작업을 하고 있다. 그는 Silent Architecture라는 말로 자신이 건축관을 정리하고 있다. 그가 이야기하는 Silent Architecture란 건축을 거쳐 가는 인간의 다양한 활동을 묵묵히 수용하며 유일하게 그 존재를 소멸시킬 수 있는 시간에 대향해 건축이 가진 힘을 드러내기 위해 그가 추구하는 가치를 말한다. 그의 말을 인용하면, “사람이 사용하기를 중단한 폐허에는 조용함이 있습니다. 건물은 시간의 흐름에 침식되어질 운명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대항하는 것이 건축물을 세우는 의지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Silence Architecture라

는 건축의 존재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은 그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 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건축을 매체로 한 운동체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운동체는 건축에 동적인 힘을 부여합니다… 이러한 동적인 요소를 계속해서 수용하는 건축이 있다면 그것은 건축의 自然死인 폐허에 이르는 조용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Silence Architecture란 동적인 힘을 수용하면서 지탱해 내는 건축이 지난 과목하고 정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사람의 환상이나 욕망을 수용하면서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오직 시간을 향해 있는 듯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치하루 미술관



우시부카 海彩館



주택 NO. 19

▶ 작품과 작가와의 대담

소개된 작품은 치히로 미술관, 무시부카 海彩館, 주택 No. 18, No. 19, No. 20, No. 21, 갤러리 NIKI의 8개의 작품이다.

▶ 아즈미노의 치히로 미술관은 아즈미노 치히로 공원에 위치하여 이 공원과 함께 계획된 건물이다. 주위 환경과의 일체감을 갖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 이 건물은 금년 6월에 이미 소개된 바 있다. ▶ 무시부카 해채관의 설계상의 테마는 크게 두 가지이다. 건물의 주위에는 렌쯔 피아노가 설계한 거대한 다리가 건설되었다. 앞으로 세워질 건물이 이 거대하고 험려한 다리를 무시부카라는 작은 도시의 마을과 동화시킬 수 있는 매개체가 되도록 하는 것이 첫번째 테마이다. 두 번째 테마는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이고 활기찬 장소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렌쯔 피아노가 설계한 다리는 건물의 주의를 돌아 접근하여, 중앙의 상부를 가로질러 가도록 되어 있는데, 건물은 이 거대한 구조물을 완충하며 조화를 이루어내고 있다. 또한 이 지방의 산업, 어업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장소가 되고 있다.

▶ 앞선 두 건물과 마찬가지로 주택들도 대부분 목조의 구조를 현대의 철골 구조와 결합하여 일본의 전통적 분위기를 살려낸 점들이 눈에 띄고 있다.

▶ 갤러리 NIKI는 수많은 갤러리들이 운집한 도쿄의 긴자에 위치하고 있다. 유리 공예품의 전시를 위한 이 갤러리에서는 작가는 주의의 갤러리에는 없는 공간을 만들려 노력하고 있다. 갤러리의 내부는 마루로 마감된 바닥으로부터 벽에 이르기까지 목재의 마감을 사용하고 있다.

▶ 소개된 작품 외에, 작가와 대담자 타꾸 보 쿄오지와의 대담이 “풍경의 시간, 신체의 리듬” 이란 제목으로 소개되었다.

a+u

97년 11월호

이번 호의 특집은 주택으로 11작가의 작품이 하나씩 소개되었다. 소개된 작가들은 오스트리아, 필란드, 벨기에, 스위스 등 유럽권의 작가들이 대부분이다. 예세이로는 타카시 우지와의 「비앙카의 기억」이 소개되었는데 이는 「쥐세페 떼라니의 빌라 비앙카의 방문기」라는 부제가 붙여 있다.



■ 특집-주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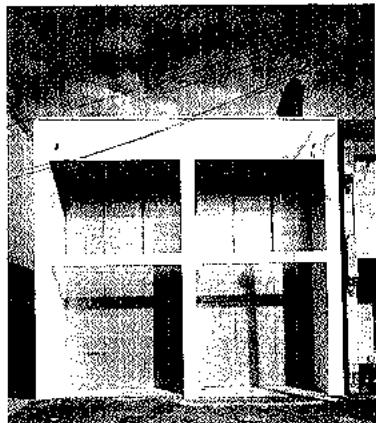
▶ Heikkinen - Komonen : Villa Eila
(말리, 기니아, 1994-1995)



이 작품은 ‘인디고 어소씨에이션’의 창설자인 아일라 키바카스의 私邸이다. 각 방들은 모두 독립성이 높은 밀폐된 공간으로 되어 있으나 방들간의 사이공간에 마련된 포치는 개방적인 공간이 되고 있다. 각 방과 그 사이 공간은 하나의 경사진 지붕면에 의해 통합되고 있으며, 바닥에는 이 지방의 여성이 만든 테라코타의 타일로 되어 있다. 파사드는 대나무를 엮어 만든 벽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아침의 일조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물의 재료는 거대한 재료의 운반을 피하기 위해 벽돌 등의 사용을 피했고 (기니아에서는 벽돌을 굽는 것이 위법이다), 근년 서아프리카제국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토질 안정법을 사용하여 건

설하였다.

▶ Engelen Moore : Price/ O'Reilly House(시드니, 오스트레일리아, 1995-1996)



이 2층으로 구성된 집이 건설된 부지의 도로에 면한 쪽에는 원래 2채의 테라스 하우스가 있었다. 따라서 地元의 평의회에서는 신축 건물이 2개의 테라스 하우스를 연상시키는 외관을 갖도록 지적하였다. 도로에 면한 건물의 정면은 수직, 수평으로 두 부분씩 분할되어 이와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 있으며 정면의 높이와 수평의 띠는 이웃한 테라스 하우스의 높이와 충구분과 일치시키고 있다. 건물의 내부도 도로에 면한 쪽은 두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그 반대쪽은 높이 6m의 커다란 공간이 형성되고 있다. 사진 스튜디오로 사용될 이 공간은 전체 공간의 스케일에 맞추어 가구의 스케일도 크게 조정되었다. 전체 예산이 부족했던 관계로 건물은 저렴한 가격의 재료들로 이루어져 있다.

▶ 세지마 카즈요 + 니시자와 료 : M-House(도쿄, 일본, 1996-1997)
이 주택은 주인 부부 둘 만을 위한 것이나, 앞으로 생길 아이를 위한 방과, 손님 접대와 파티가 많은 것을 감안하여 커다란 거실과 게스트 룸을 두도록 계획되었다. 부지 주변의 건물들이 남쪽에 면한 도로를 향해 커다란 개구부를 갖고도 프라이버시의 문제로 개구부를 가리고 사는 점에 착안하여 부지 전체를 지하로 파고 광장을 두어 빛을 도입하고 있으며, 도로면에 접한 남측면은 개구부를 두지 않아 쾌적하면서도 프라이버시가 유지되

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주택 내부에서도 광장을 통한 공간의 수평적 분할과 층 구분에 의한 공간의 수직적 구분을 통하여 공적이고 개방된 공간과 사적이고 폐쇄된 공간의 구분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M House

들의 발전은 멈추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각지에서 건축의 수요를 창출해 내고 있다. 구미 선진 국가의 건축가들은 그들의 축적된 기술과 지식을 갖고 이들 시장에 침투하고 있다. 노먼 포스터나 시저 펠리의 활동은 익히 알려진 바이다. 본 특집은 일본도 이러한 선진국들의 대열에 참여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동남아 각지에서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한 12명의 건축가들로부터 각국의 상황에 대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조언을 듣는다. 내용은 전문가의 종합적인 분석이라기 보다는 실무 현장에서 얻은 경험에 비춘 조언 정도이나, 라오스, 싱가포르, 미얀마 등 동남아 개도국과 한국을 대상으로 실무에 있어서 구체적인 어려움과 유의사항들을 지적하고 있다. 그 외에 인도네시아, 필리핀, 대만, 홍콩, 베트남, 말레이시아, 타이, 중국에 대해서도 간략한 설명들을 덧붙이고 있다.

했다.” 최근 이렇게 말하는 중견 건축가들이 늘어나고 있다. 저가격화나 소프트웨어의 조작성의 향상으로 PC의 보급은 증가되었고 이러한 영향은 건축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반면 CAD에 대해서 강한 반발감을 가지고 있는 설계자도 적지 않다. 실제 큰 돈을 들여 시설을 마련하였으나 먼지만 타고 있는 경우도 많다. 그러나 전체적 추세를 생각하면 도면의 디지털화가 일반화될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 맞춰 본 호의 특집에서는 현재 CAD를 공부하고 있거나 도입을 고려 중인 중견 건축가들의 의문이나 불안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 하고 있다. 기사의 내용은 먼저 5년 전의 PC상황과의 비교를 통해 현재의 시스템들의 상황을 알려주고, 이들의 현명한 도입방법 및 초보자가 알아두어야 할 기초적인 사항들을 소개해 주고 있는 정도이나, 실무에 있어서 자주 발생되는 문제들과 이들의 해결법 등을 소개하고 있다.

NIKKEI ARCHITECTURE

97년 11월 3일자

11월 3일자에서는 특집으로 아시아 건축시장에의 진출을 위해 동남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소개한 '아시아로 뛰어들어라'가 마련되었다. 작품의 소개로는 삿뽀로 콘서트홀(홋카이도 개발 컨설팅 턴트), 카이호 소학교(하세가와 이쓰꼬 아틀리에), 니세코이 요코하마 빌딩(니혼 설계)이 소개되었다.



■특집 - 아시아로 뛰어들어가라
최근 동남아시아의 경제 위기가 거론되고 있으나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들 국가

NIKKEI ARCHITECTURE

97년 11월 17일자

이번 호에서는 특집으로 늘어나는 CAD의 사용량에 따라 뒤늦게 컴퓨터를 이용한 설계를 시작하는 중견건축가들을 위해 '지금부터 배우는 PC를 이용한 설계'가 소개되었다. 케이스 스터디로는 병원 건축에서 열려진 공간 계획을 다루고 있다.



■특집 - 지금부터 배우는 PC를 이용한 설계
'뛰쳐지지 않으려고 CAD의 공부를 시작

■케이스 스터디 - 개방된 진료소

병원 건축에서 대합실이나 치료실의 공간을 개방적으로 만들어 환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키려는 노력을 살펴를 들어 소개하고 있다. 마사시의 진료소는 병원의 내부공간 뿐만 아니라 외부의 공간에도 개방된 느낌을 주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和자과 의원은 넓은 정원을 마련하고 이에 연한 진료실의 벽을 모두 유리로 개방하여 환자들이 정원의 녹지를 바라보며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 statistics

설계도서신고현황

97년도 10월분

종합평가

가. 전년동월비

전년도 10월분 1천1백5십9만4천6백1m² 보다 6.2%(7십1만4천5백60m²) 감소한 1천8십8만41m²의 실적을 보임.

나. 전년동기비

전년도 10월 누계 9천8백4십1만7천24m² 보다 2.0%(1백9십8만3천1백17m²) 증가한 1억4십만1백41m²의 실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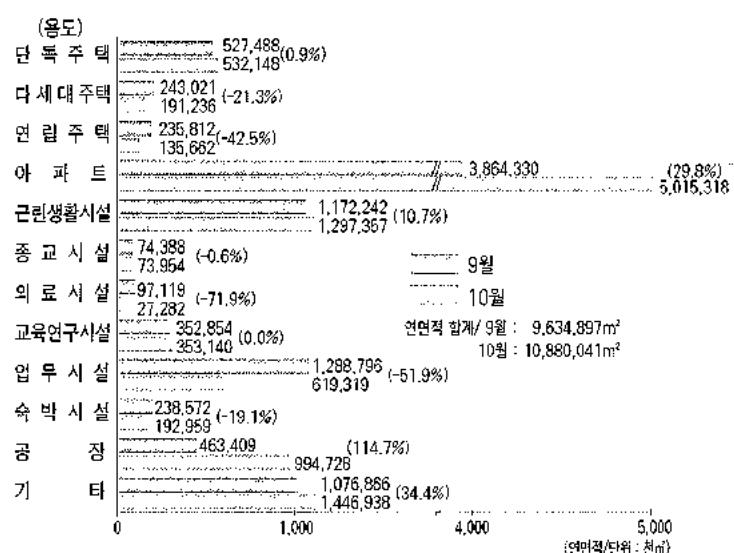
다. 전월비

전월 9월분 9백6십3만4천8백97m²보다 12.9%(1백2십4만5천1백44m²) 증가한 1천8십8만41m²의 실적을 보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증감현황

구 분		1996년도	1997년도	증 감	(단위/m ²)
증가지역	대 전	91,213	213,577	122,364	134.2%
	울 산	0	315,698	315,698	—
	충 남	147,943	337,638	189,695	128.2%
	전 북	129,241	476,800	347,559	268.9%
	전 남	100,652	111,890	11,238	11.2%
	경 북	381,915	705,506	323,591	84.7%
	제 주	48,133	59,318	11,185	23.2%
	합 계	11,594,601	10,880,041	(714,560)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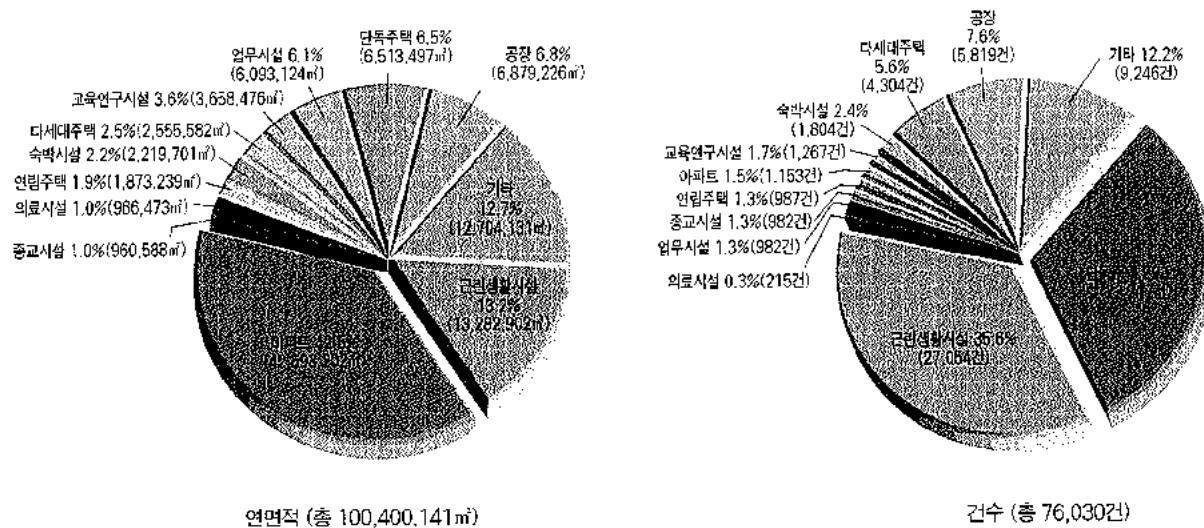
용도별 전월대비 증감현황(연면적 기준)



용도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 분	1996년			1997년			대 비			연면적 비율(%)	비 고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건 수	동 수	연면적		
단독주택	2,528	2,596	734,358	1,896	1,972	532,148	(632)	(624)	(202,210)	-27.5	
다세대주택	451	488	230,100	330	352	191,236	(121)	(136)	(38,864)	-16.9	
연립주택	117	122	276,473	91	95	135,662	(26)	(27)	(140,811)	-50.9	
아파트	122	335	5,715,144	135	226	5,015,318	13	(109)	(699,826)	-12.2	
근린생활시설	2,550	2,669	1,156,437	2,774	2,839	1,297,357	224	180	140,920	12.2	
종교시설	93	118	111,585	121	136	73,954	28	18	(37,631)	-33.7	
의료시설	11	11	42,209	13	14	27,282	2	3	(14,927)	-35.4	
교육연구시설	124	145	265,145	137	149	353,140	13	4	87,995	33.2	
업무시설	120	133	463,117	103	111	619,319	(17)	(22)	156,202	33.7	
숙박시설	144	160	151,681	166	182	192,959	22	22	41,278	27.2	
공장	661	879	867,563	564	709	994,728	(97)	(170)	127,165	14.7	
기타	1,097	1,265	1,580,789	1,039	1,147	1,446,938	(58)	(118)	(133,851)	-8.5	
합 계	8,018	8,911	11,594,601	7,369	7,932	10,880,041	(649)	(979)	(714,560)	-6.2	(-)マイナス

용도별 구성비(1997년 10월 누계)



지역별 전년동월대비 현황(10월분)

구분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1,930	1,931	6,222,885	1,228	1,230	5,966,380	(702)	(701)	(256,505)	-4.1	
부산	523	718	499,638	314	445	277,274	(209)	(273)	(222,364)	-44.5	
대구	449	449	1,072,524	266	267	432,279	(183)	(182)	(640,245)	-59.7	
인천	290	324	557,587	268	271	477,048	(22)	(53)	(80,539)	-14.4	
광주	253	308	146,856	191	236	134,637	(62)	(72)	(12,219)	-8.3	
대전	192	202	91,213	198	198	213,577	6	(4)	122,364	134.2	
울산	0	0	0	491	519	315,698	491	519	315,698	—	
경기	1,406	1,602	972,380	1,205	1,379	734,798	(201)	(223)	(237,582)	-24.2	
강원	418	456	127,713	362	392	114,695	(56)	(64)	(13,018)	-10.2	
충북	345	494	560,081	386	427	156,288	41	(67)	(403,793)	-72.1	
충남	338	277	147,943	415	356	337,638	77	79	189,695	128.2	
전북	234	234	129,241	779	779	476,800	545	545	347,559	268.9	
전남	312	332	100,652	212	232	111,890	(100)	(100)	11,238	11.2	
경북	416	516	381,915	335	378	705,506	(81)	(138)	323,591	84.7	
경남	786	928	535,840	566	653	366,215	(220)	(275)	(169,625)	-31.7	
제주	126	140	48,133	153	170	59,318	27	30	11,185	23.2	
합계	8,018	8,911	11,594,601	7,369	7,932	10,880,041	(649)	(979)	(714,560)	-6.2	()=마이너스

지역별 전년동기대비 현황(10월 누계)

구분 건축사회	1996년			1997년			대비			연면적 비율(%)	비고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건수	동수	연면적		
서울	23,260	23,314	47,334,062	13,023	13,072	44,887,131	(10,237)	(10,242)	(2,446,931)	-5.2	
부산	6,702	8,997	8,481,355	4,508	6,929	10,753,609	(2,194)	(2,068)	2,272,254	26.8	
대구	7,284	7,328	6,835,598	4,535	4,540	5,900,162	(2,749)	(2,788)	(935,436)	-13.7	
인천	3,409	3,485	3,841,900	2,782	2,832	4,710,017	(627)	(653)	868,117	22.6	
광주	2,849	3,375	2,174,406	3,170	3,593	2,030,503	321	218	(143,903)	-6.6	
대전	2,807	2,854	1,579,609	2,530	2,561	1,742,866	(277)	(293)	163,257	10.3	
울산	0	0	0	805	842	499,290	805	842	499,290	—	
경기	16,896	18,548	10,492,260	14,695	16,559	10,319,055	(2,201)	(1,989)	(173,205)	-1.7	
강원	4,291	4,675	1,690,590	4,385	4,779	1,861,481	94	104	170,891	10.1	
충북	3,733	4,264	2,471,385	4,109	4,854	2,987,659	376	590	516,304	20.9	
충남	3,045	2,658	1,781,432	3,373	2,733	2,233,219	328	75	451,787	25.4	
전북	2,177	2,179	1,520,058	2,666	2,666	1,926,329	489	487	405,271	26.7	
전남	2,979	3,291	1,379,247	2,891	3,118	1,579,266	(88)	(173)	200,019	14.5	
경북	4,242	5,209	2,375,700	3,864	4,272	2,511,805	(378)	(937)	136,105	5.7	
경남	9,026	10,356	5,780,454	7,177	8,363	5,800,280	(1,849)	(1,993)	19,826	0.3	
제주	1,449	1,594	678,998	1,517	1,679	658,469	68	85	(20,529)	-3.0	
합계	94,149	102,127	98,417,024	76,030	83,392	100,400,140	(18,119)	(18,735)	1,983,117	2.0	()=마이너스